장편소설

생의 속삭임

류원규

평양출판사
주체107(2018)년

처음이야기

쿵, 쿠궁!―

삼복의 찌는듯 한 더위를 간신히 넘기고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달아올랐던 몸을 식히고있던 대지는 남쪽에서 들려오는 포소리에 꿈틀 놀랐다.

그바람에 중천으로 황급히 날아오른 령험한 까마귀들은 머지않아 들이닥칠 불길한 조짐을 예고하듯 소란스럽게 울어댔고 그에 련쇄반응을 일으키듯 활엽수들도 황이 들지 않은 잎사귀들을 성급하게 떨구었다.

돌연 어디선가 말발굽소리가 들려오더니 산릉선밑으로 우불구불 뻗어간 길우에 세필의 군마가 불쑥 나타났다.

《쩌!― 쩌어!―》

상체를 잔뜩 구부리고 말을 짓모는 기마수들은 한명의 군관과 두명의 전사였다. 어디서 떠났고 또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들의 군복은 금방 물에서 건져낸것처럼 흠뻑 젖어있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선 세 기마수가 남쪽으로 질풍처럼 내달리는데 갑자기 머리우에서 우르릉― 우르릉― 하는 발동기소리가 들려왔다.

《련락군관동지, 적기입니다!》

군관의 뒤를 따르던 다부진 몸집의 중사가 다급히 알려주었다.

힐끗 상공을 쏘아본 련락군관은 목쉰 소리로 명령하였다.

《계속 달릴것!》

주인들의 불같은 독촉을 받은 군마들은 주둥이에 허연 거품을 부그그 끓이며 죽어라 하고 내달렸다.

그때 한대의 적기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마냥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귀를 멍멍하게 하는 아츠러운 발동기소리, 마구 뒤흔들리는 땅…

네굽을 안고 달려가는 군마들의 뒤에서 누런 먼지가 타래쳐올랐다.
별안간 적기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뿜어나왔다.
뚜루룩, 뚜루룩!ㅡ
적탄은 기마수들의 머리우를 스쳐지나 그들이 지나온 땅에 푹푹 박혔다.
실패한 적기는 기마수들을 거대한 그림자로 뒤덮었다가 아직도 길우에 떠도는 먼지를 들쓰며 공중으로 솟구쳐올랐다.
앙갚음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다른 적기가 달려들었다.
앙, 앙!ㅡ
기마수들과 적기가 부딪칠듯 가까와졌을 때 비행기의 배때기에서 시꺼먼 쇠공 같은것들이 뚤렁뚤렁 떨어졌다.
쾅, 콰광!ㅡ
평평하던 땅이 갈기를 일으키며 곤두섰다.
뜨거운 열풍, 숨막히는 화약내, 공기를 썰며 날아다니는 파편…
순간 기운차게 달리던 공골말이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뿌려졌다.
《와!ㅡ 와아!ㅡ》
서둘러 말을 멈춰세운 두 기마수는 갈기갈기 찢어진 말의 시체옆에 쓰러져있는 전우한테로 달려갔다.
그러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전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인철동무!… 인철이!ㅡ》
두눈도 감지 못한 전사를 와락 끌어안은 중사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만하오!》
옆에서 날아온 격한 목소리에 중사는 가까스로 울음을 멈추었다.
《임무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부르짖는 련락군관의 두눈에서도 눈물이 끓고있었다.
잠시후 산릉선에 전우를 안장한 그들은 또다시 적기의 래습을 물리치며 무섭게 달려갔다.

제 1 장

1

잔등에 배낭을 메거나 보짐을 머리우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울창한 수림속을 헤치고있었다.
일행은 스무명가량 돼보였는데 이마에 광목수건을 질근 동인 중늙은이도 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총각애도 있었다. 그리고 노루꼬리만큼 짧은 행렬뒤에는 배가 남산만 한 임신부가 뚱기적뚱기적 따라가고있었다.
가둑나무들이 허리를 치는 산등성이에 올라선 일행은 《나 다리 아파!》 하는 애된 말소리가 들려오자 무춤무춤 멈춰섰다.
사람들의 눈길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칠것처럼 아래입술을 비죽거리고있는 대여섯살 난 총각애한테 쏠렸다.
《에구, 어른들도 힘든데 어린것이 오죽하겠어요?》
《그럼 어디에 맡기고 올게지.》
《애엄마가 잘못되였는데 누구한테 맡긴다는거예요?》
《허, 그렇지.》
다들 입을 쩝쩝 다시는데 한손에 보퉁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총각애의 손목을 잡고있던 젊은 남자가 슬슬 아이를 얼렸다.
《우리 영남이 용치. 아까처럼 또 노래를 부르렴.》
《싫어, 싫어.》
처음 산길을 떠났을 때는 재미나서 제법 뜀박질까지 하더니만 이젠 어지간히 맥을 뽑았는지 땅바닥에 폴싹 주저앉은 총각애는 작은 주먹으로 무릎을 콩콩 두드렸다.
애처로운 눈길로 아들애를 바라보던 총각애아버지는 할수 없었던

지 등을 돌려댔다.
《자, 업혀라!》
총각애는 기다렸던듯이 아버지의 넙적한 잔등우에 깡충 뛰여 올랐다.
《꼭 붙잡아라.》
《야, 좋다!》
환성을 올린 총각애는 아픈 발로 험한 산속길을 걷지 않게 된것이 너무 좋아서 발쭉발쭉 웃었다.
총각애를 얼리느라 잠시 멈춰선 틈에 다리쉼을 한 사람들은 또다시 터벅터벅 걷기 시작하였다.
귀청을 찢는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진것은 그때였다.
따쿵, 따따쿵—
뚜룩, 뚜루룩!—
졸지에 당한 일이여서 사람들은 물웅뎅이에 모인 싸그쟁이마냥 와글거리기만 하였다.
그러는데 앞쪽에서 처녀의 당돌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엎드리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땅우에 넙적넙적 엎드렸다.
핏, 핏핏—
부러진 나무가지들이 뚝뚝 떨어지고 바위를 때리고 튀여난 탄알들이 바싹 마른 가랑잎우에 떨어져 그물그물 연기를 피워올렸다.
《여러분!》
겁을 먹고 땅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쳐들었다.
방금전 엎드리라고 소리친 처녀가 자신감이 넘치는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이제 구령을 치면 저기로…》
사람들은 그가 손짓하는 동쪽수림에 눈길을 모았다.
《…냅다 달려가세요. 자, 하나둘… 뛰자요!》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난 그들은 둥지를 벗어난 새들마냥 와르르 달려갔다.
뒤미처 총탄들이 쏟아졌으나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한 혼성림은 든든한 몸으로 피신자들을 막아주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여가던 사람들속에서 한 녀인이 무엇에 발을 걸채였는지 앞으로 넘어지며 보기 흉하게 나딩굴었다.
《에구머니!》
죽음이 발뒤축을 바싹 물고 따라오는지라 누구도 임신부가 넘어진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통에 혼자 떨어진 녀인은 두팔을 땅에 뻗치고 움씰움씰 모지름을 썼지만 종시 일어나지 못하자 울상을 지었다.
따쿵, 따따쿵—
앞쪽에서 총탄이 날아들자 임신부는 창황중에도 불룩한 배를 두손으로 감쌌는데 비록 자기는 죽는다고 해도 배속의 아이만은 살리고싶은 모성의 본능이 공포에 질린 눈동자에서 번뜩이고있었다.
《아주머니!》
사람들이 죽기내기로 사라진 수림속에서 단발머리처녀가 총알처럼 달려나왔다.
영낙없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있던 녀인은 처녀를 보자 그만에야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정, 정치공작대원동무, 흐흑!—》
정치공작대원! 그렇다. 대오에서 떨어진 임신부를 찾아 되돌아온 단발머리처녀는 ㅅ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정치공작대로 파견되였던 한정아였다. 그는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자기를 따라나선 마을사람들과 함께 북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아주머니, 이러고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내 손을 잡아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임신부를 일으켜세운 한정아는 질질 끌려오는 그를 데리고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숲속을 향하여 힘겹게 걸어갔다.

안깐힘을 다하여 겨우 숲속에 들어선 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는데 앞쪽에서 한 남자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한정아는 임신부를 부축한채 한팔을 쳐들었다.

《아저씨, 어딜 가세요?》

《저기 내 배낭이… 배낭이…》

그 사나이가 가리킨 곳은 좀전에 한정아네가 엎드려있던 곳이였다.

아마 혼맹이가 빠져 뛰여가다가 그만 나무가지에 걸려 배낭이 벗겨진 모양이다.

《정신있어요?》

하지만 처녀의 팔을 뿌리친 사나이는 마구 뛰여갔다.

《서분아주머니, 이젠 저쪽으로 가세요.》

임신부를 숲속으로 떠밀어보낸 한정아는 오던 길을 되돌아 달려가며 소리쳤다.

《아저씨, 돌아서세요.》

배낭에 온 정신이 쏠린 사나이는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다.

도무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같지 않다.

숨이 턱에 닿아 뛰여간 한정아는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찾기라도 한듯 배낭을 정히 어루만지는 그를 보자 억이 막혔다.

《뭘 하고있어요? 빨리 피하지 않구.》

그 경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앙칼진 소리를 지르며 날아든 총탄들이 주위에 푹푹 박혔다.

《어구구!》

한정아는 어물거리는 그의 손을 와락 잡아당겼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그제야 사나이는 황황히 일어나더니 배낭을 둘러멨다.

《자, 어서 뛰자구.》

한정아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기때문에 지체되였는데 오히려 제편에서 재촉하고있으니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해야 하는가.

그를 데리고 안전한 숲속으로 들어선 한정아의 눈앞에 며칠전의 일이 불쑥 떠올랐다.

그날 일행은 경사급한 산릉선을 오르고있었는데 맨뒤에서 게사니걸음을 하고있던 서분이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살거렸다.

《아까부터 수상한 남자가 우릴 계속 따라와요.》

뒤를 돌아보자 웬 사나이가 스무발자국정도 간격을 두고 어기적어기적 따라오고있었다.

서분이더러 잠간 서있으라고 이른 한정아는 사나이를 향해 마주 걸어갔다.

수풀을 헤가르며 돌진하듯 걸어오는 처녀를 보자 그 사나이는 기가 질렸는지 무춤 멈춰섰다.

《아저씬 누구세요?》

《…》

《어째서 우릴 따라오는거예요?》

《…》

사나이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것을 본 한정아는 그가 귀를 듣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인지 수상한 사람이라는 경계감은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갈마들었다.

할수없이 그는 사나이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손시늉으로 물었다.

사나이는 배낭을 훌쩍 추스르더니 석쉼한 목소리로 《난 북으로 가는 길일세.》 하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아이참, 난 또 벙어리인줄 알았네.

금시 터져나오는 쓴웃음을 목구멍으로 삼켜버린 한정아는 다기차게 재촉하였다.

《그럼 떨어지지 말고 바싹 따라오세요.》

그가 따라서는것을 본 한정아는 서분이를 부축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몇걸음도 옮기기 전에 뒤에서 《어구구!》 하는 비명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그 사나이가 풀숲에 떨어진 배낭을 움켜잡고 이리저리 살피고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예요?》

그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끙끙거리기만 하였다.

《제가 도와드릴가요?》

갈고리눈을 치뜬 사나이는 처녀의 손을 툭 밀어버렸다.

한정아가 무안해하는데 옆에 있던 서분이가 살그머니 손을 잡아끌었다.

《그냥 가자요. 싫다는데.》

한정아도 속이 좋지 않았지만 듣기 좋게 일렀다.

《우린 먼저 가겠어요.》

사나이는 끊어진 배낭끈을 잇느라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한동안 걷다가 혹시나 하고 돌아보니 그는 아까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느릿느릿 따라오고있었다. …

도대체 배낭속에 무슨 《보물》이 있기에 늘 말썽을 일으킬가?

앞으로 짬이 생기면 꼭 알아봐야겠다고 한정아는 생각하였다.

2

고요한 정적속에서 태평스레 조을고있던 수림이 벌컥 뒤집혔다.

헉헉거리는 숨소리,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 엄한 구령소리…

수림은 결코 예고없이 나타난 래방자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다.

깔끔한 침엽수들은 바늘처럼 뾰족한 잎사귀를 쳐들고 사람들의 얼굴과 목덜미를 콕콕 찔렀고 잡관목은 그들의 정갱이에 매달려 요동쳤다.

앞에 나무가 있건 바위가 있건 숲속을 꿰지르며 곧추 달리는 련대의 선두에 키가 후리후리한 고급군관이 서있었다.

나이는 스물대여섯살쯤 나보이고 적들의 81미리박격포탄도 뚫지 못할만큼 앞가슴이 든든한데 그가 바로 지난해 5월초 《국군》 한개 대대를 이끌고 공화국으로 의거한 표무강이다.

그때로부터 한해가 지난 오늘 그는 몰라보게 변하였다.

평양에 입성할 당시 시민들의 환대를 받고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던 이전 《국군》소령의 어깨우에는 인민군상좌견장이 무게있게 달려있고 포연에 끄슬린 길쑴한 얼굴에도 로숙한 지휘관의 위엄이 어려있었다.

…한주일전 경상북도 안강계선에서 련대를 지휘하던 표무강은 련대정찰로부터 린접부대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곳에 련대만 남았다는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생각이 착잡해졌다.

이틀전부터 련대는 전선사령부와의 련계가 두절되였다. 무선수들이 《대동강》을 찾고 또 찾았으나 종무소식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어째서 《대동강》은 호출에 응하지 않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건 아닐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 중대한 변화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정찰소대장이 돌아가자 그는 구분대장들을 호출한 다음 공병들이 통나무와 포탄상자를 뜯어서 만든 군용책상주위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혹시 적들을 포위환에 끌어들이기 위한 아군의 전술적후퇴가 아닐가? 아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한텐 아무 련락도 없는가? 설마 《대동강》이 우리 련대를 잊은건 아닐가?

구분대장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있을 때 웬 낯모를 군관이 비칠거리며 엄페부에 들어섰다.

머리에 둘둘 감은 붕대, 온통 피칠갑을 한 군관복…

《동문 누구요?》

《전선사령부… 련락… 군관입니다.》
《련락군관이라구?》
반가운 나머지 표무강은 련락군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련대장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련대를 찾아오던 길에…》
힘들게 대답하던 련락군관은 더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풀썩 주저앉았다.
《아니, 련락군관동무!》
표무강은 그를 부축하여 감시창과 면하고있는 통나무침대에 눕혔다.
《…적들을 만나서 그만… 같이 오던 동무는 전사하고 나만…》
자기를 엄호하느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싸우다 희생된 전우를 그려보듯 련락군관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동안에도 그의 앞가슴은 피로 물들고있었다.
련락병이 품속에 개인붕대를 통채로 밀어넣었으나 피는 멎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다.
붕대를 또 꺼내드는 련락병을 손짓으로 제지시킨 련락군관은 힘들게, 그러면서도 조급하게 말을 이어갔다.
《련대장동지, 즉시 후퇴하라는… 전선사령부 명령입니다.》
《뭐요, 후퇴?》
표무강의 얼굴은 조각처럼 굳어졌다.
이제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어째서 적들이 전에없이 기승을 부리며 달려들었는지, 어째서 린접련대가 종적을 감추었는지. 아, 분하구나. 부산을 코앞에 두고 후퇴하다니…
《미안합니다. 늦어서… 련락군관들이 파견되였지만 모두 도중에… 그래서 제가 세번째로…》
띠염띠염 말하던 련락군관은 그 어떤 촉박감을 느꼈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한마디한마디 피를 토하듯 이어나갔다.
《전선사령부는… 련대가… 최고사령부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표무강은 련락군관의 피묻은 손을 꽉 부여잡았다.
《알겠소.》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련락군관은 초조한 눈빛으로 표무강의 옆에 서있는 대좌를 찾았다.
《련대장…동…지…를… 잘…도와…》
비록 마지막말은 그의 입속으로 잦아들었지만 전선사령부가 자기한테 특별히 준 임무를 알아들은 대좌는 머리를 힘있게 끄덕이였다.
《마음놓소. 련락군관동무!》
그제야 푸— 하고 숨을 길게 토하던 련락군관의 눈동자가 점점 흐려지더니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련락군관동무!… 동무!》
피기가 없는 그의 얼굴에 한점의 미소가 굳어져있었다. 끝끝내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안도감이 림종의 시각을 편안하게 해준것이다.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려온 그,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고 피눈물을 뿌리며 뛰여온 사람!
련락군관동무, 걱정말구 편히 눈을 감소.
표무강은 비장한 마음을 안고 군모옆에 손을 가져갔다.
대좌를 비롯한 다른 군관들도 뒤따라 경례를 하였다.
얼마후 그들은 군용책상을 둘러싸고 모여섰다.
근면하고 책임성높은 련대공병들이 든든하게 굴설한 엄폐부안에 썰렁한 기운이 떠돌았다.
사태의 엄중성이 모두의 가슴을 얼어들게 하였던것이다.
그래서인지 군관들의 얼굴표정도 각이하였다.
표무강은 심중한 기색이였고 하관이 빠른 대좌의 얼굴은 칼칼하였다.
안경테를 매만지는 련대참모장의 기름한 얼굴에도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누구도 이 결정적인 시각에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있었다.
침묵… 침묵…
엄폐부안에 드리웠던 팽팽한 공기는 표무강의 걸걸한 목소리에 의해 깨여져나갔다.
《참모장동무, 즉시 후퇴계획을 작성하시오.》
《알았습니다.》
미구에 행군명령이 내리고 련대는 차지하고있던 진지를 남겨둔채 북으로 향하였다. …
《련대장동지!》
앞쪽에서 척후조장이 뛰여왔다.
《적들이 인민들을 추격하고있습니다.》
《련대 전투준비!》
행군중에 있던 련대는 즉시 전투대형으로 넘어갔다.

3

짧은 전투가 끝난 후 척후조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 아리잠직한 처녀였다.
얼굴이 단아하고 몸도 버들가지처럼 연연한것을 보니 고생이란 전혀 모르고 곱게 자란 귀공녀같았다.
처녀를 응시하던 표무강은 저력있는 어조로 말을 건넸다.
《난 련대장이요. 동문 누구요?》
《전 해방지구에 파견되였던 정치공작대원입니다.》
《동무가 대렬을 책임졌소?》
《네.》
《헌데 무슨 사람들이요?》
《제가 북으로 간다니까 같이 가겠다고 따라나선 마을사람들입니다. 련대장동지, 저희들을 구원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생김새를 보면 나무가지에 돋아난 새싹처럼 유약한것 같은데 맑고 또렷한 목소리에는 당돌한 기품이 느껴졌다.
처녀의 뒤에 늘어서있는 사민들을 둘러본 표무강은 명령조로 말하였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련대에 배속되여야겠습니다.》
사민들속에서 와!ㅡ 하고 환성이 터졌다.
군대와 함께 북으로 간다고 하니 이젠 한시름을 놓았다는 기색들이였다.
그러나 두눈을 살풋이 내려깔고있던 처녀가 이렇게 응답하는것이였다.
《련대장동지, 고맙지만 저희들은 걱정말고 어서 떠나십시오.》
슬금슬금 처녀의 주위에 모여든 사민들이 웅성웅성하였다.
《군대동무들하구 같이 가자구요.》
《옳수다. 우리끼리 가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겠소?》
처녀는 침착한 어조로 설복하였다.
《군인동무들은 한시바삐 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이 될순 없지 않아요. 이것도 다 인민군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자요.》
당장 련대를 따라설것처럼 윽윽하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맥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처녀는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련대장동지, 이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처녀가 자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더라면 표무강은 아무 생각없이 돌아섰을것이다. 했으나 전혀 믿어지지 않을뿐더러 지어 허망하다고밖에 할수 없는 그 말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지 않을수 없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을 액틀처럼 감싼 까만 단발머리, 한여름철 샘마

냥 시원하게 빛나는 두눈, 보기 좋게 부풀어오른 두뺨사이에 작은 산인양 오뚝 솟은 코, 꽃잎같은 입술…

남자라면 누구나 반할 미인형의 얼굴이다. 그러나 키가 별로 크지 않고 몸도 연약한 그가 선뜻 책임지겠다고 나서자 저절로 허거픈 웃음이 새여나왔다.

주위에 둘러서있던 군관들도 재미있다는듯 싱글싱글 웃으며 처녀를 지켜보았다.

근엄한 표정을 지은 표무강은 위엄있게 말하였다.

《두말말고 련대에 배속되오.》

이마우에 드리워진 한모숨의 머리칼을 귀바퀴너머로 쓸어넘긴 처녀는 반발하듯 이야기하였다.

《련대장동지, 전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련대장동지가 저에게 명령을 할 권리도 또 제가 집행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표무강은 두눈을 부릅떴다.

여태 자기한테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은 없었다. 군관들과 전사들은 련대장이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할뿐이다. 그런데…

듣기 좋게 말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어성을 높였다.

《동무, 전시하에서 사민들은 해당 관할구역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단 말이요. 알겠소?》

웬간한 처녀 같으면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 으름장에 겁을 먹고 주춤했을것이지만 처녀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당돌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순간 표무강의 눈에서 튀여나온 사나운 눈길이 산중의 호수처럼 그윽한 처녀의 눈동자속으로 날아들었다.

그러나 두터운 담벽도 단번에 뚫어버릴것 같은 그 눈길은 처녀의 눈빛에 부딪치자 도로 튀여나왔다.

또다시 표무강의 눈길이 날아들고 그러면 처녀가 맞받아치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반복되였으나 승부는 나지 않았다.

1분… 3분…

표무강의 가슴속에서 불덩이 같은것이 치밀어올랐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수천수만의 적들이 달려들어도 겁이라는것을 모르던 내가 처녀 하나 눌러놓지 못하다니.

그때 옆에 서있던 련대참모장이 나직이 귀띔하였다.

《련대장동지, 빨리 이곳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다. 총소리를 냈으니 인차 적들이 달려들것이다.

《참모장동무, 련대 출발준비!》

《알았습니다.》

련대참모장이 뛰여가자 표무강은 정면돌입이 아니라 우회전술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동무, 여긴 적후요. 어느 순간에 적들과 조우할지 모르오. 그래, 아까처럼 위험한 정황이 조성된다면 어떻게 하겠소? 저 사람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갈수 있겠는가 말이요?》

《네?》

사람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갈수 있겠는가 하는 말은 확실히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놓은것 같았다.

잠시 두눈을 깜빡이며 생각을 굴리던 처녀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좋습니다. 련대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뒤로 돌아서려는데 처녀가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헌데 조건이 있습니다.》

《?》

《혹시 도움받을 일이 생기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례사롭지 않게 울리는 그 말속에는 자기가 부탁하지 않는 이상 《사민구분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송곳같은 자존심이 깔려있었다.

표무강의 눈앞에 불현듯 고려청자기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록 아름답고 정교하지만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깨여질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감상하기만 할뿐 감히 다치지 않는다.
지금 그의 심정이 그와 비슷하였다. 첫 대면부터 만만치 않은 처녀를 무작정 휘여잡으려고 하면 바로 상상속의 고려청자기처럼 깨여질수 있는것이다.
《알겠소.》
우선우선하게 대답한 표무강은 뒤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등뒤에서 처녀가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민구분대>, 운수중대뒤에 들어서시오.》
와!-
눈동자처럼 아끼던 자동차들을 소각해버리고 사기를 잃었던 운수중대전사들은 《사민구분대》에 달려들어 저저마다 배낭과 이불보퉁이를 받아내리느라 야단법석하였다. 아버지잔등에 업혀가던 총각애도 씨름군처럼 어깨가 벌어진 하사의 어깨우로 넘겨졌다.
너럭바위처럼 펀펀하고 살집좋은 인민군대아저씨의 어깨우에 옮겨앉은 총각애는 신이 나서 엉치를 들썩들썩하였다.
《군대아저씨, 말처럼 뚜걱뚜걱 달릴수 있나요?》
《암, 있구말구.》
《그럼 한번 달려보라요.》
콤파스로 원을 그린것 같은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어린 웃음을 담은 총각애는 어린애다운 얄은꾀로 어른을 소박한 놀음에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얘, 그럼 못써.》
총각애를 인민군대한테 넘겨주고 미안해하던 아버지가 버릇없는 자식을 질책하는데 하사는 앞발을 쳐든 준마마냥 팔목을 구부린 두팔을 우로 올렸다.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라. 자, 떠난다!-》
《이랴!》
총각애의 쟁쟁한 웨침소리가 떨어지는것과 동시에 땅을 박차며 달려나간 하사는 《뚜걱뚜걱… 뚜걱뚜걱…》 하고 입으로 소리치며 뛰여갔다.
그 모양을 본 전사들은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껄껄 웃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갈고리눈을 한 사나이와 전사들사이에 심상치 않은 싱갱이질이 벌어지고있었다.
《아바이, 그러지 말구 배낭을 주십시오.》
《글쎄, 안된다니까.》
《허 참, 그 무거운걸 메고 어떻게 따라다닌다고 그럽니까?》
《별걱정을 다하는군.》
무안해진 전사들은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련대 출발!》
련대는 발차신호를 받은 렬차마냥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한정아는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질서를 잡느라고 애썼다.
《고남수아저씨, 배낭끈을 주의하세요. … 서분아주머닌 내 손을 잡으세요. 아이, 어서요!》
이렇게 되여 후날 이런저런 곡절을 산생시킨 《사민구분대》는 련대와 함께 간고한 북행길에 올랐다. 이제 련대의 앞길에 어떤 난관과 시련이 기다리고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4

전선사령부 대표 로성익은 랭담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생각할수록 표무강의 처사가 불만스러웠던것이다.

가뜩이나 늦어졌는데 사민들까지 데리고 가겠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적들한테 포위되면 그 후과를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인가. 지휘관이라면 마땅히 서뿌른 인정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어떤 정황속에서도 침착성과 랭정성을 유지해야 하는것이다.

문득 그의 얄팍한 입술이 실그러졌다.

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전선사령부를 출발한 로성익은 타고 오던 찦차가 고장나는통에 도보행군을 하다보니 여름해가 서산마루에 걸터앉았을무렵에야 표무강련대에 당도하였다.

고지를 오르기 전에 먼지묻은 군복을 탁탁 털고 가죽장화를 윤기나게 닦은 그는 군복자락을 가죽혁띠밑으로 바싹 잡아내렸다. 그리고는 마침 고지로 올라가는 전사의 안내를 받으며 련대지휘부로 향하였다.

포격을 맞은 나무들이 박격포신처럼 비죽비죽 서있는 고지릉선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3소대장동지, 주의하십시오.》

《여, 앞을 보라. 그 친구부터 넘어뜨려야 해.》

로성익은 앞에서 걷고있는 전사에게 저기서 뭣들 하는가고 물었다.

《휴식참에 구분대별 무릎씨름경기를 하고있습니다.》

《뭐요?》

전선사령부 대표의 표정이 굳어지자 공연히 싱글거리던 전사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박수소리와 고함소리, 군용밥통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쪽으로 걸어가던 로성익은 커다란 원을 짓고 둘러선 전사들을 보자 멈춰섰다.

그안을 넘겨다보니 열댓명의 군인들이 한쪽다리에 다른쪽 무릎을 올려놓고 껑충껑충 뜀박질을 하고있었다. 저저마다 제무릎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올려치거나 내려치기도 하고 혹은 온몸으로 들이받기도 하는데 그 광경에 정신이 팔린 전사들은 전선사령부 대표가 도착한줄도 모르고 응원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모두 면내의바람인데다 한데 어울려 돌아가니 도대체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전사인지 알아볼수 없었다.

로성익의 두눈이 꼿꼿해졌다.

전사들속에 끼워 무릎씨름을 하고있는 련대장 표무강을 알아본것이다.

그 역시 전사들과 마찬가지로 면내의차림이였는데 방금 옆에서 달려드는 전사의 무릎을 밑으로부터 올리쳐서 허궁 떠밀어버리고는 의기양양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흠, 련대장이라는 사람이…

쓰거운 눈길로 지켜보는데 표무강을 향해 다섯명의 전사가 와르르— 달려들었다.

제법 치렬한 무릎씨름이 벌어졌다.

몸집이 든든한 표무강은 좌충우돌하면서 상대방들을 하나, 둘 넘어뜨렸다. 그러느라니 자기뒤에서 은밀하게 다가드는 전사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련대장이 해이된 틈을 노리고있던 그 전사는 또 한명의 적수를 물리치고 흡족해서 서있는 표무강을 힘껏 들이받았다.

불의에 공격을 받은 표무강은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다가 그만에야 우습강스럽게 나딩굴고말았다.

《7대대가 이겼다아!—》

련대장을 꺼꾸러뜨린 전사들은 신이 나서 만세를 불렀다.

엉치를 툭툭 털며 일어난 표무강은 억울하다는듯 불평을 부렸다.

《여, 심판. 뒤에서 달려드는건 반칙이야, 반칙!》

유쾌한 승리자들은 비위살좋게 련대장의 주장을 물리쳤다.

《련대장동지, 그건 반칙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졌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로성익의 눈에 엄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지휘관이라면 전사들과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신이 떨어지고 나중에 지휘권을 잃을수 있다는걸 그래 모른단 말인가?

련락을 받은 표무강이 군복단추를 급히 채우며 뛰여왔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련대는 휴식중에 있습니다. 련대장 표무강.》

그를 지켜보던 로성익은 불만스러운 어조로 따져물었다.

《련대장동문 내가 도착한다는 련락을 받았소?》

《받았습니다.》

로성익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전선사령부 대표가 도착한다는 련락을 받았으면 상급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련대장동무가 꼭 무릎씨름에 참가해야겠소?》

그쯤하면 눈치를 차릴줄 알았는데 표무강은 주저없이 응답하였다.

《내가 씨름경기에 참가하니 전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로성익은 속으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무래도 안되겠군. 시작부터 신을 든든히 신겨야지.

《앞으로는 전사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걸 삼가해야겠소. 알겠소?》

《…》

《의견이 있소?》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표무강의 길쑴한 얼굴에는 불만의 기색이 력연하였다. …

그날도 느꼈지만 오늘도 역시 표무강은 무슨 일이든 랭철하게 따져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하는것 같다. 하긴 련대를 지휘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겨우 25살이 아닌가. 나도 그 나이에 붉은군대 대대장을 하면서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처럼 용감하였지만 그만큼 단순하였고 그로 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가. 내가 옆에서 잘 이끌어주자!

생각에서 깨여난 그는 표무강의 옆으로 다가서는 군관을 띄여보았다.

두달전에 새로 왔다는 문화부련대장 김흥선이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자 표무강은 대뜸 《후에 보기요.》 하고 퉁명스럽게 잘랐다.

시골농사군처럼 순박하게 생긴 김흥선은 의견이 있는지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 말없이 물러났다.

그 광경을 목격한 로성익의 눈가에 엷은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표무강과 김흥선은 사철 푸르싱싱한 참대들이 우거진 락동강가의 자그마한 농촌마을에서 함께 자란 막역지우라고 한다.

표무강이 사자같은 소년이라면 김흥선은 사슴같은 소년이였다.

그처럼 판이한 성미였지만 그들은 장난세찬 유년시절은 말할것도 없고 어깨가 쩍 벌어진 청년시절에도 언제 한번 다툰적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들은 륙군사관학교에 함께 들어갔다.

륙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군》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었는데 어느날 안해를 잃은 김흥선이 용약 북으로 의거하는 바람에 두사람은 헤여지고말았다.

표무강은 북으로 의거하자 친구의 행처부터 찾았지만 38경비대에서 근무하던 김흥선은 다른 부대로 소환되고 없었다. 그랬던 그가 문화부련대장으로 임명되여오는 바람에 두사람은 감격적인 해후를 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러한 김흥선이니 다른 군관들앞에서 고향친구와 다투고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 그런 사람이 갈범같은 표무강을 어떻게 휘여잡는단 말인가.

입을 다시며 돌아선 그는 무심결에 《사민구분대》쪽을 바라보다가 반색을 지었다.

5

《정아야!》

남쪽의 이름모를 산속에서, 그것도 군인들중에 자기 이름을 그렇듯 스스럼없이 부를 사람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한정아는 서너발자국앞에 서있는 고급군관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날 모르겠니?》

얼굴에 반가운 표정을 띠운 고급군관은 서둘러 군모를 벗더니 한발자국 다가왔다.

《나다. 성익이야. 아, 오빠라는데.》

그때에야 상대방을 알아본 한정아는 고무공처럼 몸을 탄력있게 솟구더니 앞으로 달려갔다.

《아이, 오빠!》

한달음에 뛰여간 한정아는 로성익의 두손을 부둥켜잡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오빠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로성익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그렇게 됐다.》

《정말 뜻밖이예요.》

고운 눈을 반짝이며 그의 어깨우에 달려있는 대좌견장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던 한정아는 갑자기 뾰로통해졌다.

《오빤 뭐예요?》

성을 내는 그 모습이 귀여운듯 로성익은 희미하게 웃었다.

《허, 아직도 성났니?… 내가 잘못했다.》

《흥!》

《자, 그럼 이렇게 빈다.》

로성익이 중들처럼 두손을 합장하는 시늉을 하자 한정아는 짐짓 성난척 하던 기색을 지워버리고 방긋 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어릴적부터 함께 자란 외사촌남매간이였다.

로성익은 왕잠자리를 잡아달라고 사내애들의 뒤를 우르르 따라다니는 처녀애들과 달리 산속에 곱게 피여난 꽃들을 찾아 나비처럼 팔랑팔랑 뛰여다니는 누이동생을 무척 고와하였다.

한정아도 그와 7년이라는 나이차이가 있고 가끔 신경질을 부리기는 해도 성정이 대바른 외사촌오빠를 몹시 따랐다. 무남독녀인 그에게 있어서 로성익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였으며 장난꾸러기들이 제비꽁지같은 머리를 다치려고 할 때면 번개같이 달려와 막아주군 하는 듬직한 보호자였다.

소녀는 늘 오빠곁을 맴돌았고 학교면 학교, 강이면 강 할것없이 강아지마냥 졸졸 따라다녔다.

하루는 마을뒤산으로 오르던 오빠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수풀속으로 쑥 들어갔다.

아무 눈치도 차리지 못한 소녀가 그냥 따라서는데 수풀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오지 말아!》

《왜?》

《글쎄 오지 말라는데.》

소녀는 와슬렁거리는 수풀속을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오빠, 거기서 뭘 하나?》

잠시후 수풀속에서 오빠가 바지괴춤을 춰올리며 뛰쳐나왔는데 얼굴이 수수떡처럼 빨갛게 상기되여있었다.

《이건 곱다곱다 하니까 아무데나 따라오면서…》

전혀 딴 사람처럼 변한 오빠를 보자 소녀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또 그랬단 봐라.》

큰 감자알같은 주먹을 내흔드는 오빠를 피해 뒤걸음치던 소녀는 그만 돌부리에 발을 걸채여 폴싹 주저앉았다. 그러자 목구멍까지 꼴깍 차올랐던 설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치마에 흙이 가득 묻는것도 모르고 발버둥치는 소녀를 보자 오빠는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허겁지겁 주저앉았다.

《정아야, 울지 말아. 울지 말라는데.》

그럴수록 소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높아졌는데 어찌나 슬피 우는지 자기가 흘린 눈물호수에 풍덩 빠져버릴것 같았다.

바빠난 오빠는 마을에 시주받으러 오군 하는 까까머리중처럼 두 손을 합장하였다.

《내가 잘못했어. 자, 이렇게 빌게.》

울음소리가 딱 그쳤다.

《오빠, 나 아직두 밉나?》

소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목소리는 또랑또랑하였다.

《아, 아니야. 고와.》

《헌데 왜 곱다곱다 하니까 아무데나 따라온다고 했나?》

누이동생의 질문에 오빠는 말문이 막혀 쩔쩔매였다.

《그, 그건… 그래서 잘못했다지 않니.》

《그럼 아무데나 따라다녀도 되나?》

수풀쪽을 힐끔 돌아본 오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이, 좋아!》

손벽을 짜락짜락 치던 소녀는 어째서인지 얼굴을 찡그렸다.

《왜 그러니?》

《나 다리아파.》

《오, 오. 그럼 업혀라.》

오빠가 뒤로 돌아앉으며 잔등을 내밀자 소녀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배시시 웃다가 냉큼 뛰여올랐다.

로성익에 대한 한정아의 존경과 믿음은 사춘기시절에도 변함

없었다.

당시 전문학교에 다니던 로성익은 고모네 집에 자주 찾아왔다.

한창 류행이던 《좌익소아병》에 걸린 그는 제지공장을 운영하는 고모가 외동딸을 위해 아담하게 꾸려준 방에 틀고앉아 좌익서적을 읽군 하였다.

한정아는 《국가와 혁명》이니, 《맑스주의와 폭동》이니 하는 요란한 저서를 환희에 넘쳐 읽고있는 오빠가 장해보여서 어떻게 하나 도와주려고 애면글면하였다.

하루는 외삼촌이 그의 집에 불쑥 찾아왔다.

한창 레닌의 《일보전진, 이보퇴각》을 읽고있던 로성익은 뜨락에서 들려오는 귀익은 목소리를 듣자 바빠맞았다.

《야단났구나!》

그러는 오빠의 손에서 잉어처럼 푸들거리는 책을 나꿔채여 이불짬에 밀어넣은 한정아는 아버지병을 고치려고 산삼을 구하러 떠난 착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생글생글 웃으며 옛말을 엮어나가는 누이동생을 보자 로성익은 펌박질하던 가슴이 점차 가라앉아 아버지가 《어험!》 하고 방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였니?》 하고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을수 있었다.

금싸래기같은 외아들이 위험한짓을 하지 않는가 하고 뒤를 밟았던 로성익의 아버지는 오누이가 사이좋게 옛말을 주고받고있는것을 보자 마음이 흐뭇해서 가지고 왔던 군고구마봉지를 통채로 쥐여주고 돌아갔다.

찌그덕— 하고 대문이 닫기자 로성익은 기쁜 나머지 누이동생의 손을 부둥켜잡았다.

《야, 네가 아니면 큰일날번 했구나!》

이불짬에서 《일보전진, 이보퇴각》을 꺼내준 소녀는 오빠한테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것이 기쁜듯 생긋 웃었다.

한정아는 그후에도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오빠를 슬기롭게 구

원해주군 하였다.

그러던 오빠가 온다간다 소리도 없이 연기마냥 사라졌다.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더니 아무 죄없는 한정아의 머리우에 외삼촌과 어머니의 욕설이 련이어 떨어졌다.

억울한 나머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변명하고싶은 생각이 열두번도나마 들었으나 소녀는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전부터 오빠가 책을 접어놓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머리를 두손으로 싸쥐고있는것을 보았지만 자기한테는 일언반구 없었던것이다. 보매 오빠에게는 자기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누이동생은 될지언정 허심하게 속을 터놓을만큼 믿음직한 벗은 못되였던 모양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하여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러니저러니 해도 로성익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였던것이다.

그렇게 헤여졌던 오누이가 다시 만난것은 해방후였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대학정문을 나서던 한정아는 행인들이 한 붉은군대군관을 눈짓하며 수군거리는것을 보았다.

웬 일인가 하고 그 군관을 바라보던 처녀는 두눈을 크게 떴다.

붉은군대군관은 뜻밖에 젊은 조선사람이였던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후에 일어났는데 군복상의를 활짝 열어젖히고 지나가던 붉은군대병사를 멈춰세우고 엄하게 추궁하던 군관이 《너 정아가 아니냐?》 하고 소리쳤던것이다.

오똑 굳어진 처녀앞으로 붉은군대군관이 뚜벅뚜벅 걸어왔다.

《원, 이런… 나다!》

놀라움으로 커졌던 한정아의 눈에 반가운 빛이 어렸다.

그는 몇해전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그때문에 자기가 졸경을 치르게 한 괘씸한 오빠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로성익은 좌익서적을 읽다말고 머리칼을 쥐여뜯던 어제날의 글방샌님이 아니라 름름한 붉은군대군관이였다.

몰라보게 변한 오빠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한정아는 자기의 속을 까맣게 태운 그의 팔을 더는 꼬집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여 무작정 국수집으로 잡아끄는 오빠를 따라서는것으로 오색령롱하던 사춘기시절과 순순히 작별하였다.

해방열기로 담이 커진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혼잡한 국수집에서 그들은 회포를 나누었다.

성숙한 녀대학생답게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동안에 있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누이동생을 대견스레 바라보던 로성익은 뜸을 들였다가 지나온 날들을 펼쳐보였다.

그때 그는 좌익서적을 읽을수록 케케묵은 봉건사상과 왜놈세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자라나자 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로씨야로 들어갔었다.

원동지방에서 몇해동안 로동을 하던 로성익은 쏘도전쟁이 한창이던 때 붉은군대에 입대하였고 점차 소대장, 중대장으로 승급하였다. 그후 그는 대대장으로서 와르샤와해방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였으며 쏘도전쟁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한 베를린함락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드디여 폐허가 된 국회의사당에 붉은기가 꽂히고 수년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전쟁이 끝났다.

베를린함락메달을 가슴에 단 그는 창문이 떨어져나간 어느 한 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우라!―》 하고 축배를 들었고 우아한 민족옷차림을 한 금발머리처녀들과 슈트라우스의 왈쯔곡 《아름답고 푸른 두나이강가에서》를 멋지게 추었다.

어느날 원동으로 가는 군용렬차가 빼액― 기적을 울렸다.

원동제2전선군에 소속된 로성익은 하바롭쓰크서남지역을 거쳐 저항하는 사무라이들을 쓸어눕히며 조선으로 나왔었다. …

국수집에서 헤여진 후 그는 밀진 봉창을 하려는듯 누이동생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일요일이나 명절날이면 코가 큰 부하들에게 빵과 빠다, 꿀바싸 등을 들려가지고 대학기숙사에 찾아왔고 한정아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들까지도 깐깐스레 챙겨주군 하였다.

영원할것 같던 그들의 재회는 붉은군대가 북조선에서 철수하는것

과 함께 끝났다.

로성익은 이번에도 누이동생한테 아무런 련락도 띄우지 않고 사라졌다.

오빠의 무정한 처신이 섭섭하였지만 마음씨고운 한정아는 변함없이 그를 리해해주고싶었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

《한대 피워도 일없겠니?》

누이동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로성익은 군복웃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익숙한 솜씨로 담배가치에 불을 붙인 그는 녀성들앞에서 례의를 차릴줄 아는 남자들이 항용 그러하듯 한정아쪽으로 담배연기가 날려가지 않게 손을 휘젓고나서 말꼭지를 뗐다.

…철수명령이 내리자 로성익은 제대신청서를 가지고 련대장을 찾아갔다.

련대장은 그의 이야기를 채 듣지도 않고 안된다고 딱 잘랐다.

입술을 꽉 깨물고있던 로성익은 더 조르지 않고 선선히 돌아섰다.

그날 밤 군잠에 들었던 련대장은 누군가 몸을 잡아흔드는 바람에 깨여났다.

두눈을 손으로 비비며 몸을 일으킨 련대장은 침대옆에 부동자세로 서있는 로성익을 알아보자 벌컥 화를 냈다.

《이게 무슨짓이요?》

《미안합니다. 련대장동지.》

다짜고짜 제대문건을 내미는 《침범자》를 마뜩지 않게 보고있던 련대장은 하품을 요란스럽게 하고나서 황소영각하듯 소리쳤다.

《보초, 이 동무를 당장 데려가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출입문이 활짝 열리더니 씨비리곰같은 보초가 뛰여들어 로성익을 가볍게 밀어냈다.

그는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소리없이 뛰여들어 곤하게 잠든 련대장을 깨웠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나흘째 련속 들이대는 《야간습격》에 련대장은 손을 들고말았다.

《내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동무의 열정에 탄복했소.》

며칠후 부죤느이수염을 멋지게 기른 풍채좋은 사단장이 그를 찾았다.

《동문 총명한 사람이니 우리가 철수한 후 도래할 조선반도의 정세추이에 대해 짐작할거요. 그래, 우리와 함께 가는게 어떻소? 내가 보건대 동문 인차 승급할거요. 요구한다면 내 장령복도 벗어주겠소.》

《…》

두눈을 내려깔고 서있는 로성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단장은 말머리를 돌렸다.

《듣자니 동문 <야간전>에 능숙하다던데 사실이요?》

고개를 버쩍 쳐든 로성익은 그가 보낸 공을 주저없이 받아던졌다.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쏘도전쟁시기 눈부신 야간전으로 파시스트침략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단장은 땅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만큼 든든한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하하하, 나한텐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소.》

부하들의 심리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그는 부죤느이수염을 슬슬 만지다가 로성익의 꼿꼿한 얼굴을 보자 만년필을 꺼내 주글주글한 제대신청서에 대고 멋지게 휘갈겼다.

해당한 수속을 거쳐 조국에 떨어진 로성익은 인민군대에 편입되여 복무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후 표무강련대에 파견되였다. …

《그래, 고모한테선 소식이 오니?》

로성익의 물음에 한정아는 마치 노래부르듯 즐거운 어조로 알려주었다.

《네, 보름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전선원호사업을 하느라고 눈코뜰사이가 없대요. 참, 어머니가 오빠때문에 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난것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바람에 로성익은 입안에서 빙글빙글 굴리던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 그는 한정아를 만난김에 사민들에 대하여 알아볼 생각이였다. 일단 련대장의 명령으로 그들이 련대에 배속되였지만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행동이 굼뜬 사민들때문에 련대가 늦어지는것도 문제지만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그들속에 나쁜 마음을 먹은 인간이 끼워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는가. 그런자들이 적들한테 아군의 행군방향을 알려준다면 련대는 걸음걸음 포위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이것은 련대의 존망과 관련된 심중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한정아앞에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자니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다. 자칫하면 누이동생이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을 의심한다고 좋지 않게 생각할수도 있었다.

래일이나 모레쯤 한정아를 다시 만나리라고 작정한 로성익은 이렇게 말을 건넸다.

《정아야,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라.》

《흥, 또 달아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코웃음을 치는 누이동생을 보며 로성익은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디 달아나겠니.》

《좋아요. 이번에 또 그랬다간 혼날줄 아세요.》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한정아의 가슴은 전선사령부 대표인 오빠에 대한 존경과 믿음으로 마냥 설레이고있었다.

6

보름전에 있은 일이다.

그날 방금 착륙한 수송기에서 풍채좋은 미국인이 내리고있었다.

사자갈기마냥 위엄있게 물결쳐내린 금발머리를 뒤로 쓸어넘긴 그는 감회깊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거나해진 사무라이들이 게이샤의 앙증스러운 춤가락을 즐기며 흥청거리던 빨간 벽돌집들, 거인이 주먹으로 꾹 눌러놓은것 같은 납작한 판자집들, 삐뚤서하게 서있는 전주대들…

한해전과 달라진것이란 별로 없는 땅, 떠나고싶지 않았지만 우악스러운 호송원들에게 잔등을 떠밀리워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구슬픈 땅이였다. 하마트면 지난 몇해동안 고심분투한 자기의 발자취가 이곳에서 영영 지워질번 하였었다. 그러나 끝끝내 좌절의 늪에서 헤염쳐나왔고 1년이 지난 오늘 개선장군인양 돌아온것이다.

별안간 그는 치근염을 앓는 사람마냥 얼굴을 찡그렸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돌이켜볼수록 기분나쁜 지난날이 떠올랐기때문이다.

…푹신한 마호가니침대우에서 요염한 계집을 껴안고 정신없이 딩굴다가 표무강대대가 북으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에드윈 하불은 분노하였다.

륙군사관학교에 보내주었고 《국군》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승진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었던 표무강, 머지않아 막을 올리게 될 《위대한 드라마》에서 크게 한몫하리라고 믿었던 그 《사자》가 군사분계선너머로 닁큼 가버린것이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그 다음은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맥주거품처럼 끓어올랐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교묘하게 위장한 도이췰란드간첩들을 말짱 들춰내여 미영군의 노르망디상륙작전비밀을 보장한 공로로 아이

젠하워의 특별표창까지 받은 방첩장교출신의 미군고문관이 수백명의 움직임을 그렇게도 감촉하지 못했단 말인가.

자총하고싶었지만 포기하고말았다. 결코 본토에 있는 젊고 아름다운 안해가 대양건너에서 날아든 남편의 사망통지서를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다른 사내와 재미보는것을 질투해서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 리유는…

자기가 총탄을 골통에 쏘아박고 뻐드러지면 동료들은 하불이야말로 천하바보라고 경멸할것이다. 어떤자는 싸늘하게 식은 시체를 발로 건드리며 음충맞게 웃을지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야 침을 뱉든 발로 차든 상관없지만 긍지로 가득찼던 한생을 값없이 끝장내고싶지 않았다. 그렇다. 두눈을 감고 방아쇠를 당기는것은 나약한 인간의 몸부림이다. 진짜 사나이라면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뛰쳐일어나 존엄을 지켜야 한다!

며칠후 하불은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의 호출을 받았다.

방에 들어서자 노기충천한 로버트는 침방울을 마구 튕기며 조야하기 짝이 없는 쌍욕을 한바탕 퍼붓고나서 호송병들을 붙여 도꾜행 비행기에 태웠다.

극동군사령부에 도착한 하불은 죄인취급을 받았다.

낡은 모포가 씌워진 딱딱한 나무침대가 놓여있는 작고 더러운 방이 차례졌고 식사질도 두눈이 감길 정도로 한심하였다.

상상도 못한 대접이였지만 앞선 수난자의 노린내가 배여있는 나무침대에 묵묵히 누웠고 위주머니가 불평을 터치는 저카로리식사에 익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실 그는 도꾜에 올 때 모든것 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였었다.

전쟁시기도 아니고 적아가 군사분계선을 사이두고 대치되여있는 상태에서 수백명이나 되는 무장인원이 적측으로 넘어간것은 보통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그 거사를 저지시키지 못한 미고문관의 책임은 막중하다. 입만 벌리면 《박애》와 《자유》를 떠드는 상전들이라고 해도 저들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자국민을 절대로 용

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럴바 치고는 차라리 남아답게 책임을 인정하고 군사재판도 받자. 그렇듯 당당한 최후는 관자노리에 대고 권총방아쇠를 당기는것보다 더 떳떳하며 결국 나의 인생도 무의미하지는 않으리라.

자비로운 하나님은 그가 교수대에 매달리는것을 바라지 않았으니 철직제대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하불은 안해가 있는 죠지아주로 내려갔다.

그가 집에 도착한것은 어슬어슬한 저녁무렵이였는데 쇠울타리밖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자 안해가 정신없이 달려나왔다.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듯싶은 그 정겨운 모습을 보자 하불은 코마루가 시큰거렸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준 안해는 낯선 사람을 만난것처럼 깜짝 놀라는것이 아닌가.

《당신… 당신이 어떻게 왔어요?》

《?》

상봉의 기쁨으로 설레이던 가슴이, 집에 가면 상처입은 마음이 치유되리라고 믿었던 마음이 식어들었다. 그와 함께 백설처럼 하얀 살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실내옷을 대충 걸치고 곱게 화장을 한 안해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몰라보게 변하였다는것을 알아보았다.

녀자들은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늙고 미워진다는데 남편과 몇해동안 떨어져있은 안해는 더욱 젊고 농염해졌다.

찜찜한 기분으로 응접실에 들어서자 두개의 술잔과 고급료리들이 차려져있는 식탁이 보였다.

《글쎄, 어제 꿈에서 당신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기다리던 참이예요.》

안해의 재빠른 설명을 들은 하불은 《아, 고맙소!》 하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는데 안해가 큰일이나 일어난것처럼 소리질렀다.

《아유, 당신은 그새 야만인이 다 되였군요. 어서 몸을 씻으세요.》

안해가 내주는 타올을 어깨에 걸치고 샤와실로 들어간 하불은 이

전 첩보장교의 습관이 되살아나 문틈사이로 귀를 바싹 가져다댔다.
《아써, 큰일났어요. 글쎄 남편이 돌아왔어요. … 아이참, 너무 급해말아요. 후에…》
그가 샤와실문을 벌컥 열자 바빠맞아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안해는 품에 뛰여들더니 그동안 당신이 그리워 죽을번 했노라고 아양을 떨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안해가 정부를 위해 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요정내기 시작하였다.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자 식곤이 몰려왔다.
에라, 한잠 푹 자자 하고 침대에 드러누웠는데 뒤목에 간질간질한 것이 닿았다. 몸을 반쯤 일으키고보니 짧은 갈색머리칼이였다.
쌍년!
하불은 침대우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
식탁을 거두고있던 안해가 버젓이 마주보았다.
《왜 그래요?》
도전적인 빛이 어려있는 새파란 눈동자!
입안에서 맴돌고있던 쌍욕을 억지로 삼켜버린 하불은 한잠 자겠으니 깨우지 말라고 일렀다.
안해를 등지고 누운 하불은 자기의 처지가 역겨워났다.
어제는 계급장을 뜯기웠는데 오늘은 안해한테서 배반을 당한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그 요사스러운 낯짝을 힘껏 후려갈기고싶었지만 우들우들 떨리는 손을 두무릎짬에 끼워놓고 잠재울수밖에 없었다. 미국남부의 농장주였던 부친의 유산을 넘겨받은 부유한 안해가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리혼소송을 제기하면 당장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는것이다.
다음날부터 하불은 지금까지 한번도 쥐여본적 없는 낚시대를 들고 강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온종일 낚시대를 드리우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몰골은 옆에서 보

기가 딱할 정도였으나 의지할 곳 없는 그로서는 머리우에 떨어진 불행을 묵묵히 감수하는수밖에 없었다.
기나긴 휴식은 고통이라는 말이 있다.
몇달이 지나자 안달이 난 안해는 로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냈고 이웃들은 비웃음이 어린 눈길로 그를 주시하였다.
그런 속에서 지긋지긋한 날들을 보내자니 군사재판을 앞두고 갇혀있던 더러운 감옥마저 그리워졌는데 어떤 날은 산송장으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제손으로 목을 매고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솟구치군 하였다.
그러던중 조선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처음 생각난것은 자기를 배반하고 북으로 넘어간 표무강이였다.
그자가 어떻게 되였을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던 《국군》대대장을 용서해주었을가? 그래, 그들은 표무강과 그의 부하들을 환대해주었을것이다. 혹시 표무강을 승급시켜 내세워주었을지도 모른다. 공산주의자들은 관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이런 질문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하불, 당신은 그 <유다>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불은 잠시 생각해보고 《용서해주겠소.》라고 대답하였다.
《리유는?》
《그가 <자유세계>로 돌아오면 미국이 당한 수치는 보상하고도 남기때문이요. 다시말하면 북으로 갔던 <사자>가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에 못 견디고 돌아왔다면 세계면전에서 북조선의 위상은 떨어지고 미국의 위신은 주물랑마봉만큼 올라가게 된다는거요. 그런즉 표무강을 쟁취하는건 한개 사단의 예비대를 얻는것과 같소.》
마지막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던 하불은 제풀에 쓰거운 웃음을 짓고말았다.
부정한 안해앞에서 꿀먹은 벙어리흉내를 내고있는 주제에 미국의 위신이니, 한개 사단의 예비대이니 하는따위를 떠벌이는 나야말로 얼

마나 가소로운 인간인가. 오, 하나님, 이 불쌍한 양을 구원해주옵소서. 아멘!

하루는 갑갑할 때 늘 그러하듯 낚시대를 들고 집을 나서는데 한대의 승용차가 멎어서더니 중절모를 쓴 신사가 내렸다.

《하불씨, 어쩐지 그 낚시대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구만.》

그 어조에는 조롱기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하불은 현명한 사나이들이 이런 경우 곧잘 써먹는 수법인 침묵으로 넘어갔다.

그 의중을 넘겨짚은듯 신사는 멀쑥한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띠웠다.

《난 당신에게 행운의 사다리를 놔주려고 왔소.》

이것은 명백한 구조신호였다.

누가 나에게 《행운의 사다리》를 보냈는가? 이 신사일가? 아니, 그는 한갖 사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불현듯 얼마전 집에 찾아왔던 친구가 생각났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유럽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는데 막강한 뒤배경의 후원으로 일개 륙군장교로부터 미국방성까지 출세의 사다리를 껑충껑충 뛰여오른 행운아였다.

그러고보면 세상은 두 부류의 인간 즉 행운아와 불행아로 갈라져있다.

행운아에는 월가의 억만장자들, 손짓 한번으로 수만의 부하들을 움직이는 고명한 장군들, 성공한 권력자들이 포함된다. 불행아는 뜻을 이루지 못한 출세주의자들, 위스키에 입술을 적시며 실패한 인생을 주절거리는 나약한 인간들인데 불행하게도 하불자신은 후자에 속한다.

그날 친구는 심중한 낯빛으로 물었다.

《하불, 복대하겠다고 청원할 용기는 있나?》

《없는건 아니지만 그만두겠네.》

《어째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

《음, 자넨 진짜 사나이야. 슬픈 일이지만 우리 미국에는 자네처럼 뻐대있는 남아들이 드물지. 다들 돈이 아니면 녀자엉덩이에 정신을 팔고있거던. 좋네. 행운의 사다리를 기다려보게.》

하불은 그가 찾아온것은 전우의 의리보다 하나님의 교리에 따른 자비심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귀맛좋은 이야기도 행운아가 불행아를 동정해서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주어섬기는 감언리설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런 까닭에 친구의 말을 별로 새겨듣지 않았었는데 《행운의 사다리》소리가 나오자 불쑥 그가 생각난것이다.

그의 판단은 정확하였다.

하불과 헤여진 미국방성친구는 극동군사령부에 출장을 갔다가 맥아더를 만났다.

오성장군은 무엇때문인지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일흔살 로인답지 않게 제2차 세계대전시기 련합군이 즐겨 부르던 《백개의 피리》를 휘파람으로 불고있다가 옛 부하를 반갑게 맞아주었던것이다.

맥아더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강한 나머지 심심치 않은 일화를 많이 남긴 사나이였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에 있은 일본항복조인식때의 일이다.

어느날 해군제독 니미쯔는 오랜 적수인 맥아더에게 항복조인식장에 타고 갈 함정을 선물하였다. 그 함정은 상륙정을 개조한것인데 선체에는 붉은 색칠을 하고 선수에 오각별을 그려넣어 상어같은 위엄과 갈매기의 우아함을 골고루 갖추고있었다.

시답지 않은 눈으로 함정을 바라보던 맥아더는 부관에게 뇌까렸다.

《지내 작소. 난 저 장난감을 타고 20마일을 가지 않겠소. 나에겐 큰 함선이 요구되오. 그것도 새것으로 말이요. 내 생각엔 구축함이 적합할것 같소.》

니미쯔는 울며 겨자먹기로 구축함 《니꼴라스》호를 보내지 않으

면 안되였다.
그제야 맥아더는 흡족해하며 구축함에 올랐다.
그렇듯 거만하고 사나운 맥아더였지만 때로 배부른 사자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미국방성친구가 찾아갔을 때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
하지만 하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미간을 찌프리더니 기분좋게 빨고있던 파이프를 원탁우에 내려놓았다. 아무리 옛 부하의 간절한 청이라고 해도 미국을 망신시킨자를 용서할수 없다는 태도였다.
친구는 그가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세운 공로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 설사 죄를 졌다고 해도 다년간 조선에서 첩보활동을 한 경험있는 장교인것만큼 그를 초야에 묻어두는것은 우리의 리익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력설하였다.
맥아더는 파이프를 도로 입에 물었다.
그것은 좋은 징조였다.
아닐세라 며칠후 그는 에드윈 하불을 미8군첩보대 장교로 복대시킨다는 문건에 수표하였다. 로회한 오성장군은 실리를 더욱 중시한것이다. …
집으로 돌아온 하불은 낚시대를 응접실구석에 집어던지고나서 안해한테 말하였다.
《여보, 난 다시 조선으로 가게 됐소.》
《네?》
안해의 눈동자에서 억제할수 없는 기쁨의 불꽃이 튕겨났다. 그렇지만 그 빛은 곧 남편과 헤여지기 힘들어하는 현숙한 안해의 표정으로 바뀌였다.
《여보, 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없으면… 무서워요!》
앙큼한 안해의 말을 귀등으로 들으며 트렁크를 손에 든 하불은 문득 생각난것처럼 한마디 던졌다.
《참, 내 머리칼은 갈색이 아니라 금발이라는걸 잊지 마오.》

얼굴이 빨개진 안해를 쓰겁게 바라본 그는 두번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며 덩실한 양옥을 나섰다. …
미8군첩보대에 도착한 하불은 허정효에 대한 자료부터 뒤지기 시작하였다.
새로 부임한 그가 고급료정으로 초청하거나 하다못해 장교식당에서라도 맥주조끼를 찧자고 할줄 알았던 동료들은 그쪽에 대고 엄지손가락을 손가락들짬에 밀어넣은 주먹을 흔들어보였다.
등뒤에서 들려오는 로골적인 비난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불은 개의치 않고 허정효의 처리문제를 두고 생각을 굴렸다.
그자는 표무강대대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지 못하였고 특히 사건현장에까지 따라갔으나 그들을 놓쳐버린 죄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감방에 처박혀있었다. 하기야 두개 《국군》대대의 입북으로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 늙다리 리승만이 그 분풀이로 《국군》의 주요지휘관들을 파면시킨 판에 그까짓 송사리같은 허정효가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나 그자는 아직 쓸모있는, 미국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물라고 하면 무는 부르독크이다. 땅바닥에 떨어진 미국의 체면을 세우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표무강을 귀순시켜야 하는데 그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표무강을 잘 알고있는 허정효가 적임자다. 그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
자료철을 소리나게 덮어버린 하불은 상관을 찾아가 허정효문제를 제기하였다.
상관은 그 문제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쾌히 승낙하였다.
그의 방에서 나온 하불은 감옥으로 향하였다.
녀자처럼 길게 기른 머리를 무릎짬에 틀어박고있던 죄수는 이전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미스터 허, 잘 있었소?》라는 귀익은 목소리가 울리자 먼지오른 유리마냥 뿌옇게 흐려있던 두눈이 번쩍 빛났다.
《고, 고문관각하!》
용수철마냥 튕겨난 그는 무작정 하불의 발목에 매달렸다.

무덤속같은 감방에서 비참하게 썩어가다가 오랜만에 사람구경을 하게 되여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심장이 화들짝 놀란데다가 그 반가운 손님이 다름아닌 하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앞에서 정신이 반쯤 나간 허정효였다.

주인을 만난 개처럼 반가와서 눈물까지 찔끔 쏟는 그의 잔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준 하불은 간수에게 점잖게 일렀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옷도 갈아입히시오.》

얼마후 허정효가 씻은 무우마냥 멀쑥해가지고 나타나자 하불은 고급료정으로 데리고 갔다.

위스키와 맛좋은 료리를 보자 허정효의 배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났지만 하불은 조금도 웃지 않았다. 《행운의 사다리》가 와닿지 않았더라면 그자신도 허정효와 조금도 다를바없었을 지난날이 생각난것이다. 동병상련이라고 《자유세계》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사나이를 위로해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싶었다.

불행한 사나이에게 필요한것은 동정의 말이 아니라 바카스(술의 신)라는것을 알고있는 하불은 그의 잔에 위스키를 부어주었다.

《고생이 많았겠는데 쭉 내오.》

그 한마디에 맺혔던 설음이 왈칵 터진 허정효의 두볼로 눈물이 개울물처럼 흘러내렸다.

《아, 진정하오.》

꺽꺽 흐느껴울던 허정효는 위스키잔을 단번에 비우고서야 눈물의 바다에서 겨우 헤염쳐나왔다.

하불은 빈 술잔에 또 위스키를 채웠다.

술기운이 오르자 굶주린 부르독크는 체면이라는 거치장스러운 가면을 집어던지고 정신없이 마시기 시작하였다.

석잔… 다섯잔…

바카스한테는 천상천하의 힘장수 헤라클레스라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하물며 만성적인 기아와 정신적압박에 시달려온 허정효의 경우에

야 더 말해 무엇하랴.

주정이 높은 위스키가 몸안에 들어가자 인차 혀가 꼬부라지고 갈대처럼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속에서도 귀인에게 경의를 표하는것만은 잊지 않은 그였다.

《각, 각하의 은혜… 백, 백골난망입니다.》

이만하면 부르독크의 목에 사슬을 든든히 채웠다고 생각한 하불은 넌지시 말을 꺼냈다.

《난 당신이 이 지경에 이를줄은 몰랐소.》

순간 취기로 뻘개졌던 허정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몸도 막대기처럼 꼿꼿해졌다.

《내가 이렇게 된건 표무강, 그자때문입니다. 그자가 북으로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난 지금쯤 장성이 되였을겁니다.》

속으로 쓰거운 웃음이 새여나왔지만 하불은 짜장 아쉬운것처럼 맞장구쳤다.

《그렇소. 당신은 장성이 되였을거요.》

《각하,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불의 내심을 알리 없는 허정효는 음식상우에 머리가 닿도록 연방 허리를 굽석거렸다.

《미스터 허, 이젠 내 말을 듣소.》

부르독크한테 먹이감을 던져줄 때가 되였다고 단정한 하불은 표무강이 인민군련대장으로 되였으며 경상북도 ××계선에 진출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허정효는 부드득― 이를 갈았는데 어떻게나 세게 갈았던지 신경이 든든한 하불도 잔등에 소름이 돋았다.

《각하, 내 그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불은 위스키잔을 비우고나서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럼 각하는?!…》

역시 허정효는 촉기빠른 인간이였다. 비릿한 피냄새와 시큼시큼한 땀내가 진동하는 감방에서 육체는 미이라처럼 말라버렸지만 두뇌는

주인의 의중을 간파하려고 재빨리 회전하고있었다.
《미스터 허, 표무강을 귀순시키시오.》
허정효의 눈에서 새파란 불꽃이 튕겨나는것을 알아본 하불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생각해보오. 그가 <자유세계>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것 같소? 그래, 이걸 늑거리복수에 비기겠소?》
그 말은 허정효의 마른가슴에 흘러든 한모금의 생신한 《피》였다.
《각하, 어떤 일이 있어도 그자를 귀순시키겠습니다.》
입술을 꽉 사려문 허정효의 눈빛은 야심으로 번뜩이였다.
그러한 그에게 하불은 또 한모금의 《피》를 주었으니 《국군》소령의 계급장을 내준것이다. 결국 부르독크에게 날개까지 달아준셈이다.
《고문관님, 이 몸이 진토되여도 결초보은하겠습니다.》
만족한 눈길로 허정효를 쓰다듬던 하불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위신을 추켜올렸다.
《참, 난 고문관이 아니라 미8군첩보장교요.》
자기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치 오성장군이기라도 한것처럼 벌떡 일어난 허정효는 취기에 흐려진 두눈을 크게 떴다.
모르쇠를 하고 《말보로》표담배를 피워문 하불은 자기의 출세를 축하하려고 벌써부터 몸을 들썩거리는 부하에게 일렀다.
《난 당신을 믿소.》
《감사합니다.》
드디여 허정효에게도 재생의 순간이 찾아온것이다.
며칠후 한결 멀끔해진 《국군》소령은 표무강련대와 대치하고있는 최덕근사단으로 떠나갔다.

7

행군도중 짧은 휴식구령이 내렸을 때 누군가 한정아를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가마뚜껑처럼 크고 둥그런 얼굴에 웃음을 담고 서있는 군관을 처녀는 의아해서 보았다.
《날 모르겠습니까? 벼랑에서 떨어졌던… 아, 그때 나한테 피를…》
망각의 수풀속을 헤치듯 깜빡거리던 처녀의 두눈이 반짝 빛났다.
《아이, 그렇군요.》
《예, 바로 접니다. 하하하.》
두사람은 오래동안 헤여졌다가 만난 오누이처럼 두손을 마주잡고 반가와하였다.
《사실은 첫날부터 알아보았는데 혹시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해서…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만날줄이야…》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에 한정아는 살짝 얼굴을 붉히였다.
《아이참, 헌데 몸은 어때요?》
《이젠 다 나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정찰소대장 리경일은 격술자세를 취하더니 곧추치기와 손칼치기, 발차기를 박력있게 해댔다. 그러다가 아침이슬에 젖은 락엽을 밟는 통에 우둔한 곰처럼 쿵― 하고 넘어지고말았다.
《제길!》
속이 후끈 달아올라 뛰쳐일어나던 그는 또다시 미끄러지며 궁둥방아를 보기 좋게 찧었다.
그 모양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한정아는 끝내 웃음을 터뜨렸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 청신한 웃음소리는 침울한 기운이 떠도는 수림속에 신선한 활기를 가져다주었다.
…리경일은 아찔하게 솟은 벼랑밑에 쓰러져있었다.

재빛구름이 드리운 8월의 하늘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동정하듯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더니 피칠갑을 한 그의 몸을 극성스럽게 두드리며 깨끗이 씻어주었다.
온 지구를 물바다에 잠글것처럼 극성을 부리던 소나기가 뚝 멎고 구름장들이 유유히 물러가고있을 때 그는 죽음의 나락에서 간신히 기여올라왔다.
소나기의 덕분으로 정신을 차렸지만 몽둥이에 얻어맞은것처럼 뒤통수가 얼얼하고 팔다리도 쑤셔났다. 그속에서도 중요한 정찰자료를 한시바삐 련대에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빨리 가자. 빨리!
몸을 일으키려고 안깐힘을 썼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손가락 하나 움직일수 없었다. 그제서야 자기가 련대에 빨리 가려고 덤벼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여 아찔한 벼랑우에서 굴러떨어지던 일이 기억났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몸을 축 늘어뜨린 리경일은 련대가 위치한 산너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름해가 소나기때문에 밀렸던 봉창을 하려는듯 뜨거운 열을 내뿜기 시작하였다.
얼굴과 가슴이 화로처럼 달아오르고 목구멍도 바싹 말라들었다.
물!… 물!…
눈앞이 깜빡깜빡 흐려지더니 비몽사몽간에 나른해진 몸이 허공으로 둥둥 떠올랐다.
공연이 끝난 무대막처럼 천천히 내리워지는 눈시울밑으로 캄캄한 자락이 너울너울 날아들고있었다.
어둠… 어둠…
《여보세요!… 정신차리세요!》
누군가 몸을 조심히 흔들고있었다.
《이보세요, 정신차리세요!》

눈을 뜨려고 하였지만 종이장보다 가볍던 눈시울이 어떻게 된건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물!… 물!…》
방금전의 그 목소리가 서서히 밝아오는 의식의 언덕너머에서 아슴푸레 들려왔다.
《자, 물이예요. 어서 마셔요!》
인두처럼 화끈 달아오른 입술에 뭉툭한것이 와닿자 리경일은 눈도 뜨지 못한채 정신없이 들이빨았다.
한모금… 또 한모금…
막혔던 목구멍이 열리고 점차 몸에 힘이 생겨났다.
눈시울을 힘껏 밀어올리자 운무가 낀듯 뿌옇게 흐려졌던 눈앞이 밝아지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비껴있는 까만 눈동자가 안겨왔다.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때까지 자기가 입에 물고있은것은 군용물통이 아니라 그 처녀의 손가락이였던것이다.
그는 처녀의 손을 힘껏 뿌려던졌다.
《어마나?》
뒤로 넘어질번 하다가 용케 몸균형을 잡은 처녀는 눈앞이 아찔한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그를 망연히 보고있던 리경일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무슨 일을…
《이젠 정신이 좀 들어요?》
봄기운처럼 따스한 목소리를 듣자 리경일은 풀무처럼 풀떡거리던 가슴이 서서히 가라앉는것을 느꼈다.
《동문… 누굽니까?》
다심한 눈길로 내려다보던 처녀는 안심하라는듯 웃음을 지어보였다.
《지나가던 길손이예요. 헌데 어디로 가던 길이예요?》

리경일은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또다시 눈앞에 노란 동그라미들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이, 움직이면 안돼요.》
리경일은 씨근덕거리며 입안에 고여있던 말을 툭 내뱉았다.
《난… 련대에 가야 합니다.》
처녀가 급히 물었다.
《련대는 어디 있어요?》
《저기 산너머에…》
여기까지 말한 리경일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말았다.
한참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기가 처녀의 잔등에 업혀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날… 내려놓소.》
대답대신 할딱거리는 처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못 들었소?》
잔등에서 미끄러져내리는 리경일의 몸을 암팡지게 추스른 처녀는 다기차게 응대하였다.
《동문 련대에 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럼 가만있어요.》
처녀는 다시금 걸음을 내짚기 시작하였다.
한발자국… 세발자국…
리경일은 처녀의 목덜미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줄기를 보았다.
가슴속에서 불덩이 같은것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아, 세상에 이런 처녀도 있단 말인가?
온몸에 굽이치던 격정의 불덩어리는 마침내 눈굽에 눈물을 가득 채워놓고야말았다.
리경일은 처녀가 알아차릴가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그렇다. 그 고마움을 어찌 천만방울의 눈물로 대신할수 있으랴.
그들이 산고개를 넘어섰을 때 앞에서 전사들이 마주 달려왔다.
《정찰소대장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사들의 잔등에 업히운채 얼마쯤 가던 리경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엉?》
그 처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생명의 은인이며 차후 련대의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묘령의 처녀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채 사라진것이다. …
《저,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벽계수처럼 맑은 목소리에 리경일은 기억의 문을 슬며시 닫았다.
《물어보십시오.》
《련대장동진 어떤 사람인가요?》
리경일은 그야 물어보나마나 아닙니까라고 하듯 히죽 웃었다.
《우리 련대장동진 정말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용감하고 담이 크고… 겉보기엔 무뚝뚝해도 인정도 많습니다. 참, 련대장동지가 누군지 압니까? 작년에 각기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의거한 두 대대장들중의 한사람입니다.》
한정아는 속으로 놀랐다.
아니, 그럼 련대장동지가 그때 세상을 들었다놓은 의거대대장이란 말인가. 글쎄, 처음부터 낯이 익다 했더니…
전쟁전 그는 대학생들과 함께 평양으로 입성하는 의거장병들을 환영하는 연도행사에 나갔었다.
그날 꽃물결이 설레이는 수도의 거리로 의거장병들을 태운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내달렸는데 그앞에 한대의 군용찦차가 서있었다.
한정아는 차우에서 손을 열정적으로 흔들고있는 두 대대장을 보면서 수백명이 넘는 장병들을 이끌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저들이야말로 영웅남아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로부터 한해가 지난 오늘 처녀는 우연히 두 대대장가운데 한사람을 만난것이다.
정찰소대장의 말에 의하면 이름은 표무강, 나이는 25살이라고 한다. 그건 그렇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가?

물론 리경일은 자기의 직속상관에 대하여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극구 칭찬하였지만 한정아의 생각은 달랐다. 표무강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것을 강요하였던것이다. 다시말하면 자기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작정 명령으로 련대에 배속시키려고 하였던것이다.

그 의도가 어찌하였든지간에 한정아는 자기를 마치 부하처럼 대하는 그의 태도를 용납할수 없었다.

한정아는 치면 칠수록 더욱 강하게 튀여오르는 고무공같은 처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아가 처음의 생각을 접고 련대에 배속된것은 그자신도 속으로 우려하였던, 혹시 도중에 적들과 마주치면 마을사람들을 책임질수 없다는 근심때문이였다. 이제는 련대와 같이 있게 되였으니 그들의 신변에 대해서는 한결 마음을 놓았지만 그럴수록 《사민구분대》가 련대의 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뛰여다녀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리경일과 헤여진 처녀는 저쯤에서 행군하고있는 《사민구분대》를 향해 냅다 뛰여갔다.

8

《전화도청과 <혀>심문을 통해 알아낸데 의하면 적들은 영주계선에서 아군에 대한 포위환을 결속하려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찰소대장 리경일은 련대참모장이 전지로 비치고있는 군용지도를 지시손가락으로 꾹꾹 찍으며 설명하고있었다.

《…기동력이 좋은 제3, 제9련대를 여기 소백산과 죽령에 진출시켜 방어진을 펴는 한편 나머지 력량은 남쪽으로부터 아군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적사단장 최덕근은 소백산—죽령계선에서 우리 련대를 완전소멸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답니다.》

《흠!》

가소롭다는듯 코웃음을 치는 표무강의 눈앞에 륙사후배의 모습이 밟혀왔다.

몇해전 어느 일요일 당시 《국군》중대장이였던 표무강은 모교인 륙군사관학교로 찾아갔었다.

막사에 들어서니 한주일동안 고된 훈련에 부대낀 사관후보생들이 퀴퀴한 발냄새와 시큼한 땀내가 혼탁된 더러운 곳에서 딩굴고있었다.

입귀로 침을 줄줄 흘리는자, 고래고래 헛소리를 내지르는자, 끄덕끄덕 졸면서 밖으로 나와 막사벽에 대고 오줌을 갈기는자…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훈련장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하고 슬금슬금 가보니 함마로 내리쳐도 끄떡하지 않을만큼 단단하게 생긴 사관후보생이 장애물극복훈련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담벽을 단숨에 뛰여넘은 그는 먹이감을 겨누고 내려꽂히는 매마냥 철조망밑으로 씽 날아들더니 눈깜빡할 사이에 포복전진으로 철조망을 통과하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지 땀이 비오듯 떨어지는 얼굴을 닦을념도 않고 또다시 담벽에 달라붙는것이였다.

마치 지난날의 자신을 보는것 같아 은연중 그에 대한 친근한 감정이 생겨났다.

얼마후 기진맥진해서 훈련장을 나서던 사관후보생은 앞에 뒤짐을 지고 서있는 《국군》중위를 보자 군화뒤축을 딱! 하고 모아붙였다.

《이름이 뭔가?》

《옛, 사관후보생 최덕근!》

표무강은 거두절미하고 용건만 말하였다.

《15분후에 정문으로 나오라.》

그가 얼떠름해하는 최덕근을 데리고 간것은 사관학교주변에 있는 크지 않은 공원이였다.

펑퍼짐한 잔디밭우에 주저앉은 표무강은 밑도 끝도 없이 최덕근에

게 술병을 내밀었다.
눈이 사발만큼 커진 최덕근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두손을 내저었다.
《표선배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표선배님이라는 말에 표무강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군은 내가 륙사선배라는걸 어떻게 아는가?》
《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교관님이 륙사 2기 졸업사진을 보여주면서 표선배님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중에 그 유명한 <100바퀴사건>을 모르는 친구가 없습니다.》
두해전 표무강은 대구시민폭동을 진압하라는 륙군사관학교 교장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훈련장을 100바퀴 돌라는 처벌을 받았는데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살인적인 거리를 이를 사려물고 끝까지 달렸었다. 그 일로 하여 그는 미군장교 에드윈 하불의 눈에 들었고 륙사를 졸업하자 급속도로 승진의 계단을 뛰여올랐던 것이다.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표무강은 술병을 다시 내밀었다.
《마시라구.》
《선배님, 제가 어떻게 감히…》
《무슨 말이 많아?》
그 위혁적인 태도에 최덕근은 옴짝 못하고 굽어들었다.
《예, 예. 마시겠습니다.》
두사람사이에 술병이 몇번 오가자 선배의 호협한 성미에 감동된 최덕근은 스스럼없이 자기의 경력을 털어놓았다.
그의 부친은 일찌기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독립을 위해 뛰여다닌 애국자로서 한때 독립군양성에 전념한 사람이였다. 독립운동에 그처럼 몰두하였던 까닭으로 그는 여섯살 난 아들마저 고아원에 맡겨버렸다.
남달리 승벽이 세고 의지가 강한 최덕근은 쓰고 단맛을 고스란히 삼키며 고아원을 나오자 중학교를 거쳐 당시 중국군 사관학교인

중앙군관학교에 들어갔다. 독립군출신 부친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선택한것이다.
군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키가 늘씬하고 예쁘게 생긴 처녀에게 장가들었다.
부부간의 정은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깊었지만 태평양전쟁의 회오리는 최덕근을 아늑한 가정의 울타리안에서 끌어내여 만마의 쟝글속에 집어던졌다.
코브라들이 단도처럼 뾰족한 혀를 날름거리며 기여들고 모기들이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열대수림속에서 그는 남보다 몇배로 땀을 쏟으며 훈련하였는데 그 의기와 열정에 동료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러던중 영악스럽던 사무라이들이 맥없이 항복하자 조선독립에 한몫하려던 초지를 부채접듯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후 부모처자를 데리고 조선으로 나온 최덕근은 륙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남의 땅에서 남의 군복을 입어야 하였던 슬픈 시절이 가슴에 걸려 내린 선택이였다. …
무거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끝낸 최덕근은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열변을 토하였다.
《선배님, 믿어주십시오. 전 살아도 죽어도 제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되렵니다.》
표무강은 볼수록 대견한 후배의 손을 꽉 잡았다.
《믿겠네.》
하지만 운명은 두사람을 지구의 남극과 북극처럼 갈라놓았으니 표무강이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의거할 때 륙사를 졸업한 최덕근은 미국으로 군사류학을 떠났다.
그가 표무강앞에 처음 나타난것은 희생된 련락군관을 통하여 후퇴명령을 전달받기 며칠전이였다.
당시 아군은 갓 교방한 적들과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고있었는데 그자들은 지금까지 싸운 《국군》과 전혀 달랐다. 아군의 드센 타격에 사등뼈가 부러지게 얻어맞았지만 꽁무니가 빳빳해서 달아나기는

커녕 아득바득 덤벼들었고 퇴각하는 경우에도 잔등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총을 쏴대는 악질들이였다.

해당 부대의 전투력은 지휘관의 능력에 비례한다. 적들의 움직임은 그만큼 적지휘관의 능력이 높다는것을 말해준다. 도대체 어떤자인가?

정찰자료에 의하면 그자는 미국에서 군사학교에 다니다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돌아와 사단장이 되였는데 자주 일선참호에 나와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사병들을 독려한다고 한다.

어느날 적진속에서 우와!— 하고 함성이 터져올랐다.

련대장감시소에 있던 표무강은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두어깨를 솟구고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참호를 돌아치는 《국군》장성의 모습이 동그란 렌즈속으로 빨려들어왔다.

그자는 허물어진 진지를 보수하던 사병한테서 공병삽을 앗아들고 한참동안이나 흙을 파기도 하고 담가에 누워있는 부상병을 보자 제법 따뜻이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 모습을 본 사병들은 감격하여 너도나도 박수를 치고있었다.

적수를 노려보던 표무강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뜻밖에 그자는 잊지 못할 그 잔디밭에서 제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으으거리던 륙사후배 최덕근이였던것이다.

너절한 자식!

결국 선배와 후배는 원쑤가 되여 총부리를 들고 마주선것이다. …

참모장에게 소백산—죽령계선에서 적들의 포위를 돌파하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라고 명령한 표무강은 군용지도를 골똘히 보고있는 로성익에게 물었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강조할건 없습니까?》

얼핏 머리를 쳐든 로성익은 특별히 말할게 없다는듯 다시금 지도에 눈길을 박았다.

《군관동무들, 그럼 래일 아침, 아니 오늘 새벽 6시에…》

표무강의 뒤말은 천막자락을 들추며 뛰여든 19대대장의 출현으로 끊어졌다.

《련대장동지, 보고할만 합니까?… 우리 대대 전사 한명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뭐요?》

예견치 못하였던 정황에 군관들은 모두 놀랐다.

《누가 승인했소?》

《승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꺼멓게 질린 19대대장은 온종일 행군에 시달린 전사들이 굳잠에 들었을 때 그 전사가 슬그머니 천막을 빠져나왔는데 마침 순찰병이 단속하자 용변을 보고 인차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당장 전사들을 보내오.》

《보냈댔는데 밤중인지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안경테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던 련대참모장이 참지 못하고 19대대장을 다불러세웠다.

《동문 뭘 했소? 전사가 탈영하는것도 모르고 뭘 했는가 말이요?》

《그만하오.》

또 뭐라고 한바탕 욕설을 퍼부으려던 참모장을 제지시킨 사람은 다름아닌 로성익이였다.

《19대대장동무, 탈영자가 누구요?》

《1중대 3소대 전사 홍일남입니다. 얼마전에 <국군>에서 의거해온 전사인데…》

《뭐, <국군>?》

로성익의 얼굴에 경멸에 찬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그 표정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수 있다고 말하고있었다.

지도우에 색연필을 내려놓은 그는 옆에 서있는 표무강을 바라보았다.

《언제 출발하겠소?》

《원래 계획대로 새벽 6시에…》
로성익은 딱 잘랐다.
《안되오.》
《?》
《그래, 동문 그가 돌아오리라고 믿소?》
《그렇습니다.》
《그 전사가 귀대한다는 담보는?》
그 말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표무강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어쨌든 돌아올겁니다.》
로성익의 얄팍한 입술가에 맴돌던 조소가 스러지자 곧 싸늘한 표정이 떠올라 그 자리를 메꾸었다.
《난 추측이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오. 좋소. 그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건 동무생각에 맡기겠지만 련대는 즉시 출발해야겠소.》
위엄이 풍기는 그의 말은 벌써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전선사령부 대표의 지시였다.
마음이 내키지 않은듯 머뭇거리던 표무강은 참모장에게 련대를 기상시키라고 명령하였다.
나무가지들사이로 가닥가닥 비쳐드는 달빛을 솜이불마냥 뒤집어쓰고 깊은 잠에 들었던 숙영지가 벌컥 뒤집혔다.
여기저기에서 무기와 장구류를 걸머진 전사들이 뛰쳐나왔다.
구분대별로 인원점검이 끝나자 곧 출발구령이 내렸다.
눈도 채 뜨지 못하고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 전사들속에서 불평소리가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19대대 홍일남이가 탈영했다누만.》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하더니 그 친구…》
《여, 친구는 무슨 친구? 이제야 더러운 배신자이지.》
전사들이 웅웅 벼르고있을 때 표무강은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홍일남은 《국군》에서 복무하다가 얼마전에 있은 전투때 의거한 전사였다.
담화를 해보니 그는 비록 《국군》에 강제로 징집되였지만 마음속으로 인민군대를 몹시 동경해왔다고 한다.
본인의 이야기를 빌면 《국군》의 포악무도한 행패질에 시달려온 마을사람들은 그의 어머니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원래 병을 앓고있는데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머니는 거의 죽어가고있었는데 고향마을을 해방시킨 인민군대가 쌀을 가져다주고 몸이 추설 때까지 친혈육처럼 돌봐주었다. 뿐만아니라 산후탈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두툼한 솜이불도 만들어주었고 몇해째 비가 줄줄 새던 지붕도 고쳐주었다는것이다.
후날 그 소식을 안 홍일남은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려준 은인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것은 사람가죽을 쓰고 할짓이 못된다는것을 깨닫고 아군진지로 넘어왔던것이다.
《련대장님, 절 인민군대에 받아주십시오. 어머니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랬던 그가 상급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산을 내려갔다. 분명 시오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고향집으로 달려갔을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적들에게 강점된 지역이 아닌가. 그가 산을 내리다가 적들한테 붙잡히기라도 하면 련대의 위치가 탄로날수 있다. 그때문에 전선사령부 대표도 즉시 출발할것을 요구한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그는 꼭 돌아올것이다!
가슴속에 먹장구름마냥 밀려드는 불안감을 털어버린 표무강은 련대를 뒤쫓아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9

강행군을 들이대고있는 련대앞에 강이 나타났다.

공병정찰로부터 강폭과 수심에 대하여 보고받은 련대지휘부는 각 구분대별로 강을 도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진의 길에서 강을 도하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전사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골짜기에서 찍어온 불타다 남은 통나무들로 떼를 뭇고 그우에 박격포와 마차, 부상자들을 싣고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헤염칠줄 아는 전사들은 거침없이 강물에 뛰여들었다.

강기슭에 우뚝 서서 련대의 도하를 지켜보고있던 표무강은 《사민구분대》가 생각났다. 아직 습관되지 않아 다른 구분대들의 도하에는 관심을 돌렸지만 한정아가 인솔하는 사민들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정찰소대장!》

정찰병들과 함께 련대후방부도하를 도와주고있던 리경일이 허우대가 큰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달려왔다.

《한개 분대를 데리고 <사민구분대>에 가오.》

《알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회색양복을 입은 처녀가 나타났다.

종주먹을 쥐고 달려오는 한정아를 보자 표무강은 속으로 웃었다.

《사민구분대》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니 정작 강을 건느자니 겁을 먹은게지.

《련대장동지!》

처녀가 앞으로 뛰여오자 표무강은 짐짓 아무 눈치도 못 차린것처럼 물었다.

《무슨 일이요?》

《저, 강도하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그렇겠지.

자기옆에 서있는 리경일을 손짓하며 표무강은 시원스럽게 알려주었다.

《걱정마오. 정찰병들이 도와줄거요.》

그쯤하면 몹시 고마와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한정아는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련대장동지, 우린 자체로 도하하겠습니다.》

《?》

《그저 강을 건너갈 바줄만 주십시오.》

표무강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강도하에서 제일 미타한 단위는 바로 한정아가 이끄는 《사민구분대》였다. 하지만 그들이 련대의 방조를 받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강을 도하하겠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그 말을 곧이듣고 내버려두었다가 강을 미처 건느지 못하면 련대의 전반적인 행동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그래, 동무들끼리 도하할수 있소?》

《네.》

《정말이요?》

자존심이 상한 모양 처녀는 두눈을 깔끔하게 내려깔았다.

그가 그렇게 나오자 표무강은 더 따질수 없었다.

후방부련대장을 불러 한정아한테 바줄퉁구리를 내주라고 지시를 주고 돌아서는데 군의소장이 찾아왔다.

《련대장동지, 통나무를 메오는 인원이 모자랍니다. 한개 분대만 더 보내주십시오.》

처녀들이 대부분인 련대군의소는 강을 도하할 때마다 련대의 방조를 받군 하였다.

《여보, 군의이든 간호원이든 총동원해서 메오란 말이요.》

혹을 떼려고 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군의소장은 여느때없이 성

을 내는 련대장을 멍청해서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어깨를 떨구고 걸어가는 그를 보자 표무강은 자기가 큰소리를 친것이 다름아닌 한정아때문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얼마후 련대참모장으로부터 도하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표무강은 그에게 련대지휘를 맡기고 《사민구분대》가 위치한 강아래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두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심이 깊은 강복판에서 한정아가 바줄퉁구리를 올려놓은 널판자를 밀며 헤염치고있었던것이다.
자유헤염을 치기도 하고 때로 가슴헤염도 능숙하게 섞어가며 자신만만하게 전진하는 처녀의 수영솜씨는 보통수준을 넘어서고있었다.
음, 그래서 바줄만 달라고 했군.
이윽고 강을 건너간 한정아는 굵은 소나무허리에 바줄을 꽁꽁 동여매더니 챙챙한 목소리로 웨쳤다.
《떼목을 띄우세요!》
《사민구분대》는 한덩어리가 되여 적폭격에 무너진 주변마을에서 얻어온 대들보와 도람통으로 무은 떼를 강물에 띄웠다. 그리고는 한정아가 량쪽 강대안을 련결해놓은 바줄에 의지하여 강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그때 저쪽 대안에서 첨벙! 하는 소리가 났다.
한정아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강물속에 뛰여든것이다.
두팔을 엇갈아 휘저으며 떼목에 접근한 그는 뒤에서 힘껏 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까보다 기운이 점점 빠지는것 같았다. 하긴 아무리 헤염을 잘 친다고 해도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큰강을 두번이나 건는다는것이 쉽지 않을것이다.
표무강의 얼굴에 긴장감이 떠올랐다.
힘이 빠진 처녀가 그만 떼목을 놓치고 사품치는 물살에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어이구, 이 일을 어쩌누?》

《정치공작대원체네, 힘을 내라구!》
떼목에 올라선 사민들은 손을 내젓고 고함을 지를뿐 선뜻 깊은 강물속에 뛰여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안되겠다 하고 강물속으로 들어서려는데 떼목우에서 환성이 터져 올랐다.
한정아가 있는 힘을 짜내여 떼목에 접근하였던것이다.
기세가 오른 《사민구분대》는 빠른 속력으로 떼를 몰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구분대들과 거의 같은 시간에 강대안에 당도하였다.
떼목에서 내리는 《사민구분대》를 한사람한사람 맞아주며 생글생글 웃고있는 한정아를 보자 표무강은 생각이 깊어졌다.
사실 그는 한정아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자랐을 처녀가 순전히 자존심때문에 그런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제 난관에 부닥치면 제편에서 찾아와 방조를 청할것이라고 믿고있었다. 그렇지만 한정아는 한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사민구분대》를 인솔할 능력이 있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하였던것이다. 첫인상에서 느꼈지만 역시 그는 보통처녀가 아니였다.
한편 집결중에 있는 련대쪽으로 《사민구분대》를 이끌고 가면서 한정아는 즐겁던 대학시절을 추억하고있었다.
어느날 대학에서는 쉬는날을 리용하여 해수욕을 조직하였다.
남들은 강물에 뛰여들어 신나게 헤염치고 조개를 잡는데 원래 물을 무서워하는 한정아는 수풀속에 조용히 앉아 레브 똘스또이의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읽고있었다.
목석같은 남편과 8년동안 무미건조한 생활을 해오다가 청년귀족장교와 깊은 사랑에 빠져 그처럼 갈망하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끝내 귀족사회의 버림을 받고 달리는 화물렬차에 몸을 던지는 안나의 비극적운명은 감수성이 풍부한 처녀의 마음을 슬프게 해주었다.
촉촉히 젖은 그의 눈길은 소설의 글줄을 더듬고있었다.

《안나는 아들과의 상봉을 그렇게도 원해왔고 또 그렇게도 오래전부터 꿈꾸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져왔건만 이 상봉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기 마음을 뒤흔들리라고는 전연 예기하지 못하였다.

안나는 려관의 쓸쓸한 자기 방에 돌아와서도 오래동안 왜 자기가 이런 곳에 있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끝장이 났다. 나는 또 홀로 남았다.)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하며 모자도 벗지 않은채 난로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두개의 창문사이에 있는 탁자우에 놓인 청동시계를 쏘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

《무슨 책을 보기에 찾는것도 모르오?》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든 처녀는 멀끔하게 생긴 남대학생을, 녀대학생들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차경준을 알아보았다.

《<안나 까레니나>로구만. 에, 레브 똘스또이는 녀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짜리로씨야귀족사회에서 겪고있는 녀성들의 불행한 처지를 반영하고 관료기구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폭로비판하려고 하였소. 바로 여기에 <안나 까레니나>가 로씨야와 유럽의 비판적사실주의 장편소설들가운데서 주봉을 이루는 근거가 있는거요. 뿐만아니라 그 묘사의 섬세성과 생동성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수준이지.》

경건한 어조로 작품의 우점을 렬거한 그는 활기에 넘쳐 재촉하였다.

《자, 소설은 후에 보구 헤염치러 가기요.》

《…》

《방금 교무부에서 포치했는데 헤염칠줄 모르는 대학생은 학기말시험에 통과시킬수 없다는거요. 아, 정아동무야 전 과목 최우등생인데 락제를 맞는다는게 어디 말이 되오?》

차경준의 말처럼 수영때문에 락제를 맞는다는건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소설책은 접었지만 아직 망설이고있는 처녀를 슬쩍 넘겨다본 차경준은 헌헌한 어조로 물었다.

《혹시 전번 일때문에 그러는건 아니요?》

전번 일이란 한정아가 교복단추를 달아달라고 한 그의 부탁을 거절한것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때 차경준은 일부러 교복에서 단추를 두알씩이나 뜯어내고는 한정아더러 좀 달아달라고 하였었다.

첫눈에 그의 속심을 알아차린 한정아는 입술을 감쳐물고 교복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일명 《교복단추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일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보태지고 보태지며 전교적인 화제거리로 떠오르다가 한정아는 아득한 봉우리에 올려세우고 차경준은 아찔한 골짜기로 떨구어버리는 것으로 막을 내렸었다.

지금 자기의 성적점수를 걱정하는 차경준의 환한 얼굴에는 그 일로 겪은 번민의 흔적이란 한점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그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을가 하고 생각하던 참이였는데 그쪽에서 대범하게 나오니 역시 남자들이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가세요.》

나무뒤에 몸을 숨기고 수영복을 갈아입은 처녀는 앞서가는 차경준을 따라 종종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나 막상 시퍼런 강물이 가슴노리에서 출렁거리자 더럭 겁이 났다.

《무서워마오. 헤염이란 깊은 곳에서 배워야 빨리 배우는 법이요.》

앞에서 강물을 헤가르며 걸어가던 차경준이 재촉하자 처녀는 진퇴량난에 빠졌다.

계속 따라가자니 강물이 무섭고 이제 와서 돌아서자니 주위에서 빤히 지켜보는 동료들의 놀림가마리에 들것 같았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상큼 한발을 내짚는데 갑자기 몸이 우묵한 곳으로 쑥 빠져들어갔다.

《어마?》
어쩔 사이없이 강물을 꼴깍꼴깍 삼킨 처녀는 마구 두팔을 휘저었다.
겨우 물우에 솟구쳐오르자 애타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옆에 있던 차경준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도… 도와… 주세요!》
또다시 입안으로 쓸어들어오는 비릿한 강물!
찰나 어디론가 사라졌던 차경준이 코앞에 불쑥 나타났다.
창황중에도 한정아는 그의 얼굴에 떠도는 득의양양한 웃음을 보았다.
처녀는 그를 향해 뭔가 소리치려고 하였으나 어느새 몸은 돌멩이처럼 물속으로 가라앉고있었다.
이젠 다로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나른해지는 순간 억센 손이 허리를 휘감더니 물우로 힘껏 솟구쳐올랐다.
강기슭으로 나온 차경준은 맥없이 늘어진 처녀를 모래불에 내려놓고는 가버렸다.
울컥울컥 강물을 토하고난 한정아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동정의 빛을 띠운 수십쌍의 눈길이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이런 때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사라지는것이 상책이였다.
얼마후 처녀들이 모여들어 만든 《울바자》뒤에서 젖은 머리를 손질한 한정아는 교복을 갈아입었다.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울바자》를 나선 처녀는 천연스럽게 일광욕을 하고있는 차경준을 찾았다.
한정아의 평온한 표정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그는 흔들거리며 다가왔다.
그가 앞에 이르렀을 때 한정아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이였다.

찰싹!
얼결에 뺨을 얻어맞은 차경준이 정신을 차렸을 때 처녀는 벌써 저쯤으로 가고있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한정아는 분해서 쌔근거렸다.
내가 왜 그런 모욕을 받아야 했담? 그건 헤염을 모르기때문이야. 헤염을 쳤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래, 처녀의 존엄은 말이아니라 실력으로 지켜야 해!
다음날 한정아는 방과시간이 되자 그처럼 즐겨 찾던 대학도서관이아니라 대동강으로 향하였다.
단군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간직한 어머니강은 언제나처럼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물끄러미 강물을 보고있는데 마침 수영복을 입은 처녀가 맵시있는 동작을 취하며 물속에 뛰여드는것이 보였다.
물안경을 쓴 머리를 물속에 잠근 그는 두손을 엇저으며 빠른 속도로 헤엄치기 시작하였다.
수영선수로구나!
처녀수영선수는 정열적인 빼헤염으로부터 여유있는 가슴헤염으로 동작을 바꾸며 대동강이 좁다하게 돌아쳤다.
나도 저 처녀처럼 헤염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차경준의 득의양양한 얼굴이 떠오른것은 그 다음이였다.
아니, 다신 그런 모욕을 받을순 없어!
자리를 차고 일어난 한정아는 끝없이 밀려드는 공포를 강잉히 누르며 강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그는 수영선수의 방조를 받으며 이악하게 수영훈련을 하였다.
며칠도 못되여 녀대학생들이 그처럼 부러워하고 지어 시샘까지 하던 한정아의 희맑은 얼굴은 해볕에 타서 고동색으로 변하였다.
《백설공주님이 어떻게 된거니?》
《난 또 흑인처녀가 온줄 알았구나.》

동료들이 놀려주었으나 한정아는 개의치 않고 매일처럼 대동강으로 나갔다.

두달후 대학적인 수영경기가 진행되자 한정아는 뺄헤염종목에서 2등을 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다. …

그때는 차경준을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는 후날 그를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긋한 앞가슴을 쭉 편 한정아는 우물거리고있는 《사민구분대》를 향하여 소리쳤다.

《어째서 행군속도가 떠졌어요?… 자, 빨리 걷자요!》

10

가을비는 행군하는 전사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적이라고 할수 있다.

가파로운 산릉선을 톺아오르느라 몸이 화독처럼 달아올랐을 때는 젠장, 비라도 콱 쏟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우― 우― 불어오는 하늬바람에 오솔오솔 추워나고 때아닌 비까지 쏟아지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게다가 아차 실수하여 발을 잘못 짚으면 얼음판처럼 반들거리는 산비탈을 타고 주르르 미끄러지다가 덤불이나 홈타기에 구겨박히기 쉽다.

가을비는 가시아버지턱수염밑에서 긋는다는 속담을 비웃듯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에도 그칠줄 몰랐다.

표무강은 련대의 중간에 위치한 11대대와 같이 행군하고있었다.

지겨운 비를 맞아서 그런지 좀처럼 기분이 나지 않고 걸음도 맥이 없다. 아니, 그까짓 비야 좀 맞은들 뭘 하는가. 휴식참이 되면 마른 삭정이를 골라 모닥불을 피우고 젖은 군복을 말리우면 그만이다. 그보다 걱정스러운것은 식량이 바닥난것이다.

한시간전 얼굴이 컴컴하게 질린 후방부련대장은 식량재고가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야단났습니다. 이러다 다들 쓰러지면…》

표무강은 벌컥 성을 냈다.

《동문 뭘 하는 사람이요? 아낙네처럼 우는소리나 하겠으면 별을 떼란 말이요.》

사실 식량문제가 제기된것은 벌써 며칠전이였다.

표무강은 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군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죽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다행히도 남쪽의 깊은 산속에는 다래가 많았다.

굵은 나무를 오불고불 감으며 재간스레 올라간 덩굴에는 대추모양의 풀색열매들이 가득 달려있었다.

행군중에 다래나무를 발견한 전사들은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와― 하고 달려들었다.

정신없이 따먹고나니 혀가 터갈라졌지만 멀건 죽 한그릇을 게눈 감추듯 하던것에 비하면 호사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이틀 지나자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달고 향기로운 열매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였으니 배앓이하는 전사들이 부쩍 생겨난것이다. 그때문에 련대의 행군은 지체되였고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바빠났다.

그래도 정찰병들은 좀 낫겠지 하고 정찰소대에 가보았더니 그쪽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세끼 굶으면 군자가 없다고 적진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허》를 둘러메고 오던 대장부들도 마가을 잠자리처럼 나른해서 맥을 추지 못하였다. 정찰소대장인 리경일부터 샘물가에 넙적 엎드려 주린 배를 물로 채우는 형편이니 다른 정찰병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늘 아침에는 지금껏 없던 락오자까지 생겨나 온 련대가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어수선하였다.

출발을 앞두고 인원점검을 해보니 11대대에서 네명이 보이지 않았다.
부랴부랴 대대를 풀어 밤새 숙영하던 골짜기를 훑었는데 눅눅해진 가랑잎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는 그들을 겨우 찾아냈다.
《저희들을… 남겨두고… 가십시오.》
억이 막혀 보고있던 표무강은 11대대장에게 명령하였다.
《동무가 책임지고 후송하오.》
련대에 짐이 될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우기던 락오자들은 굵은 나무가지와 모포로 만든 담가에 실려 대오를 따라섰다. …
한동안 걸음을 옮기던 표무강은 무정한 하늘을 마뜩지 않게 올려다보았다.
제길, 이놈의 가을비도 적들 편인가?
《돌이다!》
웃쪽에서 터진 다급한 고함소리였다.
버쩍 머리를 쳐든 그는 산비탈을 타고 굴러내리는 바위를 발견하자 아래쪽에 대고 소리쳤다.
《피하라!》
무기와 장구류를 걸머지고 조심조심 산을 내리던 전사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웃쪽을 쳐다보다가 디굴디굴 굴러내리는 커다란 돌들을 보자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누군가 부주의로 건드린 돌이 박혀있던 돌을 뽑아던지고 또 그것들이 더 많은 돌을 들추어내며 짓쳐내리는 위세란 실로 무시무시하였다.
우당탕… 퉁탕…
산을 통채로 뒤흔들며 굴러내리는 불가항력의 돌사태는 태평스럽게 졸고있던 아름드리나무들을 닥치는대로 짓조기고 박혀있던 바위들을 들부셨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듯 산밑으로 무연하게 펼쳐진 강냉이밭을 한바탕 짓뭉개고나서야 즘즘해졌다.
산을 내리자마자 표무강은 구분대별로 인원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결과 19대대에서 세명, 공병중대에서 두명, 7대대에서 한명, 고사기관총소대에서 두명이 돌사태에 다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부상자들과 환자들이 가득한데 또 여러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니 쩍하면 담가가 모자란다, 약품이 떨어졌다 하고 우는소리를 하던 련대군의소장은 기가 막혀 한숨만 풀풀 내쉬였다.
《박격포는 분해하고 포마들은 련대군의소에 넘길것!》
련대장의 명령에 따라 분해된 박격포들은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장구류를 메고 행군하던 전사들의 어깨와 잔등우에 올라갔다.
포신과 포판 등의 무게때문에 허리가 잔뜩 구부러진 그들을 보자 든든하게 생긴 포마들을 넘겨받고 기뻐하던 련대군의소장도 미안했던지 슬며시 돌아섰다.
《휴식!》
굶주리고 지친 전사들은 채양처럼 생긴 바위밑이나 나무아래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여느때 같으면 끼리끼리 모여앉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돌사태를 두고 떠들썩 이야기판을 벌렸겠지만 다들 덤덤해서 비를 긋거나 끄덕끄덕 졸았다.
그 처량한 모습은 표무강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련대장동무!》
비물이 줄줄 흐르는 턱을 훔치며 다가온 사람은 김홍선이였다.
《구분대별오락회를 조직하는게 어떻습니까?》
잠자고있던 표무강의 굵은 눈섭이 꿈틀거렸다.
남은 식량때문에 속이 타죽겠는데 문화부련대장이라는 사람은 왕청같이 오락회타령을 하고있으니 이거야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않겠는가. 영덕계선에서 전사한 이전 문화부련대장은 이렇지 않았다. 무슨 문제이든 꺼내기만 하면 적극 지지해주었고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자기가 놓친 구석들을 메꾸어주군 했었다. 김홍선은 그와 다르다. 우들우들 떨고있는 전사들을 놓고 오락회를 조직한다니 어

디 말이 되는가.

대줄기마냥 쏟아지던 비는 기운이 진했는지 점점 가늘어지고있었다.

주위에는 나무잎사귀에서 떨어지는 잔잔한 비방울소리, 바람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가지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그속에서 김홍선의 침착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련대장동무, 우리가 언제 오락회를 중단한적 있습니까. 전투가 끝나면 제꺽 전호를 보수하고 돌아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은 옳았다.

아닌게 아니라 전사들은 전투가 끝나면 눈깜빡할 사이에 진지를 보수하고 모여앉아 오락회를 열군 하였다. 숙천벌에서 농사짓다가 입대한 전사는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하고 고정곡을 구성지게 뽑았고 용해공출신 병사는 용광로앞에서 쇠물을 뽑던 자랑을 하였다.

지금은 그때의 활기롭던 광경을 찾아볼수 없다. 어디를 둘러보나 지친 얼굴들과 무거운 한숨뿐이다. 짬만 있으면 오구구 모여앉아 재잘거리던 간호원들조차 입을 봉해버렸다. 그것을 알고있었지만 현재의 형편에서는 어쩔수 없다. 당장 급한것은 오락회가 아니라 련대의 목을 조이는 식량문제이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홍선은 또 다른 말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지금 전사들속에서 좋지 못한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어떤 전사들은 적들이 평양을 점령했다고 떠드는데 정말 공화국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표무강의 얼굴에 노기가 어렸다.

《그게 대체 누구요?》

김홍선은 누구라고 찍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 한두명이 아닌것 같았다.

표무강은 성급하게 따져물었다.

《그래, 문화부련대장동문 어떻게 할 생각이요?》

《실은 나도 어떻게 하면 전사들의 사기를 높일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는중입니다.》

그한테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듣고나니 가뜩이나 공허하던 마음이 더욱 허전해났다.

《돌아가겠습니다.》

스적스적 걸어가는 그를 응시하던 표무강은 주먹으로 옆에 서있는 소나무를 힘껏 들이쳤다.

천지조화를 부리는 하늘의 덕분으로 묵은 먼지를 씻어버리며 명상에 잠겨있던 소나무는 뜻밖의 타격에 놀라 몸을 부르르 떨더니 《침범자》의 머리우에 바늘같은 잎사귀들을 마구 뿌렸다.

뾰족한 잎사귀들이 목덜미를 따끔따끔 찔렀으나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채 군복깃을 와락와락 열어제꼈다.

갈수록 험산이라더니 어느 일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발등에 떨어진 식량문제, 련대안에 나도는 류언비어, 홍일남의 탈영, 손발이 맞지 않는 문화부련대장…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제기되겠는지 알수 없다.

문득 표무강은 자기의 어깨우에 집채같은 바위가 올라앉은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 2 장

1

꽝!

산아래쪽에서 터진 포소리였다.

잠시후 공기를 째는 금속성이 가까와지더니 10대대가 행군하는 선두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확 솟구쳐올랐다. 적포병대의 시사사격이였다.

허리를 굽힌 표무강은 주위를 둘러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은폐!》

전사들은 재빨리 산개하여 바위와 나무뒤에 몸을 숨기였다.

사격제원을 수정하는지 몇초동안 잠잠하더니 이윽고 포탄이 연방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꽝, 꽈광!－

꾸르릉, 쉬익!－

포탄이 작렬할 때마다 아름드리나무들이 통채로 날아나고 쪼각난 바위들이 사방으로 뿌려졌다.

조금후에는 얼마 높지 않은 공중에서 앙칼진 폭음이 울리더니 파편들이 죽음의 휘파람을 불며 날아다녔다. 류산탄이였다.

그에 뒤질세라 엠완총과 기관총도 사납게 울부짖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력밀도는 더욱 조밀해지고 그 위력도 간단치 않다. 어림짐작해도 거의 두개 련대에 가까운 화력이다. 필경 아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급파된 적들일것이다. 나머지 적들도 인차 달려들겠는데…

그 판단을 증명하듯 련대의 후위와 우익에서도 총소리와 포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소백산－죽령계선에서 아군을 《포위소멸》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최덕근이 포위환을 바싹 조이는것이다.

표무강은 속이 부직부직 타들었다.

며칠째 굶은 전사들이 허기져서 맥을 추지 못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적들까지 달려드니 야단이다.

그러던 그는 좌익쪽이 잠잠하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쪽으로 쌍안경을 돌리자 렌즈속에 높고 아찔한 벼랑이 비껴들었다.

련대는 고사하고 한개 분대도 통과할것 같지 못하다. 아마 그래서 적들이 비워둔 모양이다. 그렇지만 전투를 피하고 포위를 뚫고나가자면 벼랑길을 통과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는 없었다.

뒤에서 전사들의 웅성웅성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빠져나갈것 같지 못하구만.》

《걱정두 팔자다. 련대장동지가 어련히 대책하지 않으리.》

가뜩이나 마음이 조급한데 그런 말을 들으니 표무강은 더욱 초조해났다. 죽가마처럼 벌렁벌렁 끓는 가슴을 누르고 벼랑주위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역시 출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보자.

두번… 네번…

드디여 벼랑중턱에 건너간 가느다란 띠 같은것을 발견하였을 때 멎은줄 알았던 심장이 껑충 뛰여올랐다.

됐구나!

마침 정찰소대장이 눈먼 파편에 얻어맞을가봐 커다란 몸을 잔뜩 숙이고 뛰여왔다.

《련대장동지!》

다짜고짜 그의 손목을 틀어잡은 표무강은 따져물었다.

《남진때 여기 정찰나오지 않았댔소?》

《옛, 나왔댔습니다.》

리경일에게 쌍안경을 넘겨준 그는 손으로 벼랑쪽을 가리켰다.

《저기 중턱에 있는게 길이 아니요?》
쌍안경으로 그쪽을 살펴본 리경일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렇습니다. 옛날 사냥군들이 다니던 벼랑길입니다.》
《음!-》
련대장의 두눈이 번쩍 빛나는것을 알아본 리경일은 불안한 어조로 뒤를 달았다.
《위험합니다. 길이 좁아서 건너가다가 도중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안경을 매만지고있던 련대참모장이 그와 합세하였다.
《련대장동지, 벼랑을 통과하는건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전사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대대장도, 11대대장도 한마디씩 했다.
《차라리 여기서 결사전을 벌리는게 어떻습니까?》
《결사전을 합시다!》
지휘관들이 그렇게 나오니 표무강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내가 모험을 하는게 아닐가? 7대대장의 말대로 결사전을 벌리는게 옳지 않을가?
다음순간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전선사령부명령을 전달해준 련락군관이 생각났다.
마음의 띵개를 조이듯 군관혁띠를 꽉 조인 표무강은 구분대장들을 둘러보았다.
《군관동무들, 련대가 받은 임무는 전선을 넘어가는거요. 그런데 여기서 결사전을 한다는게 무슨 소리요?…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벼랑을 통과해야 하오.》
구분대장들의 얼굴에 자책의 빛이 어렸다.
《나의 결심은 다음과 같소. 7대대는 붉은 신호탄이 오를 때까지 전방의 적을 견지할것. 기타 구분대는 좌익으로 철수할것. 행군순서는 정찰소대, 19대대, 11대대, 박격포중대, 고사기관총소대… 출발!》

명령을 받은 구분대장들이 뛰여간 후 련대는 위장복을 입은 정찰병들을 선두로 출발하였다.
《뒤로 전달. 구보롯!》
전사들은 앞에 바위가 있건 개울이 있건 가리지 않고 속보로 뛰여갔다.
강행군이 벌어질 때마다 제일 혼나는것은 《사민구분대》였다.
《고남수아저씨, 빨리요. 빨리!》
《서분아주머니, 힘을 내세요!》
한정아가 앞뒤로 뛰여다니며 애썼지만 단련되지 못한 사민들은 대오에서 점점 떨어져나갔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통신소대전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들을 부축하고 내달렸다. 언제 고맙다고 인사할 사이도 없었다. 달려야 한다. 저 벼랑밑에까지!
목에 겨불이 일도록 내달린 련대는 드디여 벼랑밑에 당도하였다.
앞쪽에서 긴장한 표정을 지은 리경일이 달려왔다.
《련대장동지, 적감시병들을 제껴버렸습니다.》
《?》
《서넛이 어물거리는걸 우리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표무강은 얼음물을 들이킨것처럼 가슴이 서늘해났다.
역시 최덕근은 가볍게 볼 적수가 아니다. 벼랑에 병력은 배치하지 않았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감시를 조직한것이다. 정찰병들이 선손을 썼기망정이지 어쩔번 했는가.
《앞으롯!》
얼마후 산릉선을 톺아오른 련대앞에 벼랑중턱을 따라 반원을 그리며 돌아간 길이 나타났다.
두사람이 겨우 어길만 한 좁은 길우에는 잡초가 무성한데 간혹 새알이 드문드문 놓여있었다. 그밑에는 방아확같은 골짜기가 입을 쩍 벌리고있다. 아차 실수하면 뻐꾹소리도 못 지르고 끝장날 판이다.

골짜기를 내려다본 전사들은 당장이라도 몸이 아래로 떨어질것 같은 환각에 눈을 꽉 감았다.

《정찰!》

련대장이 손짓하자 리경일이 성큼 벼랑길에 들어섰다.

한손은 벼랑턱을 잡고 다른 손은 비행기날개처럼 길게 펴고 걸어가는 그의 뒤로 정찰소대가 따라섰다.

날렵하게 움직이는 정찰병들의 뒤를 따라선것은 마사병들이였다.

그런데 겁을 집어먹은 말들이 앞발을 죽어라고 뻗치고 움직이지 않았다.

성난 마사병들이 소리치고 채찍으로 후려갈겼지만 그럴수록 말들은 점점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였다.

표무강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었다. 지금 흘러가는 한초한초는 적들의 공격을 결사적으로 막고있는 7대대전사들의 생명과 직결되여있는것이다.

그때 늙수그레한 마사병이 겨우 진정시킨 말을 끌고 나섰다.

그는 불안한듯 눈망울을 디룩거리는 말을 놀래울가봐 연방 갈기를 쓸어주며 조심조심 끌고 갔다.

첫번째 말이 벼랑길을 절반쯤 건너가자 두번째 말이 코를 흥흥거리며 움직였다. 그 다음 세번째 말이 따라서고.

그 모양을 지켜보던 전사들이 약속이나 한듯 막혔던 숨을 내쉬는데 돌연 앗!ㅡ 하는 비명소리가 터졌다.

네번째 말의 한쪽다리가 벼랑밖으로 미끄러진것이다.

상반신을 뒤로 잔뜩 제낀 젊은 마사병이 죽을힘을 다해 고삐를 잡아당겼지만 이미 몸균형이 헝클어진 말은 점점 벼랑아래로 떨어지고있었다.

《고삐를 놓으라!》

찰나 말은 호으응!ㅡ 하고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벼랑길밑으로 떨어졌다.

골짜기에서 단말마의 비명과 투닥투닥하는 소리가 스산한 메아리

를 일으키다가 잠잠해졌다.

빈몸으로 벼랑길을 넘어온 마사병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이쿠, 락동강에서부터 끌고 온 말을 여기서 죽이다니.》

그 탄식소리는 그러지 않아도 속이 한줌만해진 전사들의 마음을 더욱 졸아들게 하였다.

《담가대!》

련대장의 구령이 울렸지만 담가병들은 주저주저하며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앞에 선 사람은 일없지만 뒤사람은 소경처럼 발더듬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부상자와 앞사람까지도 위험하니 왜 심장이 떨리지 않으랴. 더구나 방금 말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 그들이다.

련대군의소가 전진하지 못하자 그뒤에 선 11대대와 고사기관총소대도 어쩌지 못하고있었다.

표무강은 자기가 어떻게 달려나갔으며 우물거리는 담가병을 밀어내고 담가채를 거머쥐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앞으롯!》

놀라서 뒤를 돌아본 앞의 담가병은 뒤채를 잡고있는 련대장을 알아보자 용기가 생겨났는지 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벼랑길에 접어든 두사람은 온몸이 귀가 되여 서로의 발자국소리를 가늠하며 조심히 걸어갔다.

벼랑길을 절반쯤 축냈을 때 구배가 심한 굽인돌이가 나타났다. 제일 위험한 구간이 바로 이곳이다.

앞채를 잡은 담가병이 먼저 굽인돌이를 돌아서자 표무강도 담가채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따라섰다.

순간 한쪽발이 공기를 밟은것처럼 밑으로 쑥 빠지더니 몸중심이 벼랑밖으로 왈칵 쏠렸다.

머리칼이 곤두서고 선뜩한 느낌이 뒤잔등을 후려쳤다.

벼랑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는데 누군가 자기를 지

켜보는것 같았다.
피끗 고개를 들자 담가우에 누워있는 중상자의 커다란 두눈이 안겨왔다.
창황중이여서 그 눈빛에 동정이 어려있었는지 아니면 겁기가 실렸는지 알수 없었으나 버쩍 정신이 들었다.
한숨을 크게 내쉰 표무강은 오른쪽다리에 힘을 세게 주면서 몸을 우로 솟구쳤다.
실패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야!—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을 때 그는 자기가 벼랑길우에 올라섰다는것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막혔던 동이 터진듯 식은땀이 잔등을 타고 시내물처럼 흘러내렸다.
담가에 누워있던 부상병이 울먹울먹하며 부르짖었다.
《련대장동진 나때문에… 날 둬두고… 가십시오.》
이마의 땀을 어깨에 대고 문지른 표무강은 얼굴이 꺼멓게 질려있는 앞의 담가병에게 소리쳤다.
《앞으롯!》
움실움실 움직이던 담가는 드디여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넘어갔다.
와!—
련대장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된 담가병들은 저저마다 벼랑길에 접어들었다.
그뒤로 11대대, 박격포중대가 통과하자 《사민구분대》차례가 되였다.

2

벼랑길에 선참으로 들어선 사람은 물론 한정아였다.
며칠전에 있은 강도하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위험이 나서면 자기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왜 그렇지 않으랴.
좌상로인이랑 영남이 아버지랑 지어 임신부까지도 모두 자기를 따라 북으로 가는 사람들이였다.
낮에는 자기들과 함께 뙤약볕속에서 김을 매고 밤에는 문문 연기를 피워올리는 모기쑥화로를 마주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실시한 민주주의적인 시책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한정아를 순박한 마을사람들은 한집안식구처럼 사랑해주고 존경하였다. 아는것이 많지만 겸손하고 생기발랄하면서도 몸가짐이 단정한 그의 모습에서 자기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북의 참모습을 그려보았던것이다.
하기에 한정아가 북행길에 오르자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따라나섰다.
《우리도 같이 가자요.》
《섭섭하구만. 그동안 한식솔처럼 지낸 우릴 두고 혼자 가겠소?》
처녀는 난감하였다.
상급의 지시에는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는 내용이 없었다. 북으로 가는 도중 무슨 정황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인정에 못이겨 그들을 데리고 떠났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러면 안됩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좌상로인이 나섰다.
《임자두 알지만 우린 난생처음 제땅이라는걸 가져보았네. 기름기가 철철 도는 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니 스님들이 말하는 극락세계라는게 따로 없더군. 그런데 임자네가 가면 땅을 도로 빼앗기겠는데 세상에 그처럼 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북에는 지주도 없고

소작살이하는 사람도 없다는데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는게 평생소원일세. 그러니 우릴 데려가주게.》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성미가 온순한 영남이 아버지가 끼여들었다.

《우리 집사람은 숨을 거두면서 3대외독자인 영남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지요. 북에서는 여기서처럼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을 걱정도 없다는데 영남이를 위해서도 북으로 가야겠수다.》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던 한정아는 저쯤에 얌전히 서있는 임신부를 알아보았다.

《아니, 서분아주머니도 북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저고리고름을 입에 문 임신부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을에서 드살이 세기로 소문난 우물집녀인이 벅적 고아댔다.

《서분이, 정신나가지 않았어? 그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래? 집에 남아서 아이나 곱게 낳으라구.》

다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임신부를 만류하였다.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진 서분이는 주밋주밋하다가 품속에서 피묻은 편지를 꺼냈다.

마을사람들은 누구나 그 편지를, 보풀이 허옇게 일고 눈물에 만년필잉크가 군데군데 퍼진 그 글줄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고향마을이 해방되자 선참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한 서분이의 남편이 최후를 앞두고 보낸것이였다.

《여보,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린 다 죽을거요. 그렇지만 슬프지 않소. 왜냐하면 지난날 짐승취급을 받으며 살아오던 내가 장군님의 은덕으로 난생처음 사람다운 생활을 누려보았기때문이요. 바로 그 행복을 지키려고 난 서슴없이 결사전으로 나가는거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싶은건 이제 태여날 우리 아이만은 공화국의 품에서 꼭 낳으라는거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다 받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될거요. 여보, 부디 내 당부를 잊지 마오.》

벌써부터 눈굽이 젖어오른 서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도 집에서 해산하면 편하다는걸 왜 모르겠나요. 허지만 그이가…

그래요. 설사 길가에서 아이를 낳는 한이 있어도 북으로 가겠어요. 그러니 절 꼭 데려가주세요. 네? 부탁이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마을사람들의 진정어린 눈길들을 읽으며 한정아는 마음이 후더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태양의 품을 찾아가려는 뜨겁고 절절한 마음을 그 무엇으로 막으랴.

한정아는 서분이의 어깨를 꼭 그러안았다.

《가자요. 우리모두 함께 가자요!》

이렇게 되여 그를 따라나선 마을사람들이였다. …

벼랑길로 접어들던 한정아는 생각난듯 뒤를 돌아보았다.

《서분아주머니, 나하고 같이 건너가자요.》

그 말에 임신부의 두눈이 양푼만큼 커졌다.

《나, 나말이예요?》

《무서워말고 내 손을 잡아요.》

서분이는 주저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을 겨우 내밀었다.

그의 손을 꼭 잡은 한정아는 벼랑길우에 발을 올려놓았다.

뒤에서 서분이가 뚱기적뚱기적 따라섰다.

《침착하게… 덤비지 마세요!》

한정아는 이렇게 소리쳤지만 사실 그것은 임신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웨친 소리였다.

소녀시절 그는 꽃을 꺾으러 마을뒤산에 올라갔다가 산비탈에서 굴러내려 심하게 다친적 있었는데 그때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싸늘해지군 하였다.

지금도 마을사람들앞에서 나약한 꼴을 보이면 안된다고 마음을 도사려먹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있었다.

입술을 사려물고 벼랑길을 절반쯤 건너갔는데 위태로운 굽인돌이

가 나타났다. 좀전에 표무강련대장이 미끄러져 떨어질번 한 곳이였다.

뒤잔등이 오싹해지더니 이마에 땀이 좌악 돋아났다.

침착하자. 덤비지 말자!

굽인돌이를 막 돌아서는데 숨이 막히더니 눈앞이 핑그르르 돌아갔다.

아!ㅡ

벼랑턱에 비죽이 나와있는 나무뿌리인지 풀뿌리인지를 간신히 잡고있자니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내가 왜 이러니, 이래선 안돼!

하지만 며칠째 영남이와 서분이를 돌보느라 지쳐버린 육체는 의지를 배반하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눈길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당장이라도 집어삼킬듯 음침한 미소를 흘리고있는 아찔한 골짜기가 비껴들었다.

찰나 벼랑밑으로 떨어지던 말의 몸뚱아리가 피뜩 떠올랐다가 사라지더니 벼랑길과 골짜기가 뒤섞어지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ㅡ

앞쪽에서 다급한 웨침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마치 수백마리의 꿀벌들이 웅웅거리는것 같았다.

어느결에 서분이의 손을 놓아버린 한정아는 몸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스물두해라는 처녀의 길지 않은 한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릴 그 순간, 앞에서 뻗어온 손이 허우적거리는 그의 한쪽팔을 억세게 잡아당겼다.

벼랑밑으로 기울어지던 한정아는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났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처녀는 이글이글 불타고있는 두눈을 보았다.

그는 다름아닌 표무강련대장이였다.

《일없소?》

막혔던 숨을 호ㅡ 하고 내쉰 한정아는 이마에 돋은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네!》

그때에야 붙잡고있던 처녀의 팔을 슬그머니 놓아준 표무강은 뒤로 몸을 돌리더니 명령조로 말하였다.

《내 혁띠를 잡소!》

자석에 끌리운 쇠붙이마냥 처녀는 든든한 허리를 감고 돌아간 군관혁띠를 꽉 잡았다.

놀랍게도 불안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떨리던 다리도 잠잠해졌다.

《서분아주머니도 정치공작대원동무의 손을 잡으시오.》

한정아의 뒤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잡, 잡았어요.》

《자, 앞으로!》

만일 그 명령이 며칠전에 내렸다면 한정아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꼬물만큼도 다른 생각을 할수 없었다. 한시바삐 이 벼랑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표무강이 먼저 움직이자 처녀는 보폭을 맞추며 걸음을 내짚었다.

뒤에서는 서분이가 덤벼치며 발뒤축을 콱 밟았다. 그 다음은 좌상로인이 또 그 다음은 영남이 아버지순서로 따라나섰다.

한덩어리로 뭉친 《사민구분대》는 인민군련대장 표무강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였다.

세발자국… 여섯발자국…

드디여 《사민구분대》는 위험한 벼랑길을 무사히 건너갔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가로 펑!ㅡ 하고 붉은 신호탄이 솟구쳐올랐다.

3

《허 참, 그자가 벼랑쪽으로 빠져나갈줄 어떻게 알았겠소.》

표무강련대를 《포위소멸》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가 놓쳐버린 최덕근은 천막안에 들어서자마자 장탄식을 늘어놓았다.

《어쩌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된걸.》

그를 맞아준 허정효는 짜장 동정하는척 하였지만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각하, 그들과 그만큼 싸웠으면 그런 경우를 예견했어야지요. 어쨌든 그 두뇌를 가지고 사단을 지휘하는 담력이 부럽군요. 난 당신처럼 우둔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슬기롭게 표무강을 귀순시키겠소.

그는 아닌보살하고 미국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녀주인공의 대사를 인용하며 최덕근의 풀떡거리는 가슴에 매운재를 슬쩍 뿌렸다.

《래일엔 또 래일의 태양이 솟아오르는 법이지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대화는 이상하였다.

《국군》장성과 소령의 직급은 하늘과 땅차이다. 그런데도 마치 동료를 대하듯 무랍없이 말을 건네는 허정효의 태도도 놀랍지만 최덕근의 공경스러운 태도는 더욱 놀랍다. 하지만 허정효가 최덕근의 륙사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별로 놀랄것도 없다. 표무강의 의거만 아니였더라면 허정효의 어깨우에도 소장이나 중장의 계급장이 올라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최덕근은 륙사선배를, 더구나 하불의 후원을 받고있는 첩보장교를 함부로 대할수 없는것이다.

《사단장님, 그릇의 먼지는 씻어서 없애고 남자의 고민은 술로 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허정효의 들큰한 위로에 최덕근은 구겨졌던 얼굴을 폈다.

《거 좋은 말이요.》

또다시 코웃음을 친 허정효는 품속에서 납작한 위스키병을 꺼내여 술잔에 붓고 자못 정중한 자세로 권하였다.

《고맙소!》

독한 위스키를 단번에 비운 최덕근은 《이거 진품이 아니요?》라고 묻는듯 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허정효는 시치미를 뚝 따고 말보따리를 펼쳤다.

《어느날 조물주가 스코치위스키를 만들고 기뻐서 천사 가브리엘을 불렀답니다.

<자, 한번 냄새를 맡아보게.>

가브리엘은 그가 시키는대로 위스키를 손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다음 손을 마주 비볐더니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죽여주더라는겁니다.》

뚱딴지같이 조물주소리는 왜 꺼내는가 하고 뜨아해하던 최덕근의 입귀가 건듯 들리웠다.

《그런데 조물주가 그토록 자랑한 이 스코치위스키를 거만한 영국귀족들이 일반백성들이나 마시는 술로 천시했다니 그들의 문명수준도 알만 하지요. 게다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병합된 후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서 위스키는 깊은 산속에서 몰래 제조되는 밀주신세가 되고말았다는겁니다. 밀주업자들은 판로가 막히자 술을 참나무통에 넣어 지하실이나 산속에 숨겨두었는데 몇해 지나 열어보니 무색이던 색갈은 아름다운 호박색으로 변하고 길금을 건조시킬 때 배인 그을음내는 더욱 세련되고 향긋한 니탄연기냄새로 바뀌였다지 않습니까? 이처럼 슬픈 력사속에서 위스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흠, 미스터 허는 대단히 유식하구만.》

흥미롭게 굴러가던 이야기의 허리를 분지르며 야전천막안에 들어선 사람은 풍채좋은 미국인이였다.

얼핏 들으면 누구나 즐거워할 귀맛좋은 칭찬이였지만 막대기를 삼킨것처럼 몸이 꿋꿋해진 허정효의 얼굴에 알릴듯말듯 경련이 일어났다.

눈앞에 붉은 신호등이 켜진것이다.
에드윈 하불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대단히》라는 부사를 람발하군 하였는데 그 단어를 환영이나 배려의 뜻으로 생각하면 큰코를 다친다. 가끔 미련한 인간들이 오판하고 어리석게 굴다가 졸경치르는 꼴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은 허정효로서는 그럴수밖에 없는것이다.
《미스터 최, 트럼프를 놀지 않겠소?》
허정효는 아짜아짜한 마음으로 최덕근을 주시하였다.
저 우둔한 인간이 정말 트럼프를 놀자고 접어들면 야단인데.
《각하의 청에 응하는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지만 일이 있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맵시나게 거수경례를 하고 천막을 나서는 최덕근을 보자 그는 속으로 놀랐다.
최덕근은 결코 우둔한 인간이 아니였다. 혹시 스칼레트나 스코치위스키에 대해 알고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쇠를 하였을지도 모른다.
미묘한 분위기가 맴돌고있는 천막안에 하불의 점잖은 말소리가 울렸다.
《미스터 허, 요즘 사냥이 잘되오?》
《사냥》이란 말이 나오자 허정효는 마비가 온듯 혀가 굳어졌다.
귀신의 하품소리도 듣는다는 로회한 상전이 표무강을 귀순시키는 일이 어떻게 진척되고있다는것을 몰라서 묻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서운 추궁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미끈한 이마에 진땀이 뿌직뿌직 돋더니 그중 한방울이 술잔에 뚤렁 떨어졌다. 그 불행한 땀방울은 유서깊은 위스키속에 희석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필경 자기도 그 땀방울처럼 하불이라는 독한 위스키에 녹아버릴것같은 생각에 허정효는 잔등이 오싹해났다.
《으흠?!》
범상치 않은 하불의 코소리가 대답을 재촉하고있었다.
《각하, 그자가 워낙 간단치 않은자여서… 지금 방안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위풍을 돋구는데 한몫하군 하는 하불의 노란 눈알이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후에 그의 입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넬슨제독이 말했던가. <나의 생애에서 모든 성공은 일을 예정한 시간보다 늘 15분 먼저 하였기때문이다.>》
그것은 《사냥》을 오래 끌면 재미없다는 경고였다. …
그가 가버리자 허정효는 후유― 하고 페부속에 가득차있던 한숨을 몰아쉬였다.
신상에 날아들었던 위기는 일시 물러갔지만 그것은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재차 들이닥칠것이다. 하불은 겉보기에는 점잖은 신사같지만 그 표정뒤엔 닐강의 악어같은 포악성이 도사리고있었다.
잔잔한 강기슭에서 태평스럽게 물을 마시는 짐승들.
눈과 코구멍을 물우에 내놓고 소리없이 접근하는 악어.
별안간 잔잔하던 수면이 왈칵 뒤집혔다. 악어가 들양을 덮친것이다.
연약한 짐승은 벗어나려고 힘껏 버둥거렸지만 악어는 드센 이발로 먹이감을 사정없이 동강낸다.
하불이라는 악어가 허정효를 덮치지 않고 고스란히 놔준 선심뒤에는 등가보상이라는 절묘한 조건이 놓여있다. 그것은 지옥같은 감옥에서 석방시킨 대가로 표무강을 《자유세계》의 편으로 돌려세우라는것이다. 그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면 악어는 허정효라는 들양을 삼켜버릴것이다. 살점은 말할것도 없고 뼈다귀 하나 남기지 않고 통채로 말이다.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여났으면 마땅히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그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꺼진단 말인가. 물론 누구나 한번은 죽기마련이니 남보다 먼저 《천당》에 간다고 울고불고 할건 없다. 다만 내 앞길을 망쳐놓은 표무강을

물어뜯지 못하는것이 분하다. 아니, 이대로 꺼질순 없다.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이라는 《태풍》에 복종하여야 한다.

누가 말했던가. 아첨은 단 한번의 실수도 모른다고.

하기야 꿀처럼 달달한 아첨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나이라고 해도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짓고 정중히 아뢰이는 미사려구앞에서는 끝내 넘어가고야마는것이다.

그 불가사의한 아첨에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있는자에게 덮어놓고 굽신거리는 체질형아첨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굽신거리는척 하는 지향형아첨이다. 대체로 현명한 사나이들, 적어도 자기의 생을 함부로 포기할수 없는 초연한 사나이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복종이라는 고배를 억지로 마시면서 명성과 출세를 완강하게 추구하였다. 내가 하불앞에서 코흘리개처럼 목놓아울며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맹세한것도 실은 부귀영화의 문고리를 잡게 될 그 순간때문이 아닌가.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군복웃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낸 허정효는 타다남은 양초에 불을 붙였다.

잠시후 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양은 흡사 이승에서의 고달픈 생을 슬퍼하는 사나이를 방불케 하였다.

가물거리는 초불을 노려보던 그의 눈시울이 경련을 일으킨듯 파르르 떨었다.

꺼지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는 초불, 어둠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어차피 종말을 고하고야말 그 모습에서 자신의 래일을 보았던것이다.

《난 당신을 영원히 석방시키지 않았단 말이요.》

심장을 싸늘하게 얼구는 그 목소리.

진저리를 치고난 그는 맥이 진한듯 가물거리는 초불을 노려보다가 후— 하고 바람을 내뿜었다.

연약한 초불은 이렇다할 반항도 못해보고 꺼져버렸다.

허정효의 두눈에 파란 섬광이 번뜩이였다.

난 초불이 아니다!

불현듯 륙사시절 밤을 패우며 읽었던 《손자병법》의 한구절이 생각났다.

《적이 제발로 끌려나올수 있은것은 미끼를 던져 적을 유인했기때문이고 원래 기여나오려고 생각하던 적이 끌려나오지 않은것은 위구를 느꼈기때문이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것은 《적이 제발로 끌려나올수 있은것은 미끼를 던져 적을 유인했기때문》이라는 문구다. 하다면 표무강을 유인할수 있는 미끼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자의 에미를 리용해볼가? 혈육을 인질로 삼고 적수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써오는 상투적인 수법인데 오늘에 와서도 그 효과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표무강한테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난 이미 쓴맛을 보았다. 그가 대대를 이끌고 의거할 때 신애라는 처녀를 인질로 삼고 돌려세우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말았다. 표무강의 에미도 다를바없을것이다. 아들이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넘어가도록 뒤에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는 그 녀자가 제 목숨을 건지겠다고 귀순하라고 설복할리 만무하다. 더우기 인민군련대장인 그가 부하들의 운명과 제 에미의 목숨을 바꾸자고 하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그자의 복수심을 가증시킬뿐이다. 목적을 이루자면 고단수의 암계가 필요하다. 고단수의 암계라…

어디선가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허정효는 제꺽 바지주머니에서 손전지를 끄집어냈다.

환한 전지불에 천막안으로 들어서는 녀자의 자태가 드러났다.

다리아처럼 환한 얼굴, 군복을 뚫고 나올것 같은 불룩한 젖가슴, 미출한 몸매…

숨이 막히도록 꽉 안아주고싶은 육감적인 자태를 보자 머리속에서 무르익어가던 고단수의 암계가 홀연 사라져버렸다.

수집은듯 고개를 살풋이 숙인 녀자를 걸탐스럽게 노려보던 허정효

는 전지불로 천막구석에 놓여있는 침대를 비쳤다.
《어머, 남들이 들어오면 어쩔려구…》
자리에서 일어난 허정효는 가쁘게 오르내리는 녀자의 젖가슴을 슬쩍 그러쥐였다.
《어머!》
바스러지는 비명소리가 터지더니 꼿꼿하던 녀자의 머리가 사나이의 앞가슴에 쿡 박혔다.
벌써부터 할딱거리는 녀자를 통채로 안아 침대에 눕혀놓은 허정효는 승리자연한 미소를 머금었다.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는듯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운 그 녀자는 한때 숙명녀고를 나온 명물인데 마치 제가 무슨 클레오파트라나 되는듯이 코대를 잔뜩 높이고 다니다가 운수사납게도 허정효의 매눈에 걸려들었다. 그래도 제 몸값을 알고있는지라 위급장교따위는 왼눈으로도 보지 않고 장성인 최덕근한테 홀딱 반해서 그가 한번 나타나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서 숨도 제대로 못 쉬군 하였다.
성미가 시원시원한 최덕근 역시 새로 온 녀방송원이 자기를 사모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체면때문인지 서둘러 꺾으려들지 않았다. 그런즉 어느 정신나간 녀석이 사단장의 눈에 든 녀자한테 감히 빨간장미를 안겨줄수 있으랴.
허정효는 단 이틀만에 갖은 수를 다 써서 종시 그 녀자를 자기의 막사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때까지도 녀자는 자기의 심장속에는 오직 최장군밖에 없노라고 도고하게 고개를 쳐들었는데 사나이의 손이 생고무처럼 탱탱한 젖가슴을 주무르자 살맞은 사슴처럼 몸을 바르르 떨더니 마침내 무너져내렸다.
그 다음부터 계집은 잘 길들인 애완용개처럼 공손해졌다.
검질긴 사내한테 은밀한 부분까지 점령당하자 난 이젠 최장군을 잊어버렸어요, 오직 당신밖에 없단 말이예요 하고 눈물을 똑똑 떨구는 계집의 잔등을 쓸어주며 허정효는 녀자와 고양이는 쓸어주는쪽으로 기울어진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였었다.
아무런 저항도 없는, 아니 오히려 기꺼이 점령당하기를 원하는듯 잠잠해있는 녀자의 육체를 한입에 삼킬듯 들여다보던 허정효는 적수를 발견한 뱀처럼 목대가 꼿꼿해졌다.
부지불식간 련대를 이끌고 행군하는 표무강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순간 온몸을 불태우던 정욕의 불길이 물을 들쓴것처럼 꺼져버렸다.
절대로 안된다. 안돼!
그가 어찌나 이를 갈았는지 살랑살랑 옷을 벗고있던 계집이 소스라치며 놀랐다.
《왜 그러세요?》
《옷을 입어!》
싸늘하게 내뱉은 허정효는 절반나마 내리웠던 군복바지를 도로 올렸다.
《소령님!》
돌연 천막자락이 풀럭거리더니 부하가 사마귀처럼 껑충 뛰여들었다.
그통에 미처 옷을 입지 못한 계집은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허정효의 잔등뒤에 숨었다.
그 자리에 서있어야 할지 밖으로 나가야 할지 몰라하는 부하를 향해 허정효는 재촉하였다.
《말해!》
그제야 부하는 재빨리 보고하였다.
《수색중대에서 알려왔는데 공산군탈주병 하나가 제 어미를 만나려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아마 표무강련대소속인것 같습니다.》
《그래?》
흥분한 허정효는 자기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깜짝 놀란 계집이 옷자락으로 앞가슴을 가리우며 바빠하는줄도 알지 못하였다.
두뇌가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자중지란! 이를테면 같은 패거리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표무강련대에는 한해전까지만 해도 《국군》에서 복무하던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전신불구에 눈까지 멀었지만 완강한 의지로 문학수업을 하였다는 빠벨 꼬르챠낀으로 될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사상을 바꾸자면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시기이다. 마을에 내려와있다는 그자를 잘 리용하면 공산군내부에서 소동을 일으킬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저희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지리멸렬될것이다. 바로 이거다!

신이 난 그는 부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수군거렸다.

부하가 천막을 나서자 허정효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표무강,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4

《휴식!》

아찔한 벼랑길을 통과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전사들에게 있어서 때마침 내려진 휴식구령처럼 반가운 명령이 또 어디 있으랴. 그것도 5분이나 10분이 아니라 한시간동안이나 말이다. 그동안이면 딴딴해진 장딴지를 충분히 주무를수 있고 좋기는 풀밭이나 평퍼짐한 바위우에 드러누워 소모된 기운을 보충할수 있을것이다.

7대대장을 불러 경계근무를 조직하라고 이른 표무강은 장작개비처럼 뻣뻣한 다리를 끌고 련대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어느 구분대에 가나 몹시 지치고 피로한 모습들이다. 하긴 강철로 만든 격침도 오래동안 쓰면 무디여지는데 하루도 변변히 쉬지 못하고 달려온 전사들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19대대에 들린 그는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우불구불하게 올라간 소나무앞에서 멈춰섰다.

두눈이 우멍하고 광대뼈가 튀여나온 두 전사가 락엽무지우에 배낭을 벗지도 못한채 누워있었다. 말할 기운도 없는지 눈을 멍하니 뜨고있던 그들은 련대장을 알아보자 일어나려고 하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버둥거리기만 하는 그들의 어깨를 슬며시 눌러놓고 돌아서는 표무강의 가슴은 칼로 베는것처럼 아팠다.

이제 또 행군해야겠는데 이들이 과연 일어날수 있을가? 아, 식량문제만 풀려도 한결 낫겠는데.

이틀전 련대지휘부는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정찰병들을 파견하였었다.

다음날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리경일의 보고는 표무강의 피를 끓이였다.

…적들은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쌀이나 강냉이는 말할것도 없고 간장과 소금까지도 빡빡 긁어가고있는데 이상한것은 련대의 행군로상에 있는 마을들을 앞질러가며 털어내고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고약한짓을 조직한자는 손에 늘 하얀 장갑을 끼고 다니는 《국군》소령이였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간 그자는 졸개들을 시켜 인민군대한테 식량을 아낌없이 퍼준 농민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게 하였다. 그리고는 마을사람들에게 《공산군》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톱으로 농민의 두손을 자르게 하였다. 무서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보며 야멸차게 웃고난 《국군》소령은 손목을 단번에 자르면 고통이 덜어진다고 하면서 천천히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마치 재미난 연극이라도 감상하듯 흥미있는 표정을 짓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있던 그자는 농민의 피가 장갑에 튕겨나자 독오른 뱀처럼 얼굴이 꿋꿋해지더니 새 장갑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장갑을 바꾸어 낀 《국군》소령은 그의 몸에서 피가 더는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키고있다가 휘파람을 불며 가버렸다. …

무거운 마음을 안고 7대대쪽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내짚고있는데 어디선가 구성진 말소리가 날아왔다.

《동무들, 식사를 대접하겠으니 다들 모이시오.》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던 전사들은 《식사》라는 말에 벌떡벌떡 일어났다.

《식사?… 어디 있소?》

《어디에 모이라는거요?》

두눈이 화등잔처럼 커진 전사들앞에 나타난것은 푸짐한 식사가 아니라 목이 앙바틈하고 다리가 짧은 련대지휘부 취사원이였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것을 알아본 전사들은 투덜거렸다.

《사람을 그렇게 놀리는 법이 어디 있소?》

《심봉사처럼 고지식한줄 알았는데 영 딴판이군.》

《노상 가마뚜껑밖에 모르더니 오늘은 어떻게 된거요?》

성미가 급해보이는 상등병은 얼굴이 뻘개서 소리질렀다.

《아바이, 출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자는거요?》

뒤짐을 진 취사원은 여유작작한 태도로 나왔다.

《상등병동무, 결론을 서두르지 마오.》

다들 쓰거워 입들을 다시는데 텁텁한 말소리가 소슬한 가을바람에 실려왔다.

《해방된 그해 내가 소비조합식당에서 료리사로 있을 때 있은 일이요.

하루는 지나가던 붉은군대 대좌가 우리 식당에 들렸소. 헌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어떻게나 잘 번지는지…》

듣는지 마는지 전사들은 반응이 없었으나 취사원은 제김에 흥이 나서 이야기를 엮어나갔다.

《…그 대좌가 날 찾더니 이렇게 묻는것이였소.

<조선음식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요?> 참, 동무들. 우리 음식가운데서 제일 맛있는게 뭐요?》

저쪽에서 누군가 시들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야 떡이지 뭐겠소.》

그러자 이쪽에서 다른 전사가 《무슨 떡소리를 하는거요? 찡한 겨울통김치이지.》라고 툭 받아넘겼다.

좀전에 성을 냈던 상등병이 버럭 소리쳤다.

《다 틀렸소. 국수요, 국수!》

여기저기에서 그의 말에 호응하였다.

《옳소. 국수요.》

《나도 국수를 좋아하오.》

《아무렴, 조선사람이야 국수이상 있나.》

몇마디 말로 잠잠하던 련대를 들쑤셔놓은 취사원은 손님들한테서 주문을 받듯 친절하게 말을 이었다.

《나도 동무들처럼 그 대좌한테 국수라고 말해주었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국수라는걸 어디 먹어보기요.> 하고 식탁에 나앉는것이였소. 그래 농마국수를 한그릇 잘 말아서 가져다주었더니 날더러 먼저 먹어보라는게 아니겠소. 난 이 량반이 국수를 어떻게 먹는가 보려고 그러누나 하고 짐작하고 식초를 슬쩍 치고 겨자까지 듬뿍 넣은 다음 먹기 시작했소. 매끈매끈하고 졸깃졸깃한 국수오리가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가는데 정말 그 맛이란 둘이 먹다가 한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였소.》

어디선가 군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려오자 취사원은 성수가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국수먹는것을 찬찬히 지켜보던 대좌가 자기도 먹어보겠다고 나섰소. 그래서 한그릇을 말아주었더니 그 사람은 여느 음식처럼 생각하였는지 국수를 입안에 가득 넣고 꿀떡 삼켰소. 챠, 이러니 글쎄 일이 안 날수가 있소? 그 질긴 농마국수가 그만 목에 떡 걸렸단 말이요. 급해맞은 그 사람은 얼굴이 시뻘개서 목구멍에 걸린 국수발을 와락와락 잡아당겼는데…》

그가 목구멍에 걸린 국수발을 잡아당기는 흉내를 어떻게나 신통하게 내였는지 전사들은 자기들도 그 대좌처럼 목을 빼들었다 움츠렸다 하다가 나중에는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그통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먹는 소리를 하는가고 언짢아하던 전사들까지도 슬금

슬금 일어나 앉았다.

《마침내 국수발을 다 뽑은 대좌는 내가 자기를 망신시켰다고 노발대발하였소. 난 그런게 아니라고, 농마국수는 질겨서 몇오리씩 넘겨야 한다고 설명하였지만 그는 문을 차고 가버렸소.

눈앞이 캄캄해졌소. 설사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붉은군대군관이 대노해서 가버렸으니 그게 어디 보통일이요? 속이 조마조마해있는데 한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소. 이젠 됐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는데 하루는 식당밖에서 차소리가 나는게 아니겠소. 지나가는 차겠지 하고 무심히 밖을 내다보니 어이쿠! 그 대좌가 차에서 훌쩍 내리는게 아니겠소. 왜 또 왔노 하고 걱정하는데 대좌는 싱글벙글하며 들어서더니 단번에 국수 두그릇을 청하는것이였소. 에라, 모르겠다. 제가 달라는데야 할수 있나 하고 농마국수 두그릇을 말아서 가져다주었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소?》

《이번에도 또 혼났겠지요?》

《그야 물어보나마나지.》

제풀에 등이 달아하는 전사들을 둘러보던 취사원은 다 틀렸다는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 우물에 가서 숭늉찾겠군. 내 말을 마저 들어보오. 국수그릇을 끌어당긴 대좌는 가지고 온 전투가방에서 칼도마하구 자그마한 칼을 꺼냈소. 이 량반이 그따위것들은 왜 가져왔노 하고 생각하는데 글쎄 국수오리를 칼도마우에 올려놓고 썩둑썩둑 자르는게 아니겠소? 허 참, 기가 막혀서… 그 다음 한뽐씩 자른 농마국수를 숟가락만 한 걸이대로 입안에 넣고 조심조심 삼켰는데 차츰 먹는 속도가 빨라졌소. 이런 식으로 두번째 그릇까지 요정낸 대좌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오첸 하라쇼!>라고 하는것이였소. 그러면서 자기는 2차세계대전때 여러 나라들의 민족음식을 맛보았지만 조선국수처럼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소.

난 동방례의지국의 당당한 후손답게 앞으로 또 오라고 친절히 바래주었소. 그후 대좌는 우리 식당에 자주 왔는데 어떤 날은 한밤중에 부하들까지 데리고 들이닥친적도 있었소. 몇년이 지나 붉은군대가 철수할 때 대좌는 나한테 찾아와 농마국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돌아갔소. 뭐 로씨야에 돌아가서 안사람한테 배워주겠다는지.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안해가 눌러주는 조선국수를 먹으면서 날 추억할거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동무들!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 우리 식당에 다들 오시오. 그럼 이 최복남이 오늘처럼 <구두식사>가 아니라 진짜로 쫄깃쫄깃한 농마국수를 곱배기로 대접하겠소.》

그의 말이 떨어지자 전사들은 저저마다 손을 쳐들었다.

《난 미리 세그릇을 신청하겠소.》

《난 네그릇이요.》

《난 큰 대접에다가 통채로 말아주오.》

《그게 어디 사람배요?》

《하하하!》

방금전까지도 맥을 놓고 앉아있던 전사들은 어디서 그런 기력이 생겼는지 사기를 올리였다.

《원, 공짜로 대접하겠다니까 사정들이 없군. 허허허!》

취사원은 흐뭇한지 느물느물 웃었다.

그가 펼쳐놓은 《구두식사》로 하여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다.

표무강은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고싶었다.

저 엉큼한 취사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가?

《자, 배를 실컷 채웠으니 냅다 달려보기요.》

련대장의 호소에 전사들은 기운차게 화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련대가 출발하려는데 척후조장이 서너명의 사민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적들한테 붙들렸다가 겨우 도망쳐나와 산속을 헤매던중 아군을 만난것이다.

그중에서 최가성을 가진 청년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호소

하였다.

《련대장동지, 놈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 안해와 어린 아들애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예?… 절 인민군대에 받아주십시오. 원쑤를 복수하게 말입니다!》

옆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먼저 호송병을 주먹으로 때려눕히고 함께 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련대에 신대원들이 보충되였다.

5

한편 대오의 뒤쪽에 위치한 련대군의소에 약품을 얻으러 갔던 한정아는 울상을 짓고 돌아서는 련대장련락병과 마주쳤다.

면식이 있는 그는 무슨 말을 할듯말듯하며 망설이였는데 손에는 앞섶이 너덜거리는 군관복이 들려있었다.

《그건 누구거예요?》

《우리 련대장동지 군복인데 오전전투때 파편에 찢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당장 기워야겠는데 간호원동무들이 바삐 돌아가니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아서…》

한정아는 시무룩해있는 련락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인 주세요.》

《기워주겠습니까?》

《네.》

《히야, 됐구나!》

좋아서 껑충껑충 뛰던 련락병은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씽 달려갔다.

《사민구분대》로 돌아와 군복을 기우려던 한정아는 시큼한 땀내를 맡자 저도 모르게 코살을 찡그렸다.

아이참, 어쩌면 이런 군복을 그냥 입고있을가?… 가만, 제꺽 빨자.

바늘을 실패에 도로 꽂고나서 개울가로 달려갔다.

여러 마리의 백곰이 웅크리고있는것 같은 둥글둥글한 바위들을 감돌아 신나게 흐르는 개울물에 군복을 담그었다.

군복을 주물럭거리는데 불현듯 벼랑길을 통과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아찔한 벼랑길을 겨우 통과한 한정아는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련대장동지가 어떻게 생각할가. 혹시 날 비웃지 않았을가? 아이참, 하필 그가 나타날건 뭐람.

생각할수록 표무강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가 일부러 자기를 망신시킨것 같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복잡다단한 생활은 남자들의 선심뒤에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부가 뒤따른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면 다른 처녀들은 어떨지 몰라도 한정아만은 잔뜩 경계심을 품군 하였다.

그의 심중에 경계의 등잔불이 처음 켜진것은 사춘기시절이였다.

한뽐도 안되는 머리꽁지를 달싹거리며 뛰여다니던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소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

마을사람들이 《임잔 여기서 두엄내나 맡으며 썩긴 아까운 인물일세.》라고 감탄할만큼 고운 용모와 착한 마음씨를 타고난 어머니는 바느질솜씨까지 뛰여나서 시샘많은 마을녀인들도 새 이불을 꾸미거나 옷을 지을 일이 있으면 군말없이 청하군 하였다.

하루는 모녀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삯바느질을 하고있는데 집뜨락에서 《계십니까?》 하고 찾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자 몇달전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무슨 일때문인지 고향으로 내려온 지주집아들이 점잖게 서있었다.

《아니, 도련님이 어떻게…》

소작농들한테 내주는 장리쌀마저 아까와하는 부친과 달리 인정이 있고 마을사람들의 딱한 형편을 동정도 하군 하는 그는 기름한 얼굴에 미안한 기색을 띠웠다.

《아주머니,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

《뒤산에 올라 산책하던중 그만 넘어지면서 겨드랑이가 터졌는데 어떻게 좀 기워줄수 없겠습니까?》

《저, 댁의 아주머닌…》

《허허, 집사람이 몸을 풀려고 친정에 가고 없어서 이러질 않습니까.》

잘 생긴 얼굴에 딱한 웃음을 담고 공손히 사정하는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수 있으랴. 게다가 정아네 역시 이따금 지주집신세를 지는터인지라 어머니는 할수없이 양복을 받아들었다.

《도련님, 인차 기워서 댁에 보내드리겠어요.》

《저, 수고스러운대로 이제 기워줄수 없습니까? 이런 차림으로 마을을 돌아다니기가 좀 멋해서 그럽니다.》

잠시 망설이던 어머니는 마침내 승낙하였다.

《그럼… 들어오세요.》

방안에 들어온 도련님은 흥미진진한 눈길로 녀자들의 체취가 가득 풍기는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일감을 밀어놓은 어머니는 양복을 깁기 시작하였다.

재봉으로 누빈것처럼 뜸사이가 고르롭고 일매진 바느질솜씨를 황홀해서 지켜보던 도련님은 갑자기 목이 컬컬한 모양 《정아야, 거 우물에 가서 시원한 랭수를 떠다주겠니?》 하고 부탁하였다.

소녀는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얼른 부엌에 내려간 소녀는 물동이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터로 간 소녀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머리우에 이고 돌아섰다.

얼마후 부엌에 들어선 그는 방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발볌발볌 다가가 방문을 열던 소녀는 까무라칠

것처럼 놀랐다.

랭수를 떠오라고 시킨 도련님이 마구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는 어찌나 정신없는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소녀가 자기 등뒤에 서있는줄도 모르고있었다.

《정아 어머니, 한번만… 한번만 사정을 봐주시오. 후에 꼭 사례를…》

소녀는 손에 들고있던 물동이를 통채로 남자의 머리우에 쏟아부었다.

《어, 차겁다!》

진저리를 치며 어머니를 놓아버린 그는 성난 꿀벌같은 소녀를 알아보자 금시 너스레를 떨었다.

《정아야, 난 너의 엄마와 이야기를…》

분해서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소녀는 있는 힘껏 소리질렀다.

《당장 나가라요!》

방바닥에 널려있는 양복을 집어든 남자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채 황황히 토방을 내려섰다.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넘길뿐 말이 없었다. 하지만 대문이 찌쿵— 하고 닫기자 설음많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엄마!》

《정아야!》

와락 끌어안은 모녀는 오래도록 흐느껴울었다.

그날 한정아는 평시에 점잖은 티를 곧잘 내군 하였지만 가슴속에 검은 속심을 품고있던 지주집아들이 증오스러웠고 남자들에게 베푸는 녀자의 선의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후 그 남자가 기신기신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제손으로 넘어진 울타리를 세우고 부뚜막도 쌓았다.

어느날인가는 도끼질을 하다가 발등을 다쳤지만 기어코 나무를 마

저 패고말았다.

그 모습은 명주천처럼 깨끗한 처녀의 가슴속에 또렷이 새겨졌다. …

지금도 한정아의 가슴속에는 그 일이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그래서인지 지금 표무강의 군복을 빨면서도 착잡한 감정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다음순간 처녀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래, 지금은 전쟁이 한창이야.

물에 흠뻑 젖은 군복을 내려다보던 한정아는 《어마나, 내 정신 봐!》 하고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군복주머니에 혹시 문건 같은것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것이다.

서둘러 건져낸 웃주머니에 손을 밀어넣자 납작한것이 잡혔다.

꺼내보니 총잡은 인민군전사를 형상한 군공메달이였다.

우선 중요한 문건이 아니여서 안도의 숨이 나갔다. 그런데 무슨 공로로 그 메달을 받았고 또 어째서 배낭이 아니라 웃주머니에 건사하고 다니는지 알수 없었다.

군공메달의 물기를 닦아 바위우에 올려놓고 마저 뒤지는데 웃주머니와 별도로 붙어있는, 련대장자신이 서툰 바느질솜씨로 만든것이 분명한 안주머니가 나타났다.

처녀의 휘우듬한 속눈섭이 깜빡거렸다.

무엇때문에 이런 주머니를 따로 해달았을가? 혹시 중요한 문건이 여기에 들어있는게 아닐가?

아닐세라 안주머니속에서 유지로 꽁꽁 싼것이 나왔다.

아이, 다행이구나!

안도의 숨을 내그은 한정아는 그 《문건》을 군공메달옆에 올려놓았다. 그 다음은 푹 젖은 군복에 살살 비누칠을 하고 비비기 시작하였다.

보동보동한 두손의 애무를 받은 꽝꽝한 빨래감은 꿈틀꿈틀하다가 공손하게 재빛거품을 내뿜었다. 그것을 내물에 여러번 헹구고 꼭 짜

서 나무가지에 걸어놓고는 마른 삭정이들을 모아 불을 지폈다.

고맙게도 모닥불은 인차 피여올랐다.

물기가 찐 군복을 펼쳐들고 모닥불과 마주하고 서있느라니 자기가 깨끗이 빨아 기워준 군복을 입고 전사들앞에 나서는 표무강의 의젓한 모습이 떠올랐다.

인차 말라야겠는데.

《련대 행군준비!》

청천벽력같은 구령소리에 한정아는 깜짝 놀랐다.

어마나, 이걸 어쩌나?

아직 마르지 않은 군복을 손에 들고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누군가 옆으로 뛰여가며 소리쳤다.

《뭘 하오? 불을 죽이구 떠날 차비를 하지 않구.》

정신을 차린 한정아는 군복을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한창 타고있는 나무가지를 끄집어내여 발로 꽁꽁 밟았다.

그러는데 련대장련락병이 헐떡거리며 뛰여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군복이 어지러워서 빨았는데…》

《예에?》

련락병의 얼굴이 굳어진것을 보자 처녀는 속이 더욱 졸아들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젖은 군복을 받아들고 뛰여가는 련락병을 멍하니 바라보던 한정아는 뒤늦게야 바위우에 올려놓은 군공메달과 유지를 발견하였다.

《련락병동무,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러나 련락병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망연해서 서있던 한정아는 군공메달과 유지를 양복주머니에 넣고 《사민구분대》쪽으로 뛰여갔다.

6

남쪽하늘가에서 무거운 대리석공을 굴리는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수림우에 거대한 잠자리모양의 직승기가 나타났다.

《은페!》

행군중에 있던 전사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기였다.

련대상공을 빙빙 돌고있는 적직승기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산군련대장 표무강씨 들으시오. 나 허정효요.》

굵다란 잣나무뒤에 서있던 표무강은 두눈을 부릅떴다.

허정효라구? 친구의 너울을 쓰고 나를 민족반역의 길에 끌어들이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던 교활한 원쑤, 내가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의거하려고 하자 신애를 인질로 붙들어두고 발악하였던 간악한 원쑤. 그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 없었던 저자가 어떻게 이곳에 나타났는가.

《표련대장, 아무래도 우리의 상봉은 숙명인것 같구만. 그건 그렇고 당신도 알겠지만 고대그리스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를 알지어다.>라고 하였소. 그렇소. 현명한 인간일수록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거요. 당신은 첫번째 선택을 잘못했소. 그렇다고 락심할건 없고 이제라도 개심하고 귀순한다면 우린 과거를 일소하고 환영하겠소. 난 장교의 명예를 걸고 엄숙히 약속하는바이요.》

수림은 잠든것처럼 고요하다.

《참, 당신한테 알려줄게 있소. 우리한테 홍일남이라는 당신 부하가 와있소.》

표무강은 귀를 의심하였다.

저게 무슨 소린가? 일남이가 저 독사같은자한테 가있다니.

그 의혹을 증명이라도 하듯 확성기에서 울리는 눈물젖은 목소리.

《련대장동지, 난 홍일남입니다.》

《?》

《나도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앓고있는 어머니를 버리고 련대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방망이 호되게 얻어맞은것 같은 기분이였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홍일남은 계속 주절거린다.

《련대장동지, 불쌍한 전사들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데리고 귀순하십시오. 제발 빕니다!》

삽시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것 같았다.

일남이, 네가… 네가 그런 인간이였단 말인가?

꽉 틀어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있는데 앞쪽에서 날카로운 눈길이 날아왔다.

전선사령부 대표 로성익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굳어진 얼굴은 이렇게 묻고있었다.

《동문 아직도 할 말이 있소?》

표무강은 고개를 옆으로 비틀었다. 그랬으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말을 꺼냈다.

《좀 이상합니다.》

꽉 다물려있던 로성익의 입에서 차거운 말소리가 튀여나왔다.

《뭐가 이상하다는거요?》

《어쩐지 <ㅅ>자발음이…》

《동문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 하는거요?》

그때 후위구분대쪽에서 한 전사가 달려왔다.

《련대장동지, 적입니다!》

표무강은 권총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련대 모엿!》

숲속에서 달려나온 전사들은 저저마다 격분을 터뜨렸다.

《에익, 너절한 자식!》

《전우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다니.》

《만나기만 해봐라. 당장 쏴죽일테다!》
전사들이 분개해하고있을 때 로성익은 군복바지에 달라붙은 도꼬마리씨를 차근차근 뜯어내고있었다.
그가 그렇듯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할수 있는것은 마침내 올것이 오고야말았다는 생각때문이였다.
홍일남이 산을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로성익은 벌써 오늘과 같은 날이 들이닥칠것이라고 짐작하였었다. 그래서 탈영자가 련대로 돌아온다는 표무강의 주장을 일축하고 즉시 련대를 출발시키라고 명령하였던것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자기가 내린 명령은 조성된 정황에 대처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조치였다. 만약 표무강의 말에 동조하여 련대를 출발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른다.
침착한 손놀림으로 마지막 도꼬마리씨를 뜯어내는데 눈앞에 술취한 사나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대장동지, 정말 날 총살하겠다는겁니까?》
두눈에 흰자위가 번뜩거리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본 로성익은 두눈을 꽉 감아버렸다.
월로쟈!
가슴을 찢어발기는 아픔속에서 그는 자기가 이곳 수림속을 떠나 머나먼 로씨야의 어느 한 촌락입구에 서있는것을 느꼈다.
…대대가 마을앞을 지나고있을 때 3중대 중사 월로쟈가 맨머리바람에 달려왔다.
《대대장동지, 한가지 제기할만 합니까?》
《월로쟈, 모자를 쓰오.》
너부죽한 얼굴에 빙글빙글 웃음을 담고있던 월로쟈는 손에 쥐고있던 납작한 뻴로뜨까를 곱슬곱슬한 머리우에 올려놓았다.
《말하오.》
《이 마을에 저의 약혼녀가 있습니다. 따냐라고 금방 딴 양벗처

럼 싱싱한 처녀인데…》
《본론을 말하오.》
《예, 전선에 나온 다음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
《만나보고 제꺽 돌아서겠습니다. 처녀를 만나고 돌아와선 싸움을 더 잘하겠습니다.》
처녀를 만나고 돌아와 싸움을 더 잘하겠다는 그 결의가 로성익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좋소. 한시간 주겠소.》
《히야, 고맙습니다. 대대장동지!》
사기가 난 월로쟈는 냅다 뛰여갔고 대대는 마을을 지나갔다.
한시간이 지나고 오후해가 저물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월로쟈를 기다리던 로성익은 래일 아침에 푸접좋은 그가 싱글벙글하며 나타날것이라고 믿었다.
에라, 처벌은 주지 말자. 그야 제일 우수한 중기사수가 아닌가.
다음날 아침 로성익은 《대대장동지, 도착했습니다.》 하는 월로쟈의 보고가 아니라 천식환자의 기침소리같은 도이췰란드제자동총소리에 소스라쳐 놀라 깨여났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것은 이리떼마냥 달려드는 적들이였다.
《중기, 사격하라!》
목갈린 대대장의 명령에 대대에 한문밖에 남지 않은 중기가 뚜루룩거렸다.
누런 불줄기가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날아갔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쓰러지는 적은 하나도 없었다.
아차! 하고 로성익은 혀를 깨물었다. 지금 중기를 붙들고있는 전사는 중기사격으로 널판자에 《8》자를 새긴다는 월로쟈가 아니라 사격술이 능하지 못한 부사수였던것이다.
아, 월로쟈를 괜히 보냈구나!

하지만 언제 후회하고있을 사이가 없었다. 진지를 돌파한 적들이 숙영지로 육박하고있었던것이다.

《철수, 철수하라!》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은 대대는 황황히 물러났다.

적들의 포위를 간신히 뚫고 나왔을 때 로성익은 반수이상의 전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자 얼굴이 까맣게 질려버렸다.

먼발치에서 파쑈들이 화염방사기로 전우들의 시체를 불태우는것을 본 그는 자신의 실책을 끝없이 저주하며 몸부림쳤다.

저녁무렵, 포승에 묶이운 월로쟈가 끌려왔는데 능청스럽게 빛나던 두눈은 모주먹은 돼지처럼 흐리멍텅하고 입에서 역한 술냄새가 풍겼다.

《대대장동지, 글쎄 따냐가 내 목을 부여잡고 매달리는데…》

《정신차렷!》

입에서 구렝이가 나가는지 뭐가 나가는지 모르고 히히덕거리는 그의 머리우에 물바께쯔가 통채로 들부어졌다.

《어— 시원하다!》

온몸이 흠뻑 젖은 월로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팔뚝만 한 고기뼈다귀도 와작와작 씹어버리는 든든한 이를 드러내며 이죽거렸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 얻어맞은 개처럼 쫓기우면서 뭘 그럽니까?》

로성익은 보기만 해도 역겨운 그 상통을 힘껏 후려갈겼다.

대번에 입술이 터졌지만 월로쟈는 그냥 히물거렸다.

《대대장동지, 공연히 힘을 뽑지 말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듣자니 도이췰란드군은 벌써 모스크바부근에 당도했답니다. 며칠 있으면 그곳에 나치스기발이 휘날린단 말입니다.》

《배신자!》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유. 어쨌든 우린 졌소. 망했단 말이요.》

로성익은 더 참지 못하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자기를 겨눈 총구를 보자 월로쟈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날 쏘겠다는거요?》

절컥!

격발기소리가 울리자 월로쟈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자 한 말은 취중에 한겁니다. 제발 용서해주시유.》

허겁지겁 발목에 매달리는 월로쟈를 걷어찬 로성익은 방아쇠를 연방 당겼다.

땅, 따당—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건 희생된 전우들의 복수다! 또 이건 너를 믿었던 나를 총살하는것이다!

질쩍거리는 진창속에 배신자의 몸뚱이가 구겨박혔다. …

바로 지금 눈앞에서 그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로성익은 생각하였다.

월로쟈와 홍일남, 두사람의 처지는 얼마나 비슷한가. 한사람은 약혼녀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머니때문에 전우들을 배반하였다. 그래도 월로쟈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갔지만 홍일남은 자의대로 련대를 떠났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추위가 들이닥치고 며칠째 굶자 《국군》시절의 버릇이 되살아났으리라. 그가 갈 곳은 한곳뿐이다. 그것은 배신이라는 치욕을 잉태한 고향집이다. 물론 배신자가 대오에서 떨어져나간건 잘된 일이다. 문제는 배신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건 장담할수 없다. 바로 삐라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어제 아침 19대대와 함께 행군하고있던 로성익은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그쪽으로 다가간 그는 대여섯명의 전사들이 모여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게 사실일가?》

《글쎄 이 산속에서야 그걸 어떻게 알겠나?》

앞을 가리운 잣나무가지를 와락 밀어버린 그는 버럭 소리쳤다.

《동무들은 뭐요?》

전선사령부 대표를 알아보자 전사들은 나쁜짓을 하다가 들키운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수염이 텁수룩한 전사가 덤벼치며 삐라를 바지주머니에 쑤셔넣다가 실수하여 땅에 떨구었다.

바빠난 그가 삐라를 집으려는데 번쩍거리는 가죽장화가 먼저 그것을 짓밟았다.

허리를 굽히고 삐라를 주은 로성익은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누가 이 너절한걸 보라고 했소?》

고개를 푹 떨군 전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그게 적들의 개나발이라는걸 모르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소.》

단단히 오금을 박고 돌아서는데 텁석부리가 뭐라고 웅얼거렸다.

《이자 뭐라고 했소?》

《적들이 평양에 들어갔다는게 사실입니까? 그 삐라에…》

전선사령부 대표의 얼굴이 이그러지는것을 본 그는 창에 찔리운 가물치처럼 꿈틀 놀랐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궁금한 모양 이렇게 물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한심한 친구가 있나 하고 그를 노려보던 로성익은 문득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언제 입대했소?》

《작년에 대대와 같이 의거한 후에 입대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로성익은 가슴이 뜨끔거렸다.

적지 않은 전사들은 한해전까지만 해도 《국군》에서 복무한것만큼 아직 단련이 부족하고 신념도 투철하지 못하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삐라를 보고 적들의 거짓선전에 귀를 기울이고있는것이다. 이들을 단단히 눌러놓지 않으면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그래, 삐라를 본 사람이 더 없소?》

《없습니다. 우리도 이자 방금…》

《똑똑히 들으소. 삐라내용을 루설하면 군사재판에 넘기겠소.》

가뜩이나 대하기 어려운 전선사령부 대표의 입에서 군사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이 쏟아져나오자 텁석부리는 물론이고 옆에 서있던 전사들도 겁에 질려버렸다.

《그래, 어느 중대요?》

《3중대입니다.》

로성익은 19대대의 선두에서 행군하고있는 3중대쪽을 가리켰다.

《구보로 갓!》

그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전사들은 호랑이한테 붙잡혔다가 놓여난 노루들마냥 우르르 뛰여갔다. …

문제의 엄중성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저께 로성익은 《사민구분대》에 내려갔었다.

경비소대장을 시켜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료해하였는데 특별히 의심되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맨 마감에 담화를 한 사나이만은 왜 그런지 껄끄름하게 생각되였다.

고남수라고 하는 그 남자는 행군도중에 끼여든 사람인데 한정아도 그의 신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있었다. 그보다 더 의심스러운것은 고남수의 배낭이였다. 담화과정에 그는 불룩한 배낭을 꽉 불들고있었는데 경비소대장이 그안에 무엇이 있는가고 묻자 별게 아니라고 잡아뗐다. …

로성익은 군복웃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담배연기를 폐장속으로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후― 하고 내뿜자 불안하게 뛰던 가슴이 부두에 정박한 기선마냥 천천히 가라앉았다.

앞으로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련대장은 한창나이여서 물덤벙술덤벙하니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자!

절반쯤 타들어간 담배를 비벼끈 로성익은 군복자락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나서 앞으로 걸어갔다.

7

숙영구령이 내리자 한정아는 산릉선쪽으로 뛰여갔다.

그곳에는 두개의 큰 바위가 나란히 웅크리고있었는데 삭정이와 락엽을 긁어모아 바닥에 깔고 배낭뒤에 동여맸던 모포를 풀어 지붕처럼 덮었더니 제법 아늑한 《잠자리》가 생겨났다.

《서분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뚱기적거리며 다가온 서분이는 몹시 미안해하였다.

《나한테 모포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참, 나야 사람들 틈에 끼워자면 춥지도 않구 좋지요 뭐.》

별걱정을 다 한다는듯 두눈을 곱게 흘겼으나 한정아는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날씨가 급작스레 추워졌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칼바람에 숲은 마구 비명소리를 질렀고 아침이면 락엽우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속에서 자며말며 하다가 부스스 일어난 사람들은 추워서 기를 펴지 못하였는데 임신부인 서분이는 남달리 더하였다. 얼굴이 퍼렇게 질린 그를 보느라면 마음이 아릿해지군 하였다. 이런 때 개인천막이 있으면 바람도 막고 모포속에 불돌을 들여놔주면 춥지 않겠는데.

그 생각을 한것은 처음이 아니였다. 천막을 구하자면 부득불 련대장을 만나야 하는데 벼랑길을 통과한 후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와 마주서고싶지 않았다. 게다가 련락병한테 젖은 군복을 보내고나니 그 감정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오늘 밤도 바위짬에서 추운 밤을 보내야 하는 서분이의 정상을 생각하니 더는 자존심을 내세울수 없었다.

그래, 련대장동지를 만나자!

결심을 내린 그는 서분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끌었다.

《미안해하지 말고 후에 고운 애기만 낳아주세요. 그렇게 하지요?》

저고리고름을 들어 눈굽을 훔친 서분이는 수줍게 대답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인차… 몸을 풀것 같애요.》

《아이, 그럼 됐군요. 자, 이젠 쉬세요.》

어색해하며 잠자리에 누운 서분이는 눈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아지미도 같이 눕자요.》

한정아는 방긋 웃어보였다.

《난 또 사람들한테 가봐야 해요.》

서분이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다가 몸이 견디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구…》

말끄리가 이상하게 죽어든다 했더니 어느새 그는 잠들어버렸다.

퉁퉁 부은 얼굴에 검버섯이 가득 돋은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한정아의 가슴속에 동정심이 솟아올랐다.

막달찬 몸으로 행군하자니 얼마나 힘들가. 그래도 서분아주머닌 주저앉지 않고 북으로 가고있어. 이제 태여날 아이를 위해, 자식한테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아주머니, 제발 끝까지 힘을 내세요!

뒤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저쯤에서 련대장련락병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서분이를 깨울가봐 한정아는 재빨리 그를 향해 마주 걸어갔다.

눈치빠른 련락병은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을 꺼냈다.

《혹시 련대장동지 군복을 빨 때 군공메달이랑 건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한정아는 양복주머니에서 군공메달과 유지로 싼것을 꺼내주었다.

련락병은 마치 귀중품을 잃었다가 찾은것처럼 기뻐하였다.

《히야, 그런걸 난 잃어버린줄 알구 속이 한줌만했댔습니다.》

군복소매로 이마의 땀을 뻑 훔치는 그를 보자 한정아는 롱조로 물었다.

《련대장동지한테 졸경을 치른 모양이지요?》
《말두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는 날엔…》
련락병은 목을 움씰하더니 호랑이가 두발을 쳐들고 먹이감을 덮치는 흉내를 해보였다.
《우리 련대장동진 한번 성나면 범 한가지입니다.》
《호호호. 그렇게 무서운가요?》
《예,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련락병을 재미있게 바라보던 한정아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련대장동지가 성나기 전에 어서 가보세요.》
련락병이 가버리자 한정아는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배낭속에서 실패를 꺼냈다. 서분이때문에 련대장을 만나려던 참이였는데 이왕이면 어제 낮에 젖은채로 돌려보낸 그의 군복을 기워줄 생각이였다. …
한정아가 천막에 들어섰을 때 표무강은 붉은 비로도천에 싼것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어찌나 정신이 팔렸는지 사람이 들어선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눈가에 어려있는 숙연한 빛을 보자 처녀는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돌아서자니 공연히 놀래울것 같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한정아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다.
아이참,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가?
문득 표무강의 손이 움직이더니 남포등불빛에 뭔가 번쩍 빛났다.
《!》
그것은 좀전에 련락병이 찾아간 군공메달이였다.
군공메달을 웃주머니에 정히 간수한 그가 이번에는 유지에 싼것을 풀기 시작하였다.
처녀의 가슴속에 호기심의 초불이 반짝 켜졌다.
물에 젖을가봐 싸고 또 싼 유지속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가?
다음순간 처녀의 눈에 어이없는 빛이 그려졌다.
한장의 쪽지편지!
아이참, 그런걸 난…

추연한 눈길로 편지를 보던 표무강은 한숨을 내쉬고나서 유지에 도로 싸더니 품속에 넣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천막입구에 서있는 처녀를 알아보자 놀라와하였다.
《동무가 어떻게 여기 있소?》
한정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하다가 대답하였다.
《저, 군복을 기워주려고 왔습니다.》
《군복?》
《네.》
한정아는 련락병을 만났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찢어진 군복앞섶을 내려다본 표무강은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니 가보우.》
순간 내가 공연히 찾아온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정아는 마음을 다잡고 도담하게 나왔다.
《그러지 말고 군복을 벗어주십시오.》
표무강은 증을 냈다.
《동무, 한번 말했으면 됐지 무슨 말이 많소?》
처녀는 담벽에 맞고 튀여나온 고무공마냥 한발자국 앞으로 다가섰다.
《련대장동진 전사들앞에 그런 군복을 입고 나서겠습니까?》
《뭐요?》
《전 련대장동지가 모든 면에서 전사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무가…》
두눈을 지릅뜬 표무강은 무슨 일을 칠것처럼 다가왔지만 어째서인지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정아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수천명의 전사들을 쥐락펴락하는 련대장이 처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니. 아이참!
씩씩거리던 표무강은 시끄러웠던지 군복을 벗어주고는 뒤로 돌아

섰다.
군복을 받아든 한정아는 그가 보지 않는 틈에 살그머니 냄새를 맡아보았다.
깨끗이 마른 군복에서는 시큼한 땀내가 더는 나지 않았다.
마음이 가벼워진 처녀는 찢어진 앞섶을 마주 붙이고 바느질을 시작하였다.
소녀시절부터 한정아는 이악하고 알뜰한 홀어머니슬하에서 규방처녀가 갖추어야 할 재간들을 차근차근 배우며 자랐다.
음식만드는 법, 방을 거두는 법, 웃어른앞에서 가져야 할 몸가짐…
그가운데서도 바느질솜씨는 보통 꼼꼼하지 않은 어머니도 감탄할 정도로 뛰여났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서 군복앞섶을 깁는것쯤은 눈감고도 할 일감이였다.
제꺽 바느질을 끝낸 한정아는 천막가운데 장승처럼 서있는 표무강을 찾았다.
《군복을 기울 일이 있으면 또 부탁하십시오.》
표무강은 잠자코 군복을 몸에 걸치기만 하였다.
언제 찢어졌던가싶게 말쑥해진 군복을 주의깊이 뜯어보던 한정아는 다른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정색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련대장동지, 한가지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두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한정아가 한 말이 생각났는지 표무강은 선선히 응하였다.
《말하오.》
《개인천막을 하나 해결해주십시오.》
표무강은 의아쩍은 눈길로 쳐다보았다.
《동무가 쓰려고 그러오?》
《아닙니다. 서분아주머니가 추워해서…》
《임신부말이요?》
《네, 인차 해산할것 같습니다.》

그때 련락병이 천막안에 들어섰다.
표무강은 마침이라는듯 그에게 후방부련대장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인차 후방부련대장이 헐떡거리며 뛰여왔다.
《후방부에 개인천막이 있소?》
《예, 있기는 한데 꼭 쓸데가 있어서…》
표무강은 단호한 어조로 그의 말허리를 분질렀다.
《그걸 이 동무한테 내주오.》
《예? 사실 그건…》
《무슨 말이 많소?》
《알았습니다.》
《후방부련대장동무를 따라가오.》
한정아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을 던진 표무강은 성큼 천막을 나섰다.

8

꼬끼요!… 꼬끼요!
울바자우에 넌떡 올라앉은 수닭이 기세좋게 목청자랑을 하고있을 때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홍일남은 밭가운데 있는 강냉이짚속으로 파고들어갔다.
비단필같은 안개를 앞세운 싸늘한 새벽공기가 성글성글한 짚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한듯 동구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하고 귀를 강구었다.
한식경이 지나도록 개짖는 소리 한번 들려오지 않자 손에 잡고있던 보총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통강냉이를 꺼냈다.
만문하게 삶은 강냉이를 아귀아귀 뜯어먹던 그는 한숨을 꺼지게

내쉬였다.

인차 련대로 돌아간다던노릇이 앓는 어머니때문에 이틀째나 강냉이짚속에 숨어있게 될줄을 어찌 알았으랴.

일찌기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못한 방에서 제손으로 유복자의 태줄을 끊었다. 순산이였지만 마을에 기근이 들어 떼죽음이 나는 판인지라 어디 가서 쌀 한줌, 미역 한오리도 구해올수 없었다.

모진 산고끝에 찾아들었던 출산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비몽사몽간에 죽은 남편곁으로 가겠지 하고있는데 옆에서 뭔가 옴지락거렸다.

이 썰렁한 집안에 나말고 또 누가 있을가 하고 손을 뻗쳐보니 강보에 싸인 자그마한 피덩어리가 만져졌다.

손에 와닿는 뭉클한 감촉!

돌연 으앙ㅡ 하고 터져오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잠자고있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에구, 내 아가야!

허겁지겁 아기를 끌어안고 젖꼭지를 물렸는데 젖이 나오지 않았다. 안타까와서 자꾸만 젖몸을 주물렀는데도 마찬가지이다. 하기야 밥은커녕 미역국 한모금도 먹지 못했는데 어디서 젖이 나온단 말인가.

빈젖꼭지를 빨던 아기는 자기를 속인 어머니를 원망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정상을 보느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것 같았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아이를 굶겨죽이다니… 안된다!

벌렁벌렁 부엌으로 기여내려가 아궁에 불을 지피고 벽에 걸려있는 꽛꽛한 배추시래기를 내리워 가마에 끓였다.

제법 김을 씩씩 뿜어올리는 가마를 보느라니 스스로도 자신이 불쌍해나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에구, 이렇게 살아선 뭘 하누.

으앙ㅡ

아기의 울음소리에 우뜰 놀라 바가지로 펄펄 끓는 시래기국을 퍼들고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였다.

젖이 나오자면 먹어야 해. 먹어야 하구말구.

된장도 소금도 두지 못해 슴슴한 시래기국을 정신없이 퍼먹고 방에 들어가니 갓난아기는 진땀을 빨빨 흘리며 울고있었다.

아가야.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가.

드디여 초들초들 말랐던 밤색젖꼭지가 습윤해지더니 뿌연 젖방울이 맺혔다.

에구, 젖이 나오누나!

젖꼭지를 작은 입술에 밀어넣자 아기는 울음을 딱 그치고 쫄쫄 빨아먹기 시작하였다.

그 작고 빨간 입술안으로 젖몸이 통채로 빨리워 들어가는듯 한 느낌에 몸을 부르르 떠는데 눈물이 나왔다. 그것은 남편이 남기고 간 피덩어리를 끝내 살려냈다는 모성의 희열이 떠올린 눈물이였다.

그때부터 끼니때가 오면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 시래기국을 끓였고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에 나가 빨래를 하였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필사적인 몸부림은 현대의학의 손길이 전혀 가닿지 못한 시골녀인의 몸에 산후탈이라는 무서운 병을 가져다주었다. 하여 어머니는 삼복철에도 머리에 무명보자기를 쓰고 집안일을 하였고 겨울에는 바깥출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무서운 가난과 어머니의 병은 코물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홍일남의 자그마한 손에 부엌걸레를 쥐여주었다.

한창 뛰여다녀야 할 나이에 부엌에서 맴도는 자식을 눈물겹게 바라보며 어머니는 《에구, 이 못난 어미때문에 네가 고생하누나!》 하고 념불처럼 외우군 하였다.

세월은 흘러 고생속에 성장한 아들이 《국군》에 징집되자 녀인의

병약한 심장은 리별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어머니!》

기절하여 쓰러진 어머니를 불안고 몸부림치는 아들의 엉치를 누런 군화발이 거칠게 걷어찼다.

《임마, 당장 군대가 되겠는데 질질 짜긴… 빨리 가자!》

《국군》에 끌려간 홍일남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밤마다 집으로 도망쳤다.

그 대가로 뭇매질에 코피가 터지고 온몸이 데친 배추잎사귀마냥 늘어지군 하였으나 필사적으로 탈영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가 파죽지세로 진격하자 홍일남은 인민군대가 《국군》사병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을가 하는 불안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랬었는데 우연히 만난 동료가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글쎄 인민군대가 굶어서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려주었다는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동료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당부하였다고 한다.

《우리 일남이를 만나면 전해달라구. 진정으로 이 어미한테 효도하려면 인민군대어른들한테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구 말일세.》

끙끙 고민하던 홍일남은 전투가 벌어지자 용약 인민군대로 넘어왔다.

얼마전 련대가 고향마을을 지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때마다 제길, 난 이젠 당당한 인민군대전사인데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돼 하고 자신을 다잡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동안에 어머니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가.

그러다가 련대가 고향마을과 가까운 산에서 숙영하자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원래는 분대장한테 보고하려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승낙할것 같지 않았다. 분대에 고향이 남쪽인 전사들이 여러명이나 있는데

나만 특별히 봐줄수 없지 않는가. 《여, 동문 아직도 옛 버릇을 못 고쳤구만.》 하고 욕할게 뻔한데 그럴바에는 조용히 빠져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면 다른 일이 없을것 같았다.

제꺽 달려가서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서자!

순찰병의 눈을 피해 숙영지를 벗어난 홍일남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정신없이 산을 내렸다.

눈앞에는 그저 불쌍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얼른거렸다.

두주먹을 부르쥐고 단숨에 시오리길을 내달려 낯익은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는 노전바닥에 죽은듯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와르르 내려앉았다.

《어머니!… 어머니!…》

어푸러지듯 꿇어앉아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잡아흔들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 더러운 군화자국이 군데군데 찍힌 치마자락…

그때 인기척이 나더니 죽사발을 손에 든 이웃집녀인이 주춤주춤 들어섰다.

《이게 누군가?… 어이구, 자네가 왔구만. 왔어.》

《영국이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사발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녀인은 기가 막힌듯 혀를 차다가 알려주었다.

《며칠전에 <국군>이 달려들어 자네가 인민군대로 도망쳤다면서 죄없는 성님을 마구 두들겨패더니 나중엔 얼마 남지 않았던 쌀까지 몽땅 앗아갔다네.》

《뭐라구요?》

《그들이 하는 말이 공산군에미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누구든 쌀을 가져다주거나 불을 때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거네. 그렇지만 마을사람들은 인민군대가족인 성님을 위해 이래저래 왼심을 쓰고있다네.》

《고맙습니다. 영국이 어머니!》

그 녀인을 돌려보낸 홍일남은 다시금 어머니한테 달라붙었다.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예, 어머니!》

한동안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입술에서 으음― 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힘들게 눈을 뜬 어머니는 자기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나예요. 일남이예요.》

일남이라는 말에 흐려졌던 어머니의 안청이 조금 밝아졌다.

《네가… 정말 인민군대가… 옳구나!》

어머니는 처음 보는 아들의 군복을 어루만지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난 인민군대예요!》

자랑스럽게 대답한 홍일남은 죽사발을 손에 들고 초들초들 마른 어머니의 입안에 떠넣어주기 시작하였다.

한숟가락… 세숟가락…

허기진듯 정신없이 죽을 삼키고난 어머니는 숨을 크게 내쉬더니 언제인가처럼 《네가 이 못난 어미때문에 고생하누나!》라고 뇌이였다.

다음순간 마흔살도 안되였는데 벌써 반백이 되여버린 머리칼을 알아본 홍일남은 그만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어린 자식을 살리자고 동지섣달 개울가에 나가 얼음을 까고 빨래하던 어머니, 그때문에 산후탈을 만나 한여름에도 솜옷을 벗지 못하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자칫하면 구원하지 못할번 하였다는, 때마침 달려오지 않았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후드득 떨렸다.

문득 그는 더이상 지체하면 안된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이젠 떠나자!

그런데 생각과 달리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누가 어머니한테 죽이라도 떠넣어주겠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잘못되면…

끔찍한 광경을 그려보며 몸을 부르르 떨고있는 그의 심중에서 인차 련대로 돌아가자던 결심이 눈석이마냥 녹아내리고있었다. …

이른아침이여서 부지런한 아낙네들이 동자질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올뿐 마을은 고요하였다.

반쯤 남은 삶은 강냉이를 먹어치우고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것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련대생각이 났다.

지금쯤 련대에선 내가 없어졌다고 소동이 일어났을거야. 아마 탈영했다고 욕을 하겠지.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거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강냉이짚들을 몽땅 뒤져라!》

놀라서 짚사이를 내다보니 한무리의 《국군》이 몰려오고있었다.

적들한테 붙잡히면… 아니, 절대로 붙잡히면 안돼!

다행히도 적들은 저쪽에 무져있는 강냉이짚단쪽으로 와르르 몰려갔다.

이때다! 하고 생각한 그는 강냉이짚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뒤에서 악청이 쫓아왔다.

《서라. 서라!》

《안 서면 쏜다!》

홍일남은 발이 땅에 닿는지 허공에 뜨는지도 모르고 죽기내기로 내달렸다.

날 잡겠다구? 어림도 없다!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여가던 그는 무엇을 잊은듯 급작스레 멈춰섰다.

집에 홀로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난것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느새 집에 뛰여든 적들이 어머니를 끌고 나왔던것이다.

적들은 앓고있는 어머니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군화로 걷어차고 총

탁으로 마구 내리쳤다.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달이 뜬 홍일남은 격발기를 절컥 잡아당겼다.

더러운 놈들, 어디 죽어봐라!

교활한 적들은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몸을 숨기였다.

《여, 에미가 불쌍하지 않아?》

《곱게 내려오면 너도 에미도 살려주겠다. 빨리 내려와!》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좋다. 너 죽고 나 죽고 어디 해보자!

와락와락 풀숲을 헤치고 산을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두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얘야, 절대로 내려와선 안된다!》

그바람에 멈춰선 홍일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러는데 어머니의 갈린 웨침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일남아, 내 걱정말구… 돌아가거라!》

악에 받친 적들은 이리떼마냥 달려들어 어머니를 미친듯이 두들겨팼다.

《어머니!—》

홍일남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들이쳤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제서야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인차 돌아서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자신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참을수 없는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 경솔한 결심때문에 효도하려던 어머니에게 오히려 죄를 지었고 전우들앞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였던것이다.

아,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일남아, 어서… 가거라!》

눈물을 좔좔 쏟고있던 홍일남은 적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아들

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그냥 소리치고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깊숙이 절을 하였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내 다시는 어머니앞에 불효자식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십시오!

군복소매로 얼굴을 훔친 그는 강잉히 걸음을 내짚었다.

9

가렬처절한 전투는 련 이틀째 계속되고있었다.

련대가 차지한 무명고지를 겹겹이 에워싼 적들은 비행대와 포병대의 강력한 지원밑에 파상식으로 덤벼들었다. 첫 산병선이 무너지면 두번째 산병선이 밀려들고 그 산병선이 또 무너지면 미리 대기하고있던 세번째 산병선이 그 자리를 메꾸었다.

소백수—죽령계선에서 실패한 최덕근은 이번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련대를 《소멸》하겠다고 고아대며 부하들을 사정없이 내몰았다.

그뿐이 아니다. 상공에서는 허정효가 귀순방송을 불어댔고 산과 골짜기에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빵과 과자를 넣은 포대들이 널려져 며칠째 낟알구경을 하지 못한 전사들의 창자를 뒤집어놓았다.

토끼꼬리처럼 짧은 가을해가 서산마루에 걸렸을 때 전투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적아가 헐떡거리며 허물어진 진지를 보수하고있을 때 표무강은 엄페부복판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이번 전투과정에 남진때부터 함께 싸워온 귀중한 전사들이 적지 않게 희생되였다. 이제 한번만 용을 쓰면 부산에 떨어지겠는데 어째서 돌아서는가고 주먹으로 땅을 치던 그 금싸래기같은 전우들을 남쪽의 이름없는 고지릉선에 파묻고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후날 그들의 어머니와 안해들앞에 어떻게 나선단 말인가.

가슴을 무겁게 하는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당장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탄약이 없다. 좀전에 19대대에서 련락병이 달려와 다문 한상자라도 달라고 제기하였다. 성미가 화약같은 7대대장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 탄약을 내라고 떼를 썼다. 이어 10대대, 11대대, 자동총중대들도 꼬리를 물고 뛰여왔으나 텅텅 비여버린 탄약상자들을 보자 어깨들을 푹 떨구고 돌아갔다.

그야말로 피가 타드는 처절한 순간이였다.

표무강은 오늘처럼 눈앞이 캄캄하기는 처음이였다. 그까짓 죽는것은 두렵지 않다. 최후시각이 닥쳐온다면 련대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전사까지 육탄이 되여 싸울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장난다고 생각하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전방에 적 출현!》

가까운 곳에서 감시병의 날카로운 웨침소리가 터졌다.

비통함을 눌러버린 표무강은 급히 포대경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이 깃을 펴기 시작한 고지아래쪽에서 적산병선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밀려오고있었다. 그뒤에는 두번째 산병선이 전투서렬을 짓고있었다.

《련락병!》

뒤에 서있던 련락병이 얼른 보총을 내주었다.

총가목에 선지피가 묻어있는것으로 보아 그 총의 주인은 적과 육박전을 벌리다가 숨을 거둔 모양이다.

보총을 틀어잡은 표무강은 련대장감시소를 뛰쳐나왔다.

《전투준비!》

여기저기에서 총창꽂는 소리가 절컥— 절컥— 들려왔다.

《야, 야, 공산군은 총탄이 다 떨어졌다!》

적장교의 돼지멱따는듯 한 고함소리에 기세가 오른 적들은 와— 하고 함성까지 지르며 덤벼들었다.

다가오는 적들을 노려보는 표무강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투항하라!》

《손을 곱게 들면 살려주겠당게로.》

맨앞에서 달려오는 적의 상판대기가 똑똑히 보이자 표무강은 참호우에 우뚝 올라섰다.

《련대 날 따라…》

성난 사자마냥 몸을 힘껏 솟구치던 그는 우뚝 굳어졌다.

살기등등해서 달려드는 적들속으로 난데없는 박격포탄이 날아들었던것이다.

쾅, 꽝꽝—

동시에 맞은켠 고지에서 중기와 보총이 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란 눈으로 그쪽을 주시하는데 요란한 함성이 터졌다.

《만세!—》

뒤늦게야 아군을 알아본 표무강은 눈시울이 불로 지진것처럼 확 달아올랐다.

《돌격 앞으롯!》

보총을 꼬나든 련대장의 뒤를 따라 전사들이 참호를 뛰쳐나갔다.

앞뒤로 포위된 적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삼대 쓰러지듯 하였다.

반시간도 못되여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

최후를 각오하였던 련대전사들은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 자기들을 구원해준 다른 부대의 전우들을 붙잡고 울고 웃었다.

한덩어리가 되여버린 전사들속에서 중키의 장령이 걸어나왔다.

두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던 표무강은 《교장동지!》 하고 웨치며 마주 달려갔다.

그를 알아본 장령도 걸음을 멈추고 두팔을 내밀었다.

《이게 표동무가 아니요?!》

《예, 접니다!》

장령의 손을 부둥켜잡은 표무강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인민군장령 오성국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10여년세월 백두산에서 싸운 항일투사인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관학교 교장으로 사업하였었다.

그 나날 오성국과 표무강을 류다른 사제관계로 맺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는 군사교원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활용된 다른 나라의 전술과 전법들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 수십여일간에 걸쳐 벌어진 어느 한 대격전에서 살상포로한 적들의 인원수는 물론 로획한 땅크와 자동포, 저격무기의 정확한 수자까지 렬거하였다.

학생들은 그의 비상한 기억력과 류창한 강의술에 감탄한 나머지 넋을 잃고있었다.

창가에 앉은 표무강만은 그들과 달리 심중한 표정이였다.

사실 그는 남조선에서 륙군사관학교를 다닐 때 련합군이 적용한 전술과 전법들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다. 하지만 대대를 이끌고 공화국으로 의거한 후 제일 알고싶은것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신출귀몰한 전술과 전법이였다. 어떻게 되여 무장장비도 변변치 못하고 든든한 후방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도 아시아의 맹주라고 떠들던 사무라이들의 사등뼈를 호되게 꺾어놓으셨을가?

《동문 강의에 의견이 있는 모양이구만.》

어느새 그를 띄여본 교원은 자기의 강의에 감동되지 않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못 놀라와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표무강은 생각한바를 그대로 털어놓았다.

《교원동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항일빨찌산의 전술과 전법들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바빠맞아서 군복자락을 잡아당겼으나 그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 그건… 후에 보기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던 교원은 강의를 서둘러 끝내고 나가버렸다.

어느날 그는 오성국교장과 담화를 하게 되였다.

《동문 항일빨찌산의 전술과 전법들을 알고싶다고 했다지?》

《그렇습니다.》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오성국은 옆에 놓여있는 걸상을 가리켰다.

《앉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엄이 풍기였다.

《동문 망원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소?》

《망원전술말입니까?》

처음 듣는 말인지라 표무강은 어리둥절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다른 동무들도 모르오?》

《…》

오성국은 성이 난듯 손을 홱 내저었다.

《안되겠소. 다들 강당에 모이라고 하오.》

얼마후 강당에 나타난 그는 립추의 여지없이 모여앉은 학생들을 둘러보다가 직방 말을 꺼냈다.

《동무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군관학교에 왔는가를 똑똑히 알아야겠소. 물론 다른 나라의 전술과 전법을 연구하는것도 중요하오. 그러나 우린 산좋고 물맑은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오는 조선사람들이요. 그래, 유럽사람들이 빠다와 치즈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도 입에 맞지 않는 빠다와 치즈를 먹어야 하겠소?》

《아닙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격식없는 서두로 제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은 오성국은 과묵하던 그답지 않게 신명이 나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1939년 3월 하순경 우린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장백현 12도구 대호부근을 행군하고있었소. 우리가 산릉선에 이르러 숙영준비를 하고있는데 동쪽과 서쪽에 배치된 경계초소에서 적들이 나타났다는 보

고가 들어왔지.

장군님께서는 경계근무성원들을 습격조로 전환시키고 기관총수들을 배속시키시였소. 그이의 명령에 따라 동쪽습격조는 접근해오는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소. 뭣도 모르고 걸어오던 적들은 한바탕 얻어맞고 갈팡질팡하였는데 우린 집중사격을 가하다가 옆으로 슬쩍 빠졌지. 한편 서쪽습격조도 달려드는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안긴 다음 감쪽같이 빠졌소.

그걸 알리 없는 놈들은 앞에서 총을 쏘는것이 빨찌산인줄로 알고 미친듯이 사격하였소. 그래서 제놈들끼리 개싸움이 붙었는데 몇시간은 잘 싸웠단 말이요. 우린 그 통쾌한 광경을 구경하다가 승리의 개가를 올리며 행군하였소. 이게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망원전술이요. 알겠소?》

동료들과 함께 두귀를 세우고 강의를 듣고있던 표무강은 눈앞이 확 밝아졌다.

얼마나 멋있는 전술인가. 바로 그런 전술이야말로 우리 나라 실정에 꼭 맞는 전술이 아닌가.

계속하여 오성국은 동성서격전술과 일행천리전술 등 수많은 전술과 전법들을 실례를 들어가며 알려주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지만 학생들은 모두 강의에 심취되여 시간가는줄 몰랐다.

드디여 오성국의 강의가 끝나자 얼굴이 불깃해진 표무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장동지, 이젠 항일빨찌산의 전술과 전법이 어떤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대견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오성국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발이 어렸다.

그후에도 오성국은 시간만 있으면 백두산에서 싸우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과정에 표무강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였다. …

《좀 있으면 적들이 달려들겠는데 우리 일행천리전술로 쭉 빠지

기요.》

대오가 고지를 거의 내렸을 때 표무강은 오성국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우릴 구원해주었습니까?》

《사단정찰이 어느 련대인지 적포위에 들었는데 자칫하면 전멸당할것 같다고 보고하더군.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달려왔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건 그렇고 련대일은 잘되오?》

《저…》

선뜻 말꼭지를 떼지 못하고있던 표무강은 스승앞인지라 자기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련대를 이끌자니 힘이 듭니다.》

그의 고충을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리던 오성국은 이렇게 물었다.

《참, 군공메달은 간수하고있소?》

그가 군공메달은 왜 찾을가 하고 뜨아해하면서도 표무강은 웃주머니에서 군공메달을 꺼내주었다.

《음, 이게 그 메달이구만. 벌써 한해가 지났지?》

《그렇습니다.》

군공메달을 유심히 보던 오성국은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인간의 한생에서 순간이란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토막에 지나지 않소. 동무가 군공메달을 수여받던 순간도 그렇지. 하지만 고귀한 믿음, 소중한 생명을 받아안은 그런 순간은 결코 짧다고 볼수 없소. 왜냐하면 참된 인간의 한생은 그 순간들의 련속으로 이어지기때문이요.》

표무강의 눈가에 심중한 빛이 떠올랐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 하기요. 혹시 표동문 이 군공메달을 자기 혼자의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

그를 너그럽게 바라보던 오성국은 진중하게 말하였다.

《이 군공메달은 동무의것이자 련대모두의것이라고 난 생각하오.》

표무강은 가슴이 뜨끔거렸다.

교장동지의 말이 옳다. 난 지금까지 군공메달을 나 혼자의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제기되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그렇다. 영광의 그 순간은 우리 의거장병들의 순간으로 되여야 한다!

《사단장동지, 출발준비가 끝났습니다.》

한 군관이 급히 달려와 알려주는 말이였다.

오성국은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표무강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사실 방차대로 보냈던 한개 대대가 돌아오지 못했소.》

뒤늦게야 오성국의 사정을 알게 된 표무강은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일을 안고있으면서도 우리 련대를 먼저 구출해주었구나!

역시 오성국은 웅심깊은 지휘관, 존경할만 한 스승이였다.

헤여지기 전에 두사람은 힘껏 포옹하였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뜨거운 포옹은 순간순간을 값있게 빛내여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였다.

오성국이 떠나간 후 미안한 기색을 지은 후방부련대장이 숨가쁘게 뛰여왔다.

《련대장동지, 오성국사단장동지가 우리한테 식량을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네도 푼푼하지 못한것 같은데…》

《!》

그가 사라진 둔덕을 응시하던 표무강은 군공메달을 내려다보았다.

해빛을 받아 유난히 빛나는 군공메달!

순간 가슴속에서 지금껏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용암처럼 솟구쳐올랐다.

10

《정아야!》

좌상로인을 부축하고 걷던 한정아는 방긋 웃으며 옆을 돌아보았다.

아닐세라 저쯤 분지나무너머에 로성익이 서있었는데 얼굴빛이 밝지 못하였다.

왜 그럴가?

좌상로인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 한정아는 얼른 그쪽으로 뛰여갔다.

로성익도 분지나무를 에돌아 마주 걸어왔다.

《수고한다!》

《아이참, 수고는 무슨… 헌데 어디 아픈게 안예요?》

로성익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왜, 그렇게 보이니?》

《네.》

《아픈데는 없다.》

그 대답에 한정아는 더욱 의문이 생겼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은게 안예요?》

침묵을 지키고있던 로성익은 뒤늦게야 발견하였는지 손으로 처녀의 신을 가리켰다.

《너 군화는 어떻게 했니?》

며칠전 그는 련대정찰에 부탁하여 로획한 녀자용군화를 누이동생한테 주었었다.

한정아는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북으로 떠날 때 새로 신은 지하족은 돌부리에 걸려 앞코숭이가 궤지고 바닥도 해져서 칡넝쿨로 둘둘 감고있었다.

의아해하는 오빠의 눈길과 마주치자 한정아는 서분아주머니가 다

해진 신발을 신고있기에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럼 넌 맨발로 행군하겠다는거냐?》
섭섭해하는 오빠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처녀는 딴전을 부렸다.
《그래도 내 신은 서분아주머니것보다 한참 난걸요 뭐.》
아쉬워하던 로성익은 군복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뭔가 꺼냈다.
《어마나, 크림!》
기쁨에 넘친 한정아는 손벽을 찰싹 마주치고는 크림단지뚜껑을 열었다.
《아이, 냄새가 좋네!》
두눈을 살며시 감고 코를 발름거리던 한정아는 《처녀라는게 얼굴이 그게 뭐냐?》 하는 오빠의 나무람에 눈을 떴다.
《한번 봐라.》
군복웃주머니에서 네모난 손거울을 꺼낸 로성익은 자기한테도 거울이 있다고 사양하는 누이동생한테 한사코 넘겨주었다.
긁힌 자리 하나없는 맑은 손거울에 한정아의 까실까실한 얼굴이 비쳤다. 한때 흰눈같은 살결로 하여 처녀들의 시샘을 자아내던 고운 얼굴은 찬바람에 시달려 몹시 상해있었다.
아무리 오빠앞이라고 해도 부끄러운 생각이 든 한정아는 새침해서 거울을 돌려주었다.
《안 보겠어요.》
《그러게 이번엔 남주지 말거라.》
알았다고 고개를 까딱거렸지만 한정아는 자기가 며칠후에 몇번 쓰지 못한 그 크림을 찬바람에 손이 터서 징징 우는 영남이한테 쥐여주게 될줄은 몰랐다.
《참, 이야기할게 있다.》
크림단지를 양복주머니에 집어넣은 한정아는 심중한 표정으로 바뀐 오빠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사민들속에서 다른 일이 없도록 경각성을 단단히 높여야겠다.》
보들보들한 눈시울밑에서 잠자고있던 처녀의 반달같은 속눈섭이 우로 올라갔다.
《다른 일이라는건 뭐예요?》
《이를테면… 행군에 지장을 주는 행동말이다.》
한정아는 그가 어째서 《다른 일》이라고 표현하였는지 알수 없었지만 알겠다고 흔연히 대답하였다.
《그럼 난 가겠다.》
저쪽으로 걱석걱석 걸어가던 로성익은 무엇인가 생각난듯 뒤로 돌아섰다.
《가만, 헌데 왜 다리를 저니?》
《아까 넘어지면서 좀 다쳤는데 일없어요.》
로성익은 한심하다는듯 입을 다셨다. 아마 그의 눈에는 한정아가 아직도 자기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철부지소녀애로 보이는 모양이다.
《주의해라.》
《알겠어요. 오빠!》
멀어져가는 오빠를 바래우는 한정아는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 밝지 못하던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였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은것 같은데…
한정아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사실 로성익의 낯색이 좋지 못한것은 좀전에 있었던 일때문이였다.
…구분대장모임이 끝났을 때 표무강은 로성익에게 이런 제기를 하였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래일 씨름경기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씨름경기?》
기가 막힌 로성익은 다음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오랜만에 굶주림에서 겨우 벗어난 전사들을 들볶겠다니 말이다. 이제 씨름판을 벌려놓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 분명 전사들속에서 불만이 생겨날것이다. 더우기 홍일남

의 배신으로 온 련대가 뒤숭숭한데 무슨 마음이 편해서 씨름경기를 조직한단 말인가? 한해전까지만 해도 《국군》에서 복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련대는 수천개의 금이 간 유리그릇과 같았다. 그러므로 련대를 유지하자면 오직 강한 규률만이 필요하다. 그외에는 일체 소용없다.

하지만 로성익은 그가 어떻게 되여 그런 제기를 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은 모르고있었다.

어제 저녁 행군이 끝났을 때 김흥선이 표무강을 찾아왔다.

《련대장동무, 래일쯤 오락회를 여는게 어떻습니까?》

《?》

《난 지금같이 힘든 때일수록 생활을 더 락천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느때 같으면 표무강은 그의 제기에 화를 냈을것이다. 그러나 오성국을 만난 이후로 생각이 좀 달라졌다.

《오락회도 좋지만 난 다른 생각이 있소.》

《?》

《이왕 조직할바에는 오락회가 아니라 씨름경기를 하자는거요.》

뜻밖인듯 두눈을 슴뻑거리던 김흥선은 적극 찬동하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헌데 전선사령부 대표동지가 승낙하겠는지 모르겠소.》

《찬성할겁니다.》

이렇게 되여 표무강은 련대적인 씨름경기를 제기하였던것이다.

《난 승낙할수 없소.》

로성익의 랭담한 거절이였다.

《어째서 말입니까?》

《그걸 모르겠소? 씨름경기를 벌려놓으면 전사들이 맥을 뽑고 어떻게 행군하겠소?》

《그렇게만 생각할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로성익의 얼굴빛이 차거워졌다.

《동문 상급의 지시를 거역하는거요?》

《…》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표무강의 눈에 불만스러워하는 빛이 력연하였다.

《휴식이 끝나면 곧 출발하기요.》

그가 천막을 나서려는데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하고 누군가 찾았다.

뒤로 돌아선 로성익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웃하고있는 김흥선을 알아보았다.

《의견을 말할만 합니까?》

《말하오.》

《전 련대장동무의 제기가 옳다고 봅니다.》

김흥선한테서 정말 그 말이 나왔는가고 의심하듯 그를 뜯어보던 로성익은 흥미가 동한듯 재촉하였다.

《리유는?》

김흥선은 침착한 태도로 설명하였다.

《지금 전사들은 몹시 지치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전 이런 때일수록 련대안에 웃음이 차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성익의 입가에 쓰거운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씨름경기나 조직한다고 분위기가 달라질것 같소? 문화부련대장동무!》

《문화부련대장동무》라고 일부러 강조한 그 부름말속에는 동무만은 련대장처럼 물덤벙술덤벙하지 말아야 할게 아니요 하는 질책이 담겨져있었다.

김흥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듯 버젓이 나왔다.

《전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바라보며 로성익은 랭철하게 생각을 더듬었다.

전선사령부 대표의 권한으로 끝까지 씨름경기를 취소시킬것인가? 그렇게 되면 련대지휘관들은 나를 좋지 않게 여길것이다. 그까짓 그

들의 감정에는 별로 신경쓸것이 없다. 중요한것은 련대를 무사히 데리고 가는것이다.

그 임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것을,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것이다. 그런데 별치않은 문제때문에 우리사이에 의견마찰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사들은 불안해할것이고 련대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질것이다. 그건 내가 바라는바가 아니다. 그럼 이들의 제기를 승낙해야 한단 말인가? 좋다. 큰일을 위해 작은 감정을 희생시키자. 찜찜한건 느긋한 웃음을 짓고있는 김홍선이다. 지금까지 표무강의 독단에 옴짝 못하던 그가 오늘은 어떻게 되여 주동적으로 나섰는지 리해되지 않는다.

이윽고 결심을 내린 로성익은 입을 열었다.

《좋소. 승낙하오.》

표무강과 김홍선은 전선사령부 대표의 태도가 놀라운듯 마주보았다.

그러는데 재차 들려온 메마른 목소리가 그들사이에 오가던 눈길을 끊어버렸다.

《판을 크게 벌리면 안되겠소.》

천막을 나서는 로성익의 안면근육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

그 사정을 알리 없는 한정아는 좌상로인을 향해 달려갔다.

《좀 쉬라구.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나?》

좌상로인을 부축하던 중년남자가 하는 말이였다.

핼쑥해진 얼굴에 웃음을 담은 한정아는 활달하게 대답하였다.

《아저씨, 제 걱정은 말구 어서 가자요!》

11

다음날 오후 련대는 거대한 리발기로 밀어버린것처럼 번번한 공지에 모여앉았다.

씨름경기심판을 맡은 11대대 문화부중대장이 이제부터 구분대별대항씨름경기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하자 혹시 오락회를 여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던 전사들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여, 이자 뭐라고 했어? 씨름경기를 한다는게 맞아?》

《맞아. 그런데 적후에서 씨름경기를 한다니 좀 뗑하구만.》

《뭘 뗑하다구 그래? 난 벌써부터 기운이 뻗치는데.》

《하긴 우리가 여기서 씨름경기를 했다는걸 적들이 알면 눈이 뒤집힐거야. 하하하.》

빽빽— 하고 심판이 호각을 불자 좌중은 조용해졌다.

《지금부터 구분대별대항씨름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몸무게에 관계없이 자신있는 동무들은 나오시오.》

한동안이 지나도록 여기저기에서 술렁거릴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끊임없는 전투와 행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전사들의 심장은 랑만적인 씨름경기를 부담없이 받아들일만큼 뜨겁게 달아오르지 못하였던것이다.

《아니, 다들 졸고있는게 아니요?》

심판이 두눈을 디굴디굴 굴리는데 누군가 동그랗게 금을 그어놓은 씨름장에 들어섰다.

그가 문화부련대장이라는것을 알아본 전사들은 술렁거렸다.

《문화부련대장동지가 제일먼저 나왔구나.》

《꽤 씨름을 할줄 알가?》

《그럼 모르면서 경기에 나왔겠나?》

그러거나말거나 허리에 두손을 얹고 주위를 둘러보던 김흥선은 19대대쪽에 대고 소리쳤다.

《조금철동무, 한판 붙어보기요.》

키가 보통이고 몸집도 씨원치 않은 그를 미타하게 여긴 전사들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문화부련대장동지, 조금철동무하군 안됩니다.》

《그 동문 전국씨름경기에서 등수권에 들었습니다.》

준비운동삼아 허리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김흥선은 배심좋게 나왔다.

《그랬으면 어쨌단 말이요. 이기겠는지 지겠는지야 붙어봐야 알지.》

그가 떡떡 으르자 전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금철동무, 한번 나가보는거 아니야?》

《빨리 나가야지 기권한것으로 된다구.》

온 련대가 떠드는 속에 체격이 우람한 중사가 단숨에 상대방을 둘러메칠것 같은 자세로 걸어나왔다.

키를 보나 체구를 보나 형편없이 차이나는 두 선수가 마주서자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사!》

김흥선은 고개를 숙였는데 조금철은 몸에 배인 습관대로 그를 향해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다가 뒤늦게야 실수를 깨닫고 황황히 허리를 굽혔다.

그바람에 웃음판이 터졌다.

《이거 같은 값이면 규정대로 합시다.》

조금철의 제기에 심판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살바가 없어 그런다고 난처해하였다.

《저한테 있습니다.》

수천쌍의 눈동자가 어디론가 뛰여가는 조금철의 뒤를 좇았다.

그가 살바를 가지고 나타나자 전사들의 놀라움은 감탄으로 바뀌였다.

지금과 같은 때에 씨름경기를 한다는것도 놀라운데 전쟁판에 살바까지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저 친구 정말 멋있는데!》

《짬만 있으면 통나무를 붙안구 훈련한다는게 정말인가?》

《그렇네. 뭐 전쟁이 끝나면 씨름경기에 나가야 한다나.》

저조하던 씨름판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있었다.

《살바!》

심판의 구령에 따라 살바를 다리에 대충 건 김흥선은 조금철에게 슬그머니 찔렀다.

《전번에 7대대에 있는 고향친구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살바를 허리에 두르던 조금철은 시무룩해서 대꾸하였다.

《문화부련대장동지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사정이 있어 그랬는데 경기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보지.》

《그게 진짭니까?》

《아무렴, 내가 거짓말을 하겠소? 헌데 좀 도와줘야겠소.》

드디여 감추고있던 속심을 드러낸 김흥선이였다.

《이거 혹시 경기에서 져달라는게 아닙니까?》

생김새는 둔해보여도 절에 가서 고기덩어리를 얻어먹을만큼 눈치가 빠른 조금철이였다.

《여, 조용히 말하라구.》

《챠, 이거 어쩐지…》

조금철의 어깨를 슬쩍 건드린 김흥선은 한쪽눈을 슬쩍 감았다떴다.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펄쩍 뛰는 조금철에게 김흥선은 슬쩍 낚시를 던졌다.

《잘 생각해보오. 씨름이 중요한가, 아니면 친구가 중요한가.》

심판이 두 선수의 잔등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시작!》 하고 소리치자 흥정은 뒤로 밀려났다.

상대방의 살바를 마주잡은 두 선수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흥정

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빙빙 돌다가 실수하는척 하면서 넘어져야 해. 알겠지?》
조금철은 울상이 되여버렸다.
《야, 그건 좀…》
《좋아, 그럼 친구일은 취소야.》
《문화부련대장동지, 그래두 이건 정말…》
말을 주고받느라고 상대방이 해이된 틈을 타서 김홍선은 갑자기 오른쪽어깨를 아래로 떨구며 머리를 조금철의 배밑에 밀어넣었다. 동시에 오른다리를 재빨리 뒤로 옮겨디디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무릎을 밖으로 힘껏 밀었다.
불의에 공격을 받자 내노라 하는 조금철도 옴짝 못하고 넘어졌다.
19대대 전사들이 성난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무효입니다!》
《다시합시다!》
그 판에 허우대가 큰 19대대장까지 뛰여와 심판한테 항의하였다.
《이건 반칙이요, 반칙. 우리 선수한테 말을 걸어놓고 공격했단말이요.》
김홍선은 슬그머니 옆으로 돌아서서 손부채질만 슬슬 하였다.
화가 난 19대대장은 엉거주춤 일어나는 조금철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2회전에서 또 지면 대대에 돌아올 생각을 아예 마오. 알겠소?》
조금철도 어지간히 화가 동하였는지 얼굴이 시뻘개졌다.
2회전이 시작되자 재미를 본 김홍선은 또다시 조금철을 꼬드기였다.
《이번에두 져주어야 해.》
조금철은 씩씩거리기만 할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렇게만 하면 내 저녁중으로 그 친구를 동무네 대대에 보내주겠어. 그럼 오죽 좋겠소? 고향친구와 같이 자고 행군하고…》
여기까지 말한 김홍선은 별안간 앞빼미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철이 먼저 앞빼미수를 쓰는통에 역습을 당하고 허양 넘어졌다.
두사람의 승부는 1대1이였다.
3회전에 들어가자 살바를 먼저 잡은 김홍선은 로골적으로 위협하였다.
《조동무, 그만하면 대대앞에 체면은 세웠으니 이번에는 꼭 져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어.》
더는 기회가 없다는 말에 조금철은 마음이 흔들린것 같았다.
김홍선이 유일한 공격수법인 앞빼미수를 연방 썼지만 얼마든지 그를 제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만 계속하였다.
또다시 달려온 19대대장이 조금철의 옆에 딱 붙어서서 다불러댔다.
《여, 사정을 봐주겠어?… 빨리 끝내라. 빨리!》
일이 그쯤되자 조금철은 할수없이 김홍선을 간단하게 눌러버렸다.
심판이 조금철의 손을 머리우로 쳐들자 19대대 전사들이 와ㅡ 하고 환성을 올렸다.
군복바지를 툭, 툭 털며 일어난 김홍선은 멋적어하는 조금철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사실 동무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음음… 안되겠구만.》
비위가 좋은 조금철은 오뉴월 엿가락처럼 김홍선을 잡고 늘어졌다.
《문화부련대장동지, 그래두 한회전은 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김홍선은 어이가 없다는듯 코방귀를 뀌였다.
《날 망신시키구 뭐 사정을 봐달라구?》
원체 상대가 안되는 조금철한테 패하고도 분한것처럼 씩씩거리는 김홍선의 행동거지는 어느모로 보나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이랬든저랬든 김홍선의 출현으로 씨름판은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 7대대에서 나갑니다!》
요란한 함성과 박수소리가 터지더니 뼈대가 굵직한 전사가 씨름

장에 뛰여들었다.
그는 해방전에 상씨름을 해보았다고는 하나 조금철의 목치기수법에 옴짝 못하고말았다. 그 다음 운수중대, 고사기관총소대, 11대대 등 도전자들이 연줄연줄 나왔지만 누구도 조금철을 당하지 못하였다.
우승자의 손을 높이 쳐든 심판은 좌중을 둘러보며 선포하였다.
《그럼 오늘 씨름경기에서는 19대대가…》
《여기 있소!》 하고 소리친 사람은 다름아닌 련대장이였다.
전사들은 련락병한테 군복을 벗어주고 성큼성큼 나서는 그를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언제 보나 엄하고 무뚝뚝한 그가 씨름판에 뛰여든게 믿어지지 않은 모양이였다.
심판이 어느 구분대 선수인가고 묻자 표무강은 통신중대선수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남들이 전투할 때 자기들은 끊어진 통신선이나 이으려 뛰여다닌다고 의기소침해하던 통신병들이 우와― 하고 부풀어올랐다.
《살바!》
득의양양한 조금철은 아량을 베풀어 련대장에게 선손을 양보하였다.
《공정하게 하기요.》
그리하여 두사람은 돌가보를 하였는데 운수좋게 조금철이 이겼다.
《련대장동지, 그럼 먼저 잡겠습니다.》
상대가 련대장이여서 그런지 조금철은 좀 긴장해하는 표정이였으나 이름난 씨름군답게 자신만만해서 살바를 잡았다.
《준비!》
두 선수는 두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지면과 평행되도록 굽혔다.
구리로 부은것처럼 단단한 두어깨가 세차게 부딪쳤다. 벌써부터 어깨쓰기가 시작된것이다.
씨름경기에서는 살바를 잡은 다음 어깨를 마주 대고 경기에 들어간다. 어떤 방법으로 상대자의 어깨에 자기의 어깨를 접촉시키는가

하는것이 씨름경기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조금철이 표무강의 다리띠와 허리띠를 힘껏 잡아당기며 오른쪽어깨로 그의 어깨를 우로 받치려고 시도하는것을 보면 뭔가 만만치 않은 느낌을 받은것 같았다.
《시작!》
서로 상대방의 몸균형을 파괴하려고 어깨를 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두사람의 발치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났다.
먼저 조금철이 《엇!》 하고 소리치며 표무강을 공중에 들어올린 다음 오른쪽비껴아래로 메치려 하였다.
그가 들배지기수를 쓰려고 접어들자 표무강은 오른쪽어깨와 다리에 힘을 주면서 상대방을 마주 끌어당겼다.
유명한 씨름군인 조금철도 가만있지 않고 표무강을 허궁 들어올렸다.
《련대장동지, 힘을 내십시오!》
《금철동무, 사정봐주지 말라!》
온 련대가 군용밥통과 보병삽을 두드리며 열을 올리는데 씨름장에서는 두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가고있었다.
이제 한번 용을 쓰면 공중에 들리운 표무강은 넘어질 판인데 웬일인지 조금철은 씩씩거릴뿐 수를 쓰지 못하고있었다. 표무강이 오른쪽무릎을 굽혀 그의 불두덩이에 대고 발끝을 다리사이에 밀어넣은채 둥둥 매달린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어쩔수 없다.
이윽고 조금철은 힘이 진했는지 상대방을 내려놓았다.
순간 표무강은 공격을 가하였다.
조금철의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오고 몸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찰나 재빨리 오른다리로 그의 오른다리를 걸어당기며 왼쪽으로 밀어부쳤다.
성공이다!
잔등으로 줄달음치던 승리의 쾌감은 사라졌다.
웬간한 사람 같으면 빗장걸이에 걸려들었겠는데 조금철은 다시 몸

중심을 바로잡았던것이다.
역시 그는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자세를 낮추고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며 공격에서 벗어난 조금철은 오른다리로 표무강의 왼발목을 당기며 안걸이수로 나왔다.
좋다. 이번에는 반공격이다!
제꺽 두다리로 그의 오른다리를 낀 표무강은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급해난 조금철은 다리를 뽑으려고 허둥거렸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표무강은 재빨리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쪽다리무릎을 힘껏 치는것과 함께 어깨로 내밀면서 왼손으로 다리샅바를 당기였다.
절묘한 무릎치기수였다.
조금철의 육중한 몸이 궁둥방아를 찧으며 벌렁 넘어졌다.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전사들이 와!- 하고 통쾌한 함성을 지르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련대장동지가 이겼다!》
《통신중대가 1등이다!》
다들 법석 떠드는데 씨름에서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우쭐대던 조금철은 물에 오른 숭어마냥 입을 벙긋벙긋 벌리기만 하였다.
그의 손을 잡아일으켜준 표무강은 씩 웃으며 말을 건넸다.
《자, 한판 더 붙어보자구.》
그를 쳐다본 조금철은 자신이 없는지 고개를 도로 떨구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19대대장이 펄펄 뛰였다.
《여, 고작 한번 지고 기권한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
그바람에 조금철은 마지못해 샅바를 쥐였으나 2회전에서도 패하고 말았다.
한편 김흥선은 주위에 성을 쌓은 전사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느라고 쩔쩔매고있었다.
《문화부련대장동지, 련대장동지가 원래 씨름선수였습니까?》

《련대장동지 어디서 씨름을 배웠습니까?》
사람됨이 용한 김흥선은 조금도 시끄러워하지 않고 알려주었다.
《련대장동문 10살때 달구지바퀴를 들어올린 힘장사요. 그리구 한땐 경상도적으로 이름이 자자한 씨름선수였단 말이요.》
또 한 전사가 다우쳐물었다.
《련대장동진 어떻게 씨름생각을 다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줄을 짐작하고있은듯 시물시물 웃고있던 김흥선은 온 련대가 다 듣도록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그게 바로 련대장동무란 말이요!》
전사들은 저저마다 감탄을 터뜨렸다.
《역시 우리 련대장동진 진짜 사내란 말이야.》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때 가까운 곳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무들!》
전사들은 새로운 눈으로 자기들의 련대장을 지켜보았다.
《난 전쟁이 끝나면 전승절경축 씨름경기에 출전하려고 하는데 어떻소?》
주위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잠시후 《전승절경축 씨름경기… 전승절경축 씨름경기…》 하는 말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급기야 환호성으로 터져올랐다.
《좋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은 씨름경기를 선뜻 가슴에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전사들이였다. 그러나 전승절경축 씨름경기에 참가하겠다고 선포한 련대장의 모습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은 그들이였다. 그렇다. 전사들은 잠시나마 잊었던 《승리》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훌륭한 세계를 되찾았으며 가슴속 구석에 깃들었던 동요를 이겨낸것이다.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며 승리의 그날을 그려보는 전사들의 머리우에 련대장의 힘찬 구령이 떨어졌다.

《련대 행군준비!》
련대는 즉시에 행군준비를 갖추었다.
《출발!》
씨름경기를 통하여 새로운 신심을 가다듬은 전사들은 기세충천해서 행군을 시작하였다.
그 시각 허정효는 표무강련대에 침투시킨 첩자가 보낸 쪽지편지를 읽고있었다.
그에 의하면 굶고 지쳐서 주저앉은줄 알았던 《공산군》이 배포유하게 씨름판을 벌려놓았었다고 한다.
첩자는 련대장과 전선사령부 대표가 씨름경기를 두고 의견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간단히 적어넣었다. 그러나 첩자는 불과 한줄도 안되는 그 보고가 상급을 그처럼 흥분시킬줄은 몰랐을것이다.
《Very Good!》
주먹으로 허공을 내지른 허정효는 흥이 났다.
련대장과 전선사령부 대표로 말하면 련대를 책임진 지휘관들이다. 그런데 그 두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그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며 따라서 자중지란이 성공할수 있다는 담보이다.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더니. 흥, 표무강, 아직 만세를 부르긴 일러. 머지않아 너의 그 환성은 통곡으로 변할것이다!
두눈에 독기가 오른 허정효는 이를 사려물었다.

제 3 장

1

산발을 타고 굽이쳐가던 대오에서 한 사나이가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어구구, 저걸 어쩌나? 어구구.》
경사급한 산비탈을 따라 데굴데굴 굴러가는 배낭을 보며 그는 아부재기를 쳤다.
《사민구분대》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구분대들이 줄줄이 멈춰섰다.
자기때문에 대오가 멎어선줄도 모르고 무릎을 철썩철썩 갈기고있던 고남수는 갑자기 산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가시가 뾰쪽뾰쪽한 분지나무에 얼굴을 할퀴우고 나무가지에 옷소매를 찢기우며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는 불쑥 나타난 가둑나무에 발을 걸채며 공중걸이를 하고말았다.
《어구구!… 어구구!》
연방 죽는소리를 치는 그앞에 정찰소대장 리경일이 배낭을 메고 나타났다.
넘어질 때 좀 다쳤는지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리던 고남수는 배낭을 보자 구겨졌던 얼굴을 쭉 폈다.
《고맙네. 그걸 인 주게.》
그한테 배낭을 내주려던 리경일은 도로 잔등에 멨다.
《아바이, 무겁겠는데 내가 대신 메주겠습니다.》
그 말에 남들 같으면 고맙다고 절을 열번도나마 하였겠는데 고남수는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진것처럼 펄쩍 뛰였다.

《안되네.》

리경일은 그를 의아쩍게 보다가 할수없이 배낭을 돌려주었으나 미심쩍었던지 돌아서다말고 따져물었다.

《아바이, 그게 쌀이 아닙니까?》

고남수는 흠칫 놀라더니 아니라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비탈을 오른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태연자약해서 사민들속에 끼여들었다.

《글쎄, 이놈의 배낭끈이 늘 말썽을 부린다니까.》

련대의 행군에 지장을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를 보자 한정아는 생각이 착잡하였다.

한시간전, 휴식구령이 내리자 한정아는 《사민구분대》와 좀 떨어진 가둑나무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한 처녀는 장작개비처럼 꽛꽛한 장딴지를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한정아는 두눈을 꾹 감으며 신음소리를 토하였다.

《아이, 아파라!》

그 모습을 보면 《사민구분대》를 이끌고 험한 산길을 헤쳐가는 이악한 정치공작대원이 아니라 들놀이를 나왔다가 지쳐서 주저앉은 소심한 처녀같았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그가 온종일 걸어도 힘든줄 모르고 하루에 한두시간밖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한줄 모르는 단단한 처녀로 알고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연약한 체질이였다.

홀어머니품에서 금지옥엽처럼 자라났고 고스란히 대학을 다니다가 정치공작대로 파견된 그가 언제 이런 험한 산길을 걸어보았고 배를 촐촐 굶어본적이 있었던가. 북으로 가는 마을사람들을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 그들때문에 련대가 지장을 받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이악한 각오가 없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자신도 이겨내지 못하였을것이다. 결국 조국이 겪고있는 준엄한 시련이 유약한 처녀를 강인하고 열정적인 투사로 변모시킨것이다.

이마살을 찡그리고 살살 장딴지를 주무르던 한정아는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바람에 감았던 두눈을 떴다.

우거진 소나무들사이로 누군가 조심조심 접근해오고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고남수였다.

그는 사람들의 눈길을 꺼리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불과 대여섯발자국도 안되는 가둑나무밑에 앉아 자기를 지켜보는 처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정아가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은것은 그의 움직임에서 이상한 감촉을 받았기때문이였다.

그런줄도 모르고 고남수는 해빛이 잘 비치는 풀밭우에 배낭을 내려놓고 아구리를 헤치였다.

한정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배낭속에 들어있는것은 다름아닌 옥백미였던것이다.

비로소 이상하게 여겨왔던 그의 행동이 리해되였다. 바로 그 쌀때문에 적탄이 비발치는 속으로 마구 뛰여들었고 련대의 행군에도 지장을 주었던것이다.

두손을 옷자락에 대고 썩썩 닦고난 고남수는 쌀속에 조심히 집어넣고 슬근슬근 뒤집기 시작하였다.

나무가지사이로 비쳐드는 해빛에 옥백미는 수천수만개의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늘 봐야 덤덤하던 그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발이 어렸는데 쌀을 한알도 흘리지 않고 뒤집는 능숙한 손놀림을 보면 남들 모르게 그 일을 자주 해온것이 분명하였다.

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저렇게 좋은 쌀을 가지고있으면서 여태 꺼내놓지 않았단 말인가? 어른들은 둘째치고 어린 영남이가 배고프다고 울고있을 때 저 사람은 못 본척 하고 먼산을 보고있었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옥백미가 상할가봐 해빛소독을 하고있지 않는가. 정말이지 파보아야 속내를 알수 있는 땅속같은 사람이다.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처녀는 그만에야 딱— 하고 삭정이를 밟았다.

《어구구!》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화들짝 놀란 고남수는 황급히 이쪽을 건네다보았다.

순간 자기를 쏘아보는 한쌍의 눈동자와 마주치자 그는 산에서 범이라도 만난것처럼 안절부절 못하였다.

한정아의 눈에 쌀쌀한 빛이 떠올랐다.

《남수아저씨, 그게 무슨 쌀이예요?》

《저…》

《무슨 쌀인가 말이예요.》

남들이 들을가봐 그러는지 고남수는 덴겁해서 목소리를 낮추라고 손시늉을 하였다.

그 노죽스러운 태도에 분이 치밀어오른 한정아가 뭐라고 소리치려는 찰나 공교롭게도 모엿구령이 울렸다.

경멸에 찬 눈길로 그를 쏘아보던 한정아는 더 마주서고싶은 생각이 없어 뒤로 돌아섰다.

몇발자국 걸어갔는데 뒤에서 비굴한 목소리가 추근추근 좇아왔다.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구.》

《…》

《제발 부탁이네.》

한정아는 억이 막혔다.

어쩜 인간이 저럴수 있는가. 그런 인간인줄 모르고 대오에 받아주다니. 아이, 분해!

분노를 애써 누르고 《사민구분대》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으로 로성익이 지나갔다.

저도 모르게 《오빠!》 하는 소리가 터져나갔다.

《오, 정아로구나!》

《오빠, 저…》

문득 한정아는 자기가 고남수를 고발하려고 한다는것을 알았다.

아무렴, 그런 인간은 용서할수 없어!

그런데 왜서인지 다음 말이 나가지 않았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던 고남수의 애절한 모습이 눈앞에 안겨왔던것이다.

만약 내가 그 사실을 폭로한다면 그는 아마 온 련대의 저주를 받고 당장 쫓겨날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도 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는데 로성익은 뭔가 눈치를 차렸는지 칼칼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속이 뜨끔하였지만 처녀는 종시 입안에서 맴돌고있는 말을 삼켜버렸다.

《안예요. 그저 오빠를 보니 반가와서…》

이상한듯 잠시 지켜보던 로성익은 전번에 준 크림을 잊지 말고 바르라고 이르고는 걱석걱석 가버렸다.

그제서야 긴장해서 서있던 고남수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

련대는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도 떠나자요!》

《사민구분대》를 향해 소리친 한정아가 대렬뒤에서 뚱기적거리며 따라오는 임신부를 찾아가는데 누군가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고남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치째진 갈고리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뜨는것이였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폭로하지 않은데 대한 무언의 인사였다.

두눈을 내려깐 한정아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뻔뻔스러운 인간!

2

이즈음 로성익은 신경이 칼끝처럼 날카로와졌다.

행군중에 참새가 날아오르면 혹시 매복이 아닌가 하고 잔뜩 긴장하였고 밤중에도 적들한테 기습당하는 꿈을 꾸다가 와뜰 놀라 깨여나군 하였다.

그 다음은 잠들지 못하고 뒤치락거리다가 부석부석한 눈시울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장작개비같은 다리를 끌고 경계초소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느라면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오는데 솜뭉치같은 안개가 가닥가닥 걸려있는 소나무잎사귀에서 또르르— 굴러내리는 이슬을 멍하니 바라볼 때의 피곤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생각 같아서는 행군할 때나 휴식할 때나 늘 신고있는 가죽장화를 벗어던지고 다문 한시간이라도 통잠을 자고싶었다. 그러면 흐리터분한 정신도 맑아지고 점점 노그라드는 몸에서 기운이 용솟음칠것 같았으나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룰수 없는 꿈이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졸면 안된다. 내가 졸면 련대는 전멸이다!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로성익은 그 무서운 말을 수십번도나마 외우며 무너지는 육체를 강잉히 일으켜세웠다.

인간의 육체란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렇듯 강한 의지도 해일마냥 밀려드는 졸음앞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진지를 천천히 내주고있었다.

지금도 그는 련대후위를 담당한 10대대와 함께 행군하면서 혹시 뒤쪽에서 정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고 긴장해있다가 한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자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채 끄덕끄덕 졸기 시작하였다. 몇번인가 고개방아를 찧고 후닥닥 깨여났지만 또다시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몸은 허공으로 둥둥 떠가는것 같았다.

…그는 민족보위성청사복도를 걸어가고있었다.

아, 이제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총을 잡게 되였구나!

가슴속에 그토록 차넘치던 희열은 해당 일군과 만나자 인차 꺼져버리고말았다.

제대문건을 깐깐히 읽고난 해당 일군은 시끄러운 문제와 맞다들린것처럼 미간을 모았다.

《그래, 꼭 입대해야겠소?》

로성익은 예견치 않게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멍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 나라, 제 민족을 위해 군복을 입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

워낙 성정이 곧은 그는 기분이 나빠도 얼굴에 친절한 웃음을 떠올리고 모욕을 준 상대방과 다정하게 이야기할줄 아는 재간, 심장이 없는 속물들이 품들여 갖춘 처신술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불쾌한 기색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말았다.

억지로 미간을 편 해당 일군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무의 입대청원은 쌍손을 들어 환영하지만 해당 절차가 있는것만큼 돌아가 기다리라고 권고하였다.

려인숙에 행장을 푼 로성익은 이제나저제나하고 소식을 기다렸다.

서울에 감투부탁하듯 아무런 련락이 없었다.

참다못해 다시 찾아갔더니 낯익은 해당 일군은 입대문건이 비준되면 알려주겠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때 로성익은 이미 자기의 입대청원서가 한줌의 재로 되여버린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다.

두달이 돼오자 드디여 그의 참을성은 바닥이 났다.

자기의 입대청원이 절대로 승인될수 없다는것을 로성익은 너무도 뒤늦게야 깨달았다.

동전의 앞뒤처럼 앞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돌아앉아서는 코웃음을 쳤을 《야누스》의 얼굴이 역스럽게 안겨오는 순간 술생각이 났다.

술집에 들어선 그는 안주도 없이 술을 청하는것으로 비위살좋은 술집주인을 놀래웠고 병채로 꿀꺽꿀꺽 마시는것으로서 제노라고 하는 술군들을 주눅들게 하였다.

가슴속에 화로가 들어있는것처럼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 틈에 리성에 눌리워있던 감성이 이때다 하고 고개를 쳐들었다.

수풀의 꿩은 개가 내몰고 오장의 말은 술이 내몬다더니 평시에 지켜오던 절제를 알콜에 녹여버린 로성익은 분김에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려쳤다.

《그래,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자고 조국에 떨어진줄 아는가? 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붉은군대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단 말이지?》

고래고래 기염을 토하던 그는 술취한 손님들을 달래는 일을 위일능사로 여기는 술집주인의 친절하면서도 어느 정도 완력적인 손길에 떠밀려 비칠비칠 술집을 나섰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여난 로성익은 지끈지끈 쑤셔나는 머리를 싸쥐고있다가 방구석에 처박아두었던 물날은 배낭을 어깨에 둘러멨다.

가자, 고향으로!

시교외의 고향마을에는 애틋한 사랑을 안고 기다리는 현숙한 안해도, 깡충거리며 달려나와 품에 안길 귀여운 자식도 없었다. 눈을 감을 때 아들의 상투를 올려주지 못했다고 한탄하였다는 아버지의 묘소와 외동딸을 데리고 종이공장을 운영하는 고모가 있을뿐이다. 그래도 외로운 몸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났다.

에라, 떠나자!

려관을 나서는데 접수실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인민군장령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혹시 로성익동무가 아니요?》

로성익은 마뜩지 않은 어조로 되물었다.

《장령동진 누굽니까?》

《민족보위성에서 나왔소.》

민족보위성이라는 말을 듣자 로성익은 피뜩 《야누스》의 매끈한 얼굴이 생각났다.

로성익은 표표해진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난 장령동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잠간!》

장령은 서둘러 돌아서는 로성익을 불러세웠다.

고뇌에 젖은 그의 얼굴을 일별한 장령은 뜻밖에 이런 말을 꺼냈다.

《동무의 입대문제는 잘못 처리되였소.》

로성익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내 입대문제가 잘못 처리되였다구?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장령의 길둥그런 얼굴에 진중한 빛이 어렸다.

《우린 동무가 무엇때문에 붉은군대에서 제대되였는지 알고있소. 그건 바로 가슴속에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불같은 사랑과 헌신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지 않다니… 자, 내 정식으로 사죄하오.》

그 말투와 행동에서 위선이 풍겼다면 로성익은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났을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야누스》한테서 전혀 느낄수 없었던 진실한 감정이, 따뜻한 기운이 울리고있었다.(후에 안데 의하면 그 장령은 빨찌산출신 민족보위성 일군이였다.)

《로동무!》

그의 손을 뜨겁게 잡은 장령은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기뻐하오. 동무의 입대가 승인되였소.》

《예?》

로성익은 혼탁된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는 쫓아내더니 오늘은 입대라… 이제 와서 그 말을 어떻게 믿

는단 말인가.

기연미연하는 그를 응시하던 장령은 정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동무문제를 편협하게 처리한건 **김일성**장군님의 뜻이 아니요. 우린 동무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갓 창건된 공화국을 지키는 성업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소.》

로성익은 자기의 체내에서 쩡!―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가슴속에 얼어붙었던 불신의 얼음장이 갈라터지는 소리였다.

아, 이날을 얼마나 갈망하였던가. 그러니 이제는 내 민족의 군복을 입고 내 나라를 위해 싸울수 있게 되였단 말이지.

마침내 그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였다. …

갑자기 한쪽다리가 풀썩 접어지는 바람에 버쩍 정신을 차린 로성익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가 하고 살폈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전사들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다행이다. 만일 내가 졸았다는것을 알면 전사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전선사령부 대표도 자기들과 꼭같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할것이다. 아니다. 그들앞에서 절대로 허점을 보여서는 안된다!

옆에 서있는 소나무잎사귀를 쭈르륵― 뜯어낸 그는 그것을 얼굴에 가져다대고 마구 비볐다. 얼음처럼 차거운 이슬이 살에 닿자 정신이 맑아졌다.

《10대대장!》

뒤쪽에서 황소처럼 허우대가 큰 10대대장이 뛰여왔다.

《다른 정황은 없소?》

《없습니다.》

그를 돌려보낸 로성익은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은채 끊어졌던 회상을 이어나갔다.

…조국은 로성익에게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하였으며 세계대전에 참

가한 그의 공로와 경험을 참작하여 전선사령부로 조동시켰다. 그때까지 그의 일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련대장인 표무강과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났고 최근에 와서는 전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있었다.

며칠전 오후 로성익은 통신중대에 끼워 행군하고있었다.

모든 병종이 다 그러하지만 부대의 신경이라고 할수 있는 통신병도 헐치 않은 병종이다. 부대가 목적지에 당도하면 통신병들은 보병들이 공병삽을 꺼내들기도 전에 련대와 대대, 대대와 중대사이를 뛰여다니며 전화선을 늘여야 한다. 또 전투중에 통신선이 끊어지면 적탄이 우박치듯 떨어지는 속을 뚫고 통신을 회복해야 한다. 부대가 철수할 때도 상부의 명령이 하부에 전달될 때까지 대기하고있다가 통신선들을 걷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철수하군 한다. 하기에 그들은 일반보병들보다 곱절이나 많은 짐을 지고 다닌다.

장화목을 치는 가둑나무를 걷어차며 산릉선을 톺아오른 로성익은 앞에서 행군하는 애어린 통신병을 보았다. 잔등에는 배낭을 메고 량쪽어깨에 권선기를 하나씩 걸쳤는데 얼마 못 가서 쓰러질것 같았다.

《동무!》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찾는거야 하고 찡그린 얼굴을 돌리던 전사는 앞에 서있는 전선사령부 대표를 알아보자 얼른 자세를 바로잡았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전사 박철민…》

《됐소. 권선기를 나한테 주오.》

한줄도 달지 못한 전사가 중성 네알을 단 고급군관과 마주서는것도 흔치 않은데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니 그는 황송해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어서!》

전사가 우물쭈물하는데 뒤에서 긴 팔이 뻗쳐오더니 그의 어깨우에 있던 권선기가 훌쩍 사라졌다.

의아해하는 로성익의 눈앞에 키가 껑충한 중사가 나타났다.

《통신분대장 중사 김혁철!》
《쉬엿하오. 그 권선기는 나한테 주오.》
《괜찮습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깍듯이 거수경례를 한 중사는 전사를 데리고 앞으로 달려갔다.
허, 그 친구 눈치가 빠른데.
총명한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들이 항용 느끼군 하는 흐뭇한 심경에 휩싸인 로성익은 먼지오른 가죽장화를 탁, 탁 털고나서 걸음을 내짚었다.
한참동안 행군하던 그는 한무리의 통신병들속에 표무강이 끼여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안됩니다. 련대장동지!》
《그만두십시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아까 전사를 데리고 가버린 통신분대장이 표무강한테 권선기를 내주지 않겠다고 뻗치고있었다.
《련대장의 말도 안 듣겠다?》
우정 성난척 하는 표무강앞에서 통신분대장은 더 견디지 못하겠던지 권선기를 순순히 내주었다.
로성익은 가슴속에서 시기심 비슷한것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달라고 했을 때 깍듯이 거절하고 달아난 통신병들이 련대장한테는 맏형에게 의지하는 동생들마냥 권선기를 내준것이다.
권선기를 어깨우에 올려놓고 성큼성큼 걷는 표무강과 그옆에 바싹 붙어가는 통신분대장사이에 오가는 활기넘친 이야기가 가을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련대장동지, 씨름경기말입니다.》
《씨름경기?》
《그렇습니다. 씨름경기에서 련대장동지가 조금철동무를 납작 눌러놓는 바람에 우리 통신병들 위신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어째서?》
《정찰병들이랑, 박격포중대랑 쩍하면 우리보구 건달군이라고 놀려주군 하는데…》
《건달군?》
《그렇습니다. 글쎄, 자기네가 전투할 때 우리 통신병들은 권선기를 메고 휘파람만 불며 다닌다는겁니다.》
《그 친구들한테 말해주라구. 통신병이 없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다구 말이요.》
통신분대장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지 멈춰서기까지 하였다.
《련대장동지, 그게 정말입니까?》
표무강은 고개를 주억거렸다.
《히야!》
사기가 오른 통신병들은 무거운 장구류들을 메고도 껑충껑충 뛰며 《통신중대 만세!》 하고 웨쳤다.
그 모습을 응시하던 로성익의 눈가에 서늘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그날 밤 련대숙영지부근에서 신호탄이 날아올랐다.
경비소대를 인솔하고 현장에 도착한 로성익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다.
한시간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었지만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참빗으로 훑듯 덤불 하나, 바위 하나 놓치지 않았다.
끝내 발사한지 얼마 안되는 탄피가 걸려들었다.
지체없이 숙영지로 달려온 그는 구분대별로 인원점검을 진행하였다.
7대대, 11대대, 정찰중대, 박격포중대, 고사기관총소대…
그때까지는 숙영지를 벗어난 전사가 한명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은것은 한정아가 인솔하는 《사민구분대》였다.
같이 갔던 경비소대장은 설마 사민들속에 신호탄을 쏜자가 있겠습니까 하는 눈치였으나 로성익은 깐깐스레 인원점검을 하게 하였다.
결과 한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는 배낭때문에 련대를 멈춰세웠던 고남수였다.
로성익은 자기의 몸에 긴장이 깃드는것을 감촉하였다.

《당장 찾아오시오!》

《사민구분대》는 물론 전사들도 고남수를 찾으려고 흩어지고있는데 범도 제 소리 하면 온다고 배낭을 멘 그가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경비소대장을 불러 그가 어디 갔댔는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로성익은 멀찌감치에 서서 지켜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에 걸쳐있는 배낭, 밤이슬에 젖은 지하족…

《어디 갔댔습니까?》

경비소대장의 질문에 고남수는 우물우물하였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

《그건…》

《어서 말하시오.》

《…》

고남수를 주시하던 로성익은 경비소대장에게 그만두라고 손짓하고나서 문제의 시간에 근무를 선 잠복초와 순찰병을 불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결과 배낭을 멘 남자가 숙영지를 벗어나 산으로 오르는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몸집과 걸음새를 따져보니 신호탄이 오른 시각에 움직인 사람은 오직 고남수 한사람뿐이였다.

단서를 쥐였다고 판단한 로성익은 표무강을 불렀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판단과 다르게 나왔다.

《그건 추측이 아닙니까?》

로성익의 가슴속에서 찬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신호탄이 올랐고 그 시각에 련대를 리탈한 사람은 고남수밖에 없는데 그게 추측이란 말이요?》

표무강은 자기의 견해를 주저없이 피력하였다.

《난 심중하자는겁니다.》

로성익은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드는것을 느꼈다.

결국 그는 고남수를 의심하지 않고있었다. 다시말하면 전선사령부 대표인 내가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는것이다.

로성익의 눈에서 불꽃이 번뜩이였다.

《누굴 훈시하자는건가? 동무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쯤은 알고도 남소.》

그 말속에는 난 동무보다 먼저 혁명에 참가하였고 광활한 유럽땅을 메주밟듯 하며 싸운 전쟁로병이란 말이요 하는 우월감이 강하게 풍겼다.

《경비소대장!》

표무강의 뒤에 꼿꼿해서 서있던 경비소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부터 고남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체포하오.》 …

생각에서 깨여난 로성익은 고사기관총소대가 뒤떨어진것을 발견하자 엄하게 소리쳤다.

《이건 뭐요?… 바싹 따라서오!》

3

《표선배님, 그간 옥체만강하십니까.

저는 륙사시절 선배님이 그토록 사랑해주신 최덕근입니다. 선배님의 은공을 생각하면 골백번 절을 올리고싶지만 피차 사정이 허락치 않아 편지로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

지금 유엔군은 압록강에 다달았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는데 선배님은 어찌하여 세상에 없는 공화국을 찾아 험로를 헤치고계십니까. 자나깨나 결초보은하고싶은 저로서는 선배님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하들을 고생시키

지 말고 자유세계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이 후배가 일생토록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환생의 이 순간을 부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선배님을 존경하는 후배 최덕근 올림.》

그것은 련대지휘부에서 가까운 나무가지짬에 끼여있던 최덕근의 편지였다.

금방 읽고난 그 편지를 내던진 로성익은 비양조로 말하였다.

《내 알기엔 적사단장이 감히 아군련대장한테 귀순편지를 보낸 례는 쏘도전쟁시기에도 없었을거요.》

표무강은 입을 다물고있었으나 마음은 길다란 막대기로 한바탕 쑤셔놓은것처럼 뒤숭숭하였다. 정말이지 그는 최덕근이 그런 너절한 편지를 보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래, 동문 짐작되는게 없소?》

처음 표무강은 전선사령부 대표의 말뜻을 알수 없어 그냥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 최덕근이라는자가 어째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 말이요.》

무슨 단서를 잡으려는듯 집요하게 뜯어보는 로성익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문제가 아니요. 그래도 동무야 그자와 선후배관계인데 전혀 짐작이 안 간단 말이요?》

표무강은 속이 울컥하였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자는건가? 그래, 내가 최덕근이한테 편지를 쓰라고 부탁이라도 했단 말인가?

숨을 거칠게 톺고있는 그를 응시하던 로성익은 랭담하게 말하였다.

《그만하기요. 그리구 이 사실을 전사들이 알면 좋지 않으니 불태워버리오.》

그가 가버리자 표무강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두손으로 싸쥐였다.

최덕근은 어째서 이따위 편지를 보냈을가? 내가 그런 수에 넘어갈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자야말로 얼마나 우둔한 인간인가. 아니,

내가 알고있는 최덕근은 결코 편지질이나 하고있을 좀스러운 인간이 아니다. 비록 반역의 길을 걷고있지만 나름대로 지조가 있고 배짱도 있는 적수이다. 만약 결투가 벌어진다면 독침이 아니라 장검을 뽑아들고 달려들 사나이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이런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그자는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보아도 최덕근의 속내를 짐작할수 없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귀순을 권고하는 그 편지는 가뜩이나 편치않던 마음을 더욱 헤집어놓았다.

오성국사단장이 넘겨준 식량은 이미 거덜났고 전사들은 또다시 굶주리고있었다. 어느 구분대에 가나 허기져 쓰러진 전사들이 적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하루에 한끼의 멀건 죽도 겨우 공급하고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여름군복을 입은 전사들은 덜덜 떨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금 련대안에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소문이 나돌고있다. 글쎄, 정부가 압록강을 넘어갔다는것이 아닌가.

혀는 뼈가 없어도 뼈를 부시는 법이다.

누가 꾸며냈는지 모를 그 류언비어는 전사들의 마음을 발고랑처럼 뒤집어놓았다. 그런 판에 적사단장의 편지까지 날아든것이다. 전선사령부 대표가 우려한것처럼 전사들이 이 소식을 알면 뭐라고 하겠는가?

벌써부터 식은땀이 잔등에 돋아났다.

지금껏 자신은 의지가 강하고 무서움을 모른다고 확신해온 그였지만 저절로 마음이 나약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다음순간 그는 두눈을 끔뻑거렸다.

눈앞에 새 군복을 차려입은 자기가 나타난것이다.

심중한 기색을 지은 《그》가 물었다.

《자네 련대를 이끌고 전선을 넘어갈 자신이 있나?》

《물론.》

《솔직하지 못하구만.》

《그건 무슨 소린가?》

《그》는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넨 몹시 지쳤네. 그런데두 련대를 지휘할수 있단 말인가?》

《닥쳐. 난 얼마든지 련대를 지휘할수 있단 말일세!》

하지만 그 웨침소리는 밖으로 쏟아져나오지 못하고 입안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느물느물 웃고있던 《그》는 《그럼 자네 가슴을 만져보라구.》 하고 권고하고는 천천히 사라졌다.

소스라치며 상상에서 깨여난 표무강은 군복앞섶에 손을 가져갔다.

딴딴한것이 만져졌다.

웃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자 때마침 비쳐드는 해빛에 번쩍 빛났다.

아, 군공메달!

별안간 눈앞이 환해지며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리는 회의장의 전경이 펼쳐졌다.

…그날 표무강은 가슴을 들먹이며 회의장에 앉아있었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국군》대대장이였던 자기가 인민군군관으로 된것만도 꿈만 같은데 국가수훈을 받게 되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꿈이 아닌가 하고 슬그머니 무릎을 꼬집자 뜨끔거렸다.

역시 꿈은 아니로구나!

울렁거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궁싯거리고있는데 장내가 떠나갈듯 한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주석단에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나오고있었다.

그들의 앞에 서계시는 키가 후리후리한분을 알아본 표무강은 저도 모르게 몸을 솟구었다.

아, **김일성**장군님!

대대가 북으로 넘어온 후 의거장병들에 대한 성대한 환영행사를 조직해주시고 환영사업이 끝나면 목욕도 시키고 리발도 해주고 환자에게는 치료도 잘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장군님, 의거

장병들이 단행한 거사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남조선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는 행동으로서 마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도록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신 장군님!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있던 표무강은 옆사람이 군복자락을 잡아당겨서야 자신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수훈자들의 명단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씩씩하게 주석단으로 나가는 그들을 보자 표무강은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수훈자들은 백두산에서 왜놈들과 싸운 항일투사들과 은파산전투를 비롯하여 공화국을 지키는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용감한 군인들이였다. 그들에 비하면 동족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누었다가 비로소 애국의 길에 들어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그런 나머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여기에 앉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는데 《표무강동무!》 하는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격정으로 끓어넘치던 회의장이 물뿌린듯 조용해진것 같았다. 오직 들리는것은 금시라도 밖으로 튀여나올것처럼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뿐이였다.

엉거주춤 일어난 그는 《표무강동무!》 하고 사회자가 다시 찾아서야 황황히 주석단으로 나갔다.

발이 어디에 놓이는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걸어가는데 앞쪽에서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 표무강동무로구만!》

순간 표무강은 거대한 태양을 마주하고있는것 같았다.

어찌나 눈이 부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자기가 군공메달을 수여받고 그 자리에 그냥 서있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났다는것도 알지 못하였다. 오직 자기의 앞가슴에 몸소 군공메달을 달아주시던 장군님의 존안만이 숭엄하게 안겨올뿐이였다.

아, 장군님, 죄많은 이놈을 받아주신것만도 과분한데 이렇게 군공메달까지 안겨주신단 말입니까. 이 표무강은 하늘땅이 열백번 변한다고 해도 장군님 한분만을 끝까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참으로 그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생명을 받아안은 행복의 순간, 그의 한생을 결정해준 뜻깊은 순간이였다. …

표무강은 자기가 지금 그 영광의 주석단에 서있는것만 같았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장군님께서 기대에 넘친 눈길로 바라보고계시는것만 같았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내가 이쯤한 난관앞에 주저앉는단 말인가.

식어들었던 심장이 불을 지핀것처럼 달아오르고 온몸에 힘과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가슴 한복판에 고드름마냥 매달려있던 걱정과 근심이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귀중한 군공메달,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꽉 그러쥐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이 군공메달을 가슴에 품고 기어이 그 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결패있게 군관혁띠를 조인 표무강은 발치에 떨어져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굳게 틀어쥔 주먹안에서 최덕근의 편지는 볼품없이 구겨졌다.

뒤에 서있던 련락병이 제꺽 성냥을 그어댔다.

표무강은 불이 달린 성냥가치에 편지를 가져갔다.

이제 최덕근의 편지는 순식간에 재로 되고말것이다.

숨을 크게 내쉰 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편지를 전투가방속에 집어넣었다.

련대참모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만이 아니라 김홍선도 참모들도 모두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참모장동무, 련대를 모이게 하시오!》

표무강의 단호한 명령이였다.

4

서분이가 갑자기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다된것처럼 남산만 한 배를 쓸어만지며 미소를 머금고있던 그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숨이 넘어갈것처럼 고통스러워하였다.

《에구머니!… 엄마, 나 죽어요!》

연방 신음소리를 지르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것을 보니 일이 심상치 않았다.

당황해진 한정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분이옆을 뱅글뱅글 맴돌기만 하였다.

《아주머니, 왜, 왜 그러세요. 네?》

급한 나머지 서분이는 한정아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였다.

《날 좀 살려줘요. 배가 막 아파요오— 당장 끊어지는것 같애요. 에구머니!》

창황중에도 한정아는 어이가 없었다.

아이참, 내가 무슨 산파라도 된다구. 헌데 이 일을 어쩜 좋담?

문득 처녀는 녀성의 본능으로 어머니가 되자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순간이 지나면 환희와 행복의 절정으로 솟구쳐오르는 그러한 시각이 닥쳐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깜깜인지라 그저 걱정하는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서분이는 더욱 아부재기를 쳤다.

《배가 점점 더 아파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게 아닐가요?… 에구, 에구머니!》

죽는다고 소리치는 서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한정아는 《잠간, 내 인차 갔다올게요. 그때까지 견디여야 해요!》 하고 웨치

다싶이 말하고는 무작정 돌아섰다.
련대군의소에 빨리 알려야 한다!
종주먹을 쥐고 뛰여가던 그는 멈춰섰다.
가만, 내가 어디로 가고있니?
련대군의소에도 중상자들과 허약자들이 차고넘치는데 그 판에 임신부까지 들이닥치면…
련대장앞에서 《사민구분대》는 내가 책임진다고 장담하였던 말이 생각났다.
련대군의소는 안되겠어. 그럼 누굴 데려올가?… 옳지. 우물집아주머니를 데려오자. 그 아주머닌 아이를 낳아보았으니 경험이 있을거야.
마침 일이 될세라 숙영준비구령이 내렸다.
그와 함께 서분이도 진통이 멎었는지 잠잠해졌다.
일없지 않을가? 아니야. 그래도 우물집아주머니를 데려와야 해.
서분이한테로 되돌아간 한정아는 제꺽 풀숲우에 모포를 깔고 그를 눕혀놓은 다음 숙영준비를 서두르는 《사민구분대》쪽으로 달려갔다.
사정이야기를 들은 우물집녀인은 혀를 쯧쯧 찼다.
《에구, 서분이가 끝내… 그러지 않아두 이젠 해산할 때가 되였겠는데 하고 걱정했었네. 자, 이러구있을새가 없어. 어서 가자구.》
우물집녀인을 데리고 돌아오니 서분이는 새우처럼 허리를 꼬부리고 옴짝 못하고있었다.
한정아는 우물집녀인과 함께 개인천막을 치고나서 끙끙 신음소리를 내고있는 서분이를 부축하여 그안에 눕혔다.
《어디 좀 보자. … 참, 아지민 밖에 나가있다가 찾으면 들어오라구.》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우물집녀인을 보자 한정아는 호— 하고 한숨이 나갔다. 좀전에는 앞이 캄캄했는데 이젠 마음을 놔도 될것같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내돋은 땀을 손등으로 훔친 처녀는 기꺼운 마음으로 천막을 나섰다.
《난… 난 더 못 견디겠어요. 에구머니!》
《이제 곧 어머니가 되겠는데 무슨 엄살이 그렇게 많아. 겁을 먹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하라구.》
천막안에서 들려오는 녀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한정아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앞으로 서분아주머니처럼 되겠지. 어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담?
두볼을 감싸진 한정아는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는데 저쯤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누구예요?》
맨앞에서 씨엉씨엉 걸어오던 키가 후리후리한 군관이 대답하였다.
《나 련대장이요.》
저으기 놀란 한정아는 얼핏 천막쪽을 돌아보았다.
아이참, 하필 이런 때 나타날건 뭐람.
표무강을 향해 맞받아 걸어간 한정아는 도담하게 앞을 막아섰다.
《련대장동지, 여기로는 못 갑니다.》
우뚝 멈춰선 표무강은 곱지 않은 눈으로 마주보았다.
《왜 못 간다는거요?》
《지금 천막안에서… 어쨌든 이쪽으로는 안됩니다.》
표무강은 그 말에는 아랑곳않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리유를 말해보오.》
《이건 우리 녀자들의 일입니다. 그런것까지 보고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물러날줄 알았는데 표무강은 끄떡하지 않았다.
《련대에 배속된 이상 련대장은 무엇이나 다 알아야 하오. 그것이 설사 녀성들에 한한 일이라도 말이요.》

《?!》

결국 그는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온것이다.

련대장동진 서분아주머니가 해산한다는것을 어떻게 알았을가?

《군의소장동무, 들어가서 환자상태를 알아보오.》

의료기구가 든 가방을 들고 그의 뒤에 서있던 련대군의소장이 천막쪽으로 걸어갔다.

한정아는 공연히 양복자락을 쥐였다놓기도 하고 돌돌 말기도 하면서 속으로 토달거렸다.

련대에 부담을 주지 않자고 그랬는데 뭐가 좋지 않아 그럴가?

처녀의 마음을 알리 없는 표무강은 엄한 기색을 지었다.

《동문 여기가 적후라는걸 잊은게 아니요? 이제라도 적들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소?》

《?》

사실 한정아는 해산문제에만 신경을 썼지 그런 정황은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표무강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연방 조겨댔다.

《말이 난김에 한마디 하기요. 동문 쩍하면 <사민구분대>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있다고 보오. 지휘관은 자기의 자존심을 시위할것이 아니라 전사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요.》

《네?》

한정아는 뭔가 항변하고싶었지만 말이 나가지 않았다. 표무강의 말이 옳았던것이다. 실지로 자기가 《사민구분대》를 책임진다는 견해에는 다분히 처녀의 자존심이 작용하고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책임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표무강의 견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있는데 천막안에서 련대군의소장이 급히 걸어나왔다.

《련대장동지, 산모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고열이 나고 출혈증세가

있는데 자칫하면 대출혈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빨리 수술을 해야지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비로소 한정아는 사태가 얼마나 급한지 깨달았다.

당황해난 처녀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래기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앞에 서있는 표무강을 쳐다보았다.

허공에서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련대장동지, 어쩌면 좋아요?)

(동문 정말 한심하오.)

(그래요. 허지만 지금 그걸 론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표무강의 두툼한 입술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군의소장동무, 수술을 시작하오.》

《알았습니다. 자, 주옥동무와 혜순동문 수술준비!》

련대군의소장의 뒤를 따라 어깨에 위생가방을 둘러멘 처녀간호원들이 천막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자 한정아는 표무강련대장이 이미전부터 해산준비를 착실히 해놓고있었다는것을 알았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빨개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선 한정아는 속으로 빌었다.

서분아주머니, 제발… 제발 순산을 해주세요!

돌연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련대참모장이 뛰여왔다.

《련대장동지, 적입니다!》

《뭐요, 병력은?》

《한개 련대쯤 되는데 이쪽으로 밀려옵니다. 아직은 아군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인차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오. 지금 한창 해산중이란 말이요.》

《련대가 포위되면 어쩌겠습니까?》

표무강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련대 전투준비!》
안경테를 불안스럽게 만지작거리던 련대참모장이 물었다.
《여기서 전투를 벌리자는겁니까?》
《그렇소. 해산이 끝날 때까지 견지하기요.》
《알았습니다.》
련대참모장이 달려가자 표무강은 천막에 대고 소리쳤다.
《군의소장동무, 련대가 적을 막겠으니 마음놓고 해산방조를 하오. 알겠소?》
《알았습니다.》
꽝, 꽈꽝!—
뚜룩, 뚜루룩—
포탄이 날아와 작렬하고 총탄이 나무가지들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렸다. 어디선가 육박전이 벌어진듯 악, 악 하는 고함소리와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터져올랐다.
그속에서도 천막에서는 《아주머니, 조금만 힘을 내시오. 한번만 더!》 하는 련대군의소장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얼마간 지나자 부상당한 전사들이 밀려들었다.
심한 부상을 입은 그들이였지만 지나가는 간호원들을 붙잡고 해산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정아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자기의 부상처보다 산모와 새 생명의 출생을 더 걱정하는 뜨거운 마음들!
그 진실한 모습은 처녀의 망막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상으로 새겨졌다.
돌연 천막안에서 으앙!—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천막자락을 들추고 밖으로 뛰쳐나온 련대군의소장은 얼굴의 땀을 훔칠념도 않고 목청껏 소리쳤다.
《동무들, 보병이 태여났소. 어하하하!》
그 소식은 즉시 전투장으로 날아갔다.

총탄이 떨어진 보총에 총창을 꽂고있던 전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속으로 뛰여들었다.

5

손등우에 턱을 고인 한정아는 부러운 눈길로 모자를 지켜보고있었다.
부석부석한 얼굴을 소곳이 숙인 산모, 온몸에 넘치는 힘과 열정을 억제할수 없다는듯 앙증스러운 두손을 내저으며 엄마의 말랑말랑한 젖꼭지를 힘껏 빨고있는 갓난아기.
그 따끔한 촉감에 두눈을 사르르 감으며 아기의 잔등을 쓰다듬는 녀인의 얼굴에 꿀처럼 달디단 미소가 피여올랐다.
아, 세상에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으랴.
살며시 일어나 가물거리는 등잔심지를 돋구던 한정아는 속으로 놀랐다.
환해진 등잔너머로 웬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는것이 아닌가.
굵은 눈섭밑에서 불타는 부리부리한 두눈, 사내다운 배짱이 느껴지는 주먹같은 코, 믿음직하게 다물린 두툼한 입술…
상상속의 그 남자는 인차 사라졌지만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한 처녀의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아이참, 내가 왜 이럴가?
속으로 자기를 나무란 한정아는 한숨을 나직이 내그었다.
사실 처녀의 망막에 비쳐든 표무강련대장은 오직 명령과 전투밖에 모르는 무쇠같은 사나이였다. 실지로 첫 상면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 짐작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처녀는 자기가 그린 인물화가 정확하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나흘전 깊은 밤중에 있은 일이였다.

그때 한정아는 추워서 떠는 서분이한테 주려고 모닥불에 돌을 달구고있었다.

모아세운 무릎우에 뾰족해진 턱을 올려놓은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마주하고있느라니 몸이 나른해지고 하품이 쏟아져나왔다.

자꾸만 눈시울이 아래로 내려오고 저도 모르게 몸중심이 옆으로 쏠렸다.

잠들면 안되겠는데…

처음에는 허벅다리를 꼬집고 그 다음은 화가 나서 손으로 두눈을 비비였지만 처녀의 연약한 육체는 어느결인가 사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가위에 눌리운듯 후닥닥 깨여나보니 모닥불속에 파묻었던 불돌이 없어졌다. 더 놀라운것은 자기의 어깨우에 씌여져있는 군용모포였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한정아는 혹시나하고 가까운 곳에 전개된 개인천막으로 향하였다.

살그머니 천막을 들여다보니 서분이는 군용모포를 덮고 땀을 줄줄 흘리며 자고있었는데 모포속에 손을 넣어보니 뜨끈한 불돌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이렇게 했을가?

두눈을 깜빡거리며 생각을 굴렸지만 짚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의문은 다음날 아침 서분이의 감동에 젖은 이야기를 통하여 풀렸다.

그에 의하면 관하구분대들을 돌아보던 표무강련대장이 《사민구분대》에 들렸다가 사위여가던 모닥불을 다시 지피고 불돌을 데우는 한편 련락병을 시켜 자기의 군용모포를 가져다가 굳잠에 든 처녀의 어깨우에 씌워주었다고 한다.

전투와 행군밖에 모르는 엄격한 지휘관이라고, 목석같은 남자라고 여겼던 그한테 그런 인정미가 있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때문에 련대장동지 온밤 추위에 떨었겠구나!

처음은 미안한 생각이, 그 다음은 고마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벼랑길에서 떨어질번 한 자기를 구원해주었을 때 느꼈던것과 전혀 다른 감정이였다. 그러고보면 자기는 본의아니게 두번이나 그를 추위에 떨게 한셈이다. 한번은 젖은 군복을 입게 한것이고 다른 한번은 군용모포때문에.

표무강의 인물화를 잘못 그렸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것은 어제 있은 일이였다.

그날 표무강은 산모의 해산을 위해 련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갔었다. 사실 수천명 전사들의 운명과 갓난아기의 생명은 대비할바가 못된다. 그렇지만 그는 미구에 태여날 새 생명을 위해 련대를 불러일으켰고 그자신이 앞장에서 싸웠었다.

전투가 끝나고 련대군의소에 돌아왔을 때는 또 어떠하였던가.

산모가 무사히 해산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표무강은 기쁨에 넘쳐 이렇게 웨쳤었다.

《동무들, 련대는 우리 공화국의 한부분이요. 그러니 갓난아기가 태여난 곳은 적후가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고 장군님의 품이란 말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뿜어나오는것 같은 그 토로를 들으며 한정아는 눈굽이 쩌릿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련대는 우리 공화국이고 장군님의 품! 정말 옳은 말이야. 헌데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가?

얼마후 행군에 오른 전사들의 머리우로 련대장의 《특별명령》이 날아들었다.

《저녁까지 갓난아기의 이름을 지을것!》

그 명령이 하달되자 련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사들은 허기지고 추위에 떨던 사람들 같지 않게 신이 나서 저저마다 아기이름을 짓느라고 극성을 부렸고 그 뜨거운 흐름속에서 련대는 전에 없는 행군기록을 세웠던것이다.

저녁에 열린 군인모임에서는 각 구분대에서 추천한 갓난아기의 이름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였다.

박남수, 박광일, 박철남, 박수진…

나름대로 뜻을 담아 지은 이름들이지만 그중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된것은 표무강련대장이 지은 이름이였다.

박영보!

너를 안아준 공화국의 품, 장군님의 품을 영원히 잊지 말고 보답하라는 깊은 뜻이 담긴 그 이름!

아기이름은 즉시 온 련대에 퍼졌고 산모에게도 전달되였다.

옆에서 사람들이 산모가 울면 젖이 안 나온다고 달랬지만 서분이는 자기와 아들의 출생을 위해 피흘리며 싸우고 이름까지 지어준 련대전사들의 진심에 감동되여 오래도록 흐느껴울었다.

《전 인제야 어째서 그이가 아이만은 공화국의 품에서 꼭 낳으라고 절절히 당부했는지 똑똑히 알겠어요.》

영보가 머루알같은 두눈을 반짝이며 엄마젖을 먹고있는 천막으로 전사들이 무리로 밀려들었다.

산모시중을 맡고있는 한정아가 찬바람을 맞으면 큰일난다고 야단하였지만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야 돌아섰고 밤을 새우며 혹은 행군의 쉴참에 만든 장난감들을 기어코 남겨두었다. 그속에는 고향에 돌아가면 딸에게 주려고 배낭속에 건사하였던 고운 인형아기도 있었다.

표무강은 한밤중에 슬그머니 찾아왔다.

제 말로는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지만 아까부터 밖에서 오락가락하던 발자국소리를 들은 한정아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천막가운데 어색하게 서있던 총각련대장은 군복웃주머니에서 꺼낸 군공메달을 갓난아기의 눈앞에 가져갔다.

《영보야, 이걸 보렴. … 아니, 이걸 보라는데…》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고있던 산모가 보다못해 알려주었다.

《애기는 아직 눈을 보지 못해요.》

《예?》

표무강은 뒤머리를 긁적거리며 물러났다.

그 우습강스러운 모습을 보자 한정아는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살며시 밀려드는것을 느꼈다. …

또다시 등잔심지를 돋구던 한정아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어느덧 표무강의 모습은 사라지고 랭담한 표정을 지은 로성익이 나타난것이다.

아이참, 인상이 왜 저럴가?

어제 저녁 한정아는 산모의 빨래를 하러 개울가에 나갔다가 우연히 로성익을 만났었다.

《피곤하겠는데 뭘 하니?》

오빠를 보자 한정아는 생글거리며 대답하였다.

《빨래해요. 참, 우리 서분아주머니가 떡돌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오빠는 별로 반가와하는 기색도 없이 알고있다는듯 대충 고개를 끄덕이였다.

《오빤 아기가 태여났다는데 기쁘지 않아요?》

한정아의 가벼운 나무람에 로성익은 차거운 어조로 대답하였다.

《넌 정말 생각이 단순해서 좋겠구나.》

《그건 무슨 소리예요?》

뭔가 말할듯 하던 로성익은 손을 홱 내젓고는 가버렸었다.

등잔심지를 돋구고 제자리로 돌아온 한정아는 손등으로 턱을 받치고 행복한 모자를 바라보았다.

조금 있느라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앞에 두사람이 나타났다.

한사람은 영보를 품에 안고 껄껄 웃는 표무강이고 그옆에 서있는 사람은 칼칼한 표정을 지은 로성익이였다.

뚜렷하게 부조화를 이루는 두사람의 모습!

오빤 왜 그럴가? 온 련대가 영보가 태여났다고 명절처럼 기뻐하

는데…

속상해서 중얼거리던 한정아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부터 오빠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을가? 혹시 오빠에 대한 정이 식어버린게 아닐가? 아니야.

한정아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으나 오빠에 대한 야속한 감정은 털어버릴수 없었다.

6

《불여우같은 놈,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최덕근은 상처입은 곰마냥 으르렁거리고있었다.

좀전에 그는 부하로부터 기분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글쎄 허정효가 자기 필체를 모방해서 위조편지를 썼다는것이다.

흥, 석수쟁이 눈깜작이부터 배운다고 태여나서부터 남을 속이고 물어메치는짓부터 배운 인간이니 또 무슨 암계를 꾸미는 모양이다. 편지를 쓰든말든 그런것은 상관없지만 괘씸한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 짓거리이다.

언제인가 허정효가 사단장님, 륙사생끼리 한잔합시다 하고 찾아왔었다.

그 말속에는 당신이 아무리 장성별을 달고 으시댄다고 해도 난 륙사선배란 말이요 하는 자고자대가 엿보였다. 전번에 쥐꼬리만한 위스키상식을 안주처럼 꺼내놓고 쫄랑거리는것을 보고 겨우 참았는데…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수 없어 허정효가 권하는 위스키를 들이켰는데 녀석이 살살 웃으며 사단장님글씨가 명필이라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내 이제 한석봉이 되겠소라고 하였더니 허정효는 나도 사단장님처럼 멋진 글씨로 제 이름자를 쓰고싶어 그럽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독한 위스키를 들이켜서 그런지 한번 뻐기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몇줄 적어주었는데 그런 놀음을 벌려놓을줄을 누가 알았으랴.

최덕근을 격분시킨것은 결코 그따위 위조편지가 아니였다.

언제인가 그가 허정효에게 《난 명색이 <국군>사단장이지 실은 허수아비란 말이요.》 하고 불평을 쏟아놓은적이 있었다.

그때 허정효는 사단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리해합니다 하며 짐짓 위로해주었었다.

헌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다음날 최덕근은 하불의 긴급호출을 받았다.

혹시?!… 아니다. 설마 그자가?

애써 도리머리를 저었지만 오강뚜껑으로 물을 떠마신 기분이였다.

내가 이거 악어의 아가리에 스스로 찾아들어가는게 아닌가. 물론 하불은 필요하면 《국군》사단장도 호출할수 있다. 문제는 그가 왜 찾았는가 하는것이다.

여하튼 가보면 알게 되겠지 하고 찾아갔더니 의외로 하불은 친절한 태도로 맞아주었다.

최근 날씨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펼쳐놓고있던 그는 《말보로》표담배를 권하였다.

그때에야 최덕근은 자기가 괜히 허정효를 의심했다고 후회하며 담배를 받았다.

《미스터 최, 당신은 <말보로>에 깃든 사연을 알고있소?》

하불의 느닷없는 질문에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담배를 바라보던 하불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사랑에 빠진 한 고학생이 있었소. 어느날 그가 가슴을 울렁이며 처녀의 집앞에 서있는데 애인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았소.

밤이 퍼그나 깊어서 처녀가 나타나자 총각은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소. 그가 가슴속에 품고있던 불같은 사랑을 고백하려는 순간 뜻밖에 처녀가 <이봐요. 난 래일 결혼해요!>라고 하는게 아니겠소? 억이 막힌 총각은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가까스

로 마음을 다잡고 담배를 한대 피우는 동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였소.

<좋아요. 그럼 피우세요!>

처녀가 승낙하자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물고 될수록 시간을 늘구려고 천천히 피웠소. 하지만 담배는 그를 도와주지 못했소. 조금후에 다 타들어가고말았단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되였겠소. 처녀는 집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관계는 끝났거던.》

점잖은 미국신사의 입에서 슬픈 로맨스가 흘러나올줄은 몰랐던 최덕근은 은근히 놀라고있었다.

이 미국인한테도 감성적인 측면이 있었단 말인가?

《담배를 좀더 천천히 피웠을걸 하고 아쉬워하던 그는 담배를 더디게 타들어가게 할순 없겠는가 하고 생각하였소. 그후 친구와 함께 새 담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려과봉이 달린 담배였소.

몇해가 지나 그는 백만장자가 되였소. 그러던 그는 자기의 첫사랑이 남편도 없이 병든 몸으로 빈민촌에서 살고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불쑥 옛사랑이 되살아난 그는 이전 애인을 찾아가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결혼해주겠소?>라고 청혼하였소.

녀자는 망설이다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소. 다음날 그는 약속한대로 녀자의 집에 갔는데 맞아준건 목을 매고 죽은 싸늘한 시체였소. 그는 너무도 분한 나머지 자기가 창안한 담배에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남자는 늘 사랑을 기억하는데 이는 이루지 못한 랑만때문이다.)의 영어문장에서 앞글자들을 간략한 <Marlboro>라는 이름을 붙였소. 그때부터 <말보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두고 고민하는 남자들의 <위안제>로 되여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오.》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지만 최덕근은 속으로 긴장되였다.

하불은 결코 한담이나 나누자고 찾을 인간이 아니다. 분명 그 로맨스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 그게 무엇일가?

자기를 지켜보는 노랑눈을 의식하며 최덕근은 재빨리 그가 들려준 로맨스를 돌이켜보았다.

사랑에 빠진 고학생, 너무도 빨리 타들어버린 담배, 깨여진 사랑, 몇해후에 만난 녀자, 남자의 불같은 청혼, 다음날에 나타난 녀자의 시체…

여기서 류의할 점은 남자의 청원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녀자의 비극적인 운명이다. 그 녀자는 어째서 죽음을 선택하였는가?

얼핏 생각하면 그처럼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나이를 배반한 지난날이 죄스러워 그 길을 택하였다고 볼수 있다. 아니, 그렇게 쉬운 대답이라면 하불은 품들여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그 로맨스를 통해 무엇인가 암시하고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혹시 녀자가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것이 아닐가? 다시말해서 설사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룬다고 해도 어느때이건 지난날을 용서받지 못하리라는것을 깨닫고 죽음을 택한것이 아닐가?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절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있다. 그렇다. 그 녀자가 자살한것은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때문이다. 믿음이라… 하불은 나에 대한 믿음을 암시한건 아닐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얼음물을 뒤집어쓴것처럼 잔등이 오싹해졌다.

나도 상전의 믿음을 잃는다면 그 녀자처럼 제손으로 목을 매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 하불은 로맨스를 빌어 자기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하다면 그는 어째서 그런 말을 꺼냈는가?

《미스터 최!》

강물에서 뛰쳐나온 가물치처럼 최덕근은 푸들쩍 놀랐다.

《난 당신을 믿겠소.》

하불의 우묵한 눈과 부딪치자 최덕근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사냥물을 노리는 악어와 같은 눈에서 그의 말과 상반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것이다.

《?!》
설마 하고 넘겨버렸던 의심이 말라버린 내가의 돌처럼 말짱히 드러났다.
허정효, 난 그래도 널 믿었는데 내 염통을 뽑아서 하불한테 바쳤구나. 불여우같은 놈!
그때부터 명치끝에 무엇인가 매달린것처럼 속이 좋지 않아 보기좋게 한꼴을 먹이려고 벼르고있었는데 난데없이 위조편지사건이 터진것이다. …
막사밖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이쪽에서 응답하기도 전에 허정효가 당당하게 들어섰다.
물건너가는 뱀처럼 빳빳이 쳐든 상통을 보느라니 분이 치밀어올랐다.
《소령, 어째서 표무강한테 내 필체를 모방한 위조편지를 보냈는가?》
《…》
《내 승낙도 받지 않고 그런짓을 했는가 말이다.》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얼굴빛이 새파래진 허정효는 차겁게 내뱉았다.
《그건 묻지 마십시오.》
《뭣이?》
화가 머리꼭뒤까지 오른 최덕근은 허리춤에서 와락 권총을 뽑아들었다.
《자식, 륙사선배라고 좋게 대해주었더니… 당장 쏴갈기고말테다!》
자기를 면바로 겨눈 총구를 보았지만 허정효는 태연자약하였다.
《이거 롱이 지나친데요?》
《뭐, 내가 롱을 하는것 같애?》
최덕근은 허정효의 가슴팍에 총구를 들이댔다.
그쯤하면 무릎을 꿇고 손이야, 발이야 빌줄 알았던 허정효는 마치

아이들의 유치한 놀음이기라도 하듯 픽 웃었다.
《흠, 당신은 날 죽이지 못할게요.》
《좋다. 어디 널 죽이나 못 죽이나 봐라!》
그가 절컥― 격발기를 잡아당기는데 누군가 옆에서 권총을 잡아내렸다.
《뭐야?》
눈에 달이 떠서 돌아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하불이 점잖은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미스터 최, 잘 있었소?》
최덕근은 슬그머니 권총을 집어넣었다.
하불은 아무것도 못 본듯이 천막안을 거닐었으나 사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최덕근과 허정효가 맞붙은것을 알고 들어선 참이였다.
오늘 또 단고기국맛을 보게 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흡족하였다. 이상하게도 남들이 싸우는것을 보면 단고기국을 먹은것처럼 속이 후련하다.
몇해전 이 땅에 들어섰을 때 발빠르게 찾아온 허정효한테 당신네 음식가운데서 영양가가 제일 높은 음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각하, 단고기국입니다, 그 음식은 한여름철에 발잔등에만 떨어져도 보약이 됩니다 하고 아뢰이는것이였다. 그게 어떤 음식인가고 묻자 개를 잡아서 가마에 넣고 푹 끓인것이라고 한다. 당장 《야만인!》이라는 말이 터져나가려는것을 참았다. 한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자면 현지주민들의 식생활과 풍습 같은것을 알아두어 나쁠것은 없고 그보다는 발잔등에만 떨어져도 보약이 된다는데 무엇때문에 점잔을 빼랴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어느날 깊은 밤 허정효의 안내를 받아 단고기국집으로 갔다. 시뻘건 양념을 올려놓은 단고기국을 보자 속이 메슥메슥하였지만 보약이라니 억지로 참고 먹었는데 웬걸, 생각과는 영 딴판이였다.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지금까지 이처럼 맛좋은 음식을 야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천시한것이 후회되였다. 그후 두 동료가 무슨 일때문인

지 치고 받고 하며 싸우는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뜨뜻한 온돌우에 틀고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단고기국을 먹던 때의 기분이 되살아나는것이였다.

지금도 권총을 뽑아들고 펄펄 뛰는 최덕근과 허정효를 보자 단고기국생각이 나면서 《이이제이》라는 고사가 떠올랐다.

이이제이, 이것은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뜻으로 이를테면 저희들끼리 싸우게 한다는것이다. 만일 믿음이라는 고기덩어리를 던져주면 최덕근과 허정효라는 두마리의 번견은 죽기내기로 싸울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하들을 말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놓치면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질것이기때문이다. 아니다. 이자들은 서로 싸울것이 아니라 표무강을 앞뒤에서 물어뜯어야 한다!

《미스터 최, 무슨 일이요?》

《각하!…》

막상 말꼭지를 떼였지만 최덕근은 《국군》장성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것 같아 입을 다물고말았다.

대신 허정효가 승이 나서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쳤다.

하불은 흥미있다는듯 흠, 흠 코소리를 냈지만 크게 놀라는 기색이 아니였다. 사실 그는 밖에서 그들의 다툼질을 들었지만 모르쇠를 하고있었다.

마침내 허정효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불은 짐짓 성난척 하였다.

《미스터 허, 그게 무슨 본때요? 사단장의 승인도 없이 함부로 그런 일을 하다니…》

《국군》장성앞에서 그렇듯 당당하던 허정효가 미군중좌앞에서는 명주고름처럼 나긋나긋해졌다.

그것으로 성차지 않은지 하불은 최덕근을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였다.

《당장 사죄하시오.》

설사 상전의 지시라도 허정효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모양 주춤거렸다.

《으흠?》

범상치 않은 코소리가 울리자 허정효의 가냘픈 자존심은 군화에 밟힌 중절모신세가 되여버렸다.

《사단장각하, 정식으로 사죄합니다.》

언제 그랬던가싶게 머리를 쪼아리는 허정효를 보자 최덕근은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그는 한발 먼저 밖으로 나간 허정효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을줄은 알지 못하였다.

《최덕근씨, 유감이지만 하불은 우리들중 누구도 믿지 않소. 다만 우릴 경쟁시켜 자기 리익을 챙길뿐이요. 그런줄도 모르고 그가 자신을 더 믿는다고 만족해하는 당신이야말로 우둔한 인간이요. 굳바이!》

열흘후 허정효는 《국군》중령으로 승급하였다.

당장 철직당할줄 알았던 그가 새 계급장을 달고 나타나자 최덕근은 눈이 휘딱 뒤집혀졌다.

속았구나!

생각 같아서는 권총으로 하불이건 허정효이건 쏴갈기고싶었지만 참아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자신의 한생은 끝장날수 있기때문이다.

알수 없는것은 어째서 자기의 인생은 불행하게도 치욕스러운 순간들의 련속으로 이어지는가 하는것이다.

그 수수께끼를 그는 인생말년에야 풀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반백이 되여버린 인생의 황혼기였다. 그러나 지금 최덕근은 상처입은 몸뚱이를 껍진껍진한 송진에 마구 비벼대는 곰마냥 몸부림치면서 반역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미친듯이 질주하고있었다.

7

삼라만상이 잠든 깊은 밤.

산속에서 한점의 모닥불이 타오르고있었다.

어둠에 눌리워 생기없이 타오르던 모닥불은 불시에 확— 하고 키를 솟구었다. 아마 막대기로 불무지를 쑤셔놓았는지 사방으로 빨간 불찌들이 도탄된 탄알처럼 튀여났다.

불빛이 환해지자 모닥불앞에 쭈그리고 앉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불꺼진 화로인양 정기없는 두눈, 두드러져나온 광대뼈…

련대를 찾아가는 전사 홍일남이였다.

그가 피눈물을 뿌리며 어머니와 헤여져 산속을 헤매고있는지도 벌써 며칠이 지나가고있었다. 이제는 더 걸을 힘이 없었다. 풀뿌리를 캐먹으며 산속을 돌아치다나니 눈앞에서 노란 별찌가 가물거렸고 아무데라도 드러누워 실컷 잠이라도 자고싶은 생각뿐이였다.

지금 뒤잔등에 가붙은 배를 그러안고 기세좋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느라니 불쑥 이틀전에 맞다들었던 다래덩굴이 떠올랐다.

그날 산속길을 따라 비칠비칠 걷고있던 홍일남은 그만에야 무릎을 꺾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배가 고파서 더 걸을수 없었던것이다.

풀숲에 벌렁 드러누워 숨을 가쁘게 내쉬는데 어디선가 달큰한 향기가 풍겨왔다.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니 대여섯발자국앞에 다래나무가 서있었다.

《엉, 다래구나!》

벌떡 일어난 그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달려들어 정신없이 따먹었다.

언제인가 분대원들과 함께 다래를 잔뜩 먹고 배앓이하던 생각이

떠올랐으나 언제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혀바닥이 텁텁하도록 게걸스럽게 먹고나자 취기가 오르면서 몸이 좌우로 흔들거렸다.

에라, 좀 쉬였다 가자!

다래나무에 몸을 기대자 기다리고있은것처럼 졸음이 밀려들었다.

앉은채로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몸이 옆으로 쏠리며 쿵하고 머리를 바닥에 짓쪼아서야 잠에서 깨여났는데 어림짐작에도 뒤시간은 잔것 같았다.

와뜰 놀라서 일어나는데 아래배가 꾸르륵꾸르륵하고 별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수풀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배가 계속 편치않았다.

그때부터 연방 수풀속으로 들락날락하다보니 다리가 매시시해서 그대로 주저앉고말았다.

그날은 온종일 시오리도 길을 축내지 못하였다.

어제는 운수좋다고 해야 할지 칡덩굴을 만났다.

손으로 잡아당겼더니 어찌나 땅속에 뿌리내렸는지 어림도 없었다.

석기시대의 원시인들처럼 뾰쭉하게 생긴 돌을 찾아쥐고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칡뿌리를 끊어가지고는 그채로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었다.

처음은 슴슴하고 씁쓸하더니 조금 지나자 들큰한게 배앓이를 일으키는 다래보다는 한참 나았다.

두려운것은 결코 배고픔이 아니였다.

군대에 입대한 후 홍일남은 언제 한번 전우들과 헤여진적 없었다. 비록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행군하였지만 그때에는 주위에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들이 있었다. 지칠대로 지쳐서 두다리가 어떻게 놓이는지 모르고 걷느라면 《일남이, 힘들지?… 배낭을 달라구.》 하고 손을 뻗치는 분대장이 있었고 밤에 숙영할 때면 남달리 추위를 타는 자기의 몸에 군용모포를 덮어주는 구대원들이 있었다. 지금은 혼자였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드넓은 천지에 남은것은

오직 자기뿐이였다.

그는 련대가 위치하고있던 산으로 허둥지둥 달려갔었다.

웬걸 련대가 날 기다려주랴 하고 단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전우들이 기다려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다. 그랬으나 정작 텅 빈 수림속을 보자 눈앞이 아찔하였다.

방금전까지 꿋꿋하던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혹시나하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분대장동지!… 동지들!…》

그 부름소리에 화답한것은 삭풍에 떨고있는 나무들의 애처로운 신음소리였다.

아, 가버렸구나!

안타까운 나머지 마구 태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였다.

멍하니 서있는데 돌연 가까운 곳에서 딱― 하고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적이다!

재빨리 보총격발기를 절커덕― 잡아당기고 그쪽에 대고 겨누었다.

《누구얏?》

《…》

분명 무엇인가 락엽을 밟으며 살금살금 기여가는것 같은데 눈에 띄우지 않는다.

방아쇠에 건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다.

찰나 머리우에서 푸드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질겁한 홍일남은 방아쇠를 지끈 잡아당겼다.

땅!―

머리우에서 무엇인가 새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

그것은 나무가지우에 올라앉아 다리쉼을 하고있던 이름모를 산새였다.

허거프게 웃으며 보총을 내리우던 그는 다시금 긴장해졌다.

뒤쪽에서 누군가 수풀을 헤치며 다가왔던것이다.

필경 총소리를 듣고 접근해오는 적들일것이다.

서리가 허옇게 내린 잔디우에 몸을 던지며 총구를 앞으로 내밀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건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

그제야 홍일남은 자기가 겁에 질려 온순한 수림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수림은 낮에 이어 밤에도 그를 놀래웠다.

어제 밤, 성냥을 아끼느라고 모닥불을 피우지 않고 락엽우에 그냥 누웠는데 누군가 어깨를 슬슬 어루만지는것이였다.

《뭐야?》

벌떡 일어나며 보총을 내댔으나 교교한 달빛이 비쳐드는 수림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뱀이 아닐가?… 쳇, 지금이 어느때라고 뱀이 나와?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머리우에서 부엉부엉하는 스산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기가 싹 달아나고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아예 일어나 앉고말았다. 그것이 고독감이 불러온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하니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배가 뒤잔등에 가붙은데다 마음마저 싱숭생숭하니 오늘은 30리도 못 가고 일찌감치 모닥불을 피운것이다. …

불무지가 점점 사위여가고있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삭정이들이 있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것이 시끄러웠다. 도대체 련대를 찾아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불현듯 모닥불너머로 낯익은 고향집이 안겨들었다.

구수한 낟알냄새를 풍기며 벌렁벌렁 끓고있는 가마, 부뚜막에 앉

아 이제나저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제라도 나타나면 발치에 매달려 껑충껑충 뛰여오를 검둥이…

그는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더러운 놈들, 해보겠으면 나하고 해봐야지 앓는 어머니한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육체의 소모와 함께 극도로 나약해진 의지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갔다.

혹시 내가 마을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풀려나올수 있지 않을가? 사실 적들이 붙잡으려고 하는건 내가 아닌가.

한동안 머리를 싸쥐고있던 그는 고개를 쳐들었다.

이젠 련대를 따라가긴 코집이 글렀다. 그럴바 치고는 이 못난 아들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구원하자!

결심을 내린 홍일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머리우에서 군모가 떨어졌다.

무심결에 군모를 집어드는데 모닥불빛에 오각별이 반짝 빛났다.

정신이 버쩍 들었다.

인민군전사인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 하는가? 뭐, 어머니를 구원하겠다고 적들을 찾아간단 말인가? 그건 변절이고 배신이야. 이 군모를 처음 쓰던 날 군기앞에서 뭐라고 맹세다졌던가. 용감하게 싸워서 후날 어머니앞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순간을 치욕스러운 한생과 바꾸려 하다니. 아니다. 어머니를 구원하는 길은 련대를 찾아가는것이다!

가슴속에서 그득히 차오르는 불 같은것을 삼킨 홍일남은 북두칠성을 바라보았다.

국자모양으로 생긴 일곱개의 별!

련대는 어디 있을가. 아마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곳에 있을것이다. 그 련대를 따라잡자면 쉬고있을 사이가 없다. 당장 떠나자!

모닥불을 꺼버린 홍일남은 북쪽을 향하여 걸음을 성큼 내짚었다.

얼마 가지 못했는데 앞쪽에서 푸드득— 소리가 났다.

조금후에는 가까운 곳에서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서지 않고 그냥 걸어갔다. 인민군전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더는 없는것이다.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오는무렵 홍일남은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다시 일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기운이 빠져버린 두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사려물고 수풀속을 기여가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기여가느라니 온몸이 찬이슬에 젖어들고 팔굽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앞으로 또 앞으로 기여갔다.

련대로 가자, 련대가 나를 기다린다!

그 시각 그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8

휴식구령이 내리자 고남수는 수풀속으로 엉기적엉기적 들어갔다.

그가 어째서 조용한것을 찾는가 하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련대적으로 한정아밖에 없다. 본인이 그 일을 조심조심 하고있는데다 한정아까지 입이 쓰거워서 말을 꺼내지 않는 바람에 고남수의 《추행》은 그때까지 비밀로 남아있었다.

한정아는 더는 참고있을수 없었다.

엊그제 식량구입조가 산을 내려갔다가 도중에 실패하고말았다.

련대가 차지한 산을 겹겹으로 에워싼 적들은 기관총과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하여 공격하였다. 그통에 여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삐라와 방송을 통해서도 아군을 어쩌지 못한 적들은 비렬하기 짝이 없는 기아작전으로 넘어갔던것이다.

그리하여 련대의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온 련대가 칡뿌리와 산열매, 나무껍질에 매달렸다.

그속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속을 태우는 사람이 있었느니 그는 산모시중을 들고있는 한정아였다.

얼마전까지는 련대장의 명령으로 부상자들한테 공급되는 쌀을 한줌씩 조절하여 내주었는데 이제는 낟알그림자도 볼수 없었다. 오늘 낮에도 누군가 건사했던 가죽혁띠를 우려낸 뿌연 물을 산모에게 먹이였는데 아무리 쥐여짜도 젖이 나오지 않았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속였다고 밸풀이라도 하듯 앙앙 울어댔다.

진땀을 빨빨 흘리며 발버둥치는 영보를 지켜보는 한정아의 가슴은 마른 가랑잎처럼 바싹바싹 타들었다.

천막을 빠져나와 몰래 울고있던 처녀는 문득 고남수의 쌀배낭이 생각나자 눈물을 훔치고 나섰다.

허기져 누워있는 《사민구분대》속에는 그가 없었다. 고남수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헤매이다가 양지바른 곳에 웅크리고 앉아 배낭을 뒤지고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아저씨!》

《어구구!》

도적질을 하다가 들키운 사람처럼 와뜰 놀란 고남수는 상대방이 한정아라는것을 알자 마음을 놓은듯 배낭아구리를 꽉 조였다.

《아저씨, 행군구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말은 이렇게 하였으나 한정아의 눈길은 불룩한 배낭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뒤늦게야 그 눈치를 차린 고남수는 몸으로 배낭을 슬그머니 가리웠다. 그러더니 바지주머니에서 굵다란 칡뿌리를 뽑아 내주었다.

《임자 배고프면 이걸 씹으라구.》

엉큼한 고남수는 어떻게 하나 처녀를 얼려보려고 수를 쓰고있었다.

이 아저씨가 순순히 쌀을 내놓을가?… 아마 산모가 굶고있다는것을 알면 얼마간이라도 내줄거야.

사정을 이야기한 한정아는 절절한 어조로 부탁하였다.

《아저씨, 한사발만 좀 주세요. 후날 꼭 물어드리겠어요.》

먼 남쪽하늘가를 바라보는 고남수의 얼굴은 돌부처마냥 굳어져있었다. 그냥 놔두면 래일 아침까지라도 그렇게 있을것 같았다.

《아저씨!… 아저씨!》

《으-응?》

마치도 딴세상에서 돌아온것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있던 고남수는 처녀의 손에 들려있는 바가지를 보자 무의식적으로 배낭아구리를 헤쳤다.

옥백미를 보자 한정아는 기뻐서 막 환성을 지르고싶었다.

쌀이구나. 이젠 됐어!

금시 눈앞에 엄마젖을 맛있게 먹고 캐득거리고있는 영보의 귀여운 모습이 얼른거렸다.

하지만 그 상상은 배낭아구리를 도로 조여매는 고남수의 모습으로 하여 땅에 떨어진 유리처럼 박산났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꿍- 하고 배낭을 어깨에 둘러멘 고남수는 귀머거리처럼 먼 하늘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쌀을 내줄수 없다는 태도였다.

한정아는 말이 다 나오지 않았다.

사람이 어쩜 이럴수 있는가? 이런 인간과 지금껏 함께 지냈단 말인가?

격분에 찬 처녀의 입에서 맵짠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말해보세요. 그래, 죽어가는 산모와 갓난아기를 위해 쌀 한줌도 줄수 없단 말인가요? 네?》

그러거나말거나 고남수는 자기한테 필요할 때면 곧잘 써먹는 귀머거리흉내를 내고있었다.

처녀의 가슴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인간의 량심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수전노!

한정아는 마디마디에 경멸의 감정을 담아 내뱉았다.

《다신 구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똑똑히 알아두세요. 아저씨

같은 인간은 우리 대렬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걸 말이예요.》
총알처럼 내쏜 한정아는 찬바람을 일구며 돌아섰다.
뒤에서 떠듬거리는 말소리가 추근추근 따라왔다.
《임, 임자, 내, 내 말을…》
처녀의 귀에는 그 말이 남이야 죽든살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변명처럼 들려왔다.
총총히 걸어가던 한정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고남수의 배낭은 조금도 줄지 않고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가 옥백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것이다. 실지로 그는 좀전에 칡뿌리를 손에 들고있었다. 모를 일이다. 어째서 쌀을 등에 지고 가면서 굶고있는가? 남도 안 주고 자기도 안 먹는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가.

9

산릉선을 따라 줄기차게 흘러가던 대오는 급제동을 건 렬차마냥 줄렁줄렁 멈춰섰다.
《왜 섰어?》
《혹시 적정이 생긴게 아니야?》
《그런것 같진 않은데…》
다들 고개를 뽑아들고 앞쪽을 보고있는데 한무리의 전사들이 떠들썩하며 밀려왔다.
점점 불어나는 그 대오는 련대가 멈춰선 리유를 알아보기 위해 달려가던 표무강과 부딪쳤다.
《무슨 일이요?》
맨 앞장에 서있던 리경일이 누군가를 왁살스럽게 끌어냈다.
《련대장동지, 이게 누군가 보십시오.》
수밤송이처럼 마구 헝클어진 머리칼,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 너덜너덜한 군복…
《바로 그… 홍일남입니다!》
격분에 넘친 리경일의 말을 듣고서야 표무강은 그가 정말 홍일남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만큼 그의 모색은 퍼그나 변하였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살아있는것은 두눈뿐이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금껏 《나타나기만 해봐라. 용서치 않을테다!》 하고 별렀지만 정작 련대를 찾아온 그를 보자 어느덧 노여움은 가라앉고 무작정 반가웠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겨우 찾은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할가.
《일남이, 어디 갔다가 인제야 왔어. 응?》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그를 와락 끌어안으려던 표무강은 전기에 닿은것처럼 놀랐다.
귀전을 아프게 울리는 확성기소리.
《나도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앓고있는 어머니를 버리고 련대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
뜨겁게 달아올랐던 몸이 얼음물에 빠진것처럼 식어버렸다. 대신 반가움에 눌리웠던 분노가 고개를 쳐들었다.
일남이, 난 널 기다렸다. 어머니한테 진짜 효도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믿었단 말이다. 헌데 넌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어떻게 했는가? 에익, 너절한 자식!
점점 무섭게 변하는 련대장의 얼굴을 일별한 홍일남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련대장동지, 절 용서해주십시오.》
받는 소마냥 욱하고 달려든 리경일이 그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뭐, 언젠 우리더러 산에서 내려오라고 떠벌이더니 이제 와선 용서해달라구?》

밭가운데 서있는 허수아비처럼 잡아당기는대로 이리저리 몸을 흔들거리던 홍일남은 마치 지구가 깨여지기라도 한것처럼 와뜰 놀랐다.

《그,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직승기를 타고 돌아치면서 불어대지 않았단 말이야?》

어안이 벙벙해서 서있던 홍일남은 펄쩍 뛰였다.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주위에 모여있던 전사들이 저저마다 격분을 터뜨렸다.

《이 뻔뻔스러운 자식 봤나?》

《우리가 다 들었는데두 거짓말을 해?》

못내 억울한듯 홍일남은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부짖었다.

《난 아닙니다. 안 그랬단 말입니다!》

표무강은 착잡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련대장동무!》

뒤에서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소리가 날아와 잔등을 찔렀다.

《나 좀 보기요.》

대렬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간 로성익은 엄하게 질책하였다.

《동문 무엇때문에 주저하는거요?》

《난 주저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표무강은 확신에 넘쳐 대답하였다.

《그는 제발로 련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사정을 알아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로성익의 눈빛이 번뜩이였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그래, 저자가 그동안 무슨짓을 했는지 동무가 보증할수 있소? 적들한테 련대의 비밀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증명할수 있는가 말이요.》

언제 보나 그의 말은 론리가 정연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렇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래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보증할수 있는가?

로성익은 상급답게 추궁하였다.

《난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동무가 랭철해야 한다고 보오.》

《…》

《됐소. 전사들이 보는데 그만하기요.》

먼저 숲속을 빠져나온 로성익은 위엄있는 자세로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배신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몇명의 전사들이 맞받아 소리쳤다.

《총살합시다!》

더는 용서받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홍일남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러던 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군복소매로 눈굽을 훔치고 고개를 쳐들었다. 마지막순간만은 전우들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선사령부 대표의 딱딱한 목소리가 울렸다.

《련대장동무, 어서 결심하오!》

《동무들!》

수천쌍의 눈동자가 홍일남의 곁으로 다가가는 련대장을 지켜보았다.

련대를 쭉 둘러보던 표무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합니다. 그러나 난 홍일남동무를…》

전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였다.

주위는 고요한데 이따금 헐벗은 나무가지에 죽기내기로 매달렸다가 끝끝내 떨어지는 락엽의 신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누군가 사레들렸는지 헛기침을 깇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쿵쿵하는 코소리와 기침소리가 터져나왔다.

련대장의 목소리가 전사들의 머리우를 날았다.

《… 홍일남동무를 용서해주자고 합니다!》
온 련대가 신음비슷한 소리를 내질렀다.
우린 그를 총살하자고 했는데… 그러니 련대장동진 홍일남을 끝까지 믿었구나!
《여보, 련대장동무!》
싸늘하게 울린 그 목소리에 주위의 공기가 금시 얼어붙는것 같았다.
《동문 배신자의 목소리를 못 들었소?》
《들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용서해주자고 하는가?》
홍일남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잡은 표무강은 자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만약 홍일남동무가 정말 방송을 불어댔다면 총살당할줄 알고도 남겠는데 무엇때문에 나타났겠습니까? 그건 량심이 깨끗하기때문입니다.》
로성익은 뭐라고 말하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지 얼굴을 찡그렸다.
《한가지 또 말하고싶은건 그 방송은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뭐요?》
로성익은 물론이고 온 련대가 깜짝 놀랐다.
표무강은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일남동문 <국군>살이를 할 때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중대장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때 앞이가 부러졌는데 그때문에 <ㅅ>자발음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함성이 터져오를것 같았지만 전사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수천의 눈동자들에는 뜨거운 빛이 번뜩이고있었다.
도대체 우리들중 누가 홍일남의 발음을 생각이나 하였던가. 없다. 오직 련대장동지만이, 전사를 자신처럼 믿는 그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과 함께 싸우고있는가.
전사들의 가슴속에 차고넘친 그 감정의 파도는 멍하니 서있는 홍일남한테 넘실넘실 밀려갔다.
사품치며 밀려오는 인정의 파도에 휘감긴 홍일남은 그만에야 풀썩 주저앉더니 으흑—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표무강은 어깨를 세차게 떨고있는 홍일남을 버쩍 일으켰다.
《일남이!》
《련대장동지!》
순식간에 두사람은 한덩어리가 되여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전사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이 친구야, 끝내 돌아왔구나!》
《일남이, 우릴 용서하라구.》
홍일남은 목이 꽉 메여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련대를…》
눈물을 좔좔 쏟고있던 그는 그리운 전우들의 품으로 날아들었다.
《일남이!》
온 련대가 배신자로 락인찍었던 홍일남을, 끝끝내 전우들의 믿음을 되찾은 그를 둘러싸고 들썩거렸다.
련대장의 씩씩한 구령이 수림속을 뒤흔들었다.
《련대 행군 계속, 앞으로!》
그 모습을 응시하는 로성익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뒤집어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그였다.
처음 홍일남이 련대에 나타났을 때 뇌리에 번개처럼 떠오른것은 혹시 그가 적들을 달고 온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였다.
즉시 련대후위로 전사를 띄웠는데 다행히 적정은 없었다.
안도의 숨은 나갔지만 리해되지 않았다.
그가 어째서 련대를 찾아왔는가? 늦게나마 자기의 배신행위를 후회했을가? 가만, 혹시 홍일남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적들이 일부러

꼬리를 물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을가? 어쨌든 용서해서는 안된다. 《제2의 월로자》를 총살해서 신념이 떨떨한 전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일은 자기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번져갔다.

표무강은 남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ㅅ》자발음으로 홍일남을 보증하였던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선사령부 대표인 자기에 대한 도전이고 무시였다.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제한 로성익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말이 울리고있었다.

《어디 두고보기요.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것이요.》

랭담한 얼굴을 쳐든 로성익은 신경질적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

한편 허정효는 방송원계집이 부어준 술을 기분좋게 마시고있었다.

얼마든지 생포할수 있었지만 우정 살려보낸 홍일남이 제편의 손에 총살당하면 굶주림과 추위에 사기가 저락된 《공산군》들속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날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중지란의 도화선에 불이 당긴것이나 다름없다. 아마 래일쯤이면 슬금슬금 산을 내리는자들이 속출할것이다. 기다리라. 표무강, 당신이 내앞에 무릎을 꿇을 날도 멀지 않았다!

통쾌한 나머지 술잔을 쭉 기울인 허정효는 야멸차게 웃었다.

10

숲속에 전개한 야전천막에서 표무강의 기운찬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현재 녕월군소재지에는 적수도사단후방부가 자리잡고있습니다. 력량은 특설부대 100여명, 경찰 30여명으로서 휘발유창고, 식량창고, 피복창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쌀과 군복을 실은 50여대의 자동차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우리가 군소재지를 타고앉는다면 적수도사단에 대한 후방공급을 두절시키고 련대의 식량과 피복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그는 습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군용지도에 표기된 녕월군지역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있던 로성익은 련대참모장쪽으로 몸을 돌렸다.

《참모장동무 생각은 어떻소?》

참모장은 습관적으로 근시안경테를 매만지였다.

《전 다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흠, 하긴 잔등에 진 배낭은 보이지 않는 법이지.

붉은군대시절 이런 전투를 한두번만 지휘하지 않은 로성익은 첫눈에 벌써 전투계획의 결점을 알아차렸다. 하여 선배연한 표정을 지은채 표무강을 넌지시 건네다보았다.

《련대장동무, 그만하면 전투계획은 괜찮게 세워졌소. 그러나 적들의 력량이 얼마 안된다고 쉽게 타고앉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주변에 있는 적들이 기동이 좋은 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달려들거란 말이요. 적들의 포위에 들지 않자면 불의에 기습하고 신속히 빠져야 하오. 그런데 동무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쳤거던.》

《?》

《로획물자운반시간은 얼마로 잡았소?》

《한시간 반입니다.》

《한시간 반?… 흠, 여기서 군소재지까지 20리이니 물동량을 가지고 철수하자면 아마 그렇게 걸릴거요. 문제는 그 시간이면 적들이 아군을 포위하고도 남는다는거요.》

확실히 그것은 련대참모부가 놓친 구석이였다. 물론 로획물자운반에 한개 중대의 인원을 할당하였지만 그것으로 철수시간을 단축할수 없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럼 한개 중대를 더 붙이겠습니다.》

로성익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것은 없다는듯 도리머리를 저었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그렇지만…》
《동문 뭘 말하자는거요. 승산없는 전투에 전사들을 내몰자는 거요?》
《…》
로성익은 이번에는 고개를 기웃하고있는 김흥선에게 말을 던졌다.
《문화부련대장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한결 가라앉은 그 어조에는 동무야 련대장처럼 분별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가 배여있었다.
김흥선은 침착한 말투로 서두를 뗐다.
《아닌게 아니라 잘 타산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힐끔 그를 쳐다본 표무강은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문화부련대장이라는 사람이 련대장을 도와줄 생각은 않고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한다는 불만이였다.
《그렇지만 전 습격안을 지지합니다.》
표무강은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고 귀를 의심하였다.
이자 뭐라고 했는가? 습격안을 지지한다구?
표무강도 놀랐지만 더욱 놀란 사람은 로성익이였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김흥선을 찬찬히 바라보던 그는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좋소. 어디 들어보기요.》
김흥선의 고개가 바로섰다.
《사방 적들이 널려있는것만큼 로획물자운반이 늦어지면 포위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겁니다. 그렇다고 전투를 포기해야 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들은 인민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망했다고 악선전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주동적으로 적들의 후방을 타고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인민들에게 공화국은 망하지 않았다는 신심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의거장병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더 클겁니다.》
평시에 조용하던 그였지만 일단 흥분하자 불을 지핀 난로처럼 화끈 달아올랐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북으로 가고있습니까? 우리 의거장병들을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잊을수 없기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가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투승리의 담보입니다. 한가지 더 말한다면 난 습격전투의 목적을 단순히 식량과 피복해결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태양의 품에 안길 우리들의 신념을 세상에 알리는데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표무강의 가슴에 자책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음, 난 이번 전투를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때 로성익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투의 승리는 정확한 전투계획수립과 전사들의 귀중한 생명으로 담보되는거요. 그래, 동무들한테 로획물자운반시간을 단축할 방도가 있소?》
정통을 찌르는 그의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전투를 벌렸다가 적들의 포위에 들고 전사들이 희생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소?》
납덩이같은 침묵이 흐르던 끝에 표무강이 발동이 걸린 땅크마냥 앞으로 성큼 나섰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듯 로성익은 다시금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 모습에는 모든 문제를 랭철하게 대하지 못하는 부하에 대한 질책이 강하게 풍기고있었다.
예견치 못하였던 화살은 측면에서 날아왔다.
김흥선이 불쑥 나서며 《저도 련대장동무와 같이 책임지겠습

니다.》 하고 대답하였던것이다.
로성익은 뒤통수를 얻어맞은것 같은 기분이였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더니.
문득 씨름경기를 조직하였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에도 김흥선은 표무강의 편을 들었었다. 그때에도 찜찜한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확실히 그를 잘못 보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림없다.
《난 승낙할수 없소. 이만하기요.》
그가 나가버리자 천막안에 싸늘한 고요가 깃들었다.
아직도 흔들거리는 천막자락은 전선사령부 대표의 근엄한 존재를 강조하고있었다.
군관들은 추위를 타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는데 천막안에 드리운 찬 공기를 후덥게 덥혀주며 김흥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련대장동무, 방도를 찾아봅시다!》
표무강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가. 그가 아니였다면 난 주저앉을번 했다. 그런데도 문화부련대장복이 없다고 불평을 부렸으니.
가슴에 불이 달린 표무강은 미더운 전우의 손을 꽉 움켜잡았다.
《문화부련대장동무!》
무쇠난로처럼 뜨거운 김흥선의 두손도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련대장동무!》
얼마후 전투계획토의에 구분대장들을 인입하자는 김흥선의 제기에 따라 군관들이 모여들었다.
이런저런 방안이 제출되였지만 신통하지 못하였다.
한시간이 지나자 표무강은 초조해났다.
오늘 밤 전투를 진행하자면 지금부터 습격조원들을 준비시켜야 하겠는데 아직도 전투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니 야단이다. 정말 방도가 없단 말인가?
별안간 운수중대장이 무릎을 철썩 갈기며 소리질렀다.

《찾았다!》
골머리를 쥐여짜고있던 군관들이 여, 도대체 뭐야? 하고 그를 둘러쌌다.
《련대장동지, 적들한테 자동차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우리 중대에서 유능한 운전수를 열댓명정도 뽑아 습격조에 포함시키고 전투가 끝나면 차에 습격조원들까지 태우고 철수하자는겁니다. 그럼 시간을 훨씬 앞당길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무강은 눈앞이 확 트이였다.
이거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 털어 불때는 격이다.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가? 자동차들을 파괴할 생각만 하였지 이곳까지 끌고 올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다.
주먹으로 운수중대장의 가슴을 툭 친 표무강은 크게 소리쳤다.
《좋소!》
다들 가슴이 후련해하는데 련대참모장이 불안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저, 전선사령부 대표동지가 승낙하겠습니까?》
활기에 넘쳐있던 천막안의 공기가 다시금 얼어붙었다.
이번에도 그 공기는 김흥선의 침착한 목소리에 녹아버렸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진 내가 만나겠소.》
자정무렵, 습격조는 녕월군소재지앞을 흐르는 강뚝뒤에 전개하였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리경일은 옆에 엎드린 정찰병을 향해 독특한 손짓을 해보였다.
첫번째와 다섯번째손가락을 편 오른주먹을 옆구리에 붙이고 손가락들을 모아편 왼손을 오른쪽목옆에 대였다가 왼쪽으로 비껴내리는 그 동작은 적보초를 없애치우라는 신호다.
고개를 끄덕인 정찰병은 소리없이 강물속으로 스며들었다.
주위는 먹물을 뿌린것처럼 캄캄하였다.
뚜벅, 뚜벅…

다리우에서 비쳐오는 전지불빛이 언뜻언뜻 어둠의 자락을 들추었다.
적보초는 이상없다고 여겼는지 뒤로 돌아섰다.
찰나 부엉이마냥 날아든 정찰병이 보초를 제껴버렸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습격조원들은 질풍같이 다리우를 뛰여넘었다.
얼마쯤 달리는데 앞에서 술취한 두 경찰이 비칠비칠 걸어왔다.
《이자 보니 특설부대는 저희들끼리 처먹고있더군.》
《흥, 그 자식들이 언제 우리 경찰을 사람취급한적 있나?》
가까운 곳에 엎드려있던 리경일이 번개처럼 뛰쳐일어나며 단번에 두놈을 제압하였다.
놈들을 심문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몰래 은페되여있던 한개 중대력량의 적들이 증강된것이다.
새로운 정황과 맞다들자 리경일은 처음 계획을 변경시켜 습격조를 세개 조로 갈랐다.
첫번째 조는 특설부대병영, 두번째 조는 증강된 적중대병영, 세번째 조는 자동차집결소를 맡고 두개 조의 습격은 첫번째 조의 습격개시를 신호로 진행할것을 명령하였다.
끝으로 각 조장들에게 집결장소를 알려준 그는 첫번째 조를 이끌고 특설부대병영으로 향하였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잡은 특설부대병영은 불빛이 환하였다.
눈깜빡할 사이에 적보초를 해치운 습격조는 덩지큰 건물안으로 뛰여들었다.
《손들엇!》
진탕치듯 처먹고있던 적들은 불의에 나타난 인민군대를 멍하니 보기만 하였다. 전멸되였다고 여겼던 《공산군》이 자기들의 후방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모두 무기를 던져!》
그러자 적들은 미친듯이 헤덤벼쳤다.
창문으로 뛰여내리는 놈, 식탁을 차던지는 놈, 무기고로 뛰여가는 놈…

손에 들고있던 반땅크수류탄을 내던진 리경일은 밖으로 몸을 던졌다.
꽝—
요란한 폭음과 함께 병영이 통채로 날아났다.
이어 기관단총들이 울부짖으며 요행 살아남은 적들을 쓸어눕혔다.
한편 두번째 습격조는 처음부터 완강한 저항에 부딪쳤다.
바리케드뒤에 은페한 적들이 기관총을 맹렬히 쏘아대며 발악하였던것이다.
특설부대를 소멸해버린 첫번째 습격조가 전투장에 도착하였을 때 아군은 적들의 사격때문에 전진을 못하고있었다.
뚜룩, 뚜루룩—
어찌나 악착스럽게 쏘아대는지 도무지 머리를 들수 없었다.
3분… 5분…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여기서 지체하면 습격전투가 길어지고 증강해오는 적들한테 포위될수 있었다.
리경일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어둠을 빗질하던 탐조등빛이 그를 포착하자 적기관총은 사납게 울부짖었다.
리경일은 전우들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로련한 정찰병답게 좌우로 딩굴기도 하고 포복전진을 하며 접근하다가 공중으로 몸을 솟구치며 수류탄을 힘껏 던졌다.
불벼락을 들쓴 적기관총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앞으롯!》
습격조원들은 달아나는 적들을 좇아가며 무자비하게 쓸어눕혔다.
세번째 습격조는 자동차집결소를 기습하였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쪼이고있던 적보초들은 번개같은 타격에 엠완총을 벗길새도 없이 너부러졌다.

뒤미처 달려온 다른 습격조원들이 식량과 피복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에 올라탔다.

《인민군대다!》

전투가 끝나자 집에 숨어있던 마을사람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리경일은 로획물자를 가득 실은 자동차적재함우에 뛰여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린 인민군대입니다!》

마을사람들은 기뻐서 환성을 올렸다.

《어이구, 인민군대가 옳긴 옳구만.》

《그런데두 놈들은 인민군대가 다 없어졌다고 하질 않았수.》

힘찬 목소리가 그들의 머리우를 날아지나갔다.

《놈들의 선전을 믿지 마십시오. 우린 이렇게 살아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놈들을 족치고있습니다. 여러분, 인민군대는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마을사람들은 주먹을 불끈불끈 틀어쥐였다.

《이젠 그놈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겠수다.》

《암, 그래야지요.》

얼마후 십여대의 자동차들은 달리기 시작하였다.

동녘하늘이 훤히 밝아오는무렵, 표무강은 련대앞에서 전과를 통보하였다.

적병 200여명 살상, 자동차 30여대 파괴 및 소각, 다량의 식량과 피복, 약품 로획…

전사들은 와!ㅡ 하고 환성을 터쳤다.

그중에서 제일 기뻐한것은 씨름군 조금철이였다.

그는 훌쭉한 배를 슬슬 만지며 옆에 서있는 대대취사원을 들볶았다.

《헤쳣구령이 나면 제꺽 밥부터 지으라구.》

《그야 물론이지. 헌데 몇통 제낄수 있나?》

《여, 동문 날 식충이로 아는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련대가 남진할 때 있은 일이다.

하루는 대대취사원이 힘장사로 알려진 조금철에게 국수를 몇그릇 먹을수 있는가고 물었다.

조금철이 글쎄 먹어봐야지 하고 대답하자 취사원은 군용밥통 세개에 국수를 듬뿍 담아서 내주었다.

조금철은 순식간에 군용밥통들을 비워버렸다.

다음은 네개의 군용밥통이 또 나타났다.

힘들어하면서도 그는 군용밥통들을 다 요정냈다. 마감에는 진짜 국수군이라면 국수물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국수물까지 마셔버렸다. …

그런 일화를 남긴 조금철이 공지에 그득하게 쌓인 쌀포대를 보며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고있는것이다.

《다음은…》

련대장의 말소리가 들려오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이번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군인들을 표창하겠습니다. 정찰소대장 리경일동무 나오시오!》

군복웃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는 번쩍거리는 군공메달을 꺼냈다.

《동무들, 이 군공메달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의거장병들에게 수여해주신겁니다. 나는 전투공로에 대한 표창으로 리경일동무에게 군공메달을 삼일동안 달고있게 하려고 합니다.》

수천쌍의 눈길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경일은 련대장앞으로 다가섰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앞가슴에 군공메달을 빛내이며 의젓하게 서있는 그를 바라보는 전사들의 두눈에 부러움이 가득 어려있었다.

제 4 장

1

웬 일인지 적들은 한낮이 지나도록 잠잠하였다.

아름드리나무들을 뿌리채 뽑아던지던 포탄도 날아들지 않았고 모닥불을 피우기만 하면 반찬냄새맡은 도적고양이마냥 씽 날아들어 기총탄을 퍼붓던 얄미운 적기도 뜨지 않았다.

요란한 폭음과 지독한 화약가스에 움츠러들었던 뭇새들만이 오랜만에 찾아든 안식을 즐기며 흥겹게 지저귀고있었다.

거듭되는 전투와 행군에 습관된 전사들은 오히려 그 정적을 두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적들이 왜 얌전해졌을가?》

《그야 뻔하지. 물러나는척 하다가 다시 달려들자는거야.》

그때 불을 피우고 점심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녕월군습격전투후 배낭에 쌀을 그득그득 채운 전사들은 성수가 나서 식사차비에 달라붙었다. 한쪽에서는 삭정이를 모은다, 쌀을 꺼낸다 하고 부산을 피우는데 다른쪽에서는 벌써 모닥불을 피우고 군용밥통들을 데룽데룽 걸고있었다.

온 련대가 떠들썩하고있을 때 표무강은 머리를 파고드는 의혹과 씨름하고있었다.

엊저녁부터 적들은 일체 전투행동을 중지하였고 귀가 아프도록 불어대던 방송도 입을 다물었다. 련대정찰은 적들이 아군에 대한 포위를 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군은 아무런 장애없이 북상할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예상치 않게 닥쳐온 정적이 마음에 걸린다. 지금까지 적

들은 아군을 막아보려고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도 악착스레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잠잠해졌으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최덕근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는게 아닐가?

의혹의 덩어리를 이리저리 굴리고있는데 서너발자국앞에 서있는 굵은 잣나무뒤에서 가죽장화가 불쑥 나타났다.

련대에 그런 장화를 신은 군관은 전선사령부 대표뿐이다.

녕월군전투를 둘러싸고 의견마찰이 있은 후 단 둘이 만나기는 처음이였다.

그동안 두사람은 될수록 마주서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사들앞에서 자기들의 의견상이를 로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자각때문이였다. 그랬었는데 로성익쪽에서 찾아온것을 보면 중요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잣나무를 에돌아온 로성익은 차렷자세를 취하는 표무강을 만류하고 이렇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있소?》

《그저 좀…》

《혹시 적들이 왜 물러났겠는가 하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옳습니다.》

《뭘 짚이는게 있소?》

《아직은… 정찰이 돌아와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동감이라는듯 고개를 주억거린 로성익은 자기가 에돌아온 잣나무쪽에 눈길을 던졌다.

표무강도 그를 따라 잣나무를 쳐다보았다.

나무우에는 깜찍하게 생긴 청서가 재롱을 부리며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그놈은 탐스러운 꼬리를 요리조리 휘저으며 이 가지에서 저 가지에로 날렵하게 움직이였는데 그만 아뿔싸! 잣송이를 떨구고 말았다.

또르르 굴러가던 잣송이는 공교롭게도 로성익의 발치에서 멎었다.

우연히 차례진 수확물을 흥미있게 내려다보던 그는 잣나무와 청서를 번갈아 보았다.

함치르르한 꽁지를 곧추세운 청서는 자기가 실수하여 떨군 먹이감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듯 불룩한 입을 오물오물하였다.

로성익이 허리를 굽히고 잣송이를 집어들자 청서는 새된 소리를 지르며 자비심을 호소하였다.

그는 상체를 뒤로 제꼈다가 탄력있게 팔을 앞으로 휘둘렀다.

잣송이가 멀리 날아가자 청서는 무정한 인간에게 항의하듯 새되게 울부짖더니 다른 나무로 넘어갔다.

《잣송이를 그냥 두면 청서란 놈은 나무에서 내려오게 되오. 그건 곧 위험을 의미하지. 청서를 노리고있던 여우나 매가 달려들수 있거던. 그러니 잣송이를 없애면 청서는 땅에 내려올 일이 없으니 안전해진단 말이요.》

별치않은 산열매에 그렇듯 심각한 운명이 걸려있을줄은 생각지 못하였던 표무강은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손수건으로 손을 깨끗이 닦은 로성익은 정색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토의할 문제가 있소.》

《말씀하십시오.》

심중한 눈으로 표무강을 응시하던 그는 힘주어 말하였다.

《난 적들이 련대를 포기한 기회에 강행군을 들이대자는거요.》

표무강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있었지만 께름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문득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자 나무들사이로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오고있는것이 보였다.

두 지휘관앞으로 뛰여온 리경일은 로성익의 승인을 받은 다음 표무강한테로 돌아섰다.

《련대장동지, 보고할만 합니까?… 현재 적들은 북상하고있습니다.》

《북상한다구?》

《예, 큼직한 <혀>를 심문했는데 최덕근이가 중요한 작전에 참가한다고 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장한듯 침을 꿀꺽 넘긴 리경일은 ××역에 도착한 최덕근사단이 군용렬차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표무강은 속이 후련해났다.

검질기게 따라다니던 최덕근이가 떨어져나갔으니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던 그는 찬바람을 맞은것처럼 몸을 떨었다.

가만, 우리가 자기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전선을 그냥 넘어간다면… 그렇게 되면 최덕근사단은 적집단에 합류될것이고 그만큼 전선의 형편은 어려워질것이다. 아니, 절대로 최덕근을 놔줄수 없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안도의 기색을 짓고있던 로성익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다.

《전 적들의 집결처를 들이쳤으면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최덕근을 그냥 놔주지 않겠습니다.》

로성익은 마치 분별없이 헤덤비는 소년을 달래듯 진중한 어조로 일렀다.

《이건 즉흥적으로 결심할 문제가 아니요. 자칫하면 련대가 전멸될수 있단 말이요.》

문득 표무강의 머리속에 그가 《은혜》를 베풀어준 청서생각이 났다.

그때는 그저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인줄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 전선사령부 대표는 벌써 이와 같은 경우를 타산하고있은것이다.

페부가 불어나도록 숨을 크게 들이쉰 그는 불을 토하듯 말하였다.

《설사 련대가 전멸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로성익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련대장동무, 그쯤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무슨 고집이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로성익의 목소리가 대뜸 높아졌다.
《바로 그게 고집이란 말이요. 그래, 동문 련대의 운명을 저 혼자 책임졌다고 생각하오? 보자보자하니까 점점 안하무인격이거던.》
잠간 동안을 두었던 그는 상급답게 훈시하였다.
《명백히 말하지만 동무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전선을 무사히 넘어가는거란 말이요.》
《…》
《내 말이 접수되지 않소?》
표무강은 정말이지 그의 말을 접수할수 없었다.
무엇때문에 전선사령부 대표는 말끝마다 전선을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만 외우는가? 물론 련대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는 그 마음은 리해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째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뒤에 남겨두고 북으로 가고있는가?
군관혁띠를 꽉 조여맨 그는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난 무조건 적들을 쳐야겠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건가?》
《…》
그를 노려보던 로성익은 도끼로 찍듯 내뱉았다.
《정 그렇게 나오면 난 동무를 군사재판에 넘기겠소!》
군사재판이라는 말이 나오자 표무강은 속이 뒤집어졌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구 군사재판에 넘긴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다. 그렇다고 결심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총탄은 이미 발사되였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 군사재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로성익의 얼굴은 피기를 잃은것처럼 창백해졌다.
《다 말했소?》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언제 왔는지 련대참모장이 로성익을 만류하였다.
《전선사령부 대표동지, 왜 이러십니까?》
《…》
《전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제야 리성을 회복한 로성익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상급다운 자세는 잃지 않고있었다.
《다시말하지만 난 승인할수 없소.》
결패있게 내뱉은 그는 홱 돌아서더니 잣나무뒤로 걸어갔다.
안경테를 매만지고있던 련대참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련대장동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문 뭘 말하자는거요?》
《전선사령부 대표동지의 지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표무강은 단호하게 명령하였다.
《지도를 꺼내놓소!》
참모장이 주저주저하며 군용지도를 꺼내놓자 그는 현재 아군의 위치와 ××역과의 거리를 가늠해보았다.
100여리!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이다. 전사들이 꽤 견디여낼가?
《련대장동무!》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한쪽어깨를 부자연스럽게 떨군 문화부련대장 김흥선이 서있었다.
《무슨 일이요?》
수더분한 표정을 지은 그한테서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군무자총회를 열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북상하는 적들을 족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게 어떻습니까?》
표무강은 막혔던 숨길이 확 열리는것 같았다.
군무자총회를 열잔 말이지. 이 친구가 또 지원포를 쏴주는구나!
불현듯 전사들이 즐겁게 외우군 하는 《구두식사》가 생각났다.
그날 련대가 행군준비를 갖추고있을 때 그는 련대부취사원을 찾았다.

《취사원동무, 수고했소.》

가마뚜껑이나 운전하고있으니 남들처럼 평가를 받기는 코집이 글렀다고 소침해있던 취사원은 생각지 않게 련대장의 칭찬을 받자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구두식사>는 어떻게 생각해냈소?》

《예, 그건…》

우물쭈물하던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실은 문화부련대장동지가…》

그의 입에서 문화부련대장소리가 나오자 표무강은 뗑해졌다.

그 사람이 《구두식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취사원은 맛좋은 료리를 하듯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하였다.

《…동무들이 힘들어하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사일은 자신있는데 그런 일만은 절대로 못한다고 했더니 문화부련대장동진 어색해할게 없다, 그저 전사들을 우리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면서 제 등을 떠밀어주었습니다.》

《음, 그랬단 말이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김흥선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전선사령부 대표가 씨름경기를 승낙하지 않았을 때에도 자기를 지지해주었고 녕월군습격전투도 같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었다. 오늘은 또 자기의 속마음을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좋은 방도를 내놓은것이다.

여태 김흥선을 고깝게 생각해오던 자신이 부끄러워났다.

흥선이, 고맙네!

옆에서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련대장동지, 련대군의소 간호원 하사 신주옥 만날만 합니까?》

그들앞에 나타난 처녀는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들어박힌 처녀간호원이였다.

《말하오.》

간호원처녀가 뭔가 말을 꺼내려는데 웬 일인지 안절부절 못하던 김흥선이 박격포중대에 가봐야겠다고 하고는 부리나케 돌아섰다.

《아이참!》

간호원은 바삐 사라지는 그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떻게 된 일이요?》

《문화부련대장동진 어깨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뭐, 찰과상?》

표무강은 좀전에 어깨를 조심조심 놀리던 김흥선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래서였구나!

며칠전 김흥선은 느닷없이 날랜 정찰병 두명을 붙여달라고 제기하였다.

왜 그러는가고 물으니 적들을 들이치고 라지오를 구해오겠다는것이였다.

표무강은 그런거야 정찰병들한테 명령하면 어련히 구해오겠는데 문화부련대장이라는 사람이 꼭 나서야겠는가고 밀막았다.

김흥선은 자기가 문화부련대장구실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전사들은 최고사령부소식을 알고싶어하는데 어떻게 앉아있겠는가고 고집을 부렸다. 어릴적부터 김흥선은 순박하고 어진 성미였지만 일단 고집을 세우면 범같은 표무강도 어쩌지 못하였었다.

하여 그는 정찰병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고 끝내 라지오를 구해왔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온 련대가 련대지휘부로 모여들었다.

김흥선이 라지오눈금판을 돌리자 쏴— 하는 소음이 나더니 이어 《조국보위의 노래》가 울려나왔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

노래가 끝나자 《삐삐삐ㅡ》 하고 시간을 예고하는 음향이 흘러나오다가 갑자기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여기는 조선중앙방송국입니다. 일곱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이어 우뢰소리처럼 격렬한 남자방송원의 목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영용한 아군부대들은…》
보도가 끝나자 전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고웃으며 환성을 터쳤다.
그때 표무강은 벙글벙글 웃고있던 김흥선을 보았지만 부상을 당한줄은 몰랐었다. …
《문화부련대장동진 처치를 하자는데 계속 피합니다.》
《그건 어째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렴 문화부련대장이 이 처녀가 무서워 달아나겠는가?
무심결에 간호원을 바라보던 표무강은 속으로 놀랐다.
《?!》
그것은 한 찰나 그는 본래의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왔다.
《동문 간호원이 맞소?》
련대장한테 지원포사격을 기대하고있던 간호원은 두눈을 깜빡거렸다.
《간호원이라면 부상자가 어디 가든 따라가서 처치해야지.》
《알았습니다. 련대장동지!》
맵시있게 거수경례를 한 간호원처녀는 위생가방을 달랑거리며 뛰여갔다.

2

간호원 신주옥은 애꿎은 빨래감에 대고 화풀이를 하고있었다.
빨래방치를 쳐들었다가 탁탁 내려치는데 그 타격이 어찌나 맹렬한지 땀과 피가 배여 꽛꽛하던 빨래감은 금시 고분고분해졌다. 그것을 살얼음이 살짝 건너간 개울물에 잠그고 한바탕 헹구고나니 마음이 한결 풀어졌다.
아이참, 사람도 이렇게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을가?
…그날 박격포중대에 내려간다고 사라진 김흥선을 쫓아간 처녀는 헛물을 켜고말았다. 문화부련대장은 애당초 그곳에 오지 않았던것이다.
그때에야 그가 자기를 따돌렸다는것을 깨달은 신주옥은 분해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맥없이 돌아서는데 익살군인 3포장이 시물시물 웃으며 말을 걸었다.
《듣자니 간호원동무가 문화부련대장동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데 사실이요?》
《네?》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던 처녀는 그만 약이 올랐다.
《왜 얼굴이 빨개지는거요? 온 련대가 다 아는데.》
이러다가 무슨 험투를 뒤집어쓸지 모른다고 생각한 신주옥은 주위에 전사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으나 아랑곳않고 여돌차게 이야기하였다.
《3포장동진 잘못 알고계시는것 같은데 전 지금 련대장동지한테서 받은 명령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예견치 않은 반격에 3포장은 어리둥절해졌다.
《그, 그게 무슨 명령이요?》

《부상당한 문화부련대장동지가 어디 가든 따라가서 처치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디 대답해보십시오. 그래 제가 련대장동지한테서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게 잘못입니까?》

처녀의 입에서 연거퍼 《련대장동지한테서 받은 명령》이라는 말이 쏟아져나오자 3포장은 쭈그러든 탄피처럼 움츠러들었다.

속이 후련해서 돌아서는데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3포장동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저 동문 다른 간호원들보다 별스레 이악한것 같지 않습니까?》

뒤로 홱 돌아선 신주옥은 벌에 쏘인것처럼 띠끔 놀라는 하사를 쏘아보았다.

《이악한게 어쨌다는겁니까?》

《아, 난 동무가 책임성이 높다는걸 말하자고 그랬소. 흐흐흐.》

능글맞게 둘러치는 그를 향해 처녀는 쌀쌀하게 웃어보였다.

《그처럼 과분한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 그 답례로 하사동지가 저를 빗대고 감히 문화부련대장동지를 헐뜯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간호원을 얼려넘겼다고 흠흠해있던 하사는 두눈이 휘딱 뒤집어졌다.

《뭐, 뭐요?》

코를 떼운 본인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한방망이 얻어맞고 뗑해있던 3포장도 바빠맞았다.

《주옥동무, 롱으로 말한건데 뭐 그럴것까지야 있소? 자.》

차돌같은 간호원처녀가 임무수행에 훼방을 놓았다는 보고를 련대장에게 하는 날엔 큰일이라고 생각했는지 3포장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였다.

신주옥은 그의 손을 잡을 대신 위생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건 뭐요?》

《절 칭찬해준 하사동지가 전번에 파상풍주사를 한대만 맞았는데 또 놔주자고 합니다.》

3포장뒤에 서있던 하사는 덴겁해서 물러났다.

《아니, 난, 난… 싫소. 안 맞겠단 말이요.》

약도 재우지 않은 주사기를 내들자 꽁지가 빳빳해서 달아나는 하사를 보며 신주옥은 깔깔 웃었다. …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문화부련대장동진 어째서 날 죽어라고 피할가? 벌써 몇번째람?

좀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다.

피묻은 붕대가 담긴 소랭이를 가지고 내가에 나온 신주옥은 아래쪽에서 누군가 빨래하고있는것을 띄여보았다.

어느 부지런한 전사이겠지 하고 짐작하였던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닐세라 고개를 한쪽으로 기웃하고 주근주근 빨래감을 주무르고있는 사람은 문화부련대장이였다.

《!》

기회만 있으면 간호원들한테 빨래감을 맡기고 으쓱해하는 총각군관들과 달리 제손으로 빨래하는 김흥선을 보자 속옷은 물론이고 작업복까지도 꼭꼭 자기 손으로 빨아입군 하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래서인지 문화부련대장에 대한 존경심이 새록새록 움터났다.

자리에서 냉큼 일어난 처녀는 그한테로 걸어갔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던 김흥선의 두눈에 한순간 놀라움과 반가움이 물결쳤으나 그 빛은 서서히 꺼지고말았다.

《?》

그가 자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것을 느낀 신주옥은 시원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문화부련대장동지, 빨래를 인 주십시오.》

흠칫 놀란 김흥선은 황황히 거절하였다.

《괜찮소. 내가… 내가 빨겠소.》

《아이참, 전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어서 주십시오.》

얼굴이 빨개진 김흥선은 채 빨지 못한 빨래감을 집어들고 황황히 일어났다.

《아니?》

숙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는 그를 지켜보는 신주옥의 눈에 아연한 빛이 어려있었다. …

《간호원동무, 빨래가 떠내려가요!》

정신을 차린 신주옥은 회색양복을 입은 처녀가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건져내는것을 보았다. 그는 정치공작대원 한정아였다.

신주옥은 처치때문에 산모한테 자주 들리군 하였는데 얼굴이 희밝고 아련한 처녀가 하루에도 몇차례씩 때식을 끓여주고 개울가에 나가 빨래를 해오는것을 보며 속으로 겉보기와 다른 처녀로구나! 하고 감탄했었다. 그때부터 그는 한정아에게 남달리 친근한 감정을 느꼈는데 부상자들때문에 바삐 돌아치다보니 만나면 눈인사나 건네는 정도였다. 후에 한정아가 대학에 다녔다는것을 알자 자기가 그처럼 배우고싶었던 문학공부를 한 그가 몹시 부러웠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만나고보니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다.

이쪽으로 다가와 빨래감을 넘겨준 한정아가 제편에서 먼저 시내물처럼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것이였다.

《전번에 <불새>에 실린 동무의 투쟁자료를 보고 한번 꼭 만나고 싶었댔는데 마침이군요.》

신주옥은 갸름한 얼굴을 활딱 붉히였다.

《아이,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당시 련대문화부에서는 신문 《불새》를 발간하고있었는데 종이사정으로 아이들 공책 네개를 합친것만 하였지만 전사들은 앞을 다투어 읽었다.

한정아도 리경일을 통하여 《불새》를 빌려보군 하였는데 하루는 그 신문에 《간호원의 뜨거운 심장》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의와 간호원들이 전방치료를 위해 구분대들에 나간 뒤 련대군의소에 적기들이 달려들었는데 그곳에 혼자 남아있던 간호원 신주옥이 수십여명의 부상자들을 필사적으로 구원해냈다는것이였다.

《주옥동무, 난 그 신문을 보고 정말 감동되였어요. 어쩌면 동지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적으로 뛰여들었을가 하고 말예요.》

신주옥의 얼굴은 더욱더 빨개졌다.

《아이참!》

그들은 나란히 앉아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되여 앞으로 련련히 이어질 두 처녀의 관계는 개울물이 돌돌 흐르는 내가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졌다.

그 시각 련대지휘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군용지도를 펼쳐놓고 행군로정을 연구하던 표무강은 누구한테 쫓기우듯 천막에 급히 들어서는 김홍선을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평시에 그는 덤비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여느때와 달랐다. 게다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내가에 사람이 많아서… 빨래는 후에 하겠네.》

그의 손에 들려있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래감을 알아본 표무강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김홍선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웃하였다.

《거 련대군의소 간호원 신주옥동물 아나?》

《신주옥?》

《아, 어제 오락회때 춤을 멋있게 추던 처녀말일세.》

《그가 어쨌단 말인가?》

골치아픈 일이 생긴 모양 김홍선은 괴로운 기색을 지었다.

《내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군의소장한테 말해서 제발 다른 간호원한테 처치받도록 해주게.》

표무강은 모른척 하고 따져물었다.

《그건 왜?》

《글쎄, 내 말대로 해주게.》

웬간해서는 성내는 법을 모르는 그가 별스레 흥분한것을 보자 표무강은 속으로 웃었다.

이 친구가 되겐 바빴군!

3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현실앞에서 최덕근은 그만 반정신이 나가버렸다.

사방에 나딩구는 군용렬차잔해들, 엿가락처럼 꼬인 레루들, 처참하게 찢어지고 꺼멓게 탄 시체들…

작전토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니 래일 새벽 군용렬차를 리용하여 북쪽으로 기동하게 되여있던 사단의 1제대가 인민군습격에 전멸당한것이다.

기가 막혀 두눈을 부릅뜨고있는데 머리속에서 의문덩어리가 빙글빙글 돌아갔다.

아무리 야간습격이라고 해도 이런 정도의 타격력을 보유하자면 적어도 련대급이상의 무력이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다. 혹시 표무강련대가 아닐가? 아니다. 지칠대로 지친 그들이 100여리밖에 있는 이곳까지 달려올순 없다. 내가 인민군련대장이라면 그런 무모한짓은 벌려놓지 않을것이다. 젠장,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감투끈이란 말인가?

따르륵, 따르륵…

힐끔 뒤를 돌아본 최덕근은 이쪽으로 뛰여오는 인민군대를 발견하였다.

추격이다!

창황중에도 대전전투에서 행방불명이 되였다는 미24사 사단장 띤이 생각났다. 그렇게 놓고보면 히말라야산줄기처럼 높아보이던 미군장성이라는것도 별로 큰 존재가 아니다. 띤, 난 당신 신세는 되지 않겠소!

《부관!》

옆에서 우들우들 떨고있던 부관이 제꺽 다가섰다.

《날 따르라!》

호기있게 소리친 최덕근은 수치스럽기는 해도 그보다 더 큰 수치를 면하기 위하여 지금껏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하였던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한밤중이여서 어디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지 알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딩굴고 부딪치며 상처입은 메돼지처럼 곧추 내달렸다.

그바람에 사병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자아내던 살집좋은 얼굴은 나무가지에 긁히워 만신창이 되였고 주름살 한점 없이 미끈하던 《국군》장성복은 볼품없이 되여버렸다.

《서라!》

《공산군》은 기를 쓰고 쫓아왔다.

땅, 따당!

뒤쪽에 대고 남은 총탄을 날려보낸 최덕근은 빈 권총을 집어던지고 또다시 죽어라 하고 내달렸다. 그리하여 적아간에 부피두터운 올림픽력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특이한 《장애물극복경기》가 벌어졌다.

허둥지둥 뛰여가던 최덕근의 뚱뚱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앞을 가려보지 않고 달리다보니 경사급한 산비탈을 허궁 날아넘은것이다.

아차! 하는 생각이 뒤머리를 쳤지만 이미 육중한 몸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빠른 속력으로 저공비행하고있었다. 만약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저크 뉴톤이 살아있었다면 자기가 생존하던 때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오늘 조선의 이름없는 산중에서 《뉴톤의 제1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국군》장성을 보고 만족해하였을것이다.

기우뚱거리며 허공을 날아가던 최덕근은 급격히 락하하며 땅에 무릎을 세차게 쫏고는 맹렬한 속도로 굴러가다가 깊숙한 웅뎅이안에 푹 박혔다.

땅에 힘껏 쪼은 두다리가 아파서 끙끙거리고있는데 앞에서 부관이 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빨리!》

언제나 례절바르던 부관도 어지간히 바빴던지 여느때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반말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었다. 하기야 다 망한 판에 그까짓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포로만 되지 않는다면…

벌떡 일어난 최덕근은 육체의 고통에 비한 의지의 우월감을 새삼스레 느끼며 앞에서 날렵하게 내달리는 부관을 좇아 허겁지겁 달려갔다.

씨근덕거리며 령마루에 올라서자 머리우에서 우르릉, 우르릉— 발동기소리가 들려왔다. 좀전에 부관이 무선대화기를 붙들고 미군을 호출하더니 구원의 손길이 뻗쳐온 모양이다.

《각하, 미군… 미군직승기입니다!》

울음에 가까운 부관의 환성이 터지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래도 미국사람들이 날 잊지 않았구나!

부관이 쏘아대는 신호탄을 발견한 직승기는 서둘러 공지에 내려앉았다.

천방지축 뛰여간 최덕근은 비둔한 몸집을 기체안으로 마구 쓸어넣었다.

뻘건 불줄기를 그리며 날아든 총탄들이 기체를 맵짜게 때렸다.

총탄에 맞을가봐 몸을 감추고 기체밖을 내다보니 꼬리를 바싹 물고 따라온 《공산군》이 보였다.

다급한 나머지 최덕근은 고래고래 소리쳤다.

《빨리, 빨리!》

직승기는 거대한 몸을 떨며 공중으로 둥둥 떠올랐다.

성이 독같이 오른 《공산군》은 냅다 사격하였다.

챙, 채쟁—

기체에 맞고 튀여난 총탄이 몸뚱이에 박히기라도 하듯 최덕근은 몸을 흠칫흠칫 떨었는데 그것을 보면 죽음앞에서는 영웅이 따로 없는 모양이다.

얼마후 신경을 자극하던 챙챙소리가 멎어버렸다.

후—

안도의 숨을 내뿜는데 부관이 어디서 났는지 납작한 술병을 건네주었다.

술병을 입에 기울이자 독특한 맛을 가진 위스키가 위속으로 흘러들었다. 도수높은 증류술이 연방 들어가자 서서히 퍼져오르는 취기와 더불어 불안감은 사라지고 감감 잊었던 배짱까지 되살아났다.

《부관, 대체 우리가 얼마쯤 뛰였는가?》

《아마 십리는 될겁니다.》

《뭐, 십리?》

그 먼길을, 그것도 야밤에 평지도 아니고 높고 험한 산길을 죽기내기로 달렸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한테도 륙상선수의 소질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서글퍼졌다. 더욱 기분나쁜것은 비대해진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군》의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허둥지둥 내뛰였다는 사실이였다. 아마 종군기자들이 그 광경을 촬영했더라면 후날 큰 웃음거리가 되였겠다고 생각하니 속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젠장!

눈치가 멀쩡한 부관이 기창밖을 내다보는척 하고있는 틈에 최덕근은 구겨진 장성복을 바로잡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가련한 도망병으로부터 수만명의 부하를 거느린 당당한 《국군》장성으로 되돌아온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부관, 날 추격하던 공산군이 누구야?》

《표무강련대같습니다.》

《뭐, 표무강?》

정말 그가 밤사이에 100여리를 달려와 사단을 들이쳤단 말인가. 하긴 이 근방에 《공산군》이라면 표무강련대밖에 없다.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천번중 한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어째서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었는가?

피뜩 례사롭지 않았던 륙사시절의 상봉이 생각났다.

그날 륙사선배와 후배는 애국의 길을 함께 걷자고 굳게 약속하였

었다.
그러나 두사람의 운명은 서로 다르게 흘러왔다.
표무강은 공화국의 신임으로 인민군련대장이 되였지만 자기는 미국이 쥐여준 총을 잡고 반공에 매진하고있었다. 그런즉 그 약속은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품게 되는 랑만적인 꿈으로 흘러가버린 것이다.
그때 그가 자신의 행동이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반역의 길이며 그로 하여 수십년이라는 긴 세월을 에돌아 공화국에 영주하는 날이 있으리라는것을 알았더라면 그처럼 기를 쓰고 친미의 진창속을 헤매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먼 후날의 일이고 미군직승기를 타고 날아가는 지금 그는 륙사선배를 증오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흠, 어제는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넘어가더니 오늘은 악질빨갱이가 되였구나. 두고보자. 내 이제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를 알게 해줄테다!》

4

수림속을 헤치던 대오가 멈춰섰다.
업고있던 중상자를 땅에 내려놓은 표무강은 급히 그를 잡아흔들었다.
《일남이!… 일남이!…》
두눈을 감고 축 늘어진 홍일남은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
시시각각 생명이 꺼져가는 전사를 안타깝게 내려다보던 표무강은 자기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두고 가슴저리게 후회하였다.
에익, 그때 돌려보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전사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진행된 군무자총회가 끝나자 련대지휘부는 대대력량가량의 습격대를 조직하였다.

누구라고 할것없이 모두 탄원하였으나 100여리밖에 있는 적들을 들이쳐야 하는 힘겨운 전투인것만큼 당연히 건장하고 걸음빠른 전사들이 선발되였다.
습격대편성이 끝나고 모의훈련에 들어갔을 때 홍일남이 불쑥 나타났다.
《무슨 일이요?》
《련대장동지, 절 습격대에 받아주십시오.》
표무강은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안돼.》
《련대장동지, 제발 받아주십…》
《빨리!… 더 빨리!》
저쯤에서 굼뜨게 내달리는 전사를 향해 소리친 표무강은 홍일남이 또 뭐라고 하자 증을 냈다.
《무슨 말이 많아?》
그가 그쯤 나오면 비위좋기로 소문난 씨름군 조금철도 비실비실 물러나는 판이다.
아무리 뻗치고 서있어도 곁눈질 한번 하지 않는 련대장을 보자 홍일남은 실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련대장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
거의 빈사상태에 빠져 련대를 찾아온 홍일남은 련대장의 《특별명령》으로 련대군의소에서 보양을 받고있었다. 그런데 아직 몸도 추서지 못한 그가 습격대에 받아달라고 하니 그 마음은 대견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아끼고싶었던것이다.
《련대장동지, 돌아가겠습니다.》
홍일남은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섰으나 그의 얼굴에는 알릴듯말듯한 웃음발이 스쳐지나갔다.
저녁무렵, 습격대가 출발하자 홍일남은 살금살금 뒤를 따랐다.
얼마 못 갔는데 앞쪽에서 《섯, 누구얏?》 하는 웨침소리가 터졌다.

아차, 걸렸구나!

속이 한줌만해서 서있는데 경계근무병이 점점 다가오더니 귀익은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이거 일남동무 아니야?》

죽을수가 생기면 살수도 생긴다더니 경계근무병은 자기와 함께 《국군》에서 의거해온 친구였다.

막혔던 숨이 나가는데 친구가 이상한 기미를 차렸는지 따져물었다.

《어디 가는 길이야?》

《난 지금… 특별임무수행중이야.》

혀가 돌아가는대로 내뱉고보니 그럴듯하였다.

《특별임무?… 그게 뭔데?》

그건 알아서 뭘 하겠는가고 책망하듯 홍일남은 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극비야!》

《극비》라고 을러멨지만 친구는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태도였다.

안되겠다 하고 생각한 홍일남은 어성을 높였다.

《여, 동무도 군인선서를 했지?》

아닌밤중에 홍두깨같은 군인선서소리가 나오자 친구는 얼떨떨해졌다.

《군, 군인선서?… 동, 동무랑 같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는 소리야. 그래, 군인선서를 한 인민군대가 군사비밀을 로출시킬수 있는가?》

그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고서야 누가 감히 거짓말이라고 의심할수 있으랴.

한풀 죽은 친구는 손에 들고있던 총을 어깨에 걸쳤다.

《통과하게.》

《수고하라구.》

고마운 친구에게 손을 흔들어보인 홍일남은 땀이 내돋은 목덜미를 훔칠 사이도 없이 두주먹을 부르쥐고 내달렸다.

건강치 못한 몸으로 그 먼길을 축낸다는것이 헐치 않았으나 죽기내기로 달리고 달렸다.

그가 련대장앞에 나타난것은 습격대가 어느 한 산릉선을 톺아오르고있을 때였다.

습격대를 돌아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알아본 표무강은 버럭 소리쳤다.

《이건 뭐야?》

《…》

《당장 돌아가. 당장!》

성난 범같은 련대장의 호령에 홍일남은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섰다.

그랬던 그가 또다시 나타난것은 100리를 달려간 습격대가 ××역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전개하였을 때였다.

사전에 알려준 습격조들의 타격대상들을 재확인한 표무강은 긴장한 눈길로 야광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10분 남았다. 그 다음은…

누군가 옆으로 발발 기여오더니 《련대장동지!》라고 찾았다.

그를 알아본 표무강은 두눈을 부릅떴다.

《엉, 여기까지 따라왔소?》

그는 련대장한테서 추궁을 받을가봐 겁이 난듯 고개를 떨구었으나 보총을 꽉 틀어잡은 두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표무강은 그를 돌려보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설사 돌아가라고 쫓아도 그가 응하지 않으리라는것도.

《좋소. 총화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기요.》

그 말에 벌쭉 웃고난 홍일남은 힘들게 받은 《합격증》을 떼울가봐 겁이 난듯 제꺽 그의 옆에 붙어섰다.

습격시간이 되자 표무강은 허리춤에서 신호권총을 뽑아들었다.

평!—

붉은 신호탄이 검푸른 허공으로 날아오르자 습격대는 일제히 역

구내로 돌격하였다.
어둠속으로 발열된 총탄들이 날아가고 사방에서 수류탄이 터졌다.
하늘땅을 들었다놓는 폭음이 울릴 때마다 적군용렬차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뒤늦게야 아군습격대가 자기들보다 렬세하다는것을 알아차린 적들은 반돌격으로 나왔다.
그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기관차가 칙칙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찰나 홍일남이 앞으로 몸을 날렸다.
졸지에 일어난 일이여서 그옆에 있던 표무강도 미처 어쩔수 없었다.
《일남이!… 일남이!…》
홍일남은 증기를 내뿜는 기관차를 향해 뛰여갔다.
그를 발견한 적들이 집중사격을 가해왔다.
따쿵, 따다쿵!
뚜룩, 뚜루룩!
맹호처럼 돌진하던 홍일남이 흠칫 몸을 떨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동안에 기관차는 점차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도 홍일남은 일어나지 못하였다.
표무강과 전사들이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데 그가 불사신마냥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있던 반땅크수류탄을 집어던졌다.
쾅, 꽈광!—
요란한 폭음이 터지고 기관차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여버렸다.
《돌격앞으로!》
전사들은 일제히 달려나가며 적들을 덮쳤다.
철수신호를 알리는 신호탄을 쏜 표무강은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진 홍일남을 둘쳐업고 귀로에 올랐다. …

《일남이, 눈을 뜨라. 뜨란 말이다!》
그 절절한 마음이 전달된듯 홍일남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렸다.
가까스로 눈을 뜬 그는 련대장을 알아보자 웃음을 지으려고 하였다.
《응, 나야. 련대장이야!》
표무강은 전사의 얼굴을 부여잡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채 피여나지 못한 미소는 여윈 두볼을 타고 미끄러져내리다가 꺼멓게 죽어버린 입술가에서 굳어져버렸다.
두눈만은 무엇인가 말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어서 말해. 응, 일남이!》
하고싶은 말을 쏟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가늘게 떨고있던 눈동자는 서서히 빛을 잃고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깨달은 표무강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일남이, 죽으면 안돼. 안된단 말이야!》
표무강은 점점 식어가는 그의 얼굴이며 가슴을 마구 비비고 쓸어만졌다.
했으나 전사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있었다.
피가 타고 살이 떨어져나가는 절통한 이 순간!
표무강의 두볼로 대줄기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일남아, 네가 죽다니. 너때문에 속을 태운 이 련대장을 남겨두고 어떻게 갈수 있는가 말이다. 아, 전쟁이 승리하는 날 너를 앞세우고 너의 어머니를 찾아뵈우려고 했는데 먼저 가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그의 두볼을 타고 떨어진 눈물이 대리석처럼 차거운 전사의 얼굴우에 뚝뚝 떨어졌다.
홍일남은 이렇게 갔다.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 고마운 전우들에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채 영영 돌아올수 없는 길을 떠나갔다. 하

지만 그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는 남쪽하늘가로 향한 맑고 깨끗한 두눈에 실려있었다.

《어머니, 이 아들은 어머니앞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온 련대가 사랑하는 전우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잃을번 하였던 전우들의 믿음을, 조국의 믿음을 목숨으로 되찾은 그여서 더욱 가슴이 아픈것이다.

슬픔에 잠긴 전사들의 머리우에 표무강의 비장한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홍일남동무는 한 어머니만이 아니라 조국앞에 효도를 한 참된 아들이였습니다. 그는… 그는 비록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영원히 련대와 함께 있을것입니다. 눈물을 거둡시다. 그리고 일남동무가 마지막순간까지 그토록 가고싶어한 장군님의 품으로 그의 넋까지 안고 갑시다!》

《알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수백의 목소리가 수림속을 뒤흔들었다. …

그날 오후, 로성익은 수림속을 거닐고있었다.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소나무잎사귀도, 하얀 눈을 뒤집어쓴 락엽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위처럼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괴로움만이 있을뿐이다.

사실 그는 전선사령부 대표의 자격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덕근사단을 들이치겠다고 나선 표무강의 무분별한 행동을 묵과할수 없었다. 그랬으나 군무자총회가 열리고 전사들이 저저마다 습격대에 탄원하자 그들을 만류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련대가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가는것을 보면서 가만있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측면에서 미숙한 표무강을 돕기로 결심하고 습격전투에 참가하였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연한 로파심이였다.

표무강은 맞다드는 정황에 맞게 전투를 능숙히 지휘하였고 전사들도 성난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웠다. 결과 역에 대기하고있던 적들과 군용렬차는 녹아나고 북상하려던 최덕근사단의 기도는 파탄되고

말았다.

그 무서운 힘앞에서 로성익은 전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것은 자기가 배신자라고 락인찍고 총살까지 하려고 하였던 홍일남전사가 육탄이 되여 적기관차를 까부신 사실이였다.

처음부터 믿을수 없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그가 자기의 눈앞에서 발휘한 용감성과 희생성은 그를 몹시 놀래웠고 한편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가 어떻게 되여 그런 영웅적인 최후를 마칠수 있었단 말인가?

자신을 세계대전참가자라고 자부하는 그에게 있어서 홍일남의 죽음은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마치 그한테 영원히 갚을수 없는 빚을 진것 같은 기분이였다.

전사들의 차거운 눈빛도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비수였다.

행군중에 힐끔 쳐다보는 눈빛들에서, 마주 오다가 도깨비라도 만난듯 얼른 숲속으로 몸을 숨기는 전사들의 행동에서 풍기는것은 자기에 대한 불신이였다.

그 느낌은 로성익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내가 언제부터 물우에 떠있는 기름과도 같은 존재가 되였는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가장 안정한 화합물인 물과 비중이 낮은 기름은 화합될수 없는 물질이다. 아무리 휘저어도 두 물질은 절대로 결합되지 않는다. 정말 내가 련대라는 대하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우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방울이라면…

그는 난생처음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상상해보던것과 전혀 다른 아픔이였다. 쓰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리기도 하고.

5

《언니, 투약시간이 돼서 가봐야겠어요.》

마가을에는 보기 드문, 제법 따스한 해빛이 비쳐드는 양지에 나란히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주고받던 신주옥은 아쉬워하며 일어났다.

빨래터에서 알게 된 후 친자매처럼 가까와진 신주옥은 짬만 생기면 한정아를 찾아오군 하였다.

《어서 가봐요.》

바삐 뛰여가는 그를 바래우던 한정아는 조용히 한숨을 내그었다.

오빠가 어쩜 그럴수 있단 말인가. 그렇듯 훌륭한 전사를, 조국앞에 그처럼 성실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아 총살하려고 하다니. 그 전사가 혹시 눈을 감으면서 오빠를 원망하지는 않았을가. 아, 오빠가 정말 랭돌같은 심장을 지닌 인간이란 말인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민구분대》쪽으로 향하던 한정아는 걸음을 멈추었다. 무성하게 자란 소나무밑에 서너명의 전사들이 앉아있었는데 뜻밖에 오빠소리가 튀여나왔던것이다.

오늘은 별스레 가는 곳마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행여나 하고 귀를 기울이였다.

《동문 아까 왜 전선사령부 대표동지한테 혼쭐났나?》

《허 참, 모닥불을 피울 때 쓰려고 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적들의 삐라를 몇장 꺼냈는데 공교롭게 전선사령부 대표동지한테 걸리지 않았겠나. 한줄배기인 나 같은건 상대가 안되는지 당장 중대장을 찾아오라고 하더군. 그래서 중대장동지를 찾아왔더니 전사들이 또 삐라를 가지고 다니는걸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중대장동지까지도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펄펄 뛰더군.》

《쩍하면 군사재판이라니까. 에이, 난 그 사람과 만나면 얼음덩이와 마주친것 같은게…》

《이 우둔한 친구야, 그러길래 나처럼 슬기롭게 은폐하란 말이야.》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 한정아는 얼른 그곳을 떠나고말았다.

만약 얼마전에 그런 험구를 들었다면 처녀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았을것이다. 련대를 위해 밤잠도 잊고 뛰여다니는 사람을 두고 함부로 말할수 있는가고 소리쳤을것이다. 그랬으나 지금은 그들을 피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전사들이 내가 전선사령부 대표의 누이동생이라는것을 안다면 어떤 눈길로 보았을가?

그 내막을 알고있는 사람은 련대장과 문화부련대장을 비롯한 몇몇 안되는 군관들뿐이라는 사실이 이 순간에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발을 헛디디며 정신없이 걸어가던 한정아는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무춤 멈춰섰다.

배낭을 어깨에 멘 고남수가 어기적어기적 숲속으로 들어가고있었다.

보나마나 또 옥백미때문일거야. 흥, 산모는 말할것도 없고 자기마저 먹지 않고 쌀배낭을 꽉 끌어안고있는 수전노!

고개를 돌려버린 한정아는 가까이에 있는 낯익은 개인천막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한동안이 지나 빨래감을 걷어가지고 천막을 나선 그는 두눈에 힘을 주었다. 좀전에 숲속으로 들어갔던 고남수가 씩씩거리며 나오더니 산릉선을 내리고있었던것이다. 얼핏 보아도 그 거동이 심상치 않았다.

《아저씨!》

피끗 이쪽을 돌아본 고남수는 쓴 오이 보듯 하더니 그냥 걸음을 내짚었다.

《무슨 일이예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고남수는 급히 뛰여온 처녀를 보자 푸들쩍거렸다.

《이건 사람을 어떻게 보구 그러는거야?》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하세요. 아이참, 말씀하시라는데두요.》
한정아의 곡진한 말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그는 방금전에 있은 일을 털어놓았다.
…해빛이 비쳐드는 곳에 틀고앉아 쌀자루를 헤치고있던 그는 경비소대장과 맞다들었다.
경비소대장은 옥백미는 거들떠보지 않고 배낭을 좀 보자고 하였다.
그 기세등등한 태도에 주눅이 든 고남수는 부랴부랴 배낭안의것을 꺼내놓았다. 유지에 싼 성냥과 빨래비누따위들이 벨풀이라도 하듯 와르르 쏟아져나왔다.
눈을 밝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경비소대장은 자기가 찾는 물건이 없는지 락심한 기색이였다.
고남수는 이젠 됐느냐는듯 그를 흘겨보고나서 물건들을 배낭속에 주어담았다.
《그날 어디에 갔댔습니까?》
이젠 됐겠지 하고 배낭아구리를 조이던 고남수는 생각지 않게 옆구리를 찔리운것처럼 뜨아해났다.
《신호탄이 오른 날 말입니다. 그때 내가 어디 갔댔는가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지요?》
《저…》
《오늘은 대답하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고남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마뜩지 않게 대구하였다.
《볼일이 있어 갔댔수다.》
《볼일이란 뭡니까?》
《그건 말할수 없수다.》
《뭐요?》
경비소대장이 눈을 치뜨는데 저쯤에서 《그만하오!》 하는 메마른 말소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고남수는 소나무옆에 서있는 고급군관을 알아보았다.
전사들이 전선사령부 대표라고 하며 어렵게 대하는 사람이다.
행여나 하고 그를 쳐다본 고남수는 차겁게 번뜩이는 두눈을 보자 속이 떨려났다.
어구구, 저 어른도 날 의심하누나. 그렇다고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일수도 없구. 에라,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면 안되겠어.
이렇게 되여 고남수는 산을 내려가던중이였다. …
《아저씨, 그건 잘못 생각하신거예요.》
언제 봐야 무엇을 잃은것처럼 땅만 내려다보며 걷던 고남수는 오늘따라 높이 쳐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 그 어른이 두눈을 딱 부릅뜨고 노려보는게 날 의심하는게 분명해.》
《아이참, 그렇다고 적구로 내려가시겠어요?》
그 물음에 고남수는 펄쩍 뛰였다.
《적구로 내려가다니?… 난 혼자서라도 북으로 가자는거네.》
《안돼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려구 그러세요?》
그가 주저하는것을 본 한정아는 웃으며 달래였다.
《아저씨, 이젠 그만 성을 가라앉히고 돌아가자요.》
《…》
《어서요.》
주밋주밋하던 고남수는 한정아가 잡아끌자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따라섰다.
그의 잔등을 떠밀어보내고 돌아선 한정아는 생각이 착잡하였다.
물론 난 도중에 만난 고남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저 리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것만 알고있다. 그렇다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건 옳지 않다. 그건 그렇고 고남수의 입에서 또 오빠소리가 튀여나왔다.
《그 어른이 두눈을 딱 부릅뜨고 노려보는게…》
잊으려고 애쓰던 오빠생각이 고남수의 출현으로 또다시 이어졌다.

오빠는 점점 왜 그렇게 변해갈가?

지금까지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있던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깡그리 동원하여 불신의 덩어리를 녹여보려고 애썼으나 종시 한귀퉁이도 녹이지 못한 처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개울가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한정아의 얼굴에 한줄기 밝은 빛이 스쳐지나갔다. 표무강련대장의 름름한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지치고 약해진 전사들의 마음을 틀어잡기 위해 적들의 포위속에서도 씨름판을 크게 벌려놓은 대담한 련대장, 녕월군습격전투를 조직하여 부족되는 식량과 피복문제를 단꺼번에 해결한 능력있는 지휘관, 군사재판에 넘기겠다는 전선사령부 대표의 경고에도 끄떡하지 않고 적군용렬차를 습격하여 북상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산산이 짓부셔버린 의지가 강한 사나이, 게다가 인정미는 또 얼마나 많은가.

신주옥의 말에 의하면 전사한 홍일남도 련대장의 보증으로 총살을 면하였다고 한다. 전사를 자신처럼 믿지 않았다면, 부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다. 홍일남전사의 희생을 두고 누구보다 통분해하며 가슴을 친 사람도 바로 련대장이라는것이다.

그래, 그는 숯불같은 사람이야.

비록 연기는 나지 않지만 불담이 센 그 숯불은 위험한 벼랑길에서 처녀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련대가 바로 공화국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망각하였던 자기의 뺨을 후려갈겼으며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해 련대를 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숯불은 모닥불앞에서 곤하게 잠든 처녀의 가냘픈 어깨우에 군용모포를 덮어주기도 하였다. 추운줄도 모르고 달콤한 잠에 들게 해준 그 군용모포의 포근한 감촉은 아직도 한정아의 어깨우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다음순간 처녀는 속으로 놀랐다.

자기가 어떻게 된 일인지 표무강의 선의를 선선히 받아들이고있다는 생각이 갈마들었던것이다. 더욱 알수 없는것은 자기와 그사이에 경계의 차단봉을 내리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였다. 행군중에 그를 만나면 까닭모르게 눈길을 피하게 되였고 더는 《사민구분대》를 책임진다는 말도 나가지 않았다. 이즈음에 와서는 《사민구분대》는 물론이고 그자신도 자꾸만 그에게 의지하고싶었다.

한정아는 자기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던 표무강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덧 이성이라는 신비한 세계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순진한 처녀는 내심에서 봄날의 새싹처럼 파릇파릇 자라나는 이상야릇한 감정을 예민하게 감수하면서도 그 정체를 알수 없어 어쩔줄을 몰라하고있었다.

6

이른아침, 관하구분대들을 돌아보던 표무강은 우뚝 멈춰섰다.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소나무가지를 슬며시 제끼자 두손을 모아쥔것처럼 오목한 홈타기에서 옹달샘이 솟구치고있는데 한 처녀가 주변의 검불들을 차근차근 거두고있었다.

한동안 일에 골몰하고있던 그는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희고 갸름한 얼굴이 드러났다.

표무강은 숨이 꺽— 막히는것 같았다.

뜻밖에 그는 영영 만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신애였다.

《신애!》

한달음에 뛰여간 표무강은 놀라서 일어나는 처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어마나, 무강씨!》

순식간에 두사람은 한덩어리가 되여버렸다.

뜨겁고 숨막히는 포옹이 끝나자 표무강은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처녀의 발깃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신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신애는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다.
《뭘 그리 놀라세요? 제가 나타난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지요?》
《무슨 소릴 하는거요? 난 그때 신애가 벼랑에서…》
《그래요. 전 그때 벼랑밑으로 떨어졌댔어요. 허지만 무강씨를 남겨두고 그냥 갈수 없어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는 그를 구원해준 인정많은 배사공, 애인이 대대를 이끌고 무사히 의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 처녀…
이야기를 마친 신애는 다시 찾은 사랑을 잃을가봐 겁이 난듯 표무강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무강씨, 정말… 보고싶었어요.》
《나도 신애가 무척 그리웠소.》
련대가 남진할 때 표무강은 신애가 뛰여내린 벼랑을 찾아갔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은 대대를 이끌고 의거하는 애인을 위하여 꽃나이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한 처녀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푸르싱싱한 풀숲에도, 거부기잔등같은 바위에도 처녀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있는것 같았다.
그 벼랑밑에는 이 땅의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강물이 사품치며 흐르고있었다.
터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서있던 표무강은 목터지게 소리쳤다.
《신애, 내가 왔소!》
《…》
《어디 있소? 어디 있는가 말이요?》
사랑을 잃은 사나이의 부르짖음에 화답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도 절통하여 가슴을 쾅쾅 들이치던 그는 두주먹을 불끈 쥐고 벼랑을 내렸다.
신애는 죽지 않았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던 신애가 어떻게 죽을수

있단 말인가. 아마 좀 다쳐서 어느 농가에 누워있으리라.
두눈을 부릅뜨고 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마을들을 발바닥이 닳도록 찾아헤맸다.
《에이구, 웬 처녀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소린 들었지만 살았다는 말은 못 들었수다.》
《그 높은데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살아나겠소.》
비통한 심정을 안고 떠나는 표무강의 귀전에 언제인가 신애가 한 이야기가 쟁쟁히 울렸다.
《전 인간의 한생도 이 샘과 같다고 봐요. 만약 한 인간이 민족을 위해 참된 삶을 살았다면 마음은 샘처럼 맑고 깨끗할거예요. …전 언제나 맑고 깨끗한 이 샘처럼 살고싶답니다.》
그런데 잘못된줄로 알았던 신애가 눈앞에 서있는것이다.
부지불식간 품속에 간직한 쪽지편지, 읽고 또 읽어서 뜬금으로 외울수 있는 신애의 편지가 생각났다.
비에 젖을가봐 유지에 꽁꽁 싼 편지를 꺼내 처녀에게 넘겨주었다.
신애의 눈굽에 맑은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올랐다.
《이 편지를… 여태 간수하고계셨군요.》
《그렇소. 난 그 편지를 보면서 늘 신애를 생각하군 했소.》
《무강씨, 고마워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 표무강은 볼수록 사랑스럽고 소중한 처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가쁜 숨소리가, 행복에 겨운 신음소리가 처녀의 후더운 입김을 타고 흘러나왔다.
잠시후 처녀를 놔준 표무강은 웃으며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있소?》
《지나가다 보니 샘터가 어지럽더군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처녀의 갸륵한 마음씨에 감동된 표무강은 군복소매를 걷어올렸다.
《자, 우리 같이 거두기요.》

두사람은 제꺽 달라붙어 샘터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손길이 가닿을 때마다 샘터는 더욱 깨끗하고 순결하게 변모되였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가.
신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강씨!》
그의 어깨너머를 넘겨다본 표무강은 벌떡 일어났다.
단도를 빼든 허정효가 살금살금 기여들고있었던것이다.
《흠, 너희들이 좋아지라고 가만둘줄 알았느냐?》
독살스럽게 뇌까린 그자는 어느새 손을 뻗쳐 신애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이놈!》
표무강은 달려나가는 참으로 그자를 덮쳤다.
그러나 허정효가 날래게 피하는 바람에 허공을 그러안고 딩굴었다.
《표무강, 이 녀잔 내거야. 내거란 말이야!》
튕기듯 뛰쳐일어난 표무강은 또다시 원쑤를 향해 몸을 날렸다.
이번에도 교활한 원쑤는 날래게 공격을 피하였다.
그만에야 맥이 빠져 숨을 헐떡거리는데 허정효는 신애를 끌고 뽀얗게 달아나고있었다.
《무강씨!… 무강씨!》
신애가 끌려가면서 안타깝게 구원을 청하고있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죽기내기로 뛰여갔지만 멀리 달아난 허정효는 휘익!— 하고 휘파람을 불고는 야멸차게 웃었다.
《으핫핫핫!》
《안된다!… 신애는 못 데려간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던 표무강은 눈을 번쩍 떴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온몸이 땀으로 화락하게 젖어있었다.
허 참, 꿈도.

꿈속에서까지도 원쑤의 손아귀에서 신애를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 신애!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이 사나이의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가 정말 다시 살아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미여지는 마음을 누를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난 표무강은 옆에서 새우잠을 자고있는 련락병에게 모포를 덮어주고 천막을 나섰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5시이다.
오늘 련대의 행군로정을 생각하며 7대대쪽으로 걸어가던 표무강은 우뚝 멈춰섰다.
꾸르릉, 쾅쾅!—
멀리에서 우뢰같은 폭음이 들려오고있었다.
한동안 귀를 기울이고있던 그는 환성을 내지르고싶었다.
그것은 우뢰소리가 아니라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군의 포소리였던것이다.
전선이 가깝구나!
점점 커지는 포성을 듣느라니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마냥 흘러갔다.
의거장병들을 돌려세우려던 적들의 음흉한 술책, 부닥치는 시련과 고비를 헤치며 한치한치 전진하던 나날들, 홍일남의 장렬한 최후…
이제는 그 모든것이 과거로 되였다. 래일쯤 련대는 전선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과 시련이 옛말로 되여버릴것이다. 아니, 전사들은 영원히 그날들을 심장속에 새겨둘것이다. 영원히!
앞에서 돌돌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꿈에서 그랬던것처럼 이슬이 떨어지는 소나무가지를 슬며시 제끼고 보니 샘물우에 뜬 티검불을 걷어내고있는 처녀가 드러났다.
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신애가 바로 몇발자국앞에 앉아있지 않는가.

그것은 꿈이 아니였다. 자기가 구름이 감겨도는 차거운 수풀속에 서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현실이였다.

피뜩 처녀를 덮쳐안고 달아나는 원쑤의 상통이 눈앞으로 스쳐지나갔다.

안된다. 다신 신애를 빼앗길수 없다!

그는 자기가 언제 앞으로 뛰여갔으며 깜짝 놀라는 처녀의 손을 와락 잡았는지 알지 못하였다.

《신애!》

다음순간 숨막히는 비명소리가 터져올랐다.

《어마나!》

정신을 차린 표무강은 두눈을 껌뻑거렸다.

그는… 그 처녀는 뜻밖에도 한정아였다.

온몸의 맥이 아운하게 풀리며 눈앞이 핑 돌아갔다.

그 틈에 사나이의 억센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한정아는 오뚝 서서 《침범자》를 쏘아보았다.

당황해난 표무강은 어색하게 웃었다.

《미안… 미안하오. 내가 그만… 사람을 삭갈렸소.》

그제서야 한정아의 굳어진 얼굴이 한결 풀어졌다.

헝클어진 단발머리를 귀바퀴너머로 살짝 넘긴 처녀는 입을 열었다.

《산모한테 물을 떠주려고 왔다가 샘이 어지러워서…》

《음!》

표무강은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겨우 씹어삼켰다.

어쩌면 신애와 꼭같은 생각을 한단 말인가.

묘한 일치를 가져온 샘터에서 한정아를 만나고보니 그에 대한 친근한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무슨 말이든 나누고싶었다.

무슨 말을 할가? 무슨 말을…

사실 한정아에 대한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련대에 배속되라는 자기의 요구에 호락호락 굽어들지 않은 처녀,

무슨 일에서나 자신만만하여 지어 교만해보이는 처녀. 임신부의 해산문제로 어느 정도 숙어들었지만 여전히 새침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있는 처녀…

리경일이 알려준 한가지 소식이 표무강의 상상속에 그려진 처녀의 인물화를 대폭 수정해주었다.

몇달전 남진의 길에서 련대는 새로 교방한 적들과 맞다들었다.

적정자료가 없이 무작정 공격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수 있었다.

표무강은 즉시 정찰조를 파견하였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속이 부질부질 타고있던 어느날 리경일이 웬 처녀의 잔등에 업히워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달음에 달려가보니 그 처녀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버렸었다.

리경일의 말을 통하여 표무강은 처녀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그의 입에 피를 넣어주었고 연약한 몸으로 억대우같은 사나이를 업고 먼길을 왔다는것을 알았다. 처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살아난 리경일은 귀중한 정찰자료를 련대지휘부에 보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전투계획을 수립한 련대는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단숨에 적진을 돌파하였다.

전투가 끝났을 때 표무강은 이름모를 그 처녀를 만나지 못한것이 몹시 아쉬웠다. 후날에라도 그를 만나면 련대전사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싶었다. 그런데 련대가 위험한 벼랑길을 통과하였을 때 리경일이 싱글싱글 웃으며 찾아와 생명의 은인을 찾았다고 하는것이였다.

《그게 누구요? 어디 있소?》

《<사민구분대>를 책임진 정치공작대원입니다.》

《정말이요?》

곧장 한정아를 찾아갔으나 처녀는 자기를 피하는 눈치였다. 그 리유를 알수 없었으나 그가 자기와 만나는것을 꺼려하는것만은 확실하였다.

표무강은 기회를 보아 다시 찾아가려고 생각하였다.

하루는 휴식참에 수풀속에서 다리를 주무르고있는 처녀와 정면으로 맞다들었는데 그가 얼굴이 빨개서 피하는 바람에 또다시 헛물을 켜고말았다.

일이 그렇게 번지자 표무강은 계속 찾아다닐수 없게 되였고 그로하여 두사람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갔다.

그런 처녀를 샘터에서 만난것이다. 이제라도 처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싶었지만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오히려 그 말이 자신의 무례한 처신을 모면하기 위한 엉큼한 수법으로 오해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무강은 한정아와 이야기를 나누려던 생각을 접고말았다.

두사람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고있는데 먼저 한정아쪽에서 말을 꺼냈다.

《련대장동지,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무들사이로 총총히 걸어가는 처녀를 바라보던 표무강은 가슴속에 꽉 들어찬 아쉬움을 털어버리듯 한숨을 크게 내쉬였다. …

그 시각 보초소들을 돌아보려고 나왔던 로성익은 생각지 않게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남들이 아직 깊은 잠에서 깨여나지 못한 이른아침 호젓한 샘터에서 만난 한쌍의 청춘남녀!

그들이 련대장 표무강과 누이동생 한정아일줄이야.

마침 그들은 헤여지고있었는데 표무강의 얼굴에 아쉬워하는 기색이 확연히 어려있었다.

저들이 언제 벌써 그런 관계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는듯 빼곡이 들어찬 소나무들사이로 바삐 사라지는 한정아를 응시하는 로성익의 눈가에 서늘한 빛이 스쳐지나갔다.

이즈음 누이동생의 태도는 그전과 달랐다.

틈이 있으면 찾아와 오빠가 전번에 준 크림은 손이 터서 아파하

는 영남이한테 주었고 또 영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는 등 종달새처럼 재잘거리군 하였는데 얼마전부터는 찾아오는 회수가 부쩍 줄어들고있었다.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엊그제 천막에 찾아갔더니 누이동생은 광목천으로 무엇인가 만들고있었는데 자기를 보자 바느질하던것을 등뒤로 감추는것이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것을 보자 몹시 섭섭하였다.

그런 누이동생이 남들 모르게 표무강을 만나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7

린색한 마가을해가 뉘엿뉘엿 저물고있는무렵.

련대가 전개한 산골짜기에 두 사나이가 도적고양이마냥 살금살금 기여들었다. 그중 멀쑥하게 생긴자가 락조에 반사되지 않도록 쌍안경을 감싸쥐고 숙영지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옆에 엎드린 저격수는 익숙한 솜씨로 조준경을 보총에 설치하였다.

쌍안경을 들여다보던 사나이의 몸이 흡사 적수를 발견한 독사마냥 꼿꼿해졌다.

배수가 확대된 렌즈안에 들어온 인민군련대장!

《저기 뒤짐을 지고있는자가 목표다.》

조준경에 눈을 가져다댄 저격수가 물었다.

《중령님, 중성 세알을 단 장교말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허정효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나왔다.

표무강, 넌 오늘 끝장이다!

지금까지 허정효는 그를 《자유세계》로 돌려세우기 위해 무진 애

를 써왔었다. 특히 자신심을 가진것은 표무강이 지휘하는 련대장병들의 과반수가 몇해동안 《자유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자유세계》에 대한 환상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났고 북을 매도하는 적대의식이 잔뜩 부풀어올랐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제도의 교육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한다. 뿐만아니라 오래동안 굳어진 의식은 인차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머리속에 인박힌 《자유세계》에 대한 환상은 맹물에 헹군 빨래처럼 잘 빠지지 않을것이다.

그들의 고향이 남쪽이라는 사실도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젊은 혈기에 표무강을 따라 입북하였지만 가족들이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는 강렬할것이다. 그러므로 작전을 인내성있게 벌리면 그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귀순자들이 속출하게 된다. 그것은 기필코 도미노현상을 일으킬것이고 표무강도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저앉을수밖에 없을것이다.

솜씨있는 료리사마냥 허정효는 《료리감》을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먼저 표무강련대가 북상하는 길목마다에 허위로 날조된 삐라들을 락화처럼 뿌렸고 공화국이 멸망하였다고 거짓방송을 불어댔다.

표무강련대는 천연바위마냥 끄떡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실패하지 않을가 하고 초조해하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한 인민군병사가 앓고있는 어미를 만나려고 집에 왔다는것이다.

쾌재를 올린 허정효는 그 병사를 체포하지 말고 은밀히 목소리를 도청하게 하였다.

밤중에 집으로 들어가는 홍일남의 뒤를 밟은 첩자는 덜덜 떨면서 그의 목소리를 도청하는데 성공하였다. 만여명이 넘는 사병들중에서 그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병을 찾는것은 좋지 못한 쌀에서 돌을 고르는것보다 더 쉬운 일이였다.

치밀하게 짜고든 공작은 효력을 발생하였다.

바야흐로 드라마가 절정을 향해 흘러가고있을 때 갑자기 무대막이 내려졌다. 총살당할줄 알았던 홍일남이 용서를 받고 대오에 들어섰던것이다.

첩자의 보고에 의하면 괜찮게 연출되고있던 그 드라마를 파탄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표무강이라는것이다.

분통이 터졌지만 락심하지 않고 무대막을 다시 올렸다.

다음날 그의 지시를 적은 련락쪽지가 첩자에게 전해졌고 그자는 몰래 산에 올라 신호탄을 쏘고는 뛰여내려와 대렬속에 끼웠다. 결과 전선사령부 대표는 현장을 수색하고 의심되는 전사들을 불러들여 료해하였으며 나중에 고남수라는 사민을 혐의자로 지목하였다. 그것때문에 표무강과 전선사령부 대표는 또다시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붙는 불에는 부채질을 해야 불길이 더 커지는 법이다.

허정효는 위조한 최덕근의 《비밀편지》를 련대지휘부근방에 떨구게 하였다.

그래, 자기네 련대장이 적사단장과 암암리에 련계를 갖고있다는것을 안다면 《공산군》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벌써부터 눈앞에 갈팡질팡하다가 무리로 산을 내리는 《공산군》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허정효는 자기의 요구라면 언제든지 침대에 눕군 하는 녀방송원에게 스코치위스키를 준비하라고 일러두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녀자가 부어주는 위스키를 마실수 없었다.

두번째 드라마 역시 한번 켜졌다가 꺼진 성냥불마냥 맥없이 막을 내렸던것이다. 그것뿐이라면 모르겠다. 표무강은 밤새 100여리를 내달려 최덕근사단을 답새겼고 사단장자신은 삼십륙계줄행랑을 놓는 신세가 되고만것이다.

《악어》가 나타난것은 바로 그때였다.

《흠, 대단히 좋구만!》

《대단히》라는 말에 정신을 펄쩍 차린 허정효는 앞에 서있는 하

불을 쳐다보았다.
순간 의식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 《악어》가 빨간 혀로 입술을 핥는것을 보았는데 잔등이 오싹해났다. 마치도 악어의 아가리속으로 자기의 몸이 통채로 빨려들어가는것 같은 착각이 일어났다.
아, 이렇게 끝장난단 말인가? 아니다!
꽉 감았던 두눈을 치뜬 허정효는 갈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각하,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불의 노란 눈동자가 번쩍이였다.
로회한 그는 번견이 최후발악으로 사냥감을 물어뜯으려 한다는것을 알아차린것이다.
향긋한 분내가 배여있는 침대를 흥미있게 내려다보던 하불은 고개를 주억거리고 돌아섰다.
상전의 그 행동이 무엇을 암시하는것인가를 알아차린 허정효는 즉시 저격수를 데리고 허둥지둥 표무강련대를 쫓아왔다. …
쌍안경을 내리운 그는 싸늘한 어조로 뇌까렸다.
《단방에 요정내.》
날아가는 참새대가리도 쏘아맞힌다는 저격수는 히죽 웃었다.
《중령님, 걱정마십시오.》
조준경안에 적수를 잡아넣은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때였다.
《이놈들아!》
난데없이 터진 고함소리에 허정효는 뒤를 홱 돌아보았다.
등에 배낭을 멘 웬 사나이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오고있었다.
급한 나머지 손에 들고있던 권총으로 한방 갈겼다.
《억!》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은 사나이는 비틀거리다가 산비탈면으로 디굴디굴 굴러갔다.
아차! 하는 생각이 뇌리를 때린것은 그후였다.
다시 몸을 돌린 허정효는 후닥닥 뛰쳐일어나는 저격수를 보았다.

《뭐야?》
《추, 추격입니다.》
고개를 뽑아들고보니 정말 《공산군》들이 이쪽으로 밀려오고있었다.
분하구나!
《중령님, 빨리 뜁시다!》
겁에 질린 저격수는 상관의 승낙도 받지 않고 허둥지둥 내뛰였다.
땅, 따당!
앞쪽에서 정신없이 도망치던 저격수가 풀썩 주저앉았다.
피가 흐르는 다리를 부여잡은 그는 징징 울면서 도움을 청하였다.
《중령님,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예?》
허정효는 인정많은 나그네처럼 푸수한 어조로 말을 받았다.
《그야 물론이지.》
그의 손에 쥐여있던 권총이 불을 뿜었다.
발치에 나딩구는 저격수를 바라보며 허정효는 이사이로 씨벌이였다.
《표무강,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지만 난 일생 너를 괴롭힐테다!》
얼마후 사건현장에 도달한 전사들은 죽어가는 저격수를 발견하였다.
숨이 멎기 전에 그자는 허정효가 련대장을 암살하기 위해 이곳에 기여들었으며 어떤 사민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통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토설하였다.
그 보고를 받은 표무강은 주먹을 불끈 틀어쥐였다.
허정효!
그는 여우와 독사를 합친것처럼 교활하고 악독한 원쑤였다.
허정효는 해방전 왜놈군대에서 복무하며 무고한 애국자들을 학살한 공로로 왜왕의 표창까지 받은 악질친일분자였으며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카멜레온처럼 잽싸게 친미파로 둔갑하고 자기를 미국의 《사자》로 길들이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자기가 대대

를 이끌고 공화국으로 의거하자 그자는 호시탐탐 복수의 칼을 벼리여왔으며 련대를 《귀순》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러다가 그 암계가 실패하게 되자 이리처럼 달려들었던것이다.

허정효가 달아난 후 한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울분을 토하며 입대를 탄원하였던 최가가 감쪽같이 사라진것이다.

련대를 돌아보는 길에 표무강은 련대군의소에 들렸다.

《고남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소?》

련대군의소장은 그의 어깨에 박힌 총탄을 뽑았는데 정신을 차리자마자 배낭부터 찾았다고, 그것을 안겨주자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보고하였다.

8

련대에 큰 경사가 생겼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이 전선을 넘어 도착한것이다.

저저마다 눈물을 머금고 솜옷을 쓸어보는 전사들앞에 오성국장령이 나섰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들이 꼭 찾아올줄 알았다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굳게 믿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그는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흐느낌소리가 다음 말을 끊어놓았던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바로 그 믿음에 이끌려 련대는 만난신고를 헤치며 달려오지 않았던가.

지금껏 강의한 의지로 행군을 다그쳐온 억센 사나이들이였건만 자기들의 얼어든 몸을 따뜻이 녹여주시는 다심한 어버이사랑앞에 그만에야 오열을 터치고만것이다.

한참후에야 오성국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그러시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추운 날 여름군복을 입고 눈속을 헤치고있을 동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부모처자를 뒤에 남겨두고 우릴 찾아오는 의거장병들인데 하루빨리 솜동복을 보내주자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으흐흑!—》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헤쳐넘은 표무강의 두어깨도 세차게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크나큰 믿음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굳세게 걸어온 평범한 전사, 소박한 인간이 터친 흐느낌이였다.

아, 언제 한번 마음껏 울어본적 있었던가. 울고싶어도 수천명의 운명을 책임진 지휘관이라는 자각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무뚝뚝한 얼굴속에 묻어두어야 하였던 그, 사랑하는 전우를 잃고도 눈에 증오의 불길이 펄펄 타오르던 표무강.

그처럼 강인하던 사나이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좔좔 흘러내리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억센 사나이를 울린것이다.

오, 젊은 련대장이여, 오늘은 마음껏 우시라. 가슴이 후련하도록 마음껏 터치라!

그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잡은 오성국도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실컷 울라구. 이런 때 울지 않으면 언제 울겠소.》

한시간후, 새 솜동복을 떨쳐입은 구분대장들이 련대지휘부에 모여왔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앞가슴을 쭉 편 그들의 모습에서는 지치고 추위에 떨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수 없었다.

볼수록 름름한 그들을 둘러보고난 오성국은 련대의 전선돌파를 위한 강력한 타격전이 진행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작전안을 하달하였다.

자정무렵, 수백문의 아군포들이 적진을 드세게 답새겼다.

꽝, 꽈꽝—

꽈르릉, 꽝, 꽝!—

급작스럽게 쏟아진 불벼락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사방으로 달아났다.

《련대, 돌격앞으롯!》

성난 호랑이들마냥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련대앞에는 권총을 뽑아든 표무강련대장이 서있었다.

어지럽게 쏘아대는 적포탄과 총탄이 여기저기에서 터졌다.

발악하는 적들을 권총으로 쏘고 발로 차고 하며 내달리던 표무강은 쇠몽둥이로 허리를 세차게 후려치는듯 한 충격을 받았다.

눈앞이 새까매지더니 몸이 허공으로 휘뿌려졌다.

《련대장동지가 부상당했소!》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웨침소리.

그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이쪽으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련대군의소장과 신주옥이였다. …

의식을 차린 그가 처음 본것은 구름 한점 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였다.

하늘이 저렇게도 푸르렀던가, 그리구 저 검은 연기는?

《련대장동지, 좀 어떻습니까?》

귀익은 목소리를 듣고서야 표무강은 자기가 담가에 누워있으며 군의소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레 지켜보고있는것을 알았다. 그러자 어디선가 날아온 적포탄이 가까운 곳에서 작렬하면서 자기의 몸이 허공으로 뿌려지던 일이 생각났다.

내가 정신을 잃었댔구나. 가만, 그럼 련대는?

벌떡 몸을 일으키던 표무강은 허리를 송곳으로 찌르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어찌나 참기 힘든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으—음!》

뼈를 갉아내리는듯 한 동통을 가까스로 참고 군의소장한테 물었다.

《련대는… 어떻게 됐소?》

《문화부련대장동지가 지휘하고있습니다.》

김홍선이 련대를 지휘한다니 마음이 놓인다. 헌데 이놈의 허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였기에 이다지도 아픈가.

담가옆에 서있던 군의소장이 알려주었다.

《허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파편이라는 말을 듣자 정말 허리에 박혀있는 날카로운 쇠붙이의 존재가 느껴졌다.

입술을 꽉 깨물고 전투장쪽을 응시하던 표무강은 담가병들을 향해 명령하였다.

《전투장으로!》

《안됩니다!》

두팔을 벌리고 담가를 막아선 련대군의소장은 큰일난것처럼 야단쳤다.

《련대장동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비키오!》

이번에는 신주옥이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연해하였다.

《련대장동지,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아픔때문에 얼굴을 찡그려서 더욱 사납게 보이는 표무강은 버럭 소리질렀다.

《비키지 못하겠소?… 이건 명령이야!》

금시라도 무슨 일을 칠것 같은 그 기상에 군의소장과 신주옥은 할수없이 비켜섰지만 대신 담가옆에 바싹 붙어섰다.

이윽고 담가는 총소리와 수류탄터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전투장 한복판으로 뛰여들었다.

《련대, 돌격앞으롯!》

담가우에 누운채 전투를 지휘하는 련대장을 발견한 전사들은 용기백배하여 돌진하였다.

무서운 힘으로 진격하는 련대앞에서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돌연 앞쪽에서 우렁찬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동무들!》

《우리가 왔소!》

포연이 자욱한 대기를 뚫고 수많은 전사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있었다.

그들을 알아본 표무강은 아픔도 잊고 담가우에서 몸을 우쩍 일으켰다.

《동무들, 아군이요!》

기쁨에 넘친 전사들은 와!― 하고 환성을 터치며 내달렸다.

마주 달려오던 전사들도 련대와 합쳐지면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었다.

드디여 련대는 전선을 돌파하였다. 꿈속에도 그리던 장군님의 품에 안긴것이다!

온 련대가 감격에 젖어 웃고 떠들고있을 때 표무강은 구분대장모임을 열고 이렇게 강조하고있었다.

《이 시각부터 내가 부상당했다는 말이 새여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소. 알겠소?》

《알았습니다.》

《다들 돌아가고 군의소장만 남소.》

주위가 조용해지자 표무강은 웬 일인가 하고 서있는 군의소장에게 성급히 물었다.

《이제 수술을 할수 있겠소?》

《당장 말입니까?》

놀라와하는 그를 못마땅해서 쳐다보던 표무강은 툭 내쏘았다.

《동문 아까 뭐라고 했소?》

《그때는 그랬지만…》

《여보, 누굴 놀리자는거요?》

련대장이 성을 내자 군의소장은 의아해하였다.

의지가 강한 련대장은 웬간한 부상따위는 치료받지 않군 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편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재촉하고있는 것이다. 하기야 오죽 아프면 그러겠는가.

《련대장동지, 그런게 아니라 수술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표무강은 담가우에 몸을 눕히며 배심좋게 말하였다.

《기다리겠소.》

…이른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있던 표무강은 끝내 참지 못하고 침대우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며칠전에 수술한 자리가 터질것처럼 팽팽하게 켕기였다.

《으―음!》

때마침 천막안에 들어서던 련대군의소장이 아우성을 쳤다.

《정신있습니까? 수술자리가 터지면 어쩔려구 그럽니까?… 당장 누우십시오. 어서요!》

감히 손짓까지 하며 떡떡거리는 그를 보자 표무강은 두눈을 부릅떴다.

《이거 누구한테 호령하는거야. 엉?》

그쯤하면 움츠러들줄 알았는데 군의소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단 입원했으면 군의소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설사 련대장동지라고 해도 말입니다.》

표무강은 기가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이 량반이 어떻게 된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의약품이 모자란다느니, 천막이 몇개 더 있어야겠다느니 하고 징징 우는소리를 늘어놓더니…

한바탕 혼내우려던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가만, 내가 인차 일어나는가 못 일어나는가 하는건 바로 이 량반손에 달려있는데 공연히 일을 망칠게 아니야?

지금까지 겁이라는것을 전혀 몰랐던 그였지만 이 순간에는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여보, 군의소장동무!》

얼결에 련대장한테 큰소리를 쳤지만 속이 조마조마해있던 군의소장은 그가 너누룩하게 나오자 얼떨떨해졌다.

《천막이 두개 더 있으면 좋겠다고 제기했댔지?》

본인이 미처 생각나지 않아 눈을 끔뻑거리는데 표무강은 시원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걱정마오. 당장 해결해주겠소. 또 뭐가 있더라?》

군의소장은 점점 영문을 알수 없었다.

《련대장동지,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표무강의 얼굴에 숙연한 빛이 그려졌다.

《군의소장동무, 래일 아침 련대는 최고사령부에 도착하게 되오.》

《저도 알고있습니다.》

군의소장의 대답을 듣자 그의 얼굴은 비참하게 이그러졌다.

《알고있으면 뭘 하오?》

《예?》

《그래,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우면 련대장인 내가 도착보고를 올려야 하겠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떻게 하는가 말이요.》

속이 탄 나머지 몸을 우들우들 떨고있던 표무강은 군의소장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여보, 래일 뒤시간만 움직일수 있게 해주오. 그 다음은 죽든 살든 상관없소.》

뒤늦게야 련대장의 심정을 알아차린 군의소장은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른 대책이 없다는듯 한숨을 내쉬였다.

열기를 띤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표무강은 갑자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자, 내 절을 받아주오!》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인적 없다는 련대장이 자기한테 너푼 절을 하자 군의소장은 덴겁하였다.

《아니, 이거… 이거 왜 이럽니까?》

《제발 도와주오. 이 표무강이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나서지 못한다면 살아선 뭣하겠소. 응?》

그러는 표무강의 두눈에 눈물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군의소장은 뜨거운것을 꿀꺽 삼켰다.

다음날 아침, 련대는 고산진에 도착하였다.

기운차게 굽이쳐가는 대오앞에는 표무강련대장이 정보로 걷고있었다.

얼핏 보면 그는 건강하고 씩씩해보였다. 하지만 그가 진통제를 정량보다 초과하여 맞았으며 그것도 미타해서 군복안에 가죽혁띠를 두개씩이나 차고있는줄은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련대가 림성골에 들어서자 한 장령이 급히 걸어오더니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을 기다리고계신다고 알려주었다.

순간 표무강의 두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최고사령관동지, 제가 왔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군공메달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장령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던 표무강은 이미전에 바싹 조인 두개의 가죽혁띠를 허리가 끊어져나가라고 힘껏 조였다. 그 다음 마치도 수십년만에 어버이를 찾아가는 자식인양 두주먹을 부르쥐고 천방지축 달리기 시작하였다. …

그날 표무강을 만나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엄혹한 시련을 헤치며 련대를 이끌고 전선을 넘어온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국가수훈을 안겨주시였다.

그후 련대는 최고사령관명령에 의하여 반공격집단에 망라되여 청진시를 해방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동해안을 따라 적들을 추격하여 김책시와 단천, 길주, 흥남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12월초에는 평양해방전투 등 여러 전투에도 참가하여 위훈을 떨쳤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그에게 조선인민군 소장의 군사칭호와 함께 최고사령관축하문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9

한정아는 련대군의소로 가고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온 차거운 바람이 능금같은 두볼을 콕콕 찌르고 옷자락을 물어뜯었지만 처녀는 탄력있게 몸을 흔들며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오늘 그는 대학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 얼마나 가고싶던 교정인가. 자나깨나 한시도 잊어본적 없는 우리 대학!

존경하는 스승들과 다정한 동무들, 밝은 창문으로 해빛이 비쳐드는 강의실을 그려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진다.

나리꽃같은 웃음이 남실거리던 처녀의 눈가에 아쉬운 빛이 스쳐지나갔다.

정작 련대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방금전까지 가슴속에 그득히 차올랐던 즐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이 허전하다. 꿈결에도 그리던 모교로 돌아간다는 기쁨과 그동안 정이 든 사람들과 헤여져야 한다는 섭섭한 감정이 두갈래의 탐조등빛처럼 교차되고있었다.

그러고보면 작별은 사람들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것 같다.

서분이와 영남이 아버지를 비롯한 《사민구분대》 성원들은 한정아와 헤여지는것이 너무도 아쉬워 오래도록 손을 놓지 못하였다. 친누이처럼 따르던 정찰소대장과 문화부련대장 김흥선과도 전쟁이 승리하는 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외사촌오빠 로성익과의 작별인사는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다. 한정아는 자기가 오빠를 그전처럼 잘 대해주지 못한것이 미안스러웠고 로성익도 어딘가 모르게 거북해하는 눈치였다.

오빠와 헤여졌는데 엊그제 련대군의소에서 퇴원한 고남수가 어기적거리며 쫓아왔다.

《임자, 좀 만나자구.》

한정아는 마침 잘되였다고 생각하였다.

대학으로 떠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려있는 사람은 바로 고남수였다. 그에게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개인의 리익보다 옆사람들과 나라를 먼저 위하는 참된 인간이 되라고 단단히 말해주고싶었다.

《아저씨, 그러지 않아도 만나려던 참이예요.》

고남수는 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다 아네라고 하듯 헤식게 웃더니 등에 메고있던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가 배낭아구리를 활짝 열자 기름기가 찰찰 도는 옥백미가 나타났다.

한정아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어쩌자는걸가?

《임자 그동안 날 욕많이 했지?》

《…》

《사실 이 옥백미는…》

가까이에 있던 전사들과 사민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다.

그들을 향해 면구스러운 웃음을 날린 고남수는 진중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 쌀은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거네.》

《예?!》

한정아는 놀란 눈으로 옥백미와 고남수를 번갈아 보았다.

《아저씨, 그게 정말이예요?》

고개를 주억거린 고남수는 다음과 같은 사연을 털어놓았다.

소작살이를 하던 그는 마흔살이 넘어서야 겨우 장가들었는데 몇해가 지나 지주놈이 소작주었던 땅을 도로 빼앗고 한지로 내쫓자 심화병에 걸린 안해는 세상을 떠났다.

《이 망할 놈의 땅이 사람을 잡아먹었구나! 꺼져라, 꺼져!》

삽으로 땅을 마구 파던지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던 그는 그자리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인민군대가 고향마을을 해방하자 고남수는 2천평의 논을 분여받았다. 제땅이 생겼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운 그는 다음날 아침 땅을 한삼태기 퍼담아가지고 뒤산에 있는 안해의 묘소를 찾았다.

《여보, 우리한테 땅이 생겼소.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였단 말이요. 헌데 당신은 왜 그냥 누워있소. 어서 일어나 이 흙을 좀 만져보란 말이요. 으흐흑!―》

봉분우에 흙을 골고루 덮은 고남수는 산을 내리자마자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난생처음 제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힘든줄을 몰랐고 낮이 어떻게 지나가고 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느덧 논에서 벼이삭들이 누렇게 익어가자 그는 손을 꼽으며 추석날을 기다렸다. 예로부터 그날에는 햇곡식을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묘를 찾는다는데 차떡을 쳐가지고 성묘도 하고 안해한테도 찾아갈 생각이였다. 생전에 송편을 실컷 먹어봤으면 한이 없겠다고 념불처럼 외우던 안해의 소원을 늦게나마 풀어주고싶었다. 그래서 추석을 백날천날맞잡이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 인민군대가 후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멀리서 포소리가 쿵쿵 울리고 북쪽으로 뻗은 큰길에 배낭이며 보퉁이를 메고 진 사람들이 나타났으나 고남수는 논머리에 박아놓은 표말처럼 그냥 앉아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행렬도 뜸해지고 인민군대의 마지막대렬이 지나갔다.

드디여 추석날이 밝아왔다.

이틀전 논에 나가 잘 익은 벼이삭들을 베여서 말리운 고남수는 밤을 새우며 절구를 찧었다. 그리고는 키질까지 깨끗이 한 옥백미를 배낭에 넣고 안해의 묘소에 찾아갔다.

《여보, 난 북으로 들어가오.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시면 누가 우리 같은 소작농한테 기름진 땅을 주시였겠소. 그래 내 장군님께 이 옥백미를 정히 올리고 땅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리고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기다려주오!》

이렇게 되여 고남수는 귀중한 옥백미가 든 배낭을 메고 머나먼 적후의 길을 걸어왔던것이다. …

한정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참, 그 말씀을 왜 인제야 하세요. 네?》

고남수의 갈고리눈이 아래로 축 내려졌다.

《안됐네. 임자가 산모때문에 쌀을 꿔달라고 찾아왔을 때 난 속으로 이 고남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네. 차라리 이실직고하고 배낭을 통채로 내줄가 하고 몇번이나 마음먹었지만 종시 그러질 못했네. 임자, 제발 이 못난놈을 용서해주게.》

《안예요. 제가 아저씨를 잘못 생각했댔어요.》

한정아는 두눈을 슴뻑거리는 고남수에게 진심으로 당부하였다.

《아저씨, 옥백미를 장군님께 꼭 올려주세요.》

《고맙네. 고마워!》

그때 사람들속에 끼워있던 경비소대장이 고남수한테 사죄하였다.

《아바이, 날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고남수는 제편에서 미안해하였다.

《아닐세. 난 그런 의심을 받아 싸지. 허허허.》

그렇게 정다운 사람들과 헤여진 한정아였으나 표무강련대장을 찾아가는 지금은 마음이 뒤숭숭해났다.

그날, 샘터에서 돌아온 후 처녀는 표무강을 극력 피하였다.

그가 멀리에서 나타나면 살그머니 나무뒤에 몸을 숨겼고 불가피하게 마주치면 깍듯하게 인사말을 건네고 바람처럼 지나갔다.

처녀는 인차 그것이 자기기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전처럼 후방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놀랍게도 표무강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잠자리에 누우면 역시 그의 무뚝뚝한 모습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어마나, 내가 왜 이럴가?

그러지 말자고 마음을 도사려먹었지만 휴식참이나 행군중에 그를 보면 심장이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마냥 높뛰였다. 그때면 남들 모르게 가슴을 붙안고 하필 저 사람이 내앞에 나타날건 뭐람 하고 토달거렸지만 정작 그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울적해졌다.

하루는 그가 온종일 나타나지 않았는데 까닭모르게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산모를 찾아온 표무강을 보자 반가운 나머지 숨이 다 막히는줄 알았다.

그가 인사말을 건넸을 때 자기가 대답은 하였지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무엇때문에 방금전에 빤 기저귀를 널지 않고 소랭이안에 도로 집어넣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해났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 무슨 일을 치지 않을가?

안타까운 나머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흥, 도대체 그가 뭐길래. 그저 떽떽거리기 잘하는 련대장이고 또 목석같은 남자인데. 그런 사람을 어느 처녀가 좋아한담?

그 생각은 가슴속에서 샘솟듯 하는 이상야릇한 감정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루종일 팽이처럼 돌아쳤지만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속에 맴도는것은 표무강의 의젓한 모습뿐이였다.

순진한 처녀는 대학시절 밤을 새우며 소설책을 읽다가 (어마나, 사랑이란 바로 이렇게 시작되누나!) 하고 숫처녀의 소심하고 황홀한 감정속에 체득하였던 그 신비로운 《원시림》속에 자신이 들어섰다는 것을 모르고있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심장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민하게 감촉하고있었다. 그것을 이성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는 실망하였을것이다. 사랑이란 범상치 않은 사건을 통해 요란스럽게 들이닥칠줄로 믿어온 그였다. 그런데 처녀의 가슴속에 흘러든 이성의 선률은 바이올린소리처럼 선명하면서도 잔잔하게 울렸던것이다. …

군의소천막에 들어서니 표무강은 침대우에 엎드린 자세에서 처치를 받고있었다.

마음이 아릿해났다.

저렇게 온종일 바로눕지 못하고있자니 얼마나 불편할가?

이윽고 처치가 끝나자 표무강은 천막입구에 서있는 처녀를 알아보았다.

《아, 정치공작대원동무!》

련민의 정이 어렸던 한정아의 동그스름한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떠올랐다.

아이참, 하필 그렇게 부를건 뭐람. 문화부련대장동지랑 련대참모장동지랑 다들 《정아동무!》라고 허물없이 불러주는데 이 사람은…

그 불만을 눌러버린 한정아는 침착하게 말하였다.

《련대장동지, 전 작별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표무강의 굵은 눈섭이 꿈틀거렸다.

《그래, 어디로 가오?》

《대학으로 갑니다.》

《그렇소?》

한정아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였다.

아직까지 그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적은 없었지만 이 순간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놓을것 같았다. 정말 꼭 그럴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할가? 무슨 말을…

숨을 크게 내쉰 표무강은 드디여 입을 열었다.

《그동안 나한테 의견이 많았겠는데 잊어주오.》

《네에?》

한정아는 마치 한방망이 얻어맞은것처럼 놀랐다.

그것은… 그것은 처녀가 상상해보던 말이 아니였다. 그는 다른 말을, 처녀라면 누구나 희망을 품고 기다릴 가슴벅찬 약속을 기대하였던것이다. 했으나 표무강은 누구한테나 할수 있는 평범한 인사말

을 던진것이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무뚝뚝할가?
야속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오려는것을 겨우 참은 한정아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하다가 양복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바닥만 한 천주머니가 만져지자 꽉 그러쥐였다.
…련대가 전선을 넘어서자 한정아는 생각이 깊어졌다.
표무강과 인차 헤여지겠는데 뭔가 기념이 될만 한것을 남기고싶었다. 그가 늘 몸가까이에 두고 보면서 자기를 추억할수 있는 그런것을.
불현듯 언제인가 리경일한테서 들은 군공메달이야기가 떠올랐다.
장군님께서 친히 표무강련대장의 앞가슴에 달아주신 군공메달,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그것을 보며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는 그.
샘터에서 헤여진 후 무작정 그를 피하고싶던 감정이 사라지고 대신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켜주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올랐다.
그래, 주머니를 만들어주자. 그럼 군공메달을 더 잘 보관할수 있을거야.
가위로 천을 맞춤하게 자르고 바느질을 하려는데 행군구령이 내렸다.
아쉬운대로 배낭에 넣고 행군하다가 휴식참에 꺼냈는데 산모한테 밥을 지어주어야 할 시간이 되는 바람에 치우고말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어제는 밤을 꼬박 새우며 주머니를 완성하였다. 가장자리를 노란 색실로 장식하고 가운데 붉은 오각별을 수놓은데다 끈을 바싹 조여맬수 있게 만든 천주머니를 보느라니 피곤이 말끔히 사라지는것이였다. …
지금 자기를 남들과 꼭같이 대해주는 표무강을 보자 처녀는 정성들여 만든 천주머니를 선뜻 내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는 밤을 새우며 극성스레 바느질을 한것마저 허망하게 여겨졌다. 그렇다고 일단 그를 주자고 만들었고 또 이제는 헤여져야 하는데 그냥 가지고 갈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결심을 내린 한정아는 천주머니를 꺼냈다.
다음순간 이걸 주고나면 이 사람과 헤여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못견디게 아파났다. 그렇지만…
《련대장동지, 이걸 받아주십시오.》
침대우에 엎드린 표무강은 천주머니를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군공메달을 여기에 넣으세요.》
《…》
《어서 받으세요.》
《고맙소.》
《?!》
중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얼굴이 핼쑥해진 처녀의 가슴속에서 그때까지 애써 붙잡고있던 기대의 끈이 툭 끊어지고말았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분한 감정!
생각 같아서는 그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치고싶었다.
《너무하군요. 그래, 제가 그런 말이나 듣자고 찾아온줄 아세요. 네?》
했으나 그 말은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였다.
그렇다. 아무리 당돌하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처녀라고 해도 이런 남자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할수 없는것이다. 차라리 돌부처한테 이야기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가슴속에서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그 감정은 급기야 목구멍으로 치달아오르더니 눈굽에 모여들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린 한정아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부디… 건강하세요!》
처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 얼른 천막을 나섰다. …
표무강은 곱게 만든 천주머니를 멍하니 보고있었다.
련대군의소에는 예쁘게 생긴 처녀군의도 있고 활달하고 깐깐한 처녀간호원들도 있지만 군공메달을 정히 건사하라고 주머니를 만들어

준 처녀는 없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가.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뛰쳐나간 한정아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것은 그 다음이였다.
그가 왜 울었을가?…
심장이 껑충 뛰여올랐다.
가슴도 100메터달리기를 한것처럼 두근거리고 숨까지 가빠났다.
그가 지금 어디까지 갔을가?… 이제라도 련락병을 보내서 데려올가?
찰나 군복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듯 한 감촉을 받았다.
그속에 손을 밀어넣자 유지로 싼것이 만져졌다.
높뛰던 가슴은 가라앉고 한정아의 모습도 서서히 사라졌다.
사연깊은 편지를 꽉 움켜쥔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신애, 그대는 어째서 날 두고 먼저 갔소. 응?
아득한 공간으로 날아간 그 절규에 화답하는 목소리는 종시 들려오지 않았다. …
그 시각 꽁꽁 얼어붙은 숲속을 거닐고있는 사람이 있었다.
단정하던 군복은 구겨지고 윤기나던 가죽장화도 뿌옇게 흐려있었다.
지금 로성익은 자신을 돌이켜보고있었다.
그는 련대에 온 첫날부터 표무강을 눈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련대장의 중임을 맡았으니 련대를 지휘하면 얼마나 지휘하겠는가. 역시 표무강은 모든 문제를 랭철하게 판단하지 못하였고 많은 경우 즉흥적으로 처리하군 하였다. 그가 과연 련대를 제대로 이끌수 있겠는가?
그러나 표무강은 그 우려를 뒤집었으며 의거자들이 대부분인 련대를 이끌고 전선을 돌파하였다. 그 비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머리속에 떠오른 의문을 풀어보려고 애쓰던 그는 정신없이 달려오던 누이동생과 하마트면 부딪칠번 하였다.
《정아야, 무슨 일이냐?》

당황해서 옆으로 물러난 한정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굽에 가득고인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을 직감한 그는 누이동생이 뛰쳐나온 군의소천막을 노려보았다.
그 천막에 허리수술을 받은 표무강이 누워있다는것을 그가 왜 모르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라.》
《오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예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쥔 한정아는 마치도 힘껏 뿌려진 돌처럼 앞으로 달려갔다.

중간이야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하여 조국은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였다.

한때 웃음과 행복의 노래가 흘러넘치던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은 폭격에 간 곳 없고 남은것은 오직 재더미뿐이였다.

하기에 시인 조기천은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에서 이렇게 절규하였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
싸우는 조선을 찾으라
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
도시와 마을을 찾지 말라
…

남북3천리에 재더미만 남았다,
태양도 검은 연기속에서
피같이 타고있는 조선!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진 조선!
…

영웅적인 조선인민은 전후복구건설에 용약 떨쳐나섰다.

강선제강소 로동계급은 정전된지 불과 40일만에 자체의 힘으로 2호전기로를 복구하여 첫 쇠물을 뽑았고 그뒤를 이어 성진제강소에서도 파괴된 전기로를 복구하여 생산에 착수하였다. 승호리세멘트공장 로동자들은 정전후 불과 2주일도 못되는 사이에 회전로를 복구하여 세멘트생산에 착수하였고 년 1억매 생산능력의 강남, 대성요업공장들도 건설에 착수한지 4개월만에 준공되였다.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은 철길과 다리, 화차들을 복구정비하고 정전된지 불과 한주일만에 모든 철도간선들에서 렬차운행을 보장하였다. 농민들도 파괴된 농토와 관개시설을 복구하면서 농사차비를 차곡차곡 갖추어나갔다.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조선은 또 한차례의 승리를 기록하고있었다.

전후복구건설의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 새 거리와 마을이 우뚝우뚝 일떠서던 초가을의 어느날 공화국내무기관은 적간첩망에 대한 소탕전을 진행하였다. 다른자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즉사하였지만 간첩두목은 권총과 수류탄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붙잡혔다.

그자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 《대통령》임명장이 나왔다.

그것을 읽어본 내무원들은 놀라운 사실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제 5 장

1

오후무렵, 한대의 군용찝차가 수도의 거리를 질주하고있었다.

가루개를 지나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찝차는 종로거리에 들어서자 삐익— 멎어섰다. 건설장으로 밀려가는 지원자행렬이 앞길을 가로막았던것이다.

어깨에 곡괭이와 삽을 둘러메거나 사이좋게 목도를 멘 빨래줄같은 대렬이 거의 끝나는가싶었는데 한무리의 소년단원들이 벽돌을 가득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 나타나자 석줄배기 운전수는 속이 달아서 엉치를 들썩들썩하였다.

옆좌석에 앉아있던 표무강은 한마디 던졌다.

《덤비지 말라구.》

《장령동지, 그러다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는 묵묵히 차창밖을 내다보기만 하였다.

어제 오후, 고급군사학교에서 공부하던 표무강은 다음날 인민군검찰소로 출두하라는 련락을 받았다.

검찰소에서 날 왜 찾는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았으나 그 리유를 알수 없었다.

어쨌든 가보면 알게 되겠지.

하여 오후강의가 끝나자 검찰소로 가는 길이였다.

문득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철아, 너 왜 자꾸 내쪽으로 밀리니?》

《칫, 내가 언제 네쪽으로 밀렸니?》

《힘들면 손달구지를 놓구 비켜라.》

《누가 힘들어서 그런대? 신발이 벗겨져서 그러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나선 아이들의 기특한 모습을 보자 표무강은 천진한 소년시절로 되돌아가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발동을 끄라구.》

시간이 지체되였다고 안달아하던 운전사는 배포유한 장령의 말에 볼이 부었다.

《장령동지, 가뜩이나 늦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찝차에서 훌쩍 뛰여내린 표무강은 무릎운동을 하고 허리를 앞뒤로 굽혔다폈다하였다.

간단한 준비운동을 했는데도 허리가 쿡 쑤셔났다.

이놈의 부상처가 말썽이거던.

전쟁시기 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전투에서 다친 허리는 육체적부담이 가해지거나 날씨가 흐리면 영낙없이 쑤셔났다.

그 아픔을 덜려고 장령복속에 군관혁띠를 두개씩이나 차고 다녔으나 강의가 끝나면 부상자리를 그러쥐고 겨우 기숙사로 돌아오군하였다.

어느날 기숙사에 들렸던 교장 오성국은 호실바닥에 엎드려 옴짝 못하는 그를 보자 몹시 걱정하였다.

《표동무, 주의해야지 큰일나겠소.》

그 주제에 속은 살아서 표무강은 찡그렸던 얼굴에 억지웃음을 띠우고 응답하였다.

《걱정마십시오. 난 끄떡없습니다.》

젊은 혈기만으로도 일생을 무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진란만한 제자에게 스승은 단단히 그루를 박았다.

《모르는 소리. 공부를 잘하자면 뭐니뭐니해두 몸이 건강해야 해.》

그때는 차츰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요즘은 때없이

허리가 쑤셔났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여느때보다 더 저려났다.

어디 누가 견디나보자.

준비운동을 마친 표무강은 나지막한 둔덕을 넘지 못해 아글아글하는 소년단원들을 도와 손달구지를 씽 밀어주었다.

《야아!—》

《만세!—》

손벽을 짝자그르르 치던 아이들은 손을 툭툭 털고있는 장령아저씨를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데거, 왕별을 달았다야.》

《쳇, 나두 크면 왕별을 달수 있어.》

그러던 아이들은 한쪽팔소매에 열성자표식을 단 아이의 구령에 따라 씩씩하게 소년단인사를 하더니 참새무리처럼 재잘거리며 떠나갔다.

대견한 눈길로 그애들을 바래운 표무강은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찦차를 타고 오면서 본 다른 건설장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복구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었다.

한쪽에서는 벽돌축조가 한창이고 다른쪽에서는 혼합기에서 쏟아놓은 몰탈을 휘틀속에 처넣고있었다.

벌써부터 속이 근질거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표무강은 마침 손수레를 몰고 달려오는 처녀를 발견하였다.

《처녀동무!》

너비가 한뽐만 한 널판자를 타고 요령있게 달려오던 그 처녀는 앞에 사람이 불쑥 나타나자 바빠맞아 손수레를 멈춰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린 외바퀴손수레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어마나!》

그때 표무강의 억센 손이 넘어지려는 손수레를 잡아서 바로 세워

주었다.

《아이참, 어쩌자는거예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허리를 펴던 처녀는 웬 일인지 입을 다물어버렸다.

이상해서 머리를 들던 표무강도 굳어지고말았다.

그 처녀는 전쟁시기에 헤여진 한정아였던것이다.

《아니, 정치공작대원동무가 아니요?》

기쁨으로 빛나던 처녀의 두눈에 가느다란 구름발이 끼였다.

하지만 인츰 그 구름발을 걷어버린 그는 태연히 대답하였다.

《네, 접니다. 한정아예요.》

《이게 몇해만이요?》

표무강쪽에서 먼저 내민 솥뚜껑같은 손을 마주잡은 한정아는 상대방이 힘껏 흔드는대로 내버려두었다.

실로 몇해만의 해후였다.

누가 먼저 그랬는지 두사람은 마주잡았던 손을 슬며시 놓아버리고말았다. 표무강과 한정아는 약속이나 한듯 자기들의 가슴속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때의 일을, 련대군의소에서 헤여지던 지난날을 생각하였던것이다. 만약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들은 사선을 함께 헤쳐온 친근한 벗으로 즐겁게 회포를 나누었을것이다.

그들사이에 드리워진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린 사람은 표무강이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한정아는 깍듯한 어조로 답례하였다.

《전쟁시기 대학을 마저 나오고 지금은 신문기자로 있습니다.》

표무강은 그사이에 처녀가 퍼그나 달라졌음을 알아보았다.

전쟁시기 보았던 애티나는 단발머리는 성숙미를 돋구어주는 굽실굽실한 파마머리로 바뀌였고 더욱 아름다와진 얼굴은 세련미가 풍기는 녀기자의 인품에 잘 어울렸다. 뿐만아니라 딱벌처럼 내쏘던 당돌한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마 그래서 자기가 한정아를 인차

알아보지 못한것 같았다.

변하지 않은것은 누구든 한번 부딪치기만 하면 어쩔수없이 그속으로 끌려들어갈것만 같은 맑고 큰 두눈이였다.

문득 한정아를 처음 만나던 때 그 호수같은 눈동자속에 풍덩 빠지면 영영 솟구쳐나오지 못할것 같아 속으로 겁먹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오늘, 어깨우에 왕별을 올려놓은 지금에도 그윽하게 빛나는 두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공연히 헛기침을 깇은 표무강은 손수레에 손을 뻗쳤다.

《내가 좀 몰아보기요!》

《저, 일없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해서 고개를 돌린 표무강은 처녀의 눈길이 자기의 허리에 박혀있는것을 보았다. 헤여진지 몇해가 지났지만 그는 자기가 부상당했던 일을 잊지 않고있는것이다.

세상에 자기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표무강은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한정아가 자기를 동정하는것 같아서였다. 아무튼 한창나이의 인민군장령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닌것이다.

《걱정마오.》

퉁명스럽게 대답한 표무강은 손수레를 잡자마자 왈칵 앞으로 밀었다.

놀라서 뒤로 물러났던 한정아가 따라오며 뭐라고 말하였으나 들은척 않고 맹렬히 내달렸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신세가 되였단 말인가?

달려가던 기세로 몰탈을 휘틀속에 처넣은 표무강은 건설자들이 자기의 앞가슴을 힐끔힐끔 보는것을 알았지만 그냥 돌아섰다. 낯도 코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쟁시기에 받은 훈장들이 여러개나 있지만 난 군공메달이 제일 좋소 하고 설명할순 없는것이다.

널판자에서 탈선된 빈 손수레를 도로 올려놓으려고 힘을 쓰는데 허리가 시큰거렸다.

《음!》

뾰족한 쇠꼬챙이가 박힌것처럼 쑤셔났는데 그 아픔이 어찌나 심한지 잔등으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속에서도 한정아가 지켜본다는 생각이, 자칫하면 처녀앞에서 망신할수 있다는 자각이 갈마들었다.

또다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겨우 씹어삼킨 표무강은 처녀가 있는 곳으로 씩씩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대신 작은 편리화자리만 또렷이 남아있을뿐이다.

어디 갔을가?

뛰뛰!— 하는 다급한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에 눈길을 던지자 초조한 얼굴로 시창밖을 내다보는 운전수의 모습이 띄였다.

옆으로 지나가는 건설자에게 손수레를 넘겨준 그는 찝차쪽으로 걸어갔다.

2

묵직한 창가림이 드리워진 창문, 그앞에 놓인 량수책상, 구석에 웅크리고있는 든든한 철궤…

번쩍거리는 가구는 없었지만 그 단순하고 겉치레없는 꾸밈새로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위압감을 주는 방이였다.

방안에 들어선 표무강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을 보다가 놀랐다.

문건철을 차근차근 번지고있는 그는 로성익이였던것이다.

그때 그는 전선을 넘자 전선사령부로 올라갔는데 풍문에는 민족보

위성으로 소환되였다고 하였다. 그랬던 그가 전쟁이 끝난지 두해가 지난 오늘 인민군검찰일군의 신분으로 나타난것이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하필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날줄이야.

지난날의 감정이 어떠하였든지 로성익은 한때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한 전우였다.

《안녕하십니까?》

문건철우에서 머리를 쳐든 로성익은 반갑게 거수경례하는 상대방을 알아보았으나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짓으로 방가운데 놓여있는 나무걸상을 가리켰다.

《거기 앉소.》

표무강은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으니 그가 권한 걸상은 피의자들을 위한 걸상이였던것이다.

상봉의 기쁨으로 들끓던 가슴은 취수구를 열어놓은 저수지마냥 서서히 가라앉았다.

다음 말을 어떻게 떼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성익은 서늘한 눈길을 문건철에 박았다.

《?!》

비로소 자신이 검찰기관의 호출을 받은 몸이라는것을 깨달은 표무강은 나무걸상에 천천히 앉았다.

머리속에 그럼 로성익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몇해가 지난 오늘도 변함없는 랭담한 얼굴과 피의자들의 엉치에 쓸려 반들거리는 나무걸상은 그가 전쟁시기 련대에 내려와있던 전선사령부 대표가 아니며 따라서 자기들의 관계도 그전과 퍽 달라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있었다.

이윽고 문건철에서 눈길을 뗀 로성익은 이제는 사업에 착수할 때가 되였다는듯 틀스러운 자세를 취하였다.

《확인할 문제가 있어 찾았소.》

《…》

《지난주 일요일 오후 어디에 갔댔소?》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던 표무강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있다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다.

《검사동지!》

그 부름소리는 로성익의 메마른 목소리에 동강났다.

《난 상급검사요.》

위엄있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기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미안합니다. 상급검사동지!》

로성익의 얄팍한 입술에 희미한 웃음이 어렸다.

《그날 있은 일을 말해보오.》

그렇다 하고 속으로 뇌인 표무강은 곰곰히 돌이켜보았다.

그날 그는 기숙사에서 전쟁전에 다른 대대를 이끌고 의거하였고 전쟁시기 사단장으로 싸웠으며 전후 고급군사학교에도 같이 입학한 강성무와 오전내껏 공부를 같이하였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잉크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또 밤늦게까지 공부했었다.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로성익은 따지듯 물었다.

《시장에서 다른 일은 없었소?》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오. 만난 사람이 있겠는데…》

《없습니다.》

뭔가 알아내려는듯 로성익은 집요하게 뜯어보았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는 여유있는 동작으로 상체를 쏘파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였다.

《난 동물 솔직한 사람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지 표무강은 알수 없었다.

언제나 론리가 정연하고 공과 사를 명백히 가르던 사람이 오늘은 무엇때문에 빙빙 에도는가. 차라리 직방 말할게지.

속이 답답해서 장령복단추를 열어제꼈으나 별로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로성익의 목단추처럼 꼭꼭 닫겨있는 창문들을 활짝 열어제끼고싶었다.

그러는데 로성익이 문건철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자가 낯익지 않소?》

그가 내민 사진을 들여다보던 표무강의 두눈에서 불꽃이 벙긋 튕겨났다.

납작한 캡을 쓰고 가죽잠바를 입은 사나이는 분명 허정효였던것이다.

이자의 사진이 어떻게 상급검사의 손에 들어갔는가?

《말해보오. 허정효와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이젠 솔직히 말할 때가 된것 같은데 하고 재촉하는 눈길과 마주치자 표무강은 기가 막혔다.

내가 언제 그자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단 말인가?

사진을 넘겨받은 로성익은 더 론의할 여지가 없다는듯 단호한 어조로 내뱉았다.

《허정효는 지금 우리한테 잡혀있는데 심문과정에 그날 시장에서 동물 만났다고 했단 말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표무강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허튼소립니다. 난 그자를 만난적 없습니다!》

문건철에 사진을 도로 끼워넣은 로성익은 엄한 기색을 지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게 좋을거요.》

《도대체 뭘 털어놓으라는겁니까?》

미간을 찡그린 로성익은 뻘건 지장이 찍혀있는 종이장을 꺼내보였다.

《이게 뭔지 아오? 고용간첩 허정효의 진술서요.》

표무강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눈길로 그의 손

에서 펄럭거리는 종이장을 보았다.

《동문 지금 내가 허정효의 진술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내 말이 옳소?》

상대방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로성익의 비상한 통찰력은 여전하였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동문 허정효와 륙사동창생이지?》

표무강은 속이 불끈거렸다.

전쟁시기에도 이 사람은 그와 비슷한 질문을 했었다.

어째서 자꾸만 그 문제를 강조하는가? 도대체 여기에 륙사동창생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동문 법기관앞에 성근한 태도를 취해야 하오.》

로성익의 위풍당당한 태도를 보면 이미 자기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 같았다.

《난 말할게 없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울수 있느냐는듯 지그시 노려보던 로성익은 진술서를 넘겨주었다.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거요.》

표무강은 마지못해 진술서를 들여다보았다.

…미군첩보장교 에드윈 하불은 나에게 표무강씨를 남으로 데려오라는 특수임무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루이틀에 생각해낸것이 아니라 표무강씨가 대대를 이끌고 북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진척시켜온 계획이였습니다. 그는 표무강씨를 《국군》군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리승만《대통령》의 임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북으로 들어온 후 나는 표무강씨를 만나려고 기회를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 일요일 오후, 드디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 표무강씨가 외출하는것을 발견한 나는 그의 뒤를 따르다가 시장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를 경계하였습니다. 우린 이전에는 가까운 륙사동창생이였지만 전쟁시기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으니 그 심정은 충분히 리해되였습니다. …

허정효, 이 독사같은 놈!

또다시 눈길을 진술서에 박았으나 글줄이 마구 흔들렸다. 다만 자기가 월남계획에 찬동하였으며 만약 허정효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월남하여 《국군》장성이 되였을것이라는 내용을 겨우 알아보았다.

심장이 뚝 멎는것 같았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쨌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원쑤가 앞에 있다면 갈기갈기 찢어죽이고싶었다.

《다 봤으면 이리 주오.》

로성익의 딱딱한 말소리에 표무강은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눌러버렸다.

《상급검사동진 어째서 이런걸 나한테 보여주는겁니까? 혹시 나보다 그자의 진술을 더 믿는게 아닙니까?》

넘겨받은 진술서를 문건철에 끼우던 로성익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건 상급검사가 판단할 일이요.》

《!》

그렇다. 이 사람은 나를 옛 전우가 아니라 사건혐의자로 보고있다.

자리에서 일어난 로성익은 습관적으로 군복자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오늘은 이만하기요. 후에 다시 찾겠으니 잘 생각해보오.》

걸상에서 몸을 일으킨 표무강은 뒤로 돌아섰다.

《가만!》

《?》

《한가지 묻기요. 동문 다른 훈장들은 어떻게 하구 왜 군공메달만 달고 다니오?》

군공메달을 내려다본 표무강은 숨을 크게 내쉬고나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듯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 군공메달은… 내 생명입니다!》

3

허정효는 팔베개를 하고 나무침대우에 누워있었다.

몸에는 비록 한장의 모포를 둘렀지만 마음은 푹신한 비단이불을 덮고있는것처럼 뜨뜻하다.

조금 있자 한동안 잊어버렸던 질탕한 쟈즈곡이 귀전에 들려오더니 허리와 다리가 저절로 들썩거렸다.

이런 땐 고놈의 계집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년은 사내를 무릉도원으로 끌고 가는 솜씨도 괜찮지만 춤가락 또한 사람들의 넋을 빼앗을만큼 뛰여났어. 흠, 인간이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나처럼 독한 사나이가 연약한 풀잎사귀같은 계집한테 끔짝 못하다니. 그년은 지금 뭘 하고있을가? 혹시 하불의 몸뚱이밑에 깔려가지구 교성을 지르고있는게 아닐가? 그때 그자가 그년한테 눈독을 들이고있었거던. 퉤, 더러워서… 하지만 각하, 한발 늦었소그려. 그년의 배안에는 이미 내 씨가 박혀있단 말이요.

속으로 뇌까리던 허정효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표무강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전투부대에 쫓겨갔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어깨우에 초라한 소위계급장을 올려놓은 허정효는 이를 사려물고 미친듯이 싸웠다.

다른 소대들은 《공산군》이 공격하면 꽁지가 빳빳해서 달아났지만 그는 도망치는 사병들을 권총으로 쏴갈기며 목이 터지게 돌격을 부르짖었다.

어느날 허정효는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독사같은 상관이 죽은줄로 안 사병들은 쏘던 이를 뽑은것처럼 시원해하며 얼씨구 좋구나 하고 달아났다.

그날 밤 오랜만에 발편잠을 자던 사병들은 《집합!》 하는 고성에 놀라 깨여났다.

어디서 소대장같은 독종이 나타났어 하고 투덜거리며 뛰쳐나오던 사병들은 말뚝처럼 굳어졌다.

피흐르는 어깨를 싸쥔 허정효가 자기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염라대왕이 그만 출석부를 잊어버렸나? 저놈은 과연 명두 길구나!

사병들이 수군수군하는데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앙칼진 목소리가 터졌다.

《난 부상당한 상관을 버리고 달아난 너희들의 죄를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화랑도정신>을 줴버린데 대해선 용서할수 없어서 지옥의 문앞에서 다시 돌아섰다. 1렬 뒤로 돌앗!》

앞에 선 사병들이 뒤로 돌아서자 소대는 두줄로 갈라졌다.

《뺨치기, 시작!》

철썩, 철썩…

대충대충 뺨을 갈기고있는 사병들을 노려보던 허정효는 매몰차게 뇌까렸다.

《상대를 넘어뜨린자는 취침해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자 당장 형세가 달라졌다.

히죽거리며 뺨치는 시늉을 내던 사병들이 별안간 사나운 이리로 둔갑하였다.

이쪽에서 힘껏 뺨을 갈기자 저쪽에서는 그보다 더 세게 후려갈긴다.

철썩…

철썩…

사병들은 죽기내기로 뺨을 치다못해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찼다.

《소위님!》

뼈대가 실한 이등병이 선참으로 손을 쳐들었는데 그의 발밑에 한 사병이 나딩굴고있었다.

허정효가 턱짓으로 천막쪽을 가리키자 이등병은 으쓱해서 뛰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뺨치기는 더욱 맹렬해졌다.

반시간이 지나자 그 자리에 서있는 사병은 하나도 없었다.

이발이 부러지고 코등이 깨여진 사병들이 가까스로 일어나자 허정효는 소리쳤다.

《기립, 또 시작하라!》

또다시 반시간이 지나자 한개 분대가량 되는 사병들이 남았다.

경멸에 찬 눈길로 쓰러진 사병들을 노려보던 허정효는 씨벌여댔다.

《너희들은 약자들이다. 오늘은 동료한테 맞아서 넘어졌지만 래일은 공산군에게 맞아죽는다. 알겠는가?》

상관의 말이 떨어지자 사병들은 이를 사려물고 하나둘 일어났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듯 사납게 물어뜯고 별의별 지랄을 다 부렸지만 구세주처럼 믿고있는 상전은 이쪽에 대고 방귀 한번 뀌지 않았다.

분통이 터져 애꿎은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던 허정효는 용기를 내여 하불을 찾아갔다.

상전은 아는척도 하지 않고 손톱을 깎기만 하였다.

그것은 로골적인 랭대였고 무시였다. 하긴 표무강을 귀순시켜 미국의 위신을 올려세우려던 당초의 계획이 틀려진데다 조선전쟁에서 패하기까지 한 판에 싸움판에서 죽으라고 내버렸던 번견이 살아왔으니 반가울리 만무한것이다.

허정효는 그 푸대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대신 목구멍을 타고넘어간 치욕은 지옥에 가서라도 표무강을 물어뜯고싶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바뀌였다.

어푸러지듯 하불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린 그는 눈물을 좔좔 쏟으며 울부짖었다.

《각하, 절 이북에 보내주십시오.》

때깍때깍하던 소리가 멎었다.

《이북에?》

《예, 표무강을 복수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수하겠다는거요?》
상전이 호기심을 드러내자 허정효는 이미전부터 세워온 계획을 설명하였다.
《차도살인이라… 흥미있소.》
《각하, 내 뼈를 갈아서라도 기어이 그자를 복수하겠습니다.》
부하의 말을 듣고 노랑눈을 뱅글뱅글 굴리던 하불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며칠후 허정효는 간첩훈련소에 들어갔다.
살인기술, 폭파기술, 미행술…
그 훈련은 별로 새로운것이 아니였지만 그는 남보다 늦게 잠들고 일찍 깨여났으며 일단 훈련이 진행되면 성난 독사같았다.
간첩훈련소에서는 그를 두고 훌륭한 첩자가 될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간첩훈련소를 졸업한 뒤 허정효는 하불의 호출을 받았다.
《받소.》
랭소를 지은 하불은 표무강을 《국군》군단장으로 임명한다는 《대통령》임명장을 내주었다.
《이건 당신에 대한 나의 마지막믿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허정효는 잔등이 오싹하였다.
그렇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
그는 날카로운 송곳이로 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내가 누구때문에 파멸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는가? 표무강, 바로 너때문이다. 너는 공화국의 신임을 얻었지만 난 상전의 버림을 받고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잃었다. 그렇다고 이 허정효가 순순히 물러날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내 이제 네가 두고두고 후회하게 해주마!
이렇게 되여 북에 들어온 허정효는 의도적으로 공화국내무기관에 붙잡혔고 한동안 뻗치는척 하다가 《월남계획》을 털어놓았던것이다.

그야말로 독사는 죽는 순간까지도 독사였다.
허정효는 지금쯤 공화국검찰기관에서 진술서내용을 확인하려고 표무강을 호출하였을것이라고 짐작하였다.
간첩과 언제 만났는가? 언제 월남하려고 하였는가?
성미가 불같은 표무강은 공화국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칠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것이다. 그한테는 륙사동창생을 《자유세계》로 데려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간첩의 진술서와 《대통령》임명장이 증거물로 남아있기때문이다. 필경 공화국은 《배반자》인 표무강을 엄벌에 처할것이다. 차도살인! 세상에 남의 칼을 빌어 원쑤를 죽이는것처럼 통쾌한 복수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쯤되고보니 표무강때문에 잡치였던 기분은 꺼져버리고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침대에서 일어난 허정효는 녀자의 매출한 허리를 그러안고 춤추는 시늉을 하기 시작하였다.
쿵짝짜, 쿵짝짜ㅡ
어둡고 좁은 감방이지만 넓고 화려한 무도장이라고 상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래, 이런 쾌감을 어찌 계집년을 깔고타는 재미에 비긴단 말인가.
그날이, 표무강이 공화국의 버림을 받는 그 통쾌한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만족스러워진 그는 핫핫핫 하고 웃어댔다.

4

복구건설의 벅찬 하루가 저물고있었다.

이른아침부터 혼합기소리와 함마소리, 웨침소리로 들끓던 수도의 거리는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에야 조용해졌다.

그무렵 열정적인 건설자들은 보람찬 일과의 다음 장을 펼치고있었으니 아직은 손이 모자라 미처 꾸리지 못한 공원으로 땀내풍기는 작업복을 그대로 걸친 청춘남녀들이 쌍쌍이 모여들었던것이다.

봄안개마냥 따스한 빛을 뿌리던 가로등은 폭격에 흔적없이 날아나고 갖가지 꽃들이 피여있던 화단도 산산이 깨여졌으나 사랑으로 충만된 심장들은 깊어지는 밤과 더불어 세차게 높뛰고있었다.

그들중에는 고급양복을 미끈하게 차려입은 멋쟁이청년과 나란히 걷고있는 한정아도 있었다.

건설장에 취재나갔던 그는 신문사정문앞에서 오래동안 기다리던 대학동창생을 만나 이곳으로 왔었다.

이목구비가 훤칠한 총각은 아름다운 용모와 세련된 몸가짐을 한 미인과 함께 거니는것이 자못 행복한듯 웃음을 짓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있었다.

한정아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였지만 왜서인지 며칠전의 일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그날 그는 다른 단위들보다 복구건설을 먼저 끝내고 생산을 시작한 어느 한 기계공장에 취재나갔었다.

당위원회에 찾아가니 빈방을 지키고있던 젊은 지도원(당시)이 당위원장부터 만나라고 하였다. 전쟁시기 정치부련대장으로 싸운 그는 공장을 일떠세우는 전기간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침식하며 성실하게 일한 당일군이라고 한다.

현장에 나간 한정아는 공기함마를 붙잡고 씨름질하는 당위원장을 만났는데 뜻밖에도 그가 김흥선일줄이야.

《문화부련대장동지!》

《이게 누구요? 정아동무가 아니요?!》

반가운 나머지 두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사선을 헤치는 험로에서 맺어진 사람들의 우정이란 그렇듯 진실하고 뜨거운것이리라.

한동안 회포를 나눈 끝에 김흥선은 불쑥 표무강을 만나보았는가 물었다.

표무강이라는 이름이 튀여나오자 한정아는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건설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몇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자기를 정아가 아니라 굳이 정치공작대원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날 한정아는 신문사에서 급히 찾는다는 련락을 받고 건설장을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혹 자기가 그곳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야속한 감정만 쌓이고 그로 하여 전쟁시기에 생긴 마음속 상처가 더 커졌을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난 김흥선은 몹시 아쉬워하였다.

《정아동무, 그러지 말구 그 친구 주소를 대주겠으니 한번 찾아가보오.》

《네에?》

김흥선은 재미있다는듯 싱글싱글 웃었다.

《허허, 내가 잘못 말한것 같진 않은데…》

한정아는 새침한 어조로 허공에서 떠도는 그의 푸수한 말소리를 밀어버렸다.

《아이참, 제가 무엇때문에 그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허, 사람일은 모르지.》

김흥선과 헤여져 신문사로 돌아오는 한정아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전쟁시기 대학으로 떠날 때 처녀는 자기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는 그를,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헤집어놓은 무정한 남자를 영영 잊으려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차츰 깨달았다.

어느날 대학에 전선에서 소환된 대학생출신 전사들이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옆구리를 부상당한 청년이 있었다.

강의시간에 부상처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는 그를 동정의 눈길로 지켜보던 한정아는 련대군의소에 입원해있던 표무강이 생각났다.

그도 저 동무처럼 몹시 고통스러워했지. 지금 어디에서 싸우고있을가?

그러던 처녀는 시무룩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젠 그 사람은 남이야. 아무렴, 남이구말구.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잊혀질줄 알았던 그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안겨들었다.

위험한 벼랑길에서 자기를 구원해주던 름름한 모습으로 혹은 담가에 누워 련대를 지휘하던 불굴의 모습으로…

표무강의 존재는 잔잔하던 처녀의 가슴에 심상치 않은 파문을 일으키군 하였다.

그 감정은 얼마전 민족보위성에 출장왔다가 신문사에 찾아온 인민군군관 리경일을 만난 다음부터 더 강렬해졌다.

《련대장동지 군복을 기워준적이 있었다지요?… 그때 유지에 쌌던 편지가 생각납니까?》

왜 생각나지 않으랴.

유지로 꽁꽁 쌌던 그 편지!

추연한 기색을 지은 리경일은 편지에 담긴 한 처녀의 깨끗한 순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정아는 애인의 장한 뜻을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신애라는 처녀의 순결무구한 정신에 감동되였고 또한 이루지 못한 그들의 사랑이 너무도 아쉬워 눈물을 머금었다. 한편 여러해가 지났지만 애인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자나깨나 그를 잊지 않고있는 표무강이 돋보였다.

그런줄도 모르고 목석같은 남자라고 욕했구나!

불현듯 전쟁시기 샘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사람을 삭갈렸다고 했었지. 이제 보니 그가 바로 신애였구나! 아, 그 처녀 얼마나 행복할가. 죽어서도 숯불처럼 뜨거운 사나이의 사랑을 받고있으니 말이야. 그런 사랑이야말로 이 땅의 처녀라면 누구나 받고싶어하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일거야.

그런데 오늘 김흥선을 만나고보니 건설장에서 만났던 표무강의 의젓한 모습이 안겨오면서 가슴이 마구 설레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했으나 처녀의 몸으로 먼저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

《무슨 생각을 하오?》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처녀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아이, 미안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니요?》

사려깊은 눈길로 건네다보는 청년의 얼굴에는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관계없이 정아동무와 함께 나누고싶소 하는 곡진한 심정이 어려있었다.

한때 《헤염사건》으로 온 대학을 들었다놓은 차경준, 그후 외국으로 류학을 떠났던 그는 전쟁이 끝나자 지난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것이다.

《정아동문 그새 더 아름다와졌소.》

마치 송가라도 부르듯 차경준은 처녀의 아름다움을 기탄없이 찬미하고있었다.

《아이참, 경준동지두.》

처녀가 얼굴을 붉히자 그는 두번째 송가를 읊기 시작하였다.

《결국 동문 성공했구만!》

《네?》

《대학을 졸업하고 쟁쟁한 신문기자가 되였으니 말이요.》

《…》

처녀의 얼굴을 슬쩍 살펴본 차경준은 허심탄회한 어조로 말을 이

었다.
《동문 날 욕하겠지?! …전공을 배반했다고. 하지만 전후복구건설에 실지로 필요한건 서정시나 기사가 아니라 기계나 강철, 운수기재 같은게 아니겠소. 난 어문학부를 나온 덕에 류창한 언변과 림기응변으로 대방과의 면담을 능숙하게 처리해서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고있소. 그러니 날 나쁘게 생각하진 말아주오. 아, 주의하오!》
그가 소리치는 바람에 한정아는 가볍게 놀라며 멈춰섰다.
발앞에 아직 메꾸지 못한 폭탄구덩이가 아가리를 쩍 벌리고있었다.
어둠속에서도 위험개소를 제때에 발견하고 알려준 차경준은 처녀가 그곳을 에돌 때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듣자니 정아동문 2천리가 넘는 적후를 뚫고 왔다고 하더구만.》
《…》
《대단하오. 처녀의 몸으로 그 먼길을 걷는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요?》
《그땐 다들 그랬답니다.》
차경준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밤대기를 타고 은은하게 들려왔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난 자주 대학시절을 회상하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제일먼저 떠오르는게 바로 정아동무의 모습이였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무슨 정신에 그처럼 천박하게 처신했는지 리해되지 않소. 그렇지만 그 <헤염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상봉도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보오.》
이야기를 끊은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달빛에 번쩍거리는 외국제시계는 무역일군인 그의 품위를 돋구어주었다.
《시간이 너무 늦었구만.》

그러지 않아도 표무강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번거로운 한정아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창생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싶지 않아 그럼 먼저 실례하겠다고 말하였다.
《밤이 깊었는데 일없겠소?》
차경준은 처녀가 승낙한다면 제꺽 따라나설 자세였다.
《괜찮아요.》
녀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남성들이 항용 그러하듯 차경준은 인자한 표정을 짓고 바래주었다.
《정아동무, 후에 또 만나기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와 헤여진 한정아는 마치 둥지에서 벗어난 새가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오르는것 같은감을 느꼈다. 오늘 저녁 차경준이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수 없었다.
처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따끔하는 아픔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야속함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눈굽이 따거워났다.
문득 표무강을 만나보라고 하던 김흥선의 권고가 생각났다.
신문사에서 고급군사학교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마음만 내킨다면 언제든지 찾아갈수 있다. 그러나…
처녀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전쟁시기 대학으로 떠날 때 있은 일이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던것이다.

5

세상에는 우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길가에서 오랜만에 옛친구를 만난다든가 혹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편지가 책갈피속에서 불쑥 나타난다든가 등등.

그가 공원을 나서는 한정아를 띄여본것도 역시 우연이라면 우연이였다.

검찰소에서 돌아온 후 가슴속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 억울한 심정을 묵새길수 없어 며칠동안 속을 앓다가 오늘 저녁 발길이 닿는대로 거닐던 끝에 이곳으로 찾아든 표무강이였다.

교교한 달빛이 흐르는 공원을 거닐자 마음이 한결 진정되는것 같았다.

까짓거,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심호흡을 크게 하고났는데 가까운 곳에서 《정아동무, 후에 또 만나기요.》 하는 바리톤음성이 들려왔다.

처음은 그저 세상에 이름이 같은 처녀도 있구나 하고 심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네,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처녀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른아침 나무잎사귀에서 굴러내리는 이슬처럼 맑고 싱싱한 목소리!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더라 하고 생각을 더듬는데 때마침 처녀가 이쪽으로 곧추 걸어왔다.

달빛에 환히 드러난 동그스름한 얼굴!

표무강은 두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 미색양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처녀는 분명 한정아였다.

건설장에서 만났던 처녀, 손수레를 끌고 돌아와보니 온데간데 없어졌던 한정아가 공원에 나타난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란 말인가?

피뜩 떠오르는것이 있어 처녀의 어깨너머로 눈길을 던졌다.

아닌게 아니라 저쯤에 고급양복을 쭉 빼입고 서있는 멋쟁이가 보였다.

그럼 저 친구가 정아의?!…

쩌릿한 전류 같은것이 온몸을 타고 흘러갔다.

사실 한정아는 총각이라면 누구나 욕심낼만 한 처녀다. 얼굴도 아름답지만 정신세계는 또 얼마나 높고 고상한가. 게다가 마음씨도 비단결같다. 그런 처녀와 일생을 같이하는건 그야말로 행복이다. 가만, 내가 여기에 왜 멍청해서 서있는가? 빨리 피하자!

생각은 뻔하지만 어떻게 된건지 두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한정아가 몇발자국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숨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전번처럼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아쉽게도 처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채 앞을 스쳐지나갔다.

《?》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쓸쓸해졌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자기의 심중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있었다.

그날 건설장에서 한정아를 만났을 때 표무강은 가슴속에서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심장이 후둑, 후두둑 뛰였었다. 그때는 몇해만에 만난 처녀가 반가와서 그러는것이라고 짐작하였었는데 후에 생각해보니 그것만도 아니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신애의 갸름한 얼굴이 떠오르군 하였지만 어느새 한정아의 동그스름한 얼굴로 바뀌였다. 우뜰 놀라 그 모습을 지워버리면 처녀는 다시 나타나 신애와 함께 사이좋게 샘터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조용히 군복을 깁기도 하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혹시 그 처녀를?…

자기의 심장속에는 오직 신애만이 꽉 들어있다고 확신해온 그로서는 날이 갈수록 가슴속에서 커가고있는 한정아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님처럼 밝기도 하고 혹은 비구름처럼 어둡기도 한 그 예쁜 얼굴은 사나이의 마음을 괴롭히다가 점차 스러지는 노을마냥 자취를 감추었었다.
표무강은 자기와 한정아의 관계가 끝났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잠시 멎어섰던 운명이라는 기차는 차단봉을 꺾어버리고 기운차게 내달리고있었다.
어느날 김흥선이 지나가는 길에 들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그는 한정아를 만났댔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만났댔네.》
쓰겁게 대꾸하는 친구를 보며 싱글벙글 웃고있던 김흥선은 책망하였다.
《사내대장부가 왜 그리 옹졸한가? 그러지 말구 자네가 먼저 찾아가보게.》
그 말을 듣자 정말 신문사에 찾아가고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랬으나 한정아의 새침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 생각은 쑥 기여들어가버렸다.
《지금은 바쁘네.》
그랬었는데 오늘 공원에서 한정아를 띄여본것이다.
이제라도 찾을가? 그러다가 혹시…
가슴속에서 모순된 두 감정이 맹렬하게 부딪쳤지만 끝내 처녀를 만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가 금시 처녀를 찾으려는데 뒤에서 바리톤음성이 날아왔다.
《정아동무, 잠간!》
저쯤에서 또각거리던 처녀의 구두소리가 멎었다.
알싸한 고급향수내를 앞세운 멋쟁이는 보란듯이 앞을 스쳐지나

갔다.
《미안하오. 한가지 잊었댔소.》
한달음에 처녀앞으로 달려간 그는 뭐라고 속삭이였다.
한정아도 알겠다는듯 고개를 까딱거렸다.
《!》
표무강은 마치 손에 쥐고있던 귀중한 보석을 남에게 빼앗긴것 같은 기분에 속이 허우룩해졌다.
문득 품속에 들어있는 편지가 생각났다.
보풀이 허옇게 일어서 연필로 덧쓰고 또 덧쓴 그 편지, 비에 젖을가봐 유지로 꽁꽁 싸고 소중히 간수해오는 신애의 편지!
처음은 죄의식이, 그 다음은 따스한 물결이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그래, 내 가슴속엔 언제나 신애가 있다. 그러니 절대로 외롭지 않아.
마음을 다잡은 표무강은 성큼성큼 공원을 벗어났다.

6

친구의 집앞에 이른 표무강은 흠흠해났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반토굴, 산중턱을 파고 아웅하게 문을 낸 볼품없는 집이였지만 문손잡이만은 잘 생겼다. 비록 고대광실문에 달려있는것처럼 우아하지는 못해도 작고 통통하게 만든 쇠손잡이에는 어려운 속에서도 행복한 살림을 착실하게 꾸려나가는 집주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문손잡이를 잡고 서있느라니 겨울날 뜨뜻한 방에 들어선것처럼 가슴이 훈훈해지며 검찰소에 불리워갔던 일이며 좀전에 공원에서 있었던 사실이 별치않은것처럼 생각되였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안개발같은 김이 쓸어나왔다.

뿌옇고 눅눅한 김발속으로 낯익은 얼굴이 헤염치듯 나타났다.
《아,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뻗치고 서있나?》
《…》
《여보, 뭘 하고있소? 왕별을 단 장령이 왕림하셨는데…》
평시 롱을 하지 않는 김홍선이였으나 오늘은 그답지 않게 너스레를 떨었다.
문안으로 들어서자 코구멍만 한 부엌에서 팽이처럼 돌아가던 안주인이 《어야나?》 하고 손벽을 치며 반겨맞았다.
《련대장동지! 어서 오십시오.》
《주옥동무, 잘 있었소?》
전쟁시기 련대군의소 간호원이였고 지금은 친구의 안해인 신주옥을 향해 씩 웃어보인 표무강은 집주인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천정이 낮은 반토굴이였지만 바닥에 노란 장판을 하고 벽에는 흰종이를 깨끗하게 발랐다. 퇴창가에는 주름종이를 동그랗게 둘러감은 백일홍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요란한 가장집물은 없었지만 집안의 구석구석에서 안주인의 깐지고 섬세한 일솜씨가 엿보였다.
방아래목에 배추잎사귀만 한 모포를 덮고 잠든 총각애를 알아본 표무강은 그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이녀석 제 엄마를 닮았군. 아니, 입술은 아버지를 닮은것 같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표무강은 바지주머니에서 짬시간마다 깎은 나무권총을 꺼내여 세상모르게 자고있는 총각애의 머리말에 놓아주었다.
바쁜데 언제 그런것까지 깎을 사이가 있느냐고 나무라듯 친구를 흘겨본 김홍선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뭘 하오? 빨리 들여오지 않구.》
김이 문문 피여오른 문짬으로 얼굴을 내민 주부는 활짝 웃으며 남편의 말을 받아넘겼다.

《아이참, 여기가 뭐 당신네 공장인줄 아세요?… 헌데 밥상도 놓지 않고 뭘 하는거예요?》
《어, 내 정신봐나.》
친구앞에서 가장의 위세를 뽐내려다가 되려 코를 떼운 김홍선은 방 한쪽에 세워져있는 밥상을 끌어당겼다.
밥상을 펴놓기 바쁘게 음식그릇들을 올려놓은 안주인은 옛 련대장의 손을 잡아끌었다.
《차린건 없지만 그릇들을 다 비워야 물러날수 있다는걸 아십시오. 호호호.》
《주옥동문 여전하구만.》
표무강의 말에 친구는 기분이 좋아서 받아넘겼다.
《이 사람이 다른건 몰라두 음식은 좀 할줄 안다네.》
표무강은 행복한 부부를 보며 진심으로 부러워하였다.
《자넨 복이 있구만.》
《무슨 소릴?… 자네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나?》
그것은 전쟁시기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오후, 련대장의 호출명령을 받은 신주옥은 련대지휘부로 급히 달려왔다.
그런데 표무강은 웬 일인지 그를 유심히 보기만 하였다.
사실 그는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전번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신주옥의 모색은 김홍선의 안해와 신통하였다.
《동무한테 특별임무를 주겠소. 이 시각부터 동문 문화부련대장동무의 부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그의 곁에서 한발자국도 떠나지 말아야겠소.》
《특별임무》라는 말에 신주옥은 얼굴이 밝아졌다.
《알았습니다. 헌데 문화부련대장동진 저만 보면…》
표무강은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 많소?》

《알았습니다. 련대장동지!》

씩씩하게 대답한 신주옥은 종주먹을 쥐고 련대지휘부를 나섰다.

그날 저녁 표무강은 김홍선을 따로 만났다.

《자, 이젠 솔직히 털어놓게.》

다짜고짜 던진 그 말에 김홍선은 뜨아해하는 기색이였다.

《한사코 주옥동무를 피하는 리유를 털어놓으란 말일세.》

고지식한 친구는 나쁜 장난을 하다가 들키운 총각애처럼 쩔쩔매였다.

《그건… 그건…》

표무강은 76미리직사포마냥 직방 갈겼다.

《복실이때문에 그러지?》

정통을 얻어맞은 김홍선은 와뜰 놀랐다.

《자네… 알고있었나?》

《흥, 아무렴 내가 그만한것도 모를것 같나?》

일이 다 틀렸다고 생각한 김홍선은 이실직고하였다.

《난 처음 그 처녀를 보았을 때 복실이와 너무 신통해서 그만 삭갈릴번 했네. …》

그들의 화제에 오른 복실이란 김홍선의 안해였다.

어릴적부터 한마을에서 자란 당돌한 계집애, 한쌍의 원앙부부가 된 후 너무 고와서 저고리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싶던 안해.

그러던 그가 수욕을 채우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에게 정조를 더렵히지 않으려고 우물에 몸을 던질줄을 어찌 알았으랴.

처음 얼마동안은 안해가 자기옆에 없다는 사실이 통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깨여나면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며 수건과 세면물을 받쳐주군 하던 안해가 눈앞에 떠오르고 저녁에는 부뚜막에 올려놓았던 더운밥과 국을 차려주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생각나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였다.

뒤늦게야 자기가 착각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가 하고 몸부림쳤다. 눈에 넣어도 아플것 같지 않던 귀중한 안해를 잃고도 자기가 숨쉬고 움직인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이를 부드득 갈던 김홍선은 어느날 안해의 복수를 하고 곧장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공화국으로 넘어온 후 그 슬픔은 가슴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안해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함께 있군 하였다.

그러던중 련대군의소에 들렸던 그는 신주옥이라는 간호원을 보자 하마트면 《복실이!》 하고 찾을번 하였다.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이며 늘씬한 몸매랑 흰 이를 곱게 드러내며 웃는 활달한 모습도 신통히 안해와 같았다. 마치 죽은 안해가 살아난것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도 꼭같이 생긴 녀자도 있단 말인가.

그날 밤 김홍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싯거렸다.

겨우 아물었던 상처를 헤집어놓은 그 간호원처녀가 야속하였다. 한편 명색이 문화부련대장이라는 사람이 처녀앞에서 실수할가봐 은근히 겁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련대군의소에 내려갈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군 하였고 불가피하게 들린 경우에는 일을 끝내고 제꺽 돌아서군 하였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그 처녀를 보지 않으면 생활은 이전처럼 흘러갈것만 같았다.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정찰병들과 함께 적후에 들어갔던 그는 라지오를 로획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적들의 추격을 받았다. 교전중에 적탄이 오른쪽어깨를 심하게 긁어놓았는데 련대에 돌아온 후 일없겠지 하고 방심하였던 부상처가 독을 쓰기 시작하였다.

할수없이 련대군의소에 찾아갔더니 공교롭게도 자기를 처치해준 간호원이 신주옥이였다.

그 처녀가 부상처를 소독하는데 심장이 후두둑 높뛰였다.

어찌나 심하게 두근거리는지 혹시 간호원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가 하고 겁이 났다.

《문화부련대장동지, 어디 편치않습니까?》

처녀가 걱정스럽게 묻자 비지땀을 흘리던 김홍선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니 후에 오겠소.》 하고 군의소를 뛰쳐나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김홍선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신주옥은 련대장이 직접 준 《특별임무》를 수행하려고 이악하게 따라다녔다.

7대대에 내려가면 그곳에 나타났고 반땅크총소대에 들리면 거기까지 뒤쫓아왔다. 어제는 련대부에까지 찾아왔기에 박격포중대로 간다고 하고 달아났는데 3포장의 말을 들으니 그가 찾아왔다가 자기네를 혼내우고 돌아갔다고 한다.

《무강이, 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표무강은 시치미를 뚝 따고 셈평좋게 대꾸하였다.

《어떻게 하긴? 처치를 받으면 되지.》

뜨거운 불판에 올라선것처럼 김홍선은 한길이나 올리뛰였다.

《그래두 친구라고 믿고 털어놓았는데… 에익!》

화가 나서 돌아서는 그를 보며 표무강은 씩 웃었다.

며칠 지나 신주옥은 자신만만해서 련대지휘부에 찾아왔다.

《련대장동지, <특별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련대군의소 간호원 신주옥!》

《수고했소. 임무를 수행한 동무한테 련대장감사를 주오.》

뜻밖에 련대장감사를 받은 처녀간호원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참, 동무한테 한가지 알려줄게 있소.》

무슨 임무를 받든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결의로 충만되여있는 처녀에게 표무강은 김홍선이 안해를 잃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주옥은 몇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정이 곧 사랑은 아닌것이다.

하루는 신주옥이 조용히 표무강을 찾아왔다.

무슨 일인가고 묻자 처녀간호원은 손톱여물만 썰뿐 인차 입을 열지 못하였다.

《주옥동무, 말해보우.》

그제야 신주옥은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꼭지를 떼였다.

《저, 문화부련대장동진 마음씨도 착하고 아는것도 많지만…》

《그래서?》

《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가 급기야 빨개진 얼굴을 숙이는 처녀를 보자 표무강은 속이 답답해났다.

그 친구가 총각이 아니라는거지. 제길, 총각이면 어떻구 한번 장가를 갔댔으면 어떻다는건가?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신주옥의 심정도 리해되였다.

세상에 어느 처녀가 수많은 총각들을 두고 장가갔던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난 동무한테 사랑을 강요하진 않겠소. 하지만 한가지만은 말해주고싶소.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거요.》

그 일이 있은 후 신주옥은 표무강을 만나면 슬슬 피하군 하였다.

표무강은 속이 좋지 않았으나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김홍선이 전투에서 또다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를 많이 흘린 그는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제일먼저 군복소매를 걷어올리고 자기의 피를 뽑아 수혈해준 사람이 바로 신주옥이였다.

김홍선이 정신을 차리자 처녀는 그의 몸을 추세우려고 아글타글 애썼다.

하루는 처녀의 몸으로 잣나무우에 올라가 잣을 따다가 그만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었다. 그런데도 아픔을 참고 온밤 잣알을 까

고 죽을 쑤고는 혹시 김흥선이 자기를 보면 걱정할가봐 옆의 간호원한테 들려서 보냈다.

그가 잣죽을 다 내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듣자 신주옥은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아, 몹시도 정을 그리워하는 사람, 가슴속에 슬픔을 안고있으면서도 내색않고 전사들에게 자기의 정을 깡그리 바치는 착한 남자. 만일 그 아픔을 덜어준다면 그는 더 쾌활하고 더 억센 사람이 될거야. 그래, 바로 내가 그의 슬픔을 덜어주겠어. 친혈육이 되여 끝까지 돌봐줄테야!

바치고 또 바치고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씨는 처녀를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그때부터 신주옥은 김흥선을 진심으로 따랐다.

어느날 처녀는 씩씩하게 표무강을 찾아왔다.

《련대장동지, 그날 련대장동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심장으로 하는것이라고. 뭘 더 숨기겠습니까? 사실 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주저했댔습니다. 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전… 결심했습니다.》

표무강은 처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사랑을 어떤 타산이나 체면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진실한 리해와 헌신으로 이어가려는 훌륭한 처녀!

김흥선은 그가 자기한테 너무도 과분하다고 하면서 그냥 달아났다.

진정한 사랑앞에서는 하늘도 머리를 숙이는 법이다.

신주옥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은 굳게 닫겨있던 사나이의 심장의 문을 끝끝내 열어제꼈으니 김흥선은 일생 처녀로 늙을지언정 끝까지 동지를 따라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처녀앞에서 눈굽을 적시고야말았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한가정을 이루었고 다정한 부부는 떡돌같은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었다. …

《엄마!… 엄마!…》

《오, 우리 성철이가 깨났구나!》

아이를 끌어안은 신주옥은 활짝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애가 어찌나 순돌인지 깨나도 울지 않습니다. 꼭 제 아버지를 닮았지요 뭐.》

《여보, 쓸데없이…》

거북해하는 남편을 곱게 흘겨본 신주옥은 냅다 말해버렸다.

《련대장동지, 제 말이 틀립니까?》

웃음으로 수긍해준 표무강은 고사리같은 아이의 손에 나무권총을 쥐여주었다.

《공부하느라 바쁘시겠는데 언제 그런걸 다… 성철아, 삼촌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아이는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까딱거리며 종알거렸다.

《고맙…습니다.》

장난감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를 바라보던 신주옥은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련대장동지, 저희들의 결혼식날을 잊지 않고 찾아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제야 떨어졌던 가장의 위신을 추켜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한듯 김흥선은 밥상옆에 놓여있는 술병을 손에 들었다.

《자, 들자구.》

술잔을 단번에 비운 표무강은 진심으로 말하였다.

《내 다시말하지만 자넨 정말 좋은 안해를 만났네.》

김흥선은 정이 그득 고인 눈길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야 물론이지. 내가 몇달동안 공장건설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집을 짓느라 고생했다네. 그뿐인줄 아나? 자기는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국수를 눌러가지고 공장에 찾아와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네. 그바람에 당위원회가족들은 물론 공장간부들모두가 지원사업을 하느라고 법석 끓었다네.》

옹색해하던 주부가 남편을 시까슬렀다.

《여보, 제 녀편네 자랑하는 사람보구 뭐라는지 알아요?》
술이 한잔 들어가서 그런지 김흥선은 배포가 유해서 대꾸하였다.
《훌륭한 바보라고 하지.》
전쟁시기 엉뚱한 이야기로 전사들을 곧잘 웃기군 하던 그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방안에는 웃음판이 터졌다.
눈물이 찔끔 나도록 웃고난 표무강은 술을 가득 채운 잔을 신주옥에게 내밀었다.
《이 친구가 주옥동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걸 보니 기쁘구만. 자, 우리 련대전사들의 마음을 다 담은것이니 받소. 그리구 이 친구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오.》
억실억실한 신주옥의 눈에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련대장동지, 고… 고맙습니다.》
잠시후 주부는 많이 들라고 권하고나서 아이를 안고 방을 나섰다.
술이 몇순배 돌아가자 김흥선이 말을 꺼냈다.
《아까 보니 자네 낯빛이 좋지 않더군.》
표무강은 속으로 놀랐다.
집에 들어설 때 아무 내색도 않더니… 능구렝이같으니.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친구앞에서 표무강은 구태여 숨기고싶지 않았다.
하여 검찰소에 불리워갔던 일을 꺼내놓았다.
진술서이야기를 들은 김흥선은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 독사같은 놈이 자넬 해치려고 악을 쓰고있구만.》
표무강은 괴로운 모양 이마살을 찡그렸다.
《리해할수 없는건 상급검사가 어째서 내 말보다 허정효의 진술을 더 믿는가 하는걸세.》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있던 김흥선의 고개가 기웃해졌다.
《자네 그것때문에 우거지상을 했나?》
《기분이 좋을수야 없지 않나.》
술병을 덥석 집어든 표무강은 옆에서 말릴 사이도 없이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했다. 그 기세를 보면 병을 통채로 비울것 같았다.

《그만하게.》
친구의 손에서 술병을 나꿔챈 김흥선은 준절한 어조로 질책하였다.
《난 자네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줄은 몰랐네.》
표무강도 어지간히 화가 돋았다.
《내가 나약하다구? 자네 같으면 그런 오해를 받고…》
김흥선의 입에서 쏟아져나온 불같은 말이 그의 말을 동강냈다.
《그만하게. 그래, 자넨 군공메달을 앞가슴에 달고 다니기가 부끄럽지 않나?》
《뭐라구?》
표무강은 반사적으로 앞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 군공메달이 있는데 뭐가 두려운가. 응?》
비로소 자기를 돌이켜본 표무강은 고개를 숟며시 떨구었다.
《날 욕하게. 내 일만 일이라구 하면서 자넬 잘 돕지 못했네.》
표무강은 그러는 친구의 손을 꽉 잡고 허심하게 토설하였다.
《내가 잘못했네. 정신이 번쩍 들게 한대 후려갈기라구.》
김흥선은 싱글싱글 웃었다.
《허, 난 워낙 주먹이 약해놔서 그만두겠네.》
서로 마주보던 두 친구는 누가 먼저라고 할것없이 와락 끌어안았다.
《흥선이!》
《무강이!》
머리를 맞대고 비비던 두사람은 속이 후련하게 한바탕 웃었다. 믿음으로 맺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나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작은 반토굴집의 문밖을 뚫고나와 드넓은 하늘가로 울려갔다.

7

복구건설장에 나갔던 한정아는 밤늦게야 돌아왔다.

무거운 혼합물을 운반하느라 기운을 말짱 뽑고 나른해서 반토굴로 들어서던 그는 건설장에서 때없이 발견되는 폭탄과 맞다들렸을 때처럼 오똑 굳어졌다.

모녀가 오붓하게 살고있는 《녀자왕국》을 침범한 남자구두!

빠끔히 열린 방문안을 들여다보니 뜻밖에 외사촌오빠가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고있었다.

오빠가 왔구나! 가만,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두눈을 깜빡거리던 한정아는 그만에야 《어마나, 내 정신 봐!》 하고 깜짝 놀랐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의 생일이였던것이다. 그래서 여느때는 바빠서 옴짝 못하는 오빠도 찾아온것이고.

미안한 감정을 안고 방문을 열자 오빠가 반겨맞았다.

《오, 정아로구나. 잘 있었니?》

인사말을 받으며 한정아는 제발 오빠가 어머니생일소리를 꺼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하지만 로성익은 종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야말았다.

《넌 뭐냐? 어머니생일날이야 일찍 들어와야지.》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딸을 두둔하였다.

《바쁜데 무슨 생일이냐? 나두 좀전에 돌아왔다.》

긍지높게 울리는 그 말속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종이공장을 그전보다 더 크게 건설하려는 녀성지배인의 배심이 엿보였다.

손가방을 방구석에 내려놓은 한정아는 제꺽 말코지에 걸려있는 앞치마를 벗기였다.

《그만둬라.》

앞치마를 두르던 그는 만류하는 오빠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내 뭘 좀 가져왔다.》

옆에 있던 불룩한 가방을 끄당긴 로성익은 소리가 나게 쟈크를 열었다.

가방에서 먹음직스러운 송편, 말린낙지, 타래진 순대 등이 연방 나왔다.

마지막으로 나온것은 외국제고급향수였다.

향수병을 빙그르 돌려 화려한 상표를 일별한 로성익은 한정아에게 쑥 내밀었다.

《이건 너한테 주는거다.》

《어디서 났어요?》

《차경준이라고 내가 아는 청년이 준거다.》

한정아는 속으로 놀랐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가?

아닐세라 오빠가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전쟁전에 외국류학갔다가 귀국한 청년인데 무역기관에서 일한다.》

향수병을 내려놓는 한정아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차경준, 며칠전 공원에서 헤여질 때 그는 이틀후에 동창회가 있는데 꼭 와달라고 강조하였다.

급히 넘겨야 하는 기사때문에 바빴지만 한정아는 몇해만에 만나는 대학동창생들을 실망시킬수 없어 짬을 내여 차경준의 집으로 갔었다.

아직 반토굴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새 번듯하게 세운 기와집에 들어갔더니 알만 한 얼굴들이 환성을 지르며 반겨맞았다.

대학때는 별로 말을 나누어보지 못한 그들이였는데 지금은 막역지우라도 만난것처럼 무척 반가와하였다.

가벼운 목례로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밀어낸 한정아는 한쪽구석에 얌전히 앉았다.

잠시후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지자 그들은 나이프와 포크를 능숙하

게 다루며 먹기 시작하였다.

한정아는 손이 나가지 않았다.

남들은 통강냉이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복구건설을 하고있는데 아늑한 집에 들어앉아 고급료리를 먹자니 어쩐지 죄스러웠다. 그렇다고 오자바람에 일어날수도 없어 그냥 앉아있었다.

점점 취기가 오른 동창생들은 저저마다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역기관이나 외교부문에 종사해서 그런지 전부 돈과 왈쯔소리뿐이였다.

더는 참을수 없어 조용히 빠져나오는데 무슨 눈치를 차렸는지 차경준이 헐레벌떡 따라나왔다.

《왜 벌써 가오? 아직 회포도 나누지 못했는데.》

동창회라는 구실로 자기를 그런 좌석에 끌어들인 차경준에게 한정아는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준동지, 지금 온 나라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들끓고있는데 옳지 않다고 봐요.》

차경준은 계면쩍은 기색을 지었다.

《나도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았지만 동창생들이 하도 모이자고 하기에…》

변명하듯 얼버무리는 그를 서늘한 눈매로 바라보던 한정아는 《먼저 실례하겠어요.》라고 인사말을 던지고 돌아섰다.

그 일이 있은지 불과 한주일도 안되였는데 그가 오빠한테 고급향수를 보낸것이다.

무역기관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오빠와 련계가 있을가? 하긴 그에게 있어서 그쯤한 일은 별로 힘들지 않을것이다.

《왜 그러니?》

외국제향수를 처음 보는 누이동생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러는것이라고 짐작한 로성익은 제편에서 향수병을 집어들고 흔들었다.

불의에 향수세례를 들쓴 한정아는 냉큼 물러났다.

《아이, 무슨 냄새가 그래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못할망정 성을 내는 누이동생이 우습다는듯 로성익은 시까슬렀다.

《아무렴 시큼한 땀내에 비기겠니?》

메슥메슥한 향수냄새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있던 한정아는 새침해서 반문하였다.

《땀냄새가 어째서요?》

《넌 기자라는게… 그래, 네 몸에서 향수내가 풍기면 취재대상들이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빠하겠니?》

한정아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좋아하긴 고사하고 모두 달아날거예요.》

《왜 말이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외국제향수내나 풍기는 인간들을 경멸하거든요. 기계공장에 나가면 기계기름냄새가 나야 하고 건설장에 나가면 몰탈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속을 터놓거든요.》

그때 그들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끼여들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싸움이냐? 어서 저녁이나 먹자꾸나.》

가지고 온 음식들을 상에 올려놓은 로성익은 술병마개를 슬슬 돌려서 뽑더니 정히 술을 부었다.

《고모님, 건강하십시오.》

세상떠난 오빠를 대신하여 아들맞잡이로 키운 조카가 생일날이면 잊지 않고 꼭꼭 찾아오니 어머니는 감개무량해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한정아가 부엌에 나가자 로성익은 정색해서 물어보았다.

《고모, 정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달그락소리가 들려오는 부엌쪽을 곁눈질해본 어머니는 한숨부터 내쉬였다.

《글쎄, 맞춤한 대상자가 있으면야 시집을 보내야지.》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듯 로성익은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까 말한 청년인데 얼굴도 잘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고 마음이 동해하던 어머니는 자신없어하였다.
《정아가 어떨는지.》
《아, 딸이야 어머니말이면 다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안 여느 처녀들과 다르네.》
마침 동자질을 끝낸 한정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가 치마를 두손으로 쓸어내리며 앉자 로성익은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넌 요즘 뭘 하고있니?》
《뭘 한다는건 무슨 뜻이예요?》
누이동생의 반응이 의외였던지 로성익은 어이없어하였다.
《넌 기자가 되더니 좀 까다로와졌구나.》
한정아는 자기가 지나쳤다는것을 알았다.
그전 같으면 오빠한테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전쟁때 생겨난 불미스러운 감정은 지금도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그건 그렇구 이젠 너도 나이가 찼는데 일생문제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
《사실 내가 오늘 온건 고모생일을 축하해주자는것도 있지만 네 문제도 락착짓자는거다.》
찾아온 목적을 명백하게 밝힌 로성익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듯 손에 들고있던 사진을 내밀었다.
《한번 보렴.》
한정아는 고개를 숙이고 손톱여물만 썰었다.
무엇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 몇마디 주고받다가 혼사를 결정해야 한담? 그건 무책임한 결혼이야. 난 절대로 선보고 시집가진 않을테야. 사업과정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의 진실한 인간미와 높은 리상에 마음이 끌려서 《아, 이 사람이다!》 하고 확신이 가는 그런 남자와 일생을 같이하겠어. 그리고 일단 결합되면 변함없

이 끝까지 사랑하고.
《난 아직 그 문제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딸의 말에 어머니는 펄쩍 뛰였다.
《무슨 소릴 하냐? 처녀나이 스물일곱이 좀 적으냐? 남의 집 딸들은 벌써 아이를 업고 다니는데. 난 그저 우리 집에서 애기울음소리가 들리고 기저귀냄새가 푹푹 풍겼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오빠도 한마디 끼웠다.
《나두 늦게야 장가를 들고보니 생각되는게 많구나. 역시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야.》
한정아는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다.
속이 답답해난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방바닥에서 버림받고있던 사진을 손에 쥐였다.
《얘, 한번 보기라두 하렴.》
한정아는 《싫어요!》 하고 고개를 외로 틀었다.
《에구, 무슨 애가 그런지.》
안달이 난 어머니는 딸의 눈앞에 사진을 바싹 가져다댔다.
그바람에 얼핏 사진을 본 한정아는 픽 웃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어머니와 로성익은 약속이나 한듯 꼭같이 물었다.
《아는 총각이냐?》
한정아는 쓰거운 어조로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대학동창생이예요.》
《그게 정말이냐?》
로성익은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느냐는듯 반가와하였다.
《고모, 이런걸 두고 연분이라고 한답니다.》
듣기만 해도 흐뭇한 연분소리에 어머니가 왜 기뻐하지 않으랴.
《에구, 이젠 한시름놓게 됐구나.》
아이참, 어머닌 내 마음은 모르시면서 무턱대고 좋아하시네.
노란 장판바닥에 박박 손금을 긋고있던 한정아는 고급향수병을 띄

여보자 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러니 그는 처음부터 오늘일을 계획하고있었구나. 그때문에 품을 들여 오빠와 사귀였을것이고. 신문사에 찾아온것도, 나를 공원으로 데리고 간것도 모두 내 마음을 사기 위한 연극이였어.
사실 공원에서 만났을 때 나름대로 조국에 보탬을 주기 위해 힘껏 노력한다는 차경준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서 동창회에 참가해달라는 그의 초청을 수락했었다. 그날 보니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다시는 그와 마주서지 않으리라 결심했었다. 그런데 뜻밖에 오빠한테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될줄이야.
누이동생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로성익은 제잡담 결론하였다.
《고모님,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구 이번 일요일에 그 총각을 집에 데리고 오는게 어떻습니까? 그때 아예 약혼날자도 정하잔 말입니다.》
고개를 오연히 쳐든 한정아는 또렷하게 말하였다.
《오빠, 난 그를 대학동창생이상으로 생각해본적 없어요.》
웃음이 물결치던 로성익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한정아는 필경 오빠가 자기의 립장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로성익은 열어놓았던 가방쟈크를 신경질적으로 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모님, 후에 또 오겠습니다.》
한정아는 집을 나서는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요.》
《뭐냐?》
《무강동지 말예요. 오빠가 그 사람을 취급한다는게 사실이예요?》
로성익의 얼굴은 딱딱해졌다.
《누가 그러더냐?》
《우연히 알게 되였어요.》

한정아에게 표무강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김흥선이였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난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표무강의 신상에서 벌어진 일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르면 표무강은 어떤 복잡한 사건에 말려들어 검찰기관의 심문을 받는중인데 담당검사가 바로 로성익이라는것이다.
그 소식을 안 다음부터 한정아의 정신은 온통 표무강한테 가있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검찰기관의 심문을 받는단 말인가. 물론 그는 한 처녀의 진정을 받아주지 않은 무정한 사나이이다. 그렇지만 인간됨만은 진실하고 고결하다. 그런 사람이 나라앞에 죄를 지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처녀의 몸으로 표무강의 문제에 뛰여들수 없어 속을 태우고있는데 오빠가 집에 찾아왔던것이다.
어느덧 관록있는 검찰일군으로 돌아간 로성익은 피심자들을 대할 때와 같은 틀스러운 자세를 취하였다.
《너한테 구체적으로 말해줄순 없지만 그 사건은 보통사건이 아니다.》
《네?》
《난 네가 그 문제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
순간 한정아는 지난날의 오빠를,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하던 랭정하고 메마른 그를 다시 보고있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것 같아 한마디 비치고야말았다.
《오빠, 무강동진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안예요.》
누이동생의 반응이 뜻밖이였던지 로성익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찬찬히 뜯어보았다.
《너 혹시… 그를 사랑하는게 아니냐?》
한정아는 황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는데 머리우에서 랭담한 말소리가 울렸다.
《난 네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든 상관하진 않겠다. 그렇지

만 그 사람을 배우자로 정했다면 이제라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처녀의 마음속에 검은구름이 모여들고있었다.

8

강의가 끝나자 표무강은 복도로 뛰여나왔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를 꺼내고는 어림짐작으로 쏟아서 입안에 쓸어넣었다. 그전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만 부상처가 쑤셔나군 하였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된건지 때없이 독을 쓴다.

조금 있느라니 점차 동통이 사라졌다.

이러다 혹시 공부를 끝까지 못하는게 아닐가? 제길, 무슨 나약한 생각이야. 수령님께서 더 많은 군사지식과 경험을 쌓으라고 군사학교에 보내주시였는데 끝까지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구. 표무강, 정신차렷!

뒤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뭘 하오?》

흠칫 놀란 표무강은 약봉지를 줌안에 구겨넣고 뒤로 돌아섰다.

오성국이 의아쩍은 눈으로 보고있었다.

《교장동지, 학생 표무강…》

그러던 그는 저도 모르게 괴로운 신음소리를 씹어삼켰다.

《으음!—》

허리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려뻗치는 그 아픔이 어찌나 지독한지 이마와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뿌직뿌직 내돋았다.

후— 하고 막혔던 숨을 내뿜은 그는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허리를 조심히 만져보던 오성국이 걱정하였다.

《그 몸으로 강의를 받을수 있겠소?》

《있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친 표무강은 그를 안심시키려고 씩 웃었

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찡그러졌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건강해야 공부도 잘할수 있소.》

의미심장하게 말한 오성국은 화제를 돌렸다.

《참, 그 일은 어떻게 됐소?》

그 일이란 《월남도주기도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였다.

표무강은 방금전의 동통보다 몇배나 더한 아픔을 느꼈다.

《상급검사는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성국의 수북한 장미가 꿈틀거렸다.

《어째서?》

《…》

《동문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로성익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때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전쟁시기 홍일남을 총살해야 한다고 명령하던 무자비한 얼굴이였다. 그가 전선사령부로 올라가자 표무강은 그때의 일을 애써 지워버렸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 랭랭한 심장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이러니저러니 말하고싶지 않아 잠자코 있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본듯 오성국은 제자의 어깨를 툭 쳤다.

《너무 걱정마오. 제대로 될거요. 그건 그렇구 오전강의도 끝났는데 날 따라오우.》

표무강을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선 그는 책상서랍에서 여러장의 사진들을 꺼내더니 책상우에 주런이 펼쳐놓았다.

《자,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보오.》

《이건… 뭡니까?》

《동무 장가보내자고 그래.》

오성국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자 표무강은 덴겁해서 대답하였다.

《전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올줄 알았다는듯 오성국은 시뭇이 웃었다.

《그 각오는 좋소. 그렇지만 금상첨화라구 장가두 가구 통일도 되면 더 좋지.》

대답이 궁해진 표무강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지 말고 한번 보오. 처녀들이 얼마나 고운가.》

이럴 때 보면 오성국은 펄펄 나는 싸움군들을 키워내는 군사학교의 책임일군이라기보다 웅심깊은 맏형같았다.

꿋꿋해서 서있는 제자의 손을 끌어당긴 그는 사진을 한장한장 가리키며 설명하였다.

《이 처녀 외무성 타자수. 나이는 24살, 부모들은 전쟁시기 폭격에 잘못되였는데 생활력이 강한 처녀요. 이런 처녀를 색시로 맞으면 살림살이엔 신경쓰지 않아도 될거요. 그리고 이 처녀 중학교 수학교원인데 나이는 26살, 학교측의 평을 들어보았는데 리지적이고 마음씨도 곱다고 하오. 내 좀 살아보니 녀자란 얼굴보다 마음이 고와야 해.》

정을 담아 사진속의 처녀들을 한명한명 소개해주는 그를 보자 표무강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오성국은 군인은 상급의 명령앞에서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몰라야 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진짜배기 싸움군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엄격한 스승이였고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길에서 한치도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심장속에 심어준 혁명의 선배였다. 그런 그가 지금 제자의 행복을 위해 그처럼 마음을 쓰고있는것이다.

《이 처녀 어떻소?》

별스레 강조하는듯 한 그의 말소리에 이끌려 사진을 들여다보던 표무강은 속으로 놀랐으나 곧 자신을 다잡고 태연한척 하였다.

느물느물 웃고있던 오성국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름은 한정아. 전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신문사 기자로 근무. 후퇴시기 <사민구분대>를 책임지고 동무네 련대에 배속되였었고. 듣자니 헤여질 때 동무한테 정성껏 만든 군공메달주머니까지 주었다

면서?!… 내 말이 틀린다거나 보충할것이 있으면 말해보오.》

표무강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즉 방금전에 열심히 설명한 사진들은 자기의 태도를 떠보기 위한 기만술이였던것이다.

당황해난 마음을 숨기려고 헛기침을 깇고난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교장동진 공연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야 옴짝 못하겠지 하고 흐뭇해하던 오성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무슨 소리요?》

상대방의 공격이 좌절되기 시작한것을 포착한 표무강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가하였다.

《그 동문 이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이쯤하면 제자한테서 다른 말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을 알고있는 오성국은 입을 쩝쩝 다시였다.

랑패한 표정을 짓고 오락가락하던 그는 걸음을 뚝 멈추었다.

《학생 표무강!》

표무강은 몸에 배인 동작대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한달안으로 결혼하고 보고하시오.》

표무강은 우산도 없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들쓴 기분이였다.

어정쩡해 서있는데 머리우에 연거퍼 벼락이 떨어졌다.

《명령이요. 알겠소?》

상관의 명령에 다른 대답이란 없다.

《알았습니다.》

정작 대답은 하였지만 표무강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아직 약속한 처녀도 없는데 어떻게 한달안으로 결혼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상급의 명령을 받으면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몰랐지만 이때처럼 주저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가보오.》
어깨가 축 처져서 교장방을 나선 표무강은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는것을 알았다.
검푸른 하늘가에 금모래를 한줌 쥐여뿌린것처럼 뭇별들이 반짝거리고있었다.
저 별들속에 신애도 있다면… 신애, 부디 내옆에 내려와다오. 그럼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소. 놓아주지 않겠단 말이요.
별찌 하나가 포물선을 쭈욱— 그으며 떨어져내렸다.
그것을 보자 가슴이 못견디게 쓰려났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하늘에 오를수 없는 별찌!
신애도 그것처럼 내옆으로 영원히 돌아올수 없다. 어디 대답해보오. 신애,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요.
괴로운 가슴을 부여잡은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
그 시각 로성익의 방에서는 론쟁이 벌어지고있었다.
《표동무가 정말 월남하려고 하였다면 그때 벌써 그랬을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공화국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홍선동무, 인간의 사상은 고정불변한게 아니요. 오늘의 충신이 래일은 역신으로 될수도 있는거요.》
《상급검사동진 표동무를 믿지 못하겠다는겁니까?》
《사람을 믿는다는게 얼마나 힘든건지 동문 알기나 하오?》
《난 상급검사동지가 심히 탈선하고있다고 봅니다.》
《탈선하고있는건 내가 아니라 바로 동무요. 언제부터 충고하고싶었는데 인정에 무르면 원칙에서 탈선하게 되오. 소꿉시절 친구라고 해서, 전쟁시기 함께 싸운 전우라고 해서 덮어놓고 비호한다면 어떻게 원칙을 지키겠소?》
《그렇다면 나도 한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상급검사동진 원칙이란 차겁고 무자비한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난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말입니다.》

9

엊저녁부터 죽가마끓듯 하던 기숙사는 아침이 밝아올무렵에야 조용해졌다.
새해를 축하하는 다정한 말소리와 활기넘친 웃음소리, 기운찬 발자국소리가 사라지자 표무강은 고독감을 느꼈다.
마치도 무인도에 혼자 남은것 같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아까 강성무를 따라갔을걸.
표무강과 강성무는 남조선륙군사관학교 2기동창생이였다.
태여난 고향이 다르고 성미도 달랐지만 두사람은 고달픈 훈련의 나날에 우정이 두터워졌고 뜻을 같이하게 되였다. 그후 표무강은 《국군》 제8련대 1대대장, 강성무는 2대대장으로 있다가 1949년 5월초 제각기 대대를 이끌고 공화국으로 의거하였다.
인민군대에 편입한 표무강은 대대장으로, 강성무는 경비국군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쟁이 일어나자 각각 련대장들로 임명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의거자출신 두 장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으로 고급군사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었다.
좀전에 강성무는 사고무친인 친구를 혼자 두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자기네 집에 가자고 잡아끌었다.
《내 걱정말구 어서 가보게.》
《그러지 말구 가자니까.》
《난 오늘 계획한 일들이 많네.》
그를 억지로 떠나보낼 때는 몰랐는데 막상 혼자 남으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친구를 생각해서 기어코 남은것이 후회되였다.
에라, 책이나 실컷 읽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허리부위가 쑤셔났다.
어이쿠!

베개밑에 약봉지가 있었지만 꺼내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동통은 진통제를 먹으면 가라앉지만 고독감은 무엇으로 없앤단 말인가. 지금껏 언제 한번 홀로 있어본적 있었던가. 전쟁시기에는 늘 전사들과 같이 있었고 군사학교에 와서도 주위에는 오성국을 비롯한 항일투사출신 장령들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해마다 설날이 오면 이러저러하게 고독함을 메꿀수 있는 일거리들이 생기군 하여 별로 외로움을 느낄새가 없었다. 그런데 이해따라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게 될줄이야.
일은 참 맹랑하게 되였다. 그렇다고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모여앉는 오늘의 분위기를 불청객처럼 뛰여들어 흐려놓고싶지도 않았다.
무의식중에 벽에 걸린 달력을 보느라니 남쪽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리워났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계실가?
꿈결에도 보고싶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먼저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추운 겨울날 수십리길을 걸어오셨던 강인한 모습이다.
해방후 그가 남조선에서 준군사단체인 경상북도 《국군준비대》 참모로 활약하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보초소에서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련락이 왔다.
정신없이 뛰여가니 체소한 어머니가 함지를 머리우에 이고 서있었다.
백발처럼 서리가 하얗게 불린 머리, 추위에 퍼렇게 언 얼굴, 얼음버캐가 되여버린 고무신…
불시에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어머니, 다신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또 오셨어요?
아들의 얼굴과 넙적한 가슴, 야구방망이처럼 든든한 다리를 찬찬히 살피고난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듯 환하게 웃었다.
《널 보고싶은 생각에 추운줄도 모르고 왔구나. 배고프지? 우리

저기로 가자꾸나.》
구석진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어머니는 그때까지 머리우에 이고있던 임을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그랬으나 함지를 잡은 두손이 풀리지 않았다. 음식을 쏟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오다보니 손에 강직이 온것이다.
잘 펴지지 않는 꿋꿋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풀면서 표무강은 목이 메여올랐다.
아, 어머니!
겨우 함지를 내려놓은 어머니는 먼지가 들어갈가봐 무명천으로 덮었던것을 들추었다.
그러자 설기떡과 강낭빵, 록두지짐이 나타났다.
《빨리 오느라고 했는데 그새 떡이랑 좀 굳어졌구나.》
걱정스럽게 뇌이던 어머니는 설기떡을 무명천에 둘둘 싸더니 품속에 집어넣는것이였다.
《어쩌자고 그러세요. 예?》
어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사실 그렇게나 한다고 언 음식이 더워질리 만무하지만 아들에게 더운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그 웅심깊은 마음씨에 표무강은 목이 메여올랐다.
《어머니!》
《어서 먹으렴. 여기 네가 좋아하는 콩나물무침도 있다. 넌 어릴적부터 이걸 무척 좋아했지.》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보시기에 듬뿍 담은 콩나물무침을 앞으로 밀어주었다.
향긋하면서도 새큼한 콩나물무침!
《어머니, 힘드신데 이젠 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남정네들처럼 마디가 꽛꽛한 손으로 아들의 두볼을 어루만지였다.
《난 그저 네 얼굴만 보고 가면 힘든줄도 모르겠구나.》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이지만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는 어머니의 모습에 표무강은 끝내 눈시울을 적시고말았다. …

이 아침도 어머니는 콩나물시루에서 정히 뽑은 콩나물을 맛있게 무쳐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계실것이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면 못다한 효성을 다하리라.

마음을 다잡은 표무강은 앉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참고서를 벌컥벌컥 번졌다.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어머니를 만나뵙자!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쥐죽은듯이 조용한 복도끝에서 스적스적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다.

혹시 날 찾아오는게 아닐가?

다음순간 입귀로 쓸쓸한 웃음이 새여나왔다.

흠, 오늘 같은 날 누가 나 같은 외토리를 찾아온단 말인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발자국소리는 호실앞에서 뚝 멎었다.

표무강은 숨을 멈추었다.

뚝뚝뚝—

책상에서 물러난 표무강은 응답할념도 못하고 멍하니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누가 있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늙수그레한 사람이 들어섰다.

첫눈에도 한뉘 농사일을 하였다는것이 알리는 그 사람은 이쪽을 보다가 말꼭지를 뗐다.

《난 표무강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네.》

생면부지의 사람한테서 자기 이름이 흘러나오자 표무강은 뜨아해났다.

《제가 표무강인데… 누구십니까?》

대답대신 그 사람은 신을 벗고 방에 들어서더니 어리둥절해서 서있는 표무강의 손을 잡아끌었다.

《인사는 후에 하고 우리 좀 앉자구.》

표무강은 그가 권하는대로 방바닥에 앉았다.

발고랑처럼 주름진 얼굴에 푸근한 웃음을 담은 그 사람은 련민의 정이 어린 어조로 말을 꺼냈다.

《그래, 오늘 같은 날은 혈육생각이 간절할테지?》

인정미가 푹푹 느껴지는 그 말에 표무강은 코허리가 시큰해났다.

문득 자기와 마주앉은 사람이 결코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바이는 도대체 누구일가?

그 사람은 가지고 온 망태기를 헤치고 주근주근 음식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하였다.

김이 문문 오르는 찰떡, 노릿노릿하게 구운 록두지짐, 군침이 절로 나는 시뻘건 김치…

나중에는 큼직한 독구리병까지 나왔다.

《설날엔 떡국이 기본인데 길이 미끄러워서 그만 깨뜨리고말았네. 어찌두 아쉽던지.》

그 말이 어찌나 감명깊게 들렸던지 표무강은 떡국을 배불리 먹은것 같은 기분이였다.

음식그릇들을 앞으로 밀어놓은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소개를 하였다.

《난 만경대에서 왔네.》

표무강은 저으기 놀랐다.

만경대라고 하면 수령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 아닌가.

《저, 그럼 수령님의 생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만경대에 살면서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하듯 선뜻 고개를 주억거렸다.

《제 알기엔 생가에 조부모님들과 삼촌분이 계신다고 하셨

는데…》
《그렇네. 농사를 짓고있다네.》
그의 범상한 대답에 표무강은 다시금 놀랐다.
《아니,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좀 이상하였다.
《년세가 많다고 나라밥을 공짜로 축내겠나?》
표무강은 속으로 긴장해졌다.
이 아바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가? 어떻게 수령님일가에 대해 무엄하게 말할수 있단 말인가.
자세를 바로한 표무강은 정색해서 물었다.
《아바이는 누굽니까?》
길쭉한 얼굴에 미소를 띠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소개가 늦어 안됐네. 실은 내 **김일성**장군 삼촌일세.》
《예?》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난 표무강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김형록삼촌은 허덥벼치는 그의 손을 잡아내렸다.
《어서 앉게. 나도 근본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일세.》
방바닥에 도로 앉았지만 표무강은 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수령님의 삼촌되시는분이 어떻게 되여 설날에 날 찾아왔을가?
그러는데 김형록삼촌이 진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 장군의 말이 임자는 한개 대대를 이끌고 의거한 진짜 사내대장부라더군. 헌데 어머니를 남쪽에 두고 왔으니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을거라고 하면서 자기대신 꼭 가봐달라고 당부했네.》
꿈만 같은 그 이야기에 표무강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예, 수령님께서 말입니까?》
《암, 그렇네.》
무명보자기에 놋술잔을 슬슬 문대긴 김형록삼촌은 손수 술을 부었다.

《자, 우선 한잔 받게.》
바빠난 표무강은 벌떡 일어났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김형록삼촌은 일부러 엄한 기색을 지었다.
《허어, 이건 우리 장군이 보낸 술인데 임자가 안 마시면 후날 뭐라고 대답하겠나? 어려워말구 어서 받게.》
표무강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목이 꽉 메여올랐다.
아, 수령님. 아직 새해인사도 올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은정을 베풀어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찰랑거리는 술잔에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가 술잔을 비우자 김형록삼촌은 손바닥만 한 찰떡을 저가락에 꾹 꿰여주었다.
《식기 전에 들라구.》
팥보숭이를 착실하게 입힌 그 찰떡은 졸깃졸깃한게 정말 맛이 좋았다.
찰떡을 뭉청뭉청 베여먹는 그를 만족스럽게 보고있던 김형록삼촌이 불쑥 물었다.
《참, 임자 여적 총각이라는데 이젠 가정을 이루어야지.》
표무강은 입에 넣었던 찰떡을 꿀꺽 소리나게 삼켜버렸다.
《어디 봐둔 처녀는 있나?》
친아버지와도 같은 김형록삼촌앞에서 표무강은 어려움도 잊고 신애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허지만 혼자 살순 없지 않나. 안해가 없는 남자는 물고기없는 못이나 같다는데…》
그때 문소리가 나더니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님, 새해 건강하십시오!》
문가에서 허리를 구붓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오성국이였다.
그의 뒤를 따라 여러명의 항일투사들이 싱글벙글하며 들어섰다.

《임자네들인가? 어서들 오게.》
《우리가 한발 늦었군요.》
푸접좋게 김형록삼촌옆에 틀고앉은 오성국은 짐짓 아쉬워하였다.
《아무렴, 날 앞서겠나? 자, 나앉으라구.》
오성국이 부어준 술을 기분좋게 마신 김형록삼촌은 미더운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임자들이 왔으니 난 이만 가보겠네.》
다들 왜 벌써 가는가고 만류하였지만 김형록삼촌의 고집도 이만저만 아니였다. 하긴 왜놈순사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분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출입문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가던 김형록삼촌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항일투사들에게 오금을 박았다.
《내가 가져온건 모두 저 사람 몫이니 그리 알게.》
오성국의 옆에 앉아있던 전문우가 심술궂게 물었다.
《그럼 우리 몫은 없다는겁니까?》
《임자들이야 빨찌산시절부터 우리 장군의 사랑을 오죽 받았나.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이야 양보할줄도 알아야지. 어험!》
호실문이 닫기자 호실안의 분위기는 돌변하였다.
김형록삼촌이 가져온 설음식은 항일투사들이 통채로 차지하고 표무강은 한옆으로 밀려났던것이다.
속이 후끈 달아오른 표무강은 떼를 썼다.
《주십시오. 그건 내겁니다.》
어느새 입에 찰떡을 물고 우물거리던 전문우가 두눈을 부라렸다.
《상급한테 무슨 태도야? 도무지 셈판을 모르누만.》
이때다 하고 다른 항일투사들도 맞장구쳤다.
《여, 같이 공부한다고 동갑인줄 알아?》
《동무 아직 소장이지?! 그런데 중장도 몰라보는가?》
여기저기서 퉁을 맞은 표무강은 분해서 황소숨을 씩씩 내뿜기만

하였다.
그래도 량심이 좀 남아있는 사람은 오성국이였는데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이였다.
《표동무, 미안해하지 말구 어서 끼우라구.》
표무강은 억이 막혀버렸다.
이거야 수령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설음식인데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가만, 꿔온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아있다가는 귀한 설음식을 몽땅 떼우겠다. 안되겠다. 이런 판에 무슨 체면을 차린단 말인가.
욱하고 항일투사들 짬을 마구 비집고 들어갔다.
록두지짐을 볼이 미여지도록 먹고있던 전문우가 뻔뻔스럽게 말하였다.
《벌써 그랬어야지. 자, 제 집처럼 생각하고 많이 들라구.》
기가 막힌 표무강은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그 모양이 재미있다고 항일투사들은 껄껄 웃었다.
나중에 표무강마저 그들을 따라 웃음을 터쳤다.
한바탕 웃고난 항일투사들은 한마디씩 하였다.
《표동무, 섭섭해하지 말라구. 공짜로 먹진 않을테니까.》
《아무렴, 독신자식탁을 비워놓고 가면 안되지.》
《그러길래 빨리 장가를 들란 말이야. 그럼 이런 수모도 안 받지.》
표무강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그들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설날에 찾아와 혈육의 정을 듬뿍 안겨줄수 있단 말인가.
표무강을 둘러싸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 항일투사들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날 때 그들은 집에서 성의껏 마련해온 음식들을 무드기 쌓아놓았다.
《이건 우리 집사람이 표동무한테 주려고 만든거요.》
《동무가 콩나물찬을 좋아한다구 우리 처가 보냈소.》

마지막으로 호실을 나서던 오성국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준 명령은 어떻게 됐소?》
표무강은 뒤머리를 슬슬 긁었다.
《아직…》
《어쨌든 제 날자에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소. 어험!》
든든히 오금을 박은 오성국은 의기양양해서 호실을 나섰다.
복도는 다시금 조용해지고 호실에는 호젓한 기운이 깃들었다.
그랬으나 표무강은 전혀 고독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수령님의 사랑을 안고온 김형록삼촌과 마음씨 후한 항일투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을 그득히 채웠던것이다.

제 6 장

1

날이 가고 달이 지날수록 복구건설장은 세차게 들끓고있었다.
한쪽에서는 축조공들이 흙손을 맵시나게 휘두르며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다른쪽에서는 미장공들이 무용수들마냥 몸을 률동적으로 흔들며 걸싸게 미장을 들이대고있었다. 그리고 한창 일떠서는 덩지큰 벽돌건물밑에서는 지원자들이 몰탈을 이기느라고 개미떼처럼 바글거리고있었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떠들썩한 그곳에 물매미같은 《뽀베다》가 나타났다.
차문이 열리자 밤색양복을 차려입은 청년이 내렸다.
누군가를 찾는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때마침 옆으로 뛰여가는 런닝그바람의 청년을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였다.
외국제향수내가 물씬 풍기는 멋쟁이를 마뜩지 않게 흘겨본 청년은 저쯤에서 한창 몰탈을 이기고있는 녀기자를 발견하자 껑충껑충 뛰여갔다.
《함마명수》로 소문난 건설자를 취재한 뒤 몰탈조에 끼워 열심히 일하던 한정아는 승용차쪽을 손짓하는 청년에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그냥 삽을 놀렸다.
외바퀴손수레들이 가득 몰려와 몰탈을 요정내자 그 자리에 혼석과 세멘트가 산처럼 쌓아지고 수십개의 삽들이 일시에 덤벼들었다.
그동안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지만 멋쟁이는 근기있게 기다렸다.
금방 또 한판을 이긴 한정아는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고

자리를 떴다. 마음 같아서는 그가 기다리건말건 그냥 일하고싶었으나 건설장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차경준의 옷차림이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것 같아서였다.

최근 들어와 찾아오는 회수가 부쩍 늘어난 차경준이였다.

이즈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고있었다. 이를테면 점잖은 대학동창생으로부터 인내성있는 청혼자로 슬며시 모습을 바꾼것이다.

언제인가 신문사정문앞에서 두시간나마 기다린 차경준을 만났을 때 한정아는 그가 전쟁전과 퍼그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회포나 나누자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원에 갔었다.

그날 차경준은 아래로는 고대그리스의 전설적시인 호메로스로부터 시작하여 우로는 로씨야의 문호 레브 똘스또이에 이르기까지 밀물과 썰물처럼 오르내리며 이름난 작가들의 생애와 작품들을 렬거하였는데 그 학구적인 태도에서는 문학에 대한 짙은 향수가 풍겼다. 그랬던 그가 얼마전부터는 명인들의 옛사랑을 력설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뽀베다》쪽으로 다가간 한정아는 반갑게 맞아주는 차경준에게 어떻게 왔는가고 물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렸소.》

마치 련정시라도 읊듯 부드럽게 말한 차경준은 땀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내주었다.

《저한테도 있어요.》

작업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 한정아는 이마에 송골송골 돋은 땀방울을 자근자근 훔쳤다.

그 모습을 바라본 차경준은 리해할수 없다는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동문 건설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일할거야 있소?》

상대방을 위하는 그 념려에 처녀는 다기차게 대답하였다.

《전 건설장에 나오면 한바탕 땀을 흘려야 시원하답니다.》

《하긴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재미도 있을거요.》

처녀의 심정을 리해한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린 차경준은 옆에 서있는 《뽀베다》를 가리켰다.

《나하구 같이 가기요.》

그때 골재를 실은 화물차가 그들옆으로 지나가며 길우에 고여있던 누런 흙탕물을 뿌려던졌다.

《젠장, 차를 좀 점잖게 몰것이지.》

손수건을 꺼내 바지가랭이에 튀여난 얼룩을 깐깐히 닦은 차경준은 또 봉변을 당할가봐 겁이 난듯 《뽀베다》를 향해 손짓하였다.

《뽀베다》는 곡선주로를 달리는 스케트선수마냥 멋지게 선회하더니 한정아옆에 스르르 멎어섰다.

《타오.》

처녀의 휘우듬한 속눈섭이 우로 올라가자 경계심이 어린 까만 눈동자가 나타났다.

《어디로 가는가요?》

《가보면 알게 되오.》

미심쩍은 생각이 갈마든 한정아는 적당한 구실을 대였다.

《전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야 한답니다.》

거짓말하는 귀여운 소녀를 대하는듯 한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던 차경준은 손목시계를 얼핏 들여다보았다.

《퇴근시간은 이미 지났소. 그리구 이 복새통에 동무를 찾아내느라 애쓴 내 수고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소.》

《…》

《그냥 서있겠소?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한정아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닌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호기심에 찬 눈길들이 날아왔다.

때를 놓치지 않고 차경준은 친절하게 차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타오.》

할수없이 한정아는 차에 오르고말았다.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수도의 한복판을 기세좋게 질주하던 《뽀베다》는 모란봉기슭으로 꺾어들었다.
차경준은 전쟁통에도 용케 살아남은 오붓한 수림속에 버섯마냥 옹크리고 앉은 조선식기와집앞에서 승용차를 세웠다.
《여긴 어딘가요?》
내가 아무렴 동무한테 해되는 일을 하겠소라고 암시하듯 싱긋 웃어보인 차경준은 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들어가면 알게 되오.》
승용차에서 내린 그들이 건물안에 들어서자 접대원처녀가 쪼르르 달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반겨맞아주는 접대원에게 차경준은 틀스럽게 물었다.
《다됐소?》
《네, 아까부터 기다리고있습니다.》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대신하듯 접대원의 손에 향수병을 슬쩍 쥐여준 차경준은 자기들을 안내하라고 눈짓하였다.
두사람을 뒤에 달고 한들한들 춤추듯 걸어가던 접대원은 구석진 곳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모종의 약속을 한 차경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한정아를 할끔 훔쳐본 접대원은 소리없이 사라졌다.
방문은 활짝 열려있었지만 한정아는 선뜻 들어서지 못하였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다나니 바지가랭이며 편리화에 몰탈이 튀여오른것을 뒤늦게야 발견하였던것이다.
그 눈치를 알아차린 차경준은 아량있게 웃었다.
《우리끼리인데 뭐라오? 들어가기요.》
아담하게 꾸려진 방안에 들어선 두사람은 깨끗한 비닐보가 씌워진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잠시후 량손에 음식다반을 올려놓은 접대원처녀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식탁을 풍성하게 차렸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쯤하면 그들의 관계를 알고도 남는다는듯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은 접대원은 방문을 살그머니 닫아주었다.
방안에 이름할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깃들었다.
이런 좌석이 처음인 한정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리 상대가 대학동창생이라고 하지만 조용한 방에 남녀가 단둘이 있게 되니 몸이 부자연스럽고 눈길마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는 처녀를 바라보던 차경준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정아동무, 생일을 축하하오!》
한정아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걸 어떻게 알았을가?
자기의 생일을 알고있는것은 어머니 한사람뿐이다. 외사촌오빠로성익도 아마 잊어먹었는지 저녁무렵이 돼오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또 설사 생일을 잊고 넘어가면 어쨌단 말인가. 그래서 모른척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생각지 않게 차경준한테서 생일상을 받게 될줄이야.
얼핏 상을 둘러보니 전번 동창회때보다 품을 더 들인것이 알렸다.
그 성의는 고마왔지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생일상을 준비하느라고 윈심을 쓴 차경준을 섭섭하게 해줄수는 없었다.
《경준동지, 고마워요!》
차경준은 이쯤한 일에 뭘 그러는가고 점잖게 웃었다.
《정아동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 식성에 맞췄는데 리해해주오.》
그 말을 듣자 한정아는 시장기를 느꼈다.

오늘 아침도 통강냉이밥을 대충 먹고 출근한데다 건설장에서 정신없이 몰탈을 이기느라 점심까지 건넜던것이다.
《자, 들기요.》
차경준이 먼저 포크를 집어들자 한정아도 저가락을 손에 들었다.
첫눈에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군 하는 록두지짐이 눈에 띄우자 집어들고 조심스레 한입 베여물었다.
《손이 말이 아니구만.》
포크를 놀리면서 슬그머니 처녀의 손을 살펴본 차경준이 걱정하였다.
《아이참, 일하는 사람손이 그렇지요 뭐.》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구만. 가만, 지짐 같은거야 늘 먹는건데 이 과일쌀라드를 맛보우.》
차경준은 제잡담 록두지짐과 과일쌀라드접시를 바꾸어놓았다.
눈에 선 서양음식을 대하자 한정아는 잠간 망설이였다.
차경준은 모른척 하고 다른 화제를 끄집어냈다.
《난 말이요. 앞으로 동무의 손에 삽이 아니라 피아노건반을 쥐여주려고 하오.》
《!》
한정아는 그 이야기가 대학동창들사이에 허물없이 주고받는 례사로운 말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설계이고 또한 은페된 청혼이였다.
그런데 이런 때 마땅히 높뛰여야 할 심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모욕감 비슷한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경준동지 눈에는 내가 들끓는 현실을 외면하고 아늑한 집안에 들어앉아 피아노건반이나 두드릴 그런 처녀로 보였는가요? 유감이지만 동진 저를 잘 모르는군요.
차경준은 두손으로 류학기간에 자주 추었을 왈쯔를 형상하듯 우미한 곡선을 그려보이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내가 류학간 나라 녀성들은 저녁이면 남자들의 팔을 끼고 영화관이나 극장에 다니군 했소. 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국에 돌아가면 정아동무와 함께 그런 랑만적인 생활을 누려보리라 하고 생각했댔소.》
《…》
그가 뭔가 더 말하려는데 활짝 열어놓은 창문밖에서 우렁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 터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
> 원쑤들이 불사른 내 고향 페허에
> …

화려한 앞날을 기약하는 자기의 말보다 노래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처녀를 보자 차경준은 움쭉 일어나더니 창문을 닫아버렸다.
태연하게 돌아와 자리에 앉은 그를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던 한정아는 말없이 일어났다.
미상불 자신의 불같은 고백으로 막을 내릴 결정적인 순간을 그려보고있던 차경준은 기절할것처럼 놀랐다.
《왜 벌써 일어나오?》
두눈을 내려깐 한정아는 나직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하였다.
《전 가봐야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두눈이 휘둥그래진 차경준은 당장이라도 처녀의 손목을 잡아 눌러앉힐 잡도리였다.
그에 비하면 한정아의 태도는 침착하기 그지없었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풍기는 쌀쌀한 기운때문에 차경준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오빠를 통해 보내준 향수는 받았어요. 헌데 앞으로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아주세요.》

차경준은 금시 통곡이라도 할것 같은 참담한 표정이였다.

《정아동무, 갈 땐 가더래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겠소?》

《말씀하세요.》

몹시 흥분한 차경준은 두손을 합쳤다 풀었다 하더니 드디여 입을 열었다.

《이건 이미전부터 하고싶었던 말인데…》

긴장한듯 침을 꿀꺽 삼킨 그는 금시라도 처녀를 그러안을듯 두팔을 앞으로 뻗쳤다.

《난 동물… 정아동무를 사랑하오!》

그가 쏟아낸 불같은 고백을 음미하듯 동안을 두었던 한정아는 침착하게 응답하였다.

《경준동지, 절 그렇게까지 생각해주어 고마워요. 허지만…》

《허지만… 뭐요?》

불안을 느낀 차경준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외웠다.

《…우린 서로 갈길이 다른 사람들인가봐요.》

차경준의 얼굴은 삽시에 창백해졌다.

《그, 그게 무슨 소리요?》

《…》

《난 그래도 동무와 일생을 같이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정아는 두눈을 내려깔고 침묵을 지켰다.

《혹시… 애인이 있는게 아니요?》

그전에도 청혼을 한 총각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이란 참 우스운 존재들이다. 자기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덮어놓고 그런 질문을 한다.

약속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있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자신을 다잡은 처녀는 차겁게 대답하였다.

《그건… 처녀의 비밀이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아동무!》

등뒤에서 애절한 부르짖음소리가 들려왔으나 한정아는 총총히 방을 나섰다. …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솔길을 걷고있는 처녀의 눈앞에 표무강의 름름한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따라 그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정말이지 그가 옆에 있다면 무슨 말이든 나누고싶었다.

무슨 말을 할가. 무슨 말을…

다음순간 처녀의 심장은 무섭게 몸부림쳤다.

난 바보야. 어째서 그를 잊지 못하는걸가? 그의 가슴속에 다른 처녀가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어쩌자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걸가?

허겁지겁 걸어가던 한정아는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검푸른 저녁하늘가에 방금 돋기 시작한 별들이 가득 뿌려져있었다.

아득한 거리에 떨어져있는 그 별들을 보느라니 문득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별을 바라보던 소년은 쿨쩍쿨쩍 울기 시작하였다.

하늘에서 그 모양을 바라보던 별이 이상해서 물었다.

《얘야, 넌 왜 울고있니?》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소년은 중얼거렸다.

《당신이 먼곳에 있어서 만질수 없어 그래요.》

엉뚱한 소년의 말을 듣고난 별은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울음을 그쳐라. 난 너의 가슴속에 있단다. 그렇기때문에 넌 날 볼수 있는거란다.》…

호― 하고 처녀는 한숨을 내그었다.

마치도 자기가 영원히 만질수 없는 별을 보며 안타까와하는 그 소년처럼 생각되였던것이다.

2

봄비는 수집음을 타는 처녀마냥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건설장들에서 날아오른 먼지가 뿌옇게 맴돌던 상공은 거대한 걸레로 훔친것처럼 깨끗해지고 바싹 말랐던 대지도 한결 습윤해졌다.

《야, 비온다!ㅡ》

《좋구나!》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이들이 공중을 향해 저마끔 모자를 올려던지며 깡충깡충 뛰는데 오가던 사람들은 그 귀여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정신에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유독 한사람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듯 터벅터벅 걷고있었다.

장령복은 흠뻑 젖었고 구두에도 흙탕물이 잔뜩 튀여올랐지만 그는 그냥 걷기만 하였다.

한시간전 그는 검찰소 부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었다.

물소처럼 우람한 몸을 가죽쏘파에 잠근 그는 커피를 줄금줄금 마시면서 방안에 들어선 손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커피나무열매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방목공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커피열매를 껍질채로 끓여서 마셨다는 아라비아사람들을 그려보는지 깨알같은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명상에 잠겨있던 그는 한참만에야 생각난듯 《거기 앉소.》 하고 턱짓하였다.

그가 맞은켠 걸상에 앉자 부소장은 엄엄하게 따졌다.

《동문 제기된 자료를 전면 부정한다는데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올줄 알았다는듯 쓴웃음을 지은 부소장은 위협조로 말하였다.

《그렇게 뻗친다고 만사가 해결되는건 아니요.》

표무강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호들갑스러운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여보시오. 응, 나야.》

몇마디 주고받다가 힐끔 이쪽을 넘겨다본 그는 체통에 어울리지 않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지금 사업중인데 좀 있다 전화하지. 응, 그때 약속하자구… 아, 알겠다니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방금전의 엄엄하던 태도를 헌옷처럼 벗어던지고 흥그러워진 어조로 누군가를 찾았다.

키가 훤칠한 사람이 들어오자 그는 역시 턱짓으로 표무강을 가리켰다.

《그자한테 데리고 가오.》

그렇게 되여 표무강은 간악한 원쑤 허정효를 만났다.

몇해만에 만난 그자의 몰골은 믿기 어려울만큼 초췌하였다.

녀자처럼 말쑥하던 얼굴은 때국투성이고 어깨는 앞으로 구부러들었다.

전쟁시기 련대를 《귀순》시켜보려고 악에 받쳐 날뛰던 독사같은 기상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맞은 풀잎사귀처럼 후줄근하였다.

그랬으나 표무강을 알아보자 뿌옇던 두눈에서 금시 독기가 뿜어나왔다.

《표… 무… 강!》

그자앞으로 다가간 표무강은 추상같이 내쏘았다.

《허정효, 널 이렇게 만났구나.》

움쭉 몸을 일으킨 허정효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를 빠드득 갈았다.

《그때 널 죽이지 못한게 한스럽다.》

표무강은 바위처럼 든든한 어깨를 쭉 폈다.

《네가 아무리 날뛰여도 날 어쩌지 못해!》

《뭐야?》

《허정효, 똑바로 앉아!》
옆에 있던 예심원이 호령하자 대가리를 쳐들었던 독사는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졌다.
살기가 흐르던 두눈은 멍청해지고 사려물었던 입술도 헤벌어졌다.
얼핏 보면 그 몰골은 공화국의 관대정책을 바라는 가련한 인간갈지만 그것은 위험을 느낀 독사가 풀숲에 몸을 숨기는 교활한 수법이였다.
《이 사람을 아는가?》
짐짓 량순해진 그는 관청을 찾아온 농부마냥 허리를 굽석굽석하였다.
《예, 압니다. 예심원선생님!》
《그럼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말해보라.》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허정효는 표무강과 함께 륙군사관학교에 입교하던 일, 억수로 퍼붓는 비속에서 진행된 강행군에서 표무강이 제일먼저 도착하여 미군장교 하불의 칭찬을 받던 일, 륙사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국군》소위로 임명되던 일 등을 렬거하였다. 특히 하불의 신임에 의해 표무강이 《국군》대대장으로 승급하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은 월남도주계획에 대해 말하라.》
한대 얻어맞고 꼬리를 사타구니에 밀어넣은 개처럼 허정효의 얼굴은 비참하게 이그러졌다.
《예심원선생님, 이미 진술한바와 같이 전 미군첩보장교의 명령대로 표무강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임명장을 받아본 표무강씨는 자기의 과거를 용서해준다면 남으로 나가겠다고…》
《닥쳐!》
표무강이 고함쳤으나 허정효는 세상사를 초탈한 스님처럼 초연하게 웃었다.
《표무강씨, 사람이야 솔직해야지요.》
표무강은 손톱이 살에 박히도록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머리꼭대기로 피가 콸콸 솟구쳐오르고 온몸이 우들우들 떨렸다.
아, 이놈을 그냥 둔단 말인가? 당장 쳐죽였으면 시원하련만.
머리속에 의문이 떠오른것은 그 다음이였다.
이자가 어째서 기를 쓰고 거짓진술을 하는가? 허정효는 보통 교활한자가 아니다. 자기가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용서받지 못한다는것쯤은 알고도 남는자이다.
별안간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끼쳐왔다.
그렇다. 허정효는 내가 공화국의 버림을 받게 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렇게 하여 나뿐만아니라 우리 의거장병들을 수령님의 품에서 떼여놓자고 발악하는것이다. 천하의 악독한 놈!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원쑤를 노려보던 표무강은 예심원쪽으로 돌아섰다.
《난 이자와 할 말이 없습니다.》
등뒤에서 상처입은 이리의 울부짖음같은 소리가 울렸다.
《으흐흐, 난 저승에 가서라도 널 물어뜯고야말테다!》
그가 부소장방으로 다시 돌아오니 방주인은 비양조로 말을 건넸다.
《륙사동창생과 회포를 나누고나니 기분이 어떻소?》
표무강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을 나름대로 해석한 부소장은 점점 기를 돋구었다.
《아무리 뻗친다고 해도 소용없어. 솔직하게 자백하는게 좋을거야.》
《!》
표무강은 자기의 몸을 으스러지게 조이는 쇠사슬을 느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숨이 막히고 온몸이 졸아드는것 같았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듯 목단추를 활 터쳐놓은 그는 맞받아 소리쳤다.
《난 자백할게 없습니다. 없단 말이요!》
그 말이 아직 허공에서 맴돌고있는데 쏘파에 박혀있던 부소장의 몸뚱이가 수면우로 솟구치는 망둥이처럼 푸들쩍 뛰여올랐다.

《좋다. 어디 법정에서도 그렇게 나오는가 보자.》

그와 더이상 마주설 필요가 없다고 여긴 표무강은 문을 차고 나와버렸다. …

그때는 배심이 든든하였지만 지금은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까짓 허정효의 《진술서》따위는 열개, 백개라도 두렵지 않았다. 두려운것은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무지 알수 없다. 그들은 어째서 나보다 허정효의 《진술서》를 더 믿는가. 어째서?

영차, 영차!—

고개를 들자 점차 가늘어지는 비발속으로 세차게 끓고있는 건설장이 안겨왔다.

에라, 땀이나 흠뻑 쏟고 가자!

마침 저쯤에 혼합물을 담은 맞들이가 보였는데 비옷을 쓴 처녀가 혼자 서성거리고있었다.

성큼성큼 걸어간 표무강은 호기있게 소리쳤다.

《동무, 같이 나르기요!》

짝패를 찾느라 여기저기 둘러보던 처녀는 반가운 모양 머리에 쓰고있던 비옷고깔을 뒤로 젖혔다.

순간 표무강은 굳어지고말았다.

《아니, 동무가?》

그 처녀는 뜻밖에도 한정아였던것이다.

3

이즈음 한정아의 생활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여버렸다.

아침이면 남먼저 출근하여 사무실청소를 하고 화분들에 물을 준 다음 싱싱한 꽃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하루일과를 시작하던 그였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시계바늘처럼 규칙적으로 흘러가던 그 일과가 마구 헝클어졌다.

다른건 제쳐놓고라도 원고지를 펼쳐놓으면 당장 써야 할 기사내용이 아니라 건설장에서 만났던 표무강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날 그들은 저녁무렵까지 맞들이로 숱한 골재를 날랐었다.

하지만 헤여질 때까지 그들이 나눈 이야기란 자기들이 산처럼 쌓아놓은 모래와 자갈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간단하였다.

《오늘 수고많았소.》

《수고야 뭐… 오히려 련대장, 아니 장령동지가 더 수고한걸요.》

그런 말은 지나가던 사람들사이라도 얼마든지 주고받을수 있는 평범한 인사말이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사이에 드리워진 어색한 분위기를 가시지 못하고 헤여졌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정아는 표무강을 탓하였다.

무슨 남자가 그 모양일가? 뭐, 오늘 수고많았다구? 그래, 동지는 그런 말밖에 할줄 모르는가요? 정아라는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기가 그렇게도 힘든가 말이예요. 하긴 동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였지요. 목석!

그 목석이 오늘은 원고지우에 나타나 사색을 방해하고있었다.

속상해난 한정아는 원고지를 탁— 하고 뒤집어놓았다.

원고지우에서 얼른거리던 《표무강》은 꿈틀 놀라 껑충껑충 사라졌다.

이젠 일없겠지 하고 원고지를 도로 뒤집고 만년필을 놀리려고 하자 또다시 《그》가 나타났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산란해서 기사를 한자도 쓸수 없었다.

한참후 만년필잉크가 동그랗게 퍼진 원고지를 보자 한정아는 누가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번질지 누가 알랴.

뒤숭숭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정원에 나가 산책하였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야 한정아는 그의 존재가 소리없이 스며드는 달빛처

럼 자기의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잡고있었다는것을 놀라움속에 깨닫고있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대학시절 한 동창생은 사랑의 발전단계를 세가지로 분석한적이 있었다.

그에 의하면 첫 단계는 접근감, 두번째 단계는 애무감, 세번째 단계는 헌신감이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사랑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항상 그와 같이 있고싶어하며 애인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어하는 열렬한 감정이라는것이다. 하다면 난 몇번째 단계에 이르렀을가?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모르겠다. 허지만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아!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두손으로 싸쥔 처녀는 세차게 높뛰는 심장이 흉벽을 터치고 밖으로 튀여나올가봐 겁이 났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한정아는 끝내 일을 치고말았다.

비록 기자년한은 길지 않지만 문제성있는 기사들을 재치있게 써내군 하는 그를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편집부장이 큰일난것처럼 법석 고아댔다.

《믿는 도끼 발등 찍는다더니 동무가 어떻게 이런 원고를 제출할수 있는가 말이요? 이게 동무가 쓴 원고가 옳긴 옳소. 엉?》

《…》

《난 여태 동물 책임성높고 능력있는 기자로 생각해왔소. 헌데 요즘은 무슨 생각에 옴해가지구 이 모양이요?》

한정아는 너무 창피해서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기각당한 원고를 들고 편집부장방을 나서자 분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편집부장의 추궁이 모욕적이라고 해도 보다 괘씸한것은 표무강, 바로 그 사람이였다. 그가 원고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또 곡절없이 흘러오던 자기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다.

한정아는 자기가 어떻게 여기저기 뻗어간 복도를 한번도 삭갈리지 않고 지났으며 두개 층이나 되는 층계를 헛디디지 않고 내려서 제 방에 들어섰는지 알지 못하였다.

걸상에 주저앉자 가까스로 지탱해온 자제력의 뚝이 와르르― 터져나갔다.

자기가 그러한 처지에 빠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처녀는 때없이 눈앞에서 얼른거리는 표무강의 모습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력에 화가 동하였다. 속상해서 어쨌으면 좋을지 몰랐다.

생활의 불협화음은 집에서도 울리고있었다.

밤늦게 건설장에서 돌아오면 한정아는 작업복을 벗기 바쁘게 어머니가 차려준 통강냉이밥과 배추국 등을 맛있게 먹고는 《엄마,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하고 인차 꿈나라로 가군 하였다.

《에구, 넌 어찌나 피곤했는지 코를 다 골더구나.》

《어마나, 내가 코를 곯아요?》

동녘하늘이 훤히 밝아오는무렵, 잠에서 깨여나 달콤하게 기지개를 켜고있던 처녀는 그 말을 듣자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푸른 하늘에 드리운 쌍무지개처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그 무지개가 먹구름으로 변해버렸다. 그처럼 맛있던 통강냉이밥과 배추국이 소태처럼 쓰거웠고 어머니가 눈치챌가봐 억지로 몇술 떠넘기는 밥은 가슴을 꽉 메우고 치밀어오르는 그 무엇으로 하여 몇번이나 반복하여 넘겨서야 겨우 목구멍을 통과하군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수저를 놓자마자 찾아가던 꿈나라는 종적을 감추었고 그나마 겨우 풋잠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탁상시계는 새벽 2시 15분이나 3시 10분을 가리키군 하였다. 책이라도 보자 하고 소설책을 뒤적거려도 글줄우에 표무강의 무뚝뚝한 얼굴이 그려지군 하였다.

나중에 처녀는 그를 알게 된것을 몹시 후회하였다.

그때 벼랑길에서 그의 방조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한테 군공메달주머니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니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래, 건설장에서 우연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를 잊었을거야. 그런데 겨우 잊을번 했던 그가 떡 나타날건 뭐람. 정말 미워죽겠어. 헌데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속을 태우고있는줄은 알기나 할가? 흥, 알긴 뭘 알아.

그렇게 한밤을 새우고 출근하면 정신이 맑지 못하고 원고에 집중할수 없었다.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처녀의 마음은 초불심지마냥 타들어갔다.

그러고보면 《사랑》이란 인간의 감정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인것만은 틀림없지만 그 화원속에 눈물과 슬픔도 함께 있는것이 아마도 세상리치인것 같다.

언제인가 선배기자가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예요.》

사실 신문사에는 활짝 핀 진달래마냥 아름답고 청순한 녀기자의 미모에 반해서 따라다니는 총각기자들이 한둘 아니였다. 그들중에는 처녀의 집에까지 찾아와 청혼하는 대담한 축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정아의 마음은 강한 자석에 끌린것처럼 오직 한사람, 돌부처같은 표무강한테만 쏠리고있었다.

어머니만큼 딸의 신상에서 일어난 변화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며칠째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던 어머니는 오늘도 마지못해 밥술을 뜨는둥마는둥하고 이불을 뒤집어쓰는 딸을 잡아일으켰다.

《정아야, 무슨 일이냐?》

아닌보살하고 피곤한 기색을 지은 한정아는 어머니목을 사르르 끌어안으며 응석을 부렸다.

《엄마, 난 막 피곤해죽겠어요.》

철부지소녀시절로 돌아간듯 품으로 파고드는 딸을 와락 밀어낸 어머니는 정색해서 따졌다.

《이 어밀 속일 생각은 말아.》

《…》

《왜 밤마다 잠 못 들고 한숨만 쉬는거냐. 응? 그 한숨소리에 방바닥이 꺼지겠구나.》

대답이 궁해버린 한정아는 몸을 돌려 이불을 콱 뒤집어썼다.

《어이구, 분명 무슨 탈이 났구나.》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매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열지 않는 딸의 성미를 알고있는 어머니는 걱정만 하였다.

숨막히는 이불속에서 한정아는 밤을 저주하기 시작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꿈의 바다를 펼쳐놓군 하던 밤, 숨가쁜 취재와 헐치 않은 건설장일로 생긴 피로를 말끔히 가셔주고 새 힘을 안겨주던 그 달콤한 밤이 지금은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시간으로 변하였던것이다.

아, 이밤들을 모두 모아서 지구밖으로 내던졌으면.

4

《그 량반 영 버릇이 없더구만.》

지글지글 타고있는 양고기를 저가락으로 슬슬 뒤집은 부소장은 교양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다는듯 절레절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앉은 로성익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긍정해주었으면 하고있다는것을 번연히 알고있었으나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반시간전 그는 급히 토의할 문제가 있다는 련락을 받고 부소장의 집으로 달려왔었다.

부소장은 량쪽벽에 유럽의 명화들이 비좁게 걸려있고 천정에 값비싼 무리등이 매달려있는 화려한 방가운데 불고기판을 차려놓고 맞

아주었다.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오직 사업밖에 모르는 상급으로 존경해온 그에게 이런 생활의 리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혹시 까마귀를 봉황새로 알고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소장은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첫째라고, 그러자면 질높은 식사를 해야 하는데 영양가높은 양불고기로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겸 한번 화락하게 젖어보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불고기의 력사를 한바탕 내리엮고나서 불쑥 표무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던것이다.

로성익은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월남도주기도사건》은 상급에서도 중시하고있는데 그런 문제를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그것도 양불고기에 술까지 받쳐 마시며 토의한다는것은 사업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였다.

표무강의 《교양문제》로 화두를 뗀 부소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건이 어느 정도 진척되였는가고 물었다.

《본인은 제기된 자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기가 올라 그자신이 입안에 쓸어넣은 양불고기처럼 얼굴이 불깃해진 부소장은 손에 들고있던 저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건방지게!》

유들유들한 얼굴에 비해 형편없이 작은 메밀눈을 쪼프린 부소장은 단호한 어조로 뇌까렸다.

《그 량반이 인정하건 안하건 관계없소.》

로성익은 그의 의도를 알수 없었다.

이번 사건의 물적증거는 고작해야 허정효의 몸에서 나온 《대통령》임명장뿐이고 사건련루자로 지목된 표무강이 간첩의 진술내용을 완강히 부정하고있는데 어떻게 사건을 진척시킨단 말인가.

자기가 끄집어내려는 이야기에 무게를 싣듯 접시에 놓인 양불고기를 손으로 가리킨 부소장은 의미심장하게 내뱉았다.

《이 불고기도 채 익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먹을수 있거던.》

《?!》

역시 오늘의 푸짐한 불고기는 공짜가 아니였다. 《월남도주기도사건》을 빨리 결속지으라는 일종의 독촉인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페된 압력이였다.

로성익은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표무강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기 위해 전쟁시기 그가 근무한 련대와 총참모부, 군사학교에 나갔었는데 그곳 정치부들에서는 표무강을 전적으로 보증하였다. 항일혁명투사인 고급군사학교 교장 오성국과 기계공장 당위원장 김흥선, 인민군군관 리경일 등 많은 사람들도 그를 적극 보증해나섰다.

부소장은 사건진행과정은 물어볼념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언제면 결속할수 있는가고 따졌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이 사건으로 동무의 앞날이 결정될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하군 하였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로성익은 그쯤한 일에 허리를 굽석거릴 비굴한 인간이 아니였다.

아직 범행자료가 립증되지 않은 사람을 놓고 어떻게 사건을 결속짓는단 말인가. 그건 검찰일군의 본도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또한 인간의 량심에도 저촉되는짓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무강문제를 끈덕지게 파고든것은 검찰일군의 본분을 다하려는 자각때문이였다.

하지만 표무강에 대한 료해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처럼 철칙으로 삼아온 로성익의 원칙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얼마전에 찾아왔던 김흥선이 던지고 간 이야기도 가슴속에 맺혀있었다.

《상급검사동진 원칙이란 차겁고 무자비한것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난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말입니다.》

불고기판에서 내뿜는 열기로 하여 방안은 화독처럼 달아올랐다.

로성익은 목단추를 풀어놓을념도 하지 않고 상념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나는 혁명이란 랭철하고 무자비한것으로 여겨왔었다. 전쟁시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여왔다. 하여 한번의 과오나 탈선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뿌듯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왔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좌우명에 대해 회의심이 생겨나는건 무엇때문일가? 그래, 목에 피대를 세우고 원칙을 부르짖은것이 과연 혁명이란 말인가? 결국 나에게 남은것은 무엇인가? 랭돌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 얼음인간이라는 뒤소리뿐이다. 이제 와서 난 고독한 인간이 되고말았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부소장의 말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다시말하지만 그 량반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사건을 이틀내로 결속해야겠소.》

로성익은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부소장의 메밀눈에서 독기가 뿜어나왔다.

《동문 상급의 지시를 거역한다는거요?》

《난 사업상원칙을 지키자는겁니다.》

모욕을 느꼈는지 부소장의 살집좋은 얼굴은 점점 더 벌깃해졌다.

그랬으나 그것은 순간이였다. 미구에 그의 얼굴은 부하의 투정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인심후한 상급의 표정으로 바뀌였다.

《허허, 동무말이 옳소. 아무렴, 우리야 원칙을 베고 죽어야 할 사람들이지.》

로성익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달라진 그의 태도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아서였다.

그가 알고있는 부소장은 하급이 반발한다고 호락호락 물러날 인간이 아니였다. 일단 자기가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고 아래사람들속에서 자신에 대한 뒤소리가 한마디라도 새여나오면 밤이 열둘이라도 끝까지 파고들어 복수하는 무서운 인간이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자, 사업얘긴 그만하기요. 누가 말한것처럼 술좌석이란 화려해야지.》

그가 빙긋 웃으며 손벽을 치자 출입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미모의 녀성이 사뿐 들어섰다.

《미영이, 인사하라구. 나와 같이 일하는 로성익동무요.》

젖가슴이 반나마 드러나게 파진 옷을 입은 그 녀자는 날씬한 허리를 률동적으로 흔들며 다가오더니 서유럽의 숙녀들마냥 한쪽다리를 살짝 굽히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로성익을 넌지시 바라본 부소장이 서툰 로어로 설명하였다.

《내 친구의 동생이요. 로어를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는데… 귀찮아죽겠소. 글쎄, 온종일 바쁘게 돌아치는데 언제 짬이 있는가 말이요.》

《배우겠다는거야 좋은게 아닙니까?》

로성익은 류창한 로어로 응답하였다.

능란한 대화솜씨에 감탄한듯 부러운 눈으로 로성익을 바라보던 미영은 술잔에 워드까를 붓고 생긋 웃음을 지었다.

그 자태는 흡사 어항속에서 귀엽게 꼬리치는 빨간 금붕어같았다.

《로성익동지라고 하셨던가요?… 드세요.》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다 방안의 공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로성익은 술잔을 비우지 않았다.

《그러면 쓰나. 미인의 성의를 거절해서야 안되지.》

부소장이 옆에서 점잖은 어조로 재촉하였다.

그가 술잔을 그대로 들고있자 부소장은 그럼 셋이서 축배를 들자고 하더니 미영이의 잔에 워드까를 부었다.

《아이참, 난 술을 못해요.》

부끄러운듯 긴 속눈섭을 내려깔았지만 녀자의 말쑥한 손은 어느새 술잔을 거머쥐고있었다.

《자, 우리 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잔을 높이 들었다가 로성익의 잔과 대충 찧고나서 옆에 바싹 붙어있는 미영의 술잔에 흥취나게 찧은 부소장은 제 먼저 쭉 들이켰다.
미영이도 눈섭 하나 찡그리지 않고 마셔버렸다.
《흐흐흐, 좋아, 좋아!》
절반도 비우지 않은 로성익의 잔을 넘겨다본 부소장은 이런 장소에서까지 검찰일군흉내를 내겠느냐고 나무라듯 혀를 찼다. 그러더니 한창 소화가 진행되고있는 불룩한 배를 슬슬 내리쓸며 미영이한테 슬쩍 눈짓하였다.
미영은 엉치를 맵시나게 흔들며 전축이 놓여있는 원탁으로 다가갔다.
《로동진 어떤 곡을 좋아하시는가요?》
고작 한두마디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구면지기처럼 《로동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른 그 녀자는 레코드판을 이것저것 들어보였다.
이런 일에 습관되지 못한 로성익은 얼핏 부소장을 돌아보았다.
뚱뚱한 몸을 쏘파에 틀어박은 그는 뻔한것을 묻는다는듯 시물시물 웃고있었다.
《그야 미영이가 더 잘 알텐데.》
알만 하다고 눈웃음을 친 미영은 레코드판을 골라들고 전축에 살짝 끼워넣었다. 그런 다음 무슨 곡이 나오는지 알아맞춰보세요라고 묻듯 로성익을 향해 생글생글 웃었다.
이윽고 오스트리아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인 《아름답고 푸른 두나이강가에서》의 경쾌하고 박력있는 선률이 흘러나왔다.
그 선률을 타고 녀자의 사근사근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궁정무도회악단의 지휘자로 있던 슈트라우스는 어떤 사람한테서 유쾌한 노래를 한곡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남성합창곡을 작곡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가사가 시원치 않아 다시 지었는데 그것이 일약 명작으로 이름떨쳤다나요. 어때요? 알프스산맥에서 시작하여 오스트리아평원을 거쳐 흑해로 유유히 흘러가는 두나이강 량언덕의 아름다운 풍경과 강물우에서 즐겁게 놀고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는가요?》
눈앞에 두나이강 량언덕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있기라도 하듯 두눈을 사르르 감은 미영은 신나서 계속하였다.
《유감스러운건 왈쯔곡을 5백편이나 지었다는 <왈쯔의 왕>이 원에서 왈쯔를 출줄 모르는 유일한 남자였다는 사실이예요. 한번은 아름답게 생긴 한 녀성이 그에게 왈쯔를 추자고 청하였는데 슈트라우스는 춤을 추는척 하면서 악단쪽으로 유인해가서는 제1바이올린수에게 짝패를 슬그머니 떠맡기고 자기는 바이올린을 연주했답니다.》
《왈쯔의 왕》을 칭찬하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 알쏭달쏭한 말을 늘어놓던 그 녀자는 제편에서 먼저 춤을 청하였다.
로성익은 춤을 모른다고 듣기 좋게 거절하였다.
까치다리를 하고있던 부소장이 시까슬렀다.
《그런 말 마오. 내가 듣기엔 동문 붉은군대에 있을 때 금발머리처녀들이 왈쯔를 추자고 줄을 섰댔다던데…》
부소장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있을가 하고 생각하면서 로성익은 이렇게 둘러쳤다.
《그건 풍문입니다.》
《아이참,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겠어요?》
미영은 교태를 머금고 로성익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래도 그가 응하지 않자 미영은 금시 울상이 되여버렸다.
쏘파에서 일어난 부소장은 로성익을 향하여 위혁적인 손짓을 하였다.
《좋지 않소. 미인을 울리다니. 할수 없지. 자, 미영이!》
당신은 졸장부예요라고 나무라듯 두눈을 흘긴 미영은 언제 그랬던가싶게 해쭉 웃으며 부소장한테로 다가갔다.

그러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부소장은 녀자의 잘룩한 허리를 부여잡더니 뚱뚱한 몸을 날렵하게 놀리며 때마침 흘러나오는 왈쯔곡에 맞춰 경쾌하게 첫발을 떼였다.

사이좋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들을 보자 로성익은 자기가 미영이의 청에 응하였더라면 어쩔번 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거의나 한몸이 되여 방안의 여기저기로 활기있게 돌아가던 두사람은 이미 로성익이란 존재는 안중에 없이 자기들의 세계에 푹 빠져버렸다.

교태가 찰찰 넘치는 녀자의 귀에 두툼한 입술을 바싹 가져다댄 부소장은 음침한 어조로 수군거렸다.

《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

《부소장동지가 먹다남은 보신탕을 자기한테 보낸게 아닌가고 하더군요. 아이, 그 사람은 저속해요. 녀성을 보신탕에 비유하다니요.》

《그래서?》

《앵돌아진척 하고 그 보신탕을 맛보지 못해 안달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계십니다 하고 쏘아주었지요 뭐.》

《그래서?》

《그랬더니 롱담으로 한마디 한건데 뭘 그러는가고 하시더니 미영이는 성났을 때가 더 곱다면서 내 손목을 슬쩍 잡더군요.》

《그래서?》

《뭘 자꾸만 그래서, 그래서예요? 그 다음이야 뻔하지 않아요.》

《흐흐흐!》

《그렇게 점잖아보이던 사람도 녀자앞에서야 어쩌는수가 있어요? 에이, 다신 그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내 귀염둥이가 싫다고 하는걸 보니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선 나보다 못한게지. 솔직히 나도 미영이를 보내고싶지 않아. 허지만 그가 우리 집에 왔다가 널 보고 반해서 꼭 만나게 해달라고 성화먹이는데 어쩌겠나? 그러니 날 위해서라도 노여워말라구. 내 다 봉창하지 않으리.》

《아이참, 미워요.》

부소장은 토달거리는 미영의 탱탱한 엉치를 슬슬 어루만졌다.

그러자 기다리고있은듯 녀자는 그의 목을 꽉 그러안았다.

방안의 분위기가 이쯤되고보니 로성익은 자기가 있을 곳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정신없이 끌어안고 돌아가는 남녀를 남겨둔 그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흐렸던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다.

워낙 단정한것을 좋아하는 그는 옷이 젖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였다.

저도 모르게 몇발자국뒤에 있는 부소장네 집을 돌아보았다.

가서 우산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가? 아니, 그만두자.

고개를 가로저은 로성익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하였다.

5

표무강은 크레졸냄새가 배인 침대우에 엎드려있었다.

한주일전 강의를 받고있던 그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지금껏 가까스로 참아오던 병세가 극한점을 넘어선것이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본것은 사방 하얀 벽체와 역시 회칠을 깨끗이 한 천정이였다.

내가 어떻게 입원실에 누워있을가?

기억을 더듬느라니 강의시간에 뼈를 쑤시는것 같은 동통을 애써 참던 일이며 어느 순간인가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던 생각이 났다.

그날부터 고달픈 생활 즉 한창나이의 사나이에게는 참기 어려운

병원생활이 시작되였다.

부상당한 허리때문에 바로누워있지 못하고 온종일 엎드려있자니 오금이 쑤셔나고 속에서 불이 이는것 같았다.

참다못해 담당군의한테 산보라도 하게 해달라고 제기했더니 안된다고 딱 잘랐다. 그럼 심심치 않게 소설책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자 규정에 어긋난다고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규정과 안정이라는 울타리속에 갇힌 그는 담당간호원이 가져다주는 약들을 꼬박꼬박 받아먹으며 침대우에 엎드려있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말았다.

이런 때 군공메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괴롭지는 않겠는데.

《환자동지, 투약시간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담당간호원처녀가 약봉투를 내주었다.

이제는 몇시간에 한번씩 반복되는 그 목소리도 짜증났다.

억지로 약을 받아삼킨 표무강은 은근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간호원동무,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하루종일 베개속에 머리를 틀어박고있던 무뚝뚝한 환자가 친절하게 나오자 간호원처녀는 희한해하였다.

《말씀하십시오.》

《내 군복을 가져다줄수 없겠소?》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부탁이라니 궁금해하던 처녀는 대번에 도리머리를 저었다.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거요?》

《병원규정입니다.》

부아가 치밀어오른 표무강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다가 윽!—하고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그것 보세요.》

간호원의 안타까운 말소리가 머리우에서 맴돌았으나 표무강은 두눈을 맥없이 감아버렸다.

환자가 조용해지자 간호원처녀는 입원실을 나섰다.

도로 눈을 뜬 표무강은 제라니움화분이 놓여있는 창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러다가 정말 군복을 벗는게 아닐가. 나한테서 군복을 떼여놓으면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고래고래 소리치고싶었으나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자동지!》

출입문쪽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혹시 군복웃주머니에 들어있는 <귀중품>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귀중품》이라는 소리에 표무강은 제꺽 머리를 돌렸다.

침대곁으로 다가온 담당간호원은 출입문쪽을 할끔 돌아보고는 뭔가 재빨리 넘겨주면서 속살거렸다.

《군의동지한테 들키면 큰일납니다.》

그가 가버리자 손에 쥐여진것을 내려다본 표무강은 하마트면 환성을 터뜨릴번 하였다.

약봉투속에 들어있는것은 꿈결에도 그려보던 군공메달이였다!

그것을 쓸어보느라니 방금전까지만 해도 끝장난것으로 생각되던 생이 새롭게 시작되는것 같았다.

간호원처녀가 신통히 표현했거던. 아무렴,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값진 귀중품이구말구.

방금전까지 쑤셔대던 부상처의 아픔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음은 어린애처럼 즐거워났다.

한편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입만 떨어지면 앵무새처럼 병원규정만 외우던 간호원처녀가 어떻게 군공메달을 가져다줄 생각을 하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다. 그까짓 일이야 어떻게 되였든지 그 처녀가 고마왔다. 간호원처녀가 옆

에 있다면 꾸벅 절을 하고싶었다.

이런 땐 무슨 노래를 불러야 제격인데… 그렇지, 그 노래를 불러야지.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

머리우에서 엄한 말소리가 터졌다.

《이건 뭡니까?》

침대옆에 두눈을 부릅뜨고 서있는 사람은 담당군의였다. 메스처럼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다.

군공메달을 베개밑에 밀어넣은 표무강은 퉁명스럽게 응답하였다.

《심심해서 노랠 부르댔습니다.》

《흠, 군공메달을 닦으면서 말입니까?》

더 답변할 말이 없는 표무강은 함구무언할수밖에 없었다.

《간호원동무!》

담당군의가 찾자 출입문옆에 가슴을 조이며 서있던 간호원처녀가 소심하게 다가왔다.

《어떻게 된거요?》

《…》

《좋소. 동무문젠 따로 보겠소.》

그통에 난처해진것은 표무강이였다.

《군의동지, 간호원동문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가져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융통성이란 조금도 없는 담당군의는 그의 말은 애당초 듣지 않았다.

《환자동진 최대로 안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 병원신세를 질수 있습니다.》

얼마동안 치료를 받으면 군사학교로 돌아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던 표무강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내 상태가 어떻다는겁니까?》

담당군의는 병원규률을 잘 지키지 않는 환자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긴듯 자칫하면 불구가 될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예, 불구말입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사실에 표무강은 몸을 떨었다.

《자, 군공메달을 내놓으십시오.》

베개밑에 슬며시 손을 밀어넣었던 표무강은 군공메달이 만져지자 정신이 버쩍 들었다.

이건 안돼!

전쟁시기 야전병원군의로 있었다는 담당군의도 만만치 않았다.

《여긴 병원입니다. 설사 동지가 장령이라고 해도 병원에 입원한 이상 신입병사와 같습니다. 어서 내놓으십시오.》

군공메달을 줌안에 꽉 쥐고있던 표무강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군공메달이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나 같습니다!》

《?》

군공메달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것 같은 환자의 기상에 억이 막혀버린 담당군의는 흥분한 환자를 달래자면 자리를 피하는것이 좋겠다고 단정한 모양 입원실에서 나가버렸다.

주먹을 펴고 군공메달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던 표무강은 숨을 크게 내쉬였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두려운게 없어. 없구말구.》

6

철썩, 철썩!ㅡ

흰갈기를 추켜세운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있었다.

그 열정적인 물결은 전쟁의 상처를 가시지 못한 대동강기슭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는 뒤로 물러났다가 성차지 않은듯 다시금 달려오군 하였다.

아까부터 강기슭을 거닐고있던 한정아는 미세기의 그 환희로운 움직임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었다.

어쩌면 저렇게 강할가? 어쩌면 저리도 장쾌할가?

인간생활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처녀는 생각하였다.

지금껏 자기의 가슴을 조이던 표무강의 문제가 이제는 썰물처럼 물러갔던것이다.

오늘 오후, 원고를 집필하고있는데 당위원장이 찾는다는 련락이 왔다.

《좀전에 승용차를 타고 온 장령동지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가?》

《혹시 정아동무를 데려가려는게 아닐가요?》

《그럴지도 몰라.》

제나름대로 추측하는 동료들을 뒤에 남기고 사무실을 나선 한정아도 그들 못지 않게 속이 궁금하였다.

생각을 더듬어보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었다.

편집부장한테 기각되였던 기사는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생활에서도 특별히 제기된것이 없었다. 그런데 당위원장이 찾는다니 보통일은 아닐것 같았다.

얼마후 당위원장방에 들어선 한정아는 동료기자들이 말하던 그 인민군장령을 알아보았다.

그는 전쟁시기 포위에 들었던 표무강련대를 구원해준 오성국장령이였다.

그때 먼발치에서 보았던 그가 몇해가 지난 오늘 무슨 일로 신문사에 찾아왔는지 알수 없었다.

쏘파에 앉으라고 권하는 오성국의 길쭘한 얼굴에는 마치 헤여졌던 혈육을 만난것과도 같은 반가운 기색이 어려있었다.

처녀가 쏘파에 얌전히 앉자 그는 다심한 아버지인양 나이는 몇살인가, 부모는 뭘 하는가, 직장일은 재미나는가 등 차근차근 물어보았다.

또박또박 대답하는 처녀를 유심히 살펴보던 오성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아동무, 혹시 약속한 남자가 있소?》

《?》

소년선봉대시절부터 혁명에 참가하여 유명한 소왕청방어전투와 산동툰전투, 조묘태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사단장, 군단참모장 등을 력임하면서 이름을 떨쳤다는 항일투사가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짐작하지 못하였던 한정아는 놀랍기만 하였다.

《허, 다르게 생각마오. 내 꼭 알고싶어 그러오.》

서글서글한 그의 이야기에 다소 마음이 가라앉은 처녀는 솔직히 대답하였다.

《아직은… 없습니다.》

《없단 말이지?! 그럼 됐소.》

다행이라는듯 오성국의 얼굴은 금시 환해졌다.

《한가지 더 묻기요. 정아동문 표동무를 어떻게 생각하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한정아였지만 그 질문에 일순 당황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참, 이런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한담?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있는 처녀를 바라보던 오성국은 빙그레

웃었다.
《난 동무들의 인연이 깊다는걸 아오. 듣자니 정아동문 표동무한테 군공메달주머니를 만들어주었다고 하더군.》
어마나, 죄다 알고있구나!
홧홧 달아오른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데 오성국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아동무, 내가 오늘 동무를 찾아온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표무강동무를 두고 하신 말씀때문이요.》
《네?》
깜짝 놀란 한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표무강동무는 자신을 믿고 공화국으로 의거하였는데 아직 그의 생활을 안착시켜주지 못하였다고,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기숙사생활을 하고있다니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시였소.》
한정아는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게 정말일가?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수령님께서 그의 일생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다니.
《수령님께서는 표무강동무가 의거할 때 자기를 위해 목숨바친 처녀때문에 장가를 가지 않고있다는데 그 사실만 놓고봐도 그 동무야말로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한 인간인가. 그럴수록 우리가 그를 잘 돌봐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소.》
《!》
지금껏 자기들의 문제를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문제로만 여겨온 한정아였다. 그때문에 표무강을 사랑하면서도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는데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신다니 생각이 깊어졌다.
오성국의 진중한 목소리가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난 정아동무가 이미전부터 그를 남다르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내 말이 틀리오?》
한정아는 자기의 속마음이 송두리채 드러난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내 짐작이 옳구만.》
《…》
항일의 백전로장은 투박하면서도 꾸밈없는 어조로 직방 말하였다.
《난 동무가 표무강동무와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오.》
《네?》
놀라서 그를 쳐다보던 처녀는 자기의 심장이 여느때보다 더 힘차게, 더 열렬하게 뛰고있는것을 느끼고있었다.
그러는데 오성국은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이르는것이였다.
《당장은 표동무가 입원한 병원에 가보았으면 좋겠소.》
한정아는 다우쳐물었다.
《그가 어떻게 되였습니까?》
《전쟁때 다친 부상처가 도져서 그만… 무척 힘들거요.》
한정아는 그렇게 하겠다고,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싶었지만 또다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종시 대답을 못하고말았다. …
철썩, 처절썩—
생각에서 깨여난 한정아는 수면우에 눈길을 던졌다.
복구건설로 들끓는 조국의 모습을 담아싣고 줄기차게 흘러가는 대동강.
수천수만개의 거울이 떠있는듯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우에는 벌써 1단계 복구공사를 끝낸 평양방직공장의 밝은 불빛이 얼른거리고 날마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평양곡산공장건설장의 용접불꽃이 언뜻언뜻 비치고있었다.
그 활기로운 수면우에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긴 신주옥의 모습이 비꼈다.
전쟁시기 개울가에서 알게 된 그들은 한정아가 대학으로 떠나자 서로 련계가 끊어졌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우연히 부딪쳤는데 그때 한정아는 신주옥이 전후에 김흥선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반갑게도 신주옥이 다니는 진료소가 신문사와 같은 방향에

위치한 덕분에 두 녀인은 출퇴근길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군 하였다.

그때마다 신주옥은 집에서 있은 크고작은 일들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언니, 며칠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글쎄 정신없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기에 깨여났더니 애아버지가 아이기저귀를 갈아주고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인 요즘 공장일이 바빠서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군 하는데 글쎄, 요 맹꽁인 아이건사도 제대로 못하니 그게 무슨 안해이겠나요?》

《오늘 새벽엔 말이예요. 아이가 칭칭거리자마자 깨났지요 뭐. 헌데 그이가 벌써 잠투정하는 아이를 달래고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내쏘았지요 뭐. 당신은 온밤 잠은 자지 않구 아이보초를 서는가구요.》

행복에 넘친 신주옥의 밝은 얼굴을 보느라니 가정생활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은 그가 비록 나이는 두살이나 아래이지만 생활에서는 한참이나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틀전 퇴근길에서 만났을 때 안타까운 심정을 죄다 털어놓았다.

그때 신주옥은 주저없이 말하였다.

《언니, 난 사랑은 누가 선사해주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김흥선의 이야기가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메아리쳐왔다.

《표동문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고비를 겪고있소. 난 이런 때야말로 그의 옆에 정아동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오.》

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들은 내가 그와 일생을 같이할것을 바라고있어. 더우기 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으니 그 어느때보다 힘과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도 난 맹꽁이처럼 속만 태웠어. 아니, 그를 굳게 믿고 아껴주시는 수령님께서 계시고 미더운 전우들이 있는데 무엇을 주저한단 말인가. 그래, 이제라도 그가 군공메달을 끝까지 빛내일수 있도록 도와주자. 설사 그 길에 어떤 고생이 있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을테야.

철썩, 처절썩—

또 한차례 기슭을 어루만진 파도는 기진한듯 물러갔다가 강심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또다시 기운차게 밀려왔다.

지칠줄 모르고 끝없이 밀려드는 저 파도!

어쩌면 저 파도는 그의 심장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내 마음과 같을가. 표동지, 똑똑히 들어주세요. 난 동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단 말이예요!

이마우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귀바퀴뒤로 곱게 쓸어넘기는 처녀의 가슴속에 사랑의 밀물이 가득차오르고있었다.

7

《무강씨,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절 용서해주세요. 전 이제 의무소로 돌아가면 대대와 함께 의거하지 못할거예요. 어쩌면 영영 무강씨의 곁으로 오지 못할수도 있답니다. 허지만 전 두렵지 않아요. 대대가 무사히 의거할수 있다면, 무강씨가 힘들게 찾은 애국의 길을 곧바로 걸을수만 있다면 전 설사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어요.

내 사랑, 부디 잘 가세요. 그리고 먼 후날 남녘의 한 처녀가 눈을 감을 때까지 당신을 열렬히 사랑했다는것을 종종 추억해주세요. 신애 올림.》

이것은 신애가 남긴 마지막편지, 아니 영원히 잊을수 없는 사랑하는 처녀의 모습이였다.

표무강은 그 한자한자를 바위에 정으로 새기듯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그런데 렌트겐촬영을 하고 돌아오니 침대우에 그와 꼭같은 내용의 편지가 놓여있는게 아닌가.

믿어지지 않아 한동안 낯선 편지를 뚫어지게 보다가 두눈을 감고도 환하게 외울수 있는 신애의 편지와 대조해보았다.
마지막글자뒤에 《195×년 9월 ×일》이라는 날자가 밝혀져있는것이 신애의 편지와 다른 점이였다.
글씨로 보아 처녀가 쓴것이 분명하였다.
도대체 어떤 처녀인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썼을가? 혹시 담당간호원이 아닐가? 환자옷을 세탁하거나 이런저런 조건으로 신애의 편지를 볼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은 그 처녀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무엇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가?
투약시간이 가까와오자 표무강은 그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드디여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입원실문이 열렸다.
상반신을 세우고 그쪽을 바라보던 표무강은 다른 간호원처녀를 보자 실망하고말았다.
《환자동지, 투약시간입니다.》
《우리 담당간호원동무 어디 갔소?》
《약초캐러 갔습니다.》
《언제 돌아오우?》
《아마 이삼일은 걸릴겁니다.》
간호원이 약을 내주고 나가자 다시금 《신애의 편지》에 빠진 그는 누군가 입원실에 들어선줄도 모르고있었다.
《뭘 생각하나?》
문가에 서있는 사람은 강성무였다.
《음, 자넨가.》
강성무는 몸을 일으키려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그냥 누워있게.》
환자의 처지란 바로 이렇다네 하고 허거프게 웃어보인 표무강은 진저리나는듯 이마살을 찡그렸다.
《이놈의 부상처가 빨리 나아야 학교에 돌아가겠는데…》

쑤셔나는 허리를 툭툭 치던 그는 강성무의 눈가에 어두운 빛이 스쳐지나는것을 보지 못한채 투덜거렸다.
《그건 그렇구 이젠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게 됐으니 야단났네.》
지난날에는 련대를 지휘하는것이 나의 임무였다면 오늘은 공부를 잘하는것이 첫째가는 임무라고 생각한 표무강은 비록 침대에 누워있었지만 강성무의 강의노트들을 빌려다 공부를 직심스레 하고있었다.
그런데 무슨 기미를 차렸는지 담당군의가 불의에 입원실에 나타나군 하였다.
《위험》을 느낀 그는 이불을 뒤집어쓴 다음 그속에 전지를 가지고 들어가 《도적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이불속에서 강의내용을 정리하고있는데 출입문소리가 났다.
얼른 전지를 끄고 잠든척 하였다.
《환자동지!》
《…》
조금후에 귀에 익은 발자국소리가 출입문쪽으로 뻗어가더니 조용해졌다.
이불속에서 나온 표무강은 안도의 숨을 내그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이불속에서 공부에 열중하고있던 그는 뒤늦게야 침대쪽으로 접근하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야단났구나!
부리나케 강의노트들을 배밑에 깔고 드릉드릉 코고는 소리를 냈다.
한식경이 지났는데도 담당군의가 돌아가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내가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것이 아닐가?
조심히 이불을 들추고 머리를 내밀던 그는 굳어졌다.
엄한 표정을 지은 담당군의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는게 아닌가.
《이불속에서 뭘 하고있습니까?》

표무강은 짐짓 졸리는것처럼 하품을 하며 엉너리쳤다.
《피곤해서 잠들었댔습니다. 헌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담당군의는 이불속에 손을 밀어넣더니 그때까지 불이 켜있는 전지를 끄집어냈다.
《이건 뭡니까?》
그때에야 이불밖으로 새여나온 전지불이 사달을 일으켰다는것을 알았지만 죽어도 벽을 문이라고 내밀 판이다.
《모릅니다.》
쓰거운 웃음을 지은 담당군의는 이번에는 이불을 들추고 강의노트들을 꺼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배짱이 센 표무강이였지만 명백한 증거앞에서 더는 뻗칠수 없었다. 결국 전지와 강의노트들은 회수당하고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데 적극 협력한 강성무는 대학에 불려가 추궁을 받았던것이다. …
《무강이!》
그 무거운 부름소리에서 표무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러나?… 말하게.》
한숨을 푹 내쉰 강성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즘 군사학교에서는 표무강이 인차 제대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있었다.
제대리유는 부상처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군사복무가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물론 그것은 듣기 좋은 소리이고 쉬쉬하며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진짜 제대리유는 《월남도주기도사건》이라는것이다.
표무강은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날 제대시킨다는건가?》
《그렇네.》
아까부터 친구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설마 그런 문제가 나올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표무강은 격한 나머지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다.
《걷어치워. 도대체 누가 날 제대시킨단 말인가. 누가?》
그때 공교롭게도 담당군의가 나타났다.
《환자동지, 어서 누우십시오. 그러다 척추에 무리가 오면…》
제대문제로 성이 오를대로 오른 표무강은 거칠게 소리질렀다.
《그만하시오. 밤낮 척추, 척추. 그래, 내 척추가 어떻다는겁니까?》
《…》
《난 퇴원하겠습니다.》
담당군의의 두눈에 어이없어 하는 빛이 어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퇴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그럼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가 정말 일어날 차비를 하자 강성무가 붙잡았다.
《무강이, 왜 이러나? 진정하게.》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닌 표무강은 친구의 손을 와락 뿌리쳤다.
《어떻게 진정하라는건가? 내 한생이 끝날 판인데 뭘 참으란 말인가? 이걸 놓게.》
종시 침대에서 내려선 표무강은 퍼런 줄이 쭉쭉 건너간 환자복을 그대로 입은채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발자국 옮기지 못하고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더니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음!》
몸중심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그는 그만에야 꽝－ 하고 넘어졌다.

8

입원환자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곧 명절이라고 할수 있다.

별식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가족과 친척들, 새 소식을 한보따리 꿍져가지고 나타난 유쾌한 친구들, 별스레 너그러워진 군의들과 간호원들…

언제나 정숙이 흐르던 병원이였지만 이날만은 환자들과 면회자들의 말소리, 웃음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표무강이 들어있는 입원실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의 입원실문을 제일먼저 두드린 사람은 신주옥이였다.

《련대장동지, 성철이 아버지가 나타나면 욕하십시오. 요즘은 집에 얼씬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만 면회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미워죽겠습니다.》

말투를 보면 남편을 원망하는것 같지만 웃음을 함뿍 담고있는 얼굴에는 은근한 자랑기가 물결치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남편이 오늘 새벽 병원에 왔다간 사실을 모르고있었다.

신주옥이 돌아간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서분이였다.

전쟁시기 행군중에 아이를 낳은 그 녀인은 평양방직공장에서 정방공으로 일하고있었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병원에 자주 찾아왔다.

그때마다 꼭꼭 데려오는 다섯살 난 영보는 어머니한테서 련대장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지 표무강을 친삼촌처럼 따랐다.

오늘도 어머니를 뒤에 떨구고 깡충깡충 달려온 영보는 침대우에 옴짝 못하고 엎드려있는 표무강에게 목말을 태워달라고 조르다가 그의 잔등우에 넌떡 올라탔다.

《이랴, 이랴!》

서분이가 큰일났다고 아부재기를 치더니 아이를 끌어내려 찰싹찰싹 엉치를 후려갈겼다.

표무강은 녀인을 만류하였다.

《아주머니, 놔두십시오. 사내아이야 좀 갈겨야 정상이지요.》

한참후 서분이가 가져온 뜨끈한 단고기국을 먹고있는데 뜻밖에 고남수가 어기적어기적 나타났다.

오늘은 무슨 날이기에 모두 약속이나 한것처럼 밀려드는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련이어 찾아오니 고독감은 사라지고 즐겁기만 하였다.

전쟁시기 련대와 함께 고산진까지 들어간 고남수는 소원대로 간고한 북행길에서 소중히 보관해온 옥백미를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렸었다.

그때 그는 감격의 눈물을 좔좔 쏟으며 이제는 농사를 실컷 지어서 공화국을 받들겠다고 하였었다. 현재 고남수는 서해안의 곡창지대에서 농사를 짓고있었는데 이번에 모범농민강습차로 평양에 올라왔다가 복구건설장에 지원나온 서분이를 만나 소식을 알고 병원에 들렸던것이다.

《련대장어른, 허리병치료엔 곰열이상 없수다.》

농사군답게 투박한 이야기였지만 유순하게 내려앉은 갈고리눈에는 진정이 흐르고있었다.

그들이 돌아가자 리경일을 비롯한 전우들이 또 쓸어들었다.

그들속에는 전쟁시기 《구두식사》를 펼쳐놓았던 료리사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직접 누른 농마국수가 풀어지기 전에 빨리 들라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표무강은 그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싸웠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하였다.

면회자들의 왕래가 끊어지자 그는 축지 부러진 새마냥 어깨가 축 처졌다. 잠시나마 몰려가던 번민의 파도가 또다시 밀려들었던것

이다.
고개를 맥없이 떨구고있는데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
그 속삭임소리는 다름아닌 자기의 가슴속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인간이 한생을 살아가자면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그렇다. 목적없는 삶은 살아도 죽은것이나 같다. 하다면 내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군공메달을 영원히 빛내이는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복을 벗는다면…
《환자동지, 투약시간입니다.》
이래저래 속이 탄 표무강은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았으나 반겨맞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원처녀앞에서 내색할수도 없어 한마디 던지고말았다.
《약초캐러 갔다더니 언제 왔소?》
《좀전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넘겨주는 약을 받아놓은 표무강은 베개밑에 끼워놓았던 《신애의 편지》를 꺼냈다.
《이건 어떻게 된거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를 알아보자 담당간호원은 당황해하였다.
《미안합니다. 환자동지가 없을 때…》
《동물 탓하자는게 아니요. 내가 알자는건 어떻게 되여 편지를 썼는가 하는거요.》
《저, 사실은…》
똑똑똑—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출입문쪽을 바라보았다.
인차 문이 열리더니 미색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처녀가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그를 알아본 표무강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방긋 웃음을 담고있는 처녀는 뜻밖에 한정아

였던것이다.
이 처녀가 어떻게 왔을가?
한정아가 먼저 자신만만하게 말을 건네왔다.
《무강동진 제가 온게 반갑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의 부름말이 《련대장동지》로부터 《무강동지》로 바뀌였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건설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퍼그나 부드러워진것을 표무강은 뒤늦게야 알아차렸다.
그를 어떻게 대해주어야 할지 결심을 못 내리고있는데 담당간호원처녀가 한정아에게 알은체를 하였다.
《정아언니!》
《영금동무, 잘 있었어요?》
서로 반가와하는것을 보면 아마 두 처녀는 이미전부터 아는 사이같았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간호원처녀가 딱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된것이 다행스러운 모양 얼른 입원실을 나서자 한정아는 손에 들고있던 보자기를 원탁우에 올려놓았다.
《건강은 어때요?》
《?》
표무강은 그동안 그가 퍼그나 달라졌다는것을 느꼈다.
전쟁시기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복구건설장에서 마주쳤을 때도 한정아는 총명하고 자존심이 강한 처녀들이 대개 그러하듯 약간 새침한 인상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티가 전혀 없고 발랄한 표정이였다.
그 모습앞에 주눅이 들어버린 표무강은 《많이 나았소.》 하고 어름어름 대답하고말았다.
《그럼 됐군요.》 하고 한정아는 보자기를 풀었다.
음식그릇들이 부딪치는 달그락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상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표무강은 저도 모르게 코를 벌름거렸다.
분명 오래전에 어머니가 무쳐주군 하던 콩나물무침냄새였다.
아닐세라 한정아가 꺼내놓은 음식들중에는 먹음직스러운 콩나물무침도 들어있었다.
제대문제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그 냄새를 맡자 태평스레 졸고있던 목젖이 무섭게 방아를 찧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그에 련대성을 표시하듯 배까지 쪼르륵― 하고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내질렀다.
제길, 이게 무슨 망신이야?
듣지 못한척 하고 원탁을 침대옆에 바싹 붙여놓은 한정아는 콩나물무침을 담은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었다.
《구미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처녀의 정겨운 목소리에 표무강은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정아는 내가 콩나물무침을 좋아한다는걸 어떻게 알았을가?
《아이참, 어서 드세요!》
처녀가 진심으로 권하는데 멍하니 앉아있는것처럼 민망한 일은 없다.
에라, 어쨌든 먹고보자.
저가락을 집어든 표무강은 콩나물무침을 걸탐스럽게 먹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다.
《어마나, 그냥 콩나물무침만…》
한정아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자 표무강은 자기가 정말 밥이랑 떡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콩나물무침만 먹어치웠다는것을 알았다.
처녀앞에서 멋적은 생각이 들었지만 여하튼 오랜만에 콩나물무침을 먹고나니 울적하던 기분이 한결 풀어지는것 같았다.
《그럴줄 알았으면 좀더 많이 무쳐올걸 그랬군요. 래일 또 가져오겠어요.》

처녀의 말에 표무강은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오지 마오.》
웃음이 찰랑거리던 처녀의 두눈이 굳어졌다.
《어째서요?》
《바쁘겠는데 공연한 걸음을 하지 말라는거요.》
《공연한 걸음이라니요?》
《글쎄 오지 말란 말이요.》
고집을 부리는 표무강을 야속한 눈길로 응시하던 한정아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신상에서 벌어진 일때문에 마음쓰는건 아닌가요?》
《…》
《이렇게 말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지금 무강동지한테선 련대를 지휘하던 그때의 기백을 찾아볼수 없군요.》
표무강은 속이 불끈거리는것을 겨우 참았다.
《그건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요?》
한정아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전 담가에 누워 련대를 지휘하던 무강동지의 모습을 잊을수 없어요. 그때의 동진 정말 남아다왔어요. 헌데 지금은…》
《지금은 어쨌다는거요?》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맥을 놓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말문이 막혀버린 표무강은 씩씩 숨을 가쁘게 톺기만 하였다.
《신애언니가 살아서 동지를 보았다면… 분해서 울었을거예요.》
한정아의 입에서 신애소리가 나올줄은 꿈에도 몰랐던 표무강은 우뜰 놀랐다.
이 처녀가 어떻게 신애를 알고있는가?
또다시 들려온 처녀의 절절한 목소리가 가슴속을 아프게 헤집었다.
《물론 전 신애언니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허지만 그가 무엇때문

에 꽃나이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는가 하는것만은 알고있답니다. 그래, 무강동진 신애언니의 편지를 벌써 잊었는가요?》

《편지?》

문득 《신애의 편지》에 대해 묻자 인차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담당간호원의 모습이 생각났다.

원래 그 처녀는 병원규정밖에 몰랐는데 별안간 군공메달을 가져다주었고 편지도 썼다. 좀전에는 한정아와 반갑게 인사까지 나누었다. 혹시?…

날카로운것이 뇌리를 치는 순간 표무강은 환자복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그럼 이 편지를 쓴게 동무요?》

한정아는 단풍잎처럼 붉게 물든 얼굴을 소곳이 숙였다.

옳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숨이 가빠올랐다.

저도 모르게 거친 말소리가 튀여나왔다.

《어쩌자고 이런 편지를 썼소? 도대체 동무가 뭐길래…》

처녀의 고개가 홱 쳐들렸다.

놀라움과 실망이 한데 엉킨 까만 눈동자가 나타났다.

《어디 말해보란 말이요.》

타는듯 한 눈으로 마주보던 한정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전… 신애언니처럼 살고싶었어요.》

표무강은 웅글은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뭐, 신애처럼 살고싶었다구?… 어떻게 정아가 신애로 될수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럴순 없어. 절대로 그럴수 없어!

울컥 치밀어오르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 표무강은 주먹으로 원탁을 쾅!― 내리쳤다.

《내앞에서 당장 사라지오!》

《네?》

처녀의 속눈섭이 가늘게 떨고있었다.

《다시 내앞에서 신애소리를 꺼내면 가만있지 않겠소.》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얻어맞은듯 한정아는 몸중심을 잃고 비칠거렸다.

《어쩜… 어쩜…》

신음소리마냥 같은 말을 뇌이던 한정아는 와락 얼굴을 싸쥐더니 입원실을 뛰쳐나갔다.

세차게 오르내리던 표무강의 어깨가 침대우에 떨어졌다.

《음!―》

입원실이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아가고있었다.

그와 함께 모든것이 섞어지며 뒤죽박죽이 되여버렸다.

9

며칠이 지나갔다.

오늘도 행여나 하고 출입문가를 바라보던 표무강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 입을 쩝쩝 다시였다.

나야말로 얼마나 뻔뻔스러운 인간인가? 언제는 그를 쫓아내더니 지금은 다시 왔으면 하고 기다리다니. 아마 정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난 무엇때문에 기다리고있는가? 무엇때문에?… 그는 나더러 련대를 지휘하던 때의 기백을 찾아볼수 없다고 하였다. 비록 그 채찍질은 아팠지만 그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릴수 있었다. 그렇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군사학교에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한다!

눈앞에 신애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가? 아마 정아처럼 행동했을것이다. 그렇다면 신애와 정아가 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어쨌든 난 바보다. 그런 훌륭한 처녀를 내쫓다니.

고개를 뽑아들고 원탁우를 넘겨다보니 먹지 않고 쌓아둔 약봉지들이 띄웠다.
이제부턴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해야지.
약봉지를 집으려고 손을 원탁우로 뻗치자 말썽많은 허리가 또 쑤셔났다.
잔등으로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그속에서도 허망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내가 과연 자리를 털고 일어날수 있을가?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주저앉으면 안된다. 련대장 표무강, 돌격 앞으롯!
다시금 약봉지를 집으려고 팔을 뻗쳤다.
조금만 더… 조금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약봉지를 잡으려는 찰나에 옆에서 날아든 다른 손이 먼저 그것을 움켜잡았다.
표무강은 믿어지지 않은듯 두눈을 끔뻑거렸다.
약봉지를 손에 들고있는 사람은 뜻밖에 한정아였던것이다.
꿈을 꾸는것 같았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것이라고 단념하였던 정아가 이렇게 제발로 찾아오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이불속에 손을 넣고 슬그머니 장딴지를 꼬집었다.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하마트면 처녀앞에서 비명소리를 내지를번 하였다.
당황해난 그는 바보처럼 헤식은 웃음을 짓고말았다.
《동, 동무가 어떻게…》
며칠전의 일은 감감 잊은듯 웃음을 머금은 한정아는 흡사 한떨기 진달래처럼 청신해 보였다.
《제가 온게 반갑지 않은게군요.》

표무강은 처녀가 금시 달아날가봐 겁이 난듯 황급히 대꾸하였다.
《그런게 아니요. 너무 뜻밖이다보니…》
《그런걸 전 또 쫓아내려는줄 알았지요? 호호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맑은 웃음소리에 표무강은 씩하고 웃었다.
그러자 어색하던 몸가짐이 자연스러워지고 지구의 저쪽끝에 서있는것 같던 한정아도 퍼그나 가깝게 느껴졌다.
내가 점점 별나게 돼가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표무강은 어쩔수없이 그 흐름에 빨리워들어가고있었다.
한정아의 방조를 받으며 약을 먹고난 표무강은 공연히 환자복을 매만지면서 한정아가 무슨 일로 다시 찾아왔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한정아 역시 무엇인가 터놓으려는 눈치였으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바재이고있었다.
입원실에 어색한 분위기가 깃드는가싶었는데 한정아가 손가방에서 웬 종이장을 꺼냈다.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로 그것을 들여다보던 처녀는 처음은 소심하게, 마감에는 단호하게 내밀었다.
《무강동지, 여기에… 수표해주세요!》
의아해하며 종이장을 읽어내려가던 표무강은 그만 두눈이 뒤집혀졌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은 놀랍게도 결혼등록신청서였던것이다!
《이게 무슨짓이요? 누가 동무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말이요. 엉?》
처녀는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있었다.
표무강은 손에 쥐고있던 결혼신청서를 와락 집어던졌다.
《동문 처녀라는게 부끄럽지 않소? 어떻게 이런짓을 할수 있는가

말이요.》
고개를 소곳하고 서있던 한정아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래요. 전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허지만 이건… 신애언니를 대신하고싶어하는 한 처녀의 진심이예요.》
이렇게 토설한 처녀는 얼른 뒤로 돌아섰다.
세차게 물결치는 처녀의 동그란 어깨!
《무강이!》
숨을 거칠게 내뿜고있던 표무강은 출입문가에 서있는 김홍선을 알아보았다.
고향친구는 뭐가 불만스러운지 고개를 한쪽으로 기웃하고있었다.
《자넨 뭔가? 밤낮 우거지상을 하고 침대에 틀어박혀서 고작 한다는짓이 처녀를 울리고. 그래, 정아동무가 서푼짜리 동정때문에 찾아온줄 아나? 어떻게 처녀의 진정을 모욕할수 있냐 말일세.》
어찌나 격분하였던지 그의 턱은 덜덜 떨고있었다.
표무강은 그렇게 성을 내는 친구를 처음 보았다. 대나무숲이 우거진 고향마을에서 자랄 때도 그렇고 전쟁시기에도 오늘처럼 격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사나이라면 처녀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줄줄도 알아야지. 자넨 정아동무가 어떻게 다시 나타났는지 알기나 하고 큰소리인가?》
김홍선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날… 입원실을 뛰쳐나간 한정아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두발이 어떻게 놓이는지도 모르고 걸었다. 설사 그가 자기의 진정을 받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가슴을 그렇듯 모질게 찢어놓을줄은 몰랐었다.
혹시 그가 내 진정을 영원히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가? 그럼 난 어쩜 좋아?

종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김홍선을 찾아갔다.
《동무야 처음부터 모든걸 각오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쯤한 일에 물러나다니. 진정한 사랑은 노여움을 모르는 법이요.》
역시 전쟁시기 문화부련대장을 한 사람이 달랐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한정아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날부터 해당 기관을 찾아다니며 수속을 거친 다음 병원에 찾아왔던것이다.
물론 표무강은 그 사실을 썩 후에야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친구의 이야기에서 한정아가 다시 찾아온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옆에서 한정아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무강동지!》
그를 바라보던 표무강은 어마지두 놀랐다.
처녀의 손에 자기가 그처럼 입고싶어하던, 다신 입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장령복이 들려있는게 아닌가.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이게… 이게 어떻게…》
《어서 입어보세요.》
장령복을 받아들었지만 표무강은 난처해졌다.
침대우에서 상반신이나 겨우 일으키는 주제에 어떻게 제손으로 군복을 입을수 있단 말인가.
한정아가 말없이 다가와 군복을 입혀주기 시작하였다.
창피한 생각이 들어 꿈틀 물러났던 표무강은 처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와닿자 그만 잠잠해지고말았다.
한정아의 그 스스럼없는 행동은 다심하던 어머니와 헌신적이던 신애를 련상시켰던것이다.
장령복을 다 입자 한정아가 손거울을 꺼내주었다.
거울속에 름름한 인민군장령이 비쳐졌다.
이게 내가 옳긴 옳은가?

《가만 계세요!》

처녀는 베개밖으로 반쯤 나와있는 군공메달을 집어들고 장령복에 달아주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김홍선의 고개가 바로섰다.

《역시 정아동무가 안단 말이요. 허허허!》

앞가슴에서 빛나는 군공메달을 이슥토록 내려다보던 표무강의 눈길은 자석에 끌리운것처럼 처녀의 얼굴로 옮겨졌다.

희망찬 앞날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는 두눈, 힘을 내라고, 끝까지 애국의 길을 걸으라고 속삭이듯 방싯 열려있는 촉촉한 입술.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처녀인가? 이 못난놈이 군복을 벗지 않도록 진심으로 이끌어준 처녀, 나의 생명인 군공메달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떠밀어준 아름다운 정아, 세상에 나를 이처럼 위해준 처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다음순간 표무강은 두눈을 크게 떴다.

한정아옆에 미소를 지은 신애가 조용히 나타난것이다.

(무강씨, 뭘 주저하세요?)

(난…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그 마음을 다 알아요. 허지만 정아는 나보다 더 훌륭한 처녀예요. 그런 처녀가 무강씨곁에 있다면 전 더 바랄게 없어요.)

(신애!)

(부디 정아를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부탁이예요!)

(신애!)

(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약속하오. 내 신애한테 못다한 사랑까지 합쳐 정아를 사랑하겠소.)

(고마워요. 그럼 전 마음놓고 눈을 감을것 같애요.)…

상상에서 깨여난 표무강은 한정아를 정겹게 바라보다가 그만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한채 와락 끌어안았다.

《정아!》

비둘기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몸이 품속으로 들어왔다.

순식간에 두사람은 한몸으로, 영원히 헤여질수 없는 하나의 심장으로 합쳐졌다.

행복에 취한 처녀는 숨을 가쁘게 톺으며 속삭이였다.

《전 표동지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영원히, 영원히 말이예요.》

10

복도층계를 뛰여내리던 표무강은 갑자기 한손으로 허리를 부여잡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으음!—》

신음소리를 토하고있는 그의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고있었다.

한동안 쭈그리고있던 표무강은 장령복자락을 와락와락 헤치고 몸에 차고있던 군관가죽혁띠를 풀어내더니 발치에 내던졌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은지 주먹으로 부상처를 마구 들이쳤다.

뒤미처 달려온 담당간호원은 분별을 잃어버린 그를 보자 놀란 토끼마냥 굳어졌다가 급히 만류하였다.

《환자동지, 어쩌자고 그럽니까?… 제발 진정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였다.

《비키오!》

화가 동한 표무강은 처녀를 왈칵 밀어버렸다.

담당간호원은 바람에 날린 락엽처럼 옆으로 뿌려졌다.

또다시 엄습하는 동통을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은 표무강은 절망에 빠지고말았다.

이젠 페인이 다 되였구나!

헐떡헐떡 숨을 톺고있느라니 불현듯 귀전에 깍깍하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아침, 푸름푸름 밝아오는 창밖에서 까치가 신나게 울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 왜 그런지 마음이 별스러워졌다.
예로부터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안고 하루일과를 맞이하였다.
담당의사의 회진, 투약, 물리치료…
오전시간이 지나가고 오후 첫 시간이 되였을 때 까치가 운것이 우연하지 않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조짐이 나타났다. 말끝마다 규정규정하며 입원실에마저 조용히 드나들던 담당간호원이 깡충거리며 나타났던것이다.
《환자동지, 고급군사학교에 수령님께서 오셨답니다!》
표무강은 힘껏 눌리웠던 용수철마냥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게 정말이요?》
《네, 담당군의동지가 그쪽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걸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은 바람을 불어넣은 풍선처럼 팽팽하게 불어났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서둘러 침대에서 뛰여내린 그는 손을 후들후들 떨며 호실에 걸어놓았던 장령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헤덤비는지 왼쪽팔소매에 오른팔이 들어가는가 하면 단추를 다 채우고보니 단추구멍이 한개가 남았다.
그제서야 병원규정을 잘 지키고 약도 꼭꼭 먹군 하는 《모범환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달음에 달려와 전해준 소식이 예견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것을 깨달은 담당간호원은 당황해났다.
《어쩌자고 그럽니까. 네?》
했으나 이미 엎지른 물이였다.
장령복단추를 다 꿰자 표무강은 적진으로 뛰여드는 병사마냥 맹렬한 기세로 입원실을 나섰다.
《안됩니다. 거기 서십시오!》

표무강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듯 씨엉씨엉 걸어갔다.
허겁지겁 따라간 담당간호원은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어림도 없었다. …
울상을 짓고 발을 동동 구르던 담당간호원이 반갑게 소리쳤다.
《아이, 정아언니!》
정아언니라는 말에 표무강은 숙였던 고개를 쳐들었다.
한손에 음식보자기를 든 한정아가 층계밑에 서있었다.
깡충깡충 층계를 뛰여내린 담당간호원은 그의 손을 붙잡고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쳤다.
알겠다는듯 방긋 미소를 머금은 한정아는 표무강한테로 다가섰다.
《무강동지!》
아픔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있던 표무강은 처녀를 보자 반색을 지었다.
《아, 정아동무요?》
음식보자기를 담당간호원에게 넘겨준 한정아는 애인의 한쪽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호실로 돌아가자요.》
《…》
《그러다 부상처가 도지면 어쩔려구 그러세요?》
씩씩거리던 표무강은 처녀의 손을 뿌리쳤다.
《동무까지?… 그런 말이나 하겠거든 썩 물러나오!》
《네?》
볼편을 씰룩씰룩하던 표무강은 갈린 목소리로 토로하였다.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 우리 고급군사학교를 찾으셨단 말이요. 그런데… 망할 놈의 부상처때문에 여기에 붙잡혀있으니…》
흥분하여 말을 더듬는 그를 보자 한정아는 입술만 꼭 깨물었다.
문득 표무강은 처녀를 향해 손을 쑥 내밀었다.

《정아동무, 날 데려다주오.》
한정아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아, 날 정말 사랑하지?》
사나이의 입에서 쏟아져나온 불같은 질문에 처녀는 주저없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내 부탁을 들어주오. 응?》
담당간호원이 그들사이에 끼여들었다.
《안됩니다!》
그러나 한정아는 이미 결심을 내린듯 입을 열었다.
《영금동무, 무강동진 군사학교에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거예요.》
담당간호원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정아언니, 어쩌자는거예요?》
애인과 뜻있는 눈길을 마주친 한정아는 자신있게 응답하였다.
《걱정말아요. 내가 함께 가겠어요.》
《고맙소. 정아동무!》
한덩어리로 뭉친 두사람앞에서 담당간호원처녀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잠시후 표무강은 사랑하는 처녀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정문앞에서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동통을 가까스로 참으며 힘들게 걷고있던 표무강이 다시금 주저앉은것이다.
《무강동지!》
숨을 가쁘게 내뿜고있는 표무강의 얼굴은 생을 포기한 사람마냥 꺼멓게 질려버렸다.
아, 끝내 수령님을 뵈옵지 못한단 말인가?
앞쪽에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온것은 그때였다.
《표동무!》

고개를 쳐든 그는 몇발자국앞에 서있는 오성국교장을 알아보았다.
순간 목구멍에 가득찼던 격정이 출구를 찾은 용암처럼 입밖으로 왈칵 뿜어져나왔다.
표무강은 비참하게 이그러진 얼굴을 스승의 가슴에 와락 묻었다.
《교장동지, 난…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몸부림치는 제자의 잔등을 말없이 어루만지던 오성국은 활기에 넘쳐 말을 꺼냈다.
《기뻐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에 대한 말씀을 주시였소.》
표무강은 고개를 뒤로 젖혔으나 아직은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오성국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을 이어가시던 수령님께서는 동무가 혹시 주저앉지 않았는지 걱정되시여 일부러 우리 군사학교에 들리시였단 말이요》
《교장동지, 그게 정말입니까?》
오성국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표무강의 얼굴은 환해졌으나 기쁨은 한순간이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졸아들었던것이다.
《난 동무가 한때 맥을 놓고 주저앉았지만 지금은 치료를 열심히 하고 뒤떨어진 진도를 보충하기 위해 공부도 이악하게 하고있다고 보고드렸소.》
오성국의 말에 표무강은 숨을 헐떡거리며 다우쳐물었다.
《수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였습니까?》
오성국은 제자를 정겹게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역시 그 동문 의지가 강하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대시키려고 한다는데 대단히 잘못되였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소.》

《예? 수령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였단 말입니까?》

《그렇소. 수령님께서는 일부 편협한 일군들은 표무강동무가 남으로 나가려 했다고 의심한다는데 그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를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는가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정 그를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께서 보증을 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소.》

《어헉!—》

표무강은 막혔던 숨길이 확 열린듯 숨을 크게 들이쉬였다.

그러다가 참고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옆에 서있는 한정아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정아, 들었지?!… 수령님께서 이 표무강을 변함없이 믿어주고계신단 말이요. 어허허.》

눈물에 흠뻑 젖은 그 웃음소리가 울리자 빨갛게 짓물린 처녀의 눈굽에서도 눈물이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행복한 한쌍의 청춘남녀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던 오성국은 명령조로 말하였다.

《표무강동무.》

《옛!》

표무강은 얼른 몸자세를 바로잡았다.

《빨리 병치료를 끝내고 초소로 돌아와야겠소.》

《알았습니다.》

기백있게 거수경례하는 젊은 장령의 앞가슴에서 사연깊은 군공메달이 번쩍 빛났다.

11

언제나 정결하던 사무실은 담배연기로 꽉 들어찼다.

원래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로성익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뿐더러 방문자들도 복도에 나가 피울것을 요구하군 하였었다.

오늘은 그자신이 창문을 꽁꽁 닫은 사무실안에 들어박혀 연거퍼 《금강》표담배를 피워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표무강을 만나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들은 때부터 그는 헤여나오기 어려운 자책의 소용돌이에 빠져든것이다.

담배연기때문에 쪼프린 눈앞으로 지나온 날들이 흘러갔다.

붉은군대가 철수하자 민족보위성에 찾아갔던 일, 꼭 입대해야겠는가고 따져묻던 《야누스》의 얼굴, 려관을 나오다가 만난 항일빨찌산출신 장령, 그로부터 인민군대에 편입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던 그 순간…

상상의 하늘가에 밝은 별이 솟아올랐다.

그렇다. 공화국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세워주었다. 하다면 나는 마땅히 그 신임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인간을 함부로 믿으면 실패한다.》는 나름대로의 좌우명에 집착하여 과오의 층계를 거침없이 톺아올랐다.

그 층계는 최덕근사단을 들이치자는 표무강과의 충돌에서 끝이 났다. 나는 그가 상급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표무강은 100여리를 달려가 적들을 답새기였다. 만약 그때에라도 자신의 탈선이 어디서 온것이라는것을 알았다면 나의 생은 지금처럼 흘러오지 않았을것이다.

상념은 어느덧 인생의 방향각을 돌려세울수 없는 지경에로까지 자

신을 몰아간 전후시기로 넘어갔다.
전쟁이 끝나자 나는 검찰일군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러던중 표무강의 《월남도주기도사건》을 담당하게 되였다.
나는 그와의 이전 감정은 좋지 않지만 일처리를 원칙적으로 하리라 결심하였다. 한것은 인간적으로는 표무강을 환영할수 없지만 충분한 증거도 없이 사람문제를 처리하는것은 검찰일군의 본분은 둘째치고 초보적인 량심에도 저촉되는 행위였기때문이다. 그래서 부소장의 강요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끌었다. 그후 그 사건은 다른 검사한테 넘어갔고 나중에는 표무강의 제대문제로 번져갔다. 나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었다. 결국 말끝마다 원칙을 부르짖던 나는 매정하고 의리없는 인간으로 되여버렸다.
만일 수령님께서 표무강을 보증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철직당한 부소장과 같은 불건전한 인간들이 결정해버린 그의 제대문제를 숙명이라고 단정하였을지도 모른다. …
뒤늦게야 방안에 담배연기가 꽉 들어찬것을 발견한 로성익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방안에 갇혀있던 담배연기가 좋아라 하고 밖으로 쑥쑥 빠져나갔다. 그와 함께 신선한 저녁대기를 타고 《복구건설의 노래》가 힘차게 들려왔다.
그 선률을 듣느라니 무겁던 머리가 개운하고 가슴이 확 열렸다.
그래, 어서 가자. 저기서 땀을 흠뻑 흘리고나면 어지러운 이 마음도 깨끗해질것이다.
그길로 상급을 찾아간 로성익은 복구건설장에 나가 자신을 단련하겠다고 제기하였다.

×

허정효는 딱딱한 나무침대에 앉아있었다.
지금 그의 상통이 처참하게 이그러진것은 자기의 일생을 망쳐놓은 표무강을 끝내 복수하지 못한 원통함때문이였다.
두시간전 그는 오랜 적수를 만났었다.
고육지계까지 써가며 아득바득 달려들었지만 표무강은 공화국의 큰 신임을 받고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게 되였다고 한다.
《표무강, 내가 졌다. 하지만 지옥에 가서라도 널 물어뜯고야말겠다.》
허정효는 큰 산처럼 우뚝 서있는 그의 기상에 눌리웠으나 달을 보고 짖는 개마냥 울부짖었다.
가소로운 눈길로 원쑤를 노려보던 표무강은 추상같이 말하였다.
《똑똑히 알아두라. 너희들이 아무리 미쳐날뛰여도 우리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끄떡없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 수령이 안겨준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고있기때문이다.》
승리자의 웃음을 지은 적수가 보무당당하게 가버리자 허정효는 침대우에 맥없이 쓰러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옴짝않고 누워있었다.
미칠듯 한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있는 두뇌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왔다. 계획대로 되였다면 표무강은 제편의 손에 총살당했을것이다. 그러나 차도살인은 물거품으로 되고 나는 령어의 몸이 되고말았다. 하다면 어째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였는가? 그것은 상전의 버림을 받았기때문이다. 괘씸하게도 그들은 언제 한번 나를 믿지 않았다. 단지 저들의 리익을 위해 필요하

다고 생각하면 써먹고 그렇지 않으면 단물이 빠진 껌처럼 내뱉았다. 에익, 더럽다!

그의 두눈에서 새파란 불꽃이 튕겨나왔다.

인정하긴 괴롭지만 난 표무강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하였다. 나의 상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이 허정효가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빨갱이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곱게 봐줄순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불현듯 남쪽에 두고 온 녀방송원이 생각났다.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헝클어진다고 임신을 완강히 거절하던 그 녀자는 강한 수면제를 섞은 한잔의 포도주때문에 이 허정효의 씨를 배게 되였다. 내가 북으로 침투할 때 그 녀자의 배가 남산만 했으니 지금쯤 해산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들이건 딸이건 이 아비의 원통한 복수를 해주기만 한다면 그만이다. 그래서인지 황천으로 떠나는 길도 생각보다 외롭지는 않구나!

에익!

비장한 각오를 품고 뛰쳐일어났건만 허정효는 주춤거렸다.

독기가 어린 두눈에 닭똥같은 눈물이 그들먹이 고여올랐다. 비록 모진 결심을 내렸다고 해도 한창나이에 저승으로 가자니 서글펐던 것이다.

미친것처럼 길게 기른 손톱으로 얼굴과 앞가슴을 마구 긁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세게 긁었는지 두볼에서, 가슴에서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한듯 계속 긁어댔다.

이를 부드득 갈던 그는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며 몸을 던졌다.

퍽—

묵사발이 되여버린 몸뚱이가 감방바닥에 나딩굴었다.

이렇게 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순간을 위해 악착스럽게 질주해온 추악한 인간의 한생은 끝나버렸다.

×

며칠후 인천부두가에 신사풍의 사나이가 쓸쓸히 서있었다.

능력부족이라는 딱지를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여가는 에드윈 하불이였다.

서슬이 시퍼래서 달려드는 바다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세상만사를 초탈한 늙은이의 처연한 감회가 비껴있었다.

몇해전 이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얼마나 자신만만하였던가. 다시는 호송병한테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하였으며 부정한 안해와 만나지 않게 될것이라고 단정하였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동정하지 않았으니 오늘 또다시 이 땅을 떠나고있는것이다.

뚜우—

구슬픈 나그네의 심사를 괴롭히듯 불길한 배고동소리가 울렸다.

하불은 자기한테 치욕과 수치만을 안겨준 이 땅에서 겪은 일들이 진저리난듯 어깨를 으쓱하고 배에 올랐다.

마감이야기

1980년대초 가을날 한대의 승용차가 신의주거리를 달리고있었다.

차의 뒤좌석에는 이마가 보기 좋게 벗어진 70대의 늙은이가 비스듬히 앉아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듯 활기있게 설레이는 가로수들, 그 너머로 하늘높이 치솟은 날씬한 고층살림집들, 아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공원…

가는 곳마다 거창하고 보는것마다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이 땅이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있던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참, 표선배님은 지금 큰 간부를 하신다지요?》

《그렇습니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계십니다.》

안내일군의 친절한 대답에 그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사실 이 사람은 표선배님을 찾아뵈울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안내일군은 빙그레 웃었다.

《허 참, 그때 무슨 망녕이 들어서 못난짓을 했는지 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후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가늘게 쪼프린 그의 눈가에 미타해하는 빛이 어렸다.

《그럴가요? 표선배님은 워낙 불같은 성미여서 이 사람을 용서해주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승용차는 신의주려관쪽으로 꺾어들었다.

한편 려관응접실에서는 표무강과 해당 일군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고있었다.

《내가 어째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거요?》

《부위원장동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덕근선생이 조국에 도착하자 제일먼저 부위원장동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기했다는걸 말입니다. 그러니 부위원장동지가 그를 어떻게 대해주는가에 따라…》

표무강은 그런 소린 그만두라는듯 손을 홱 내저었다.

《진심으로 죄과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만이지 내 태도가 무슨 상관이 있소?》

그때 현관쪽에서 경쾌한 경적소리가 울렸다.

《손님이 도착했는데 나가서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해당 일군의 권고에 표무강은 요지부동이였다.

《왔으면 들어오라고 하오.》

《부위원장동지, 그렇지만…》

《동문 무슨 말이 많소?》

나이가 들면 고집으로 산다더니 그의 결심을 꺾을수 없다고 단정한 해당 일군은 혼자서 해외동포를 마중하러 나갔다.

얼마후 이마가 훌렁 벗어진 늙은이가 응접실에 어푸러지듯 들어섰다.

《어이구, 표선배님. 그간 귀체만강하셨습니까?》

그가 몹시 반가와하였지만 표무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도 그 모습은 변신한 호랑이같았다.

당황해난 최덕근은 우뚝 굳어졌다.

돌연 표무강의 입술이 벙긋 열리더니 우뢰같은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왜 인제야 왔소?》

《…》

《그래, 젊었을 땐 민족을 배반하고 못된짓만 하다가 늘그막이 되니 의지할데를 찾아온단 말이요?》

해당 일군이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겼으나 그는 끄떡하지 않

았다.
《원숭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사람의 가죽을 쓰고 어떻게 그럴수 있소?》
줄줄이 쏟아지는 욕설에 어지간히 바빠맞은 최덕근은 황황히 손수건을 꺼내들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표선배님, 이 사람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늦게나마 속죄하고 새 출발을 하고싶어서 렴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표무강의 푸르딩딩한 얼굴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기야 수십년간 쌓인 노여움을 어찌 한순간에 풀수 있으랴.
그를 노려보던 표무강은 품속에서 뭔가 꺼냈다.
겉봉투에 《표선배님 친전》이라고 쓴 오래된 편지였다.
《이 편지가 생각나오?》
그가 넘겨준 편지를 읽어본 최덕근은 허리를 굽석굽석하였다.
《어이구, 표선배님은 이 편지를 여태 간수하고계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잊을것 같소?》
그의 손에서 편지를 앗아든 표무강은 와락와락 구겨던지더니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해하는 최덕근에게 크고 넙적한 손을 척 내밀었다.
《최선생, 이렇게 조국을 찾아왔으니 됐소.》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쉰 최덕근은 그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표선배님!》
《최선생!》
두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것없이 끌어안았다.
그것은 대결과 불신으로 쌓인 두터운 오해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뜨거운 포옹이였다.
《부끄럽습니다. 글쎄 표선배님이 오래전에 선택한 이 길을 이 사람은 이제야 들어섰으니…》
자책에 잠겨있는 그를 너그럽게 바라보던 표무강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선생, 아직 늦지 않았소. 뒤를 돌아보며 울지 말고 앞을 보며 웃으라는 말도 있지 않소.》
내노라 하고 돌아치던 왕년의 결패를 무정한 세월에 녹여버린 최덕근은 어느덧 눈물이 헤픈 늙은이로 변하여 자꾸만 손수건을 눈굽에 가져갔다.
《자,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기요.》
두사람이 쏘파에 앉자 응접실에 드리웠던 무거운 분위기는 가셔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화기가 떠올랐다.
이런저런 이야기끝에 최덕근은 이런 말을 끄집어냈다.
《전쟁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알수 없는게 한가지 있는데… 표선배님은 어떻게 수십년동안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올수 있었는지 그 비결말입니다.》
《비결이라?》
문득 표무강은 손으로 자기의 앞가슴을 가리켰다.
오래된 군공메달을 알아본 최덕근은 영문을 몰라하였다.
저 작은 군공메달이 내가 알고싶어하는 비결이란 말인가?
《이건 수령님께서 나에게 달아주신 군공메달이요.》
《아, 그렇습니까?》
표무강의 두눈에 진중한 빛이 떠올랐다.
《내가 군공메달을 수여받은 시간은 길지 않소. 그러나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의 한생은 오늘처럼 빛나지 못했을거요.》
비로소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린 최덕근은 심중한 낯빛을 지었다.
《이 사람은 해외에 있으면서 표선배님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배님을 직접 만나고싶어서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숨기겠습니까. 만약 표선배님이 제 할 소리를 못하고 눈치를 살폈더라면 이 사람은 실망했을겁니다. 헌데 만나자바람에 거침없이 꾸짖으시니 그 위풍당당한 태도에 이 사람은 마음이 놓였고 앞으로 조국에 영주하려는 결심이

백번 옳았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그럼 됐구만. 하하하!》

어깨를 흔들며 한바탕 웃고난 표무강은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타고 비쳐드는 해빛에 군공메달이 번쩍 빛났다.

그의 얼굴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렸다.

아, 나의 군공메달!

표무강은 귀를 강구었다.

그러자 군공메달의 속삭임소리가, 남은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으로 이어가라는 절절한 당부가 똑똑히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작가의 말

인간의 한생을 한권의 책에 다 담는다는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애국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생의 마지막날까지 오직 조국을 위해 정보로 걸어온 한 인간의 높은 정신력에 깊이 감동되였으며 하여 소설의 주인공과 함께 시련의 고비들을 헤치면서 마침내 마지막페지를 무겁게 넘기였다.

장편소설 《생의 속삭임》은 몇해전에 나온 장편소설 《대대앞으로》의 련속편이다. 《대대앞으로》에서는 이전 《국군》대대장 표무강을 비롯한 의거장병들의 영웅적장거에 대하여 취급하였는데 그후 그들의 생활을 알고싶어하는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련속편을 내놓게 되였다.

나는 장편소설 《생의 속삭임》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연깊은 군공메달을 가슴에 품고 공화국을 진심으로 받들어온 표무강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귀중히 여기는 삶에 대하여, 그 삶을 이루는 영원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

어찌 보면 인간의 한생은 순간들의 련속이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순간인가 하는것이다. 만약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한 순간들이라면 그 인간의 삶은 조국의 버림을 받은 가련한 인생이고 반대로 민족을 위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삶이라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것이다.

바로 소설주인공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정말이지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참된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표무강의 한생이야말로 후회없는 삶, 누구나 부러워하는 참된 삶이다.

장편소설　생의 속삭임

저　자	류 원 규
편　집	성 문 호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7(2018)년 12월 3일
발　행	주체107(2018)년 12월 7일

ㄱ－1416ㄷ

ISBN 978-9946-31-092-3